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분석 연구

박창현·김나영·김지수·최민수·김정현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분석 연구

저 자

박창현, 김나영, 김지수, 최민수, 김정현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 창 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나 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지 수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공동연구원 최 민 수 ((사)코리아통합연구원 이사장)

공동연구원 김 정 현 (전북대학교 조교수)

기타 기여자

기 여 자 김 해 순 (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0-13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분석 연구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엔씨 02)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63-0 9337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일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 중 하나이다. 북한과의 협력과 번영 정책의 핵심은 ‘평화’이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에 발을 맞추어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서도 평화를 중심으로 통일 한반도에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탁아소), 교육의 방향 등을 새롭게 그려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보가 차단되어 자료수집이 어려운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들을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지난 10년 동안의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 관련 연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진은 김정은 시대부터 지금까지 국내외 언론 데이터에서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담론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논의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북한 교양원과 보육원들의 심층면담, 독일 사례 분석, 전문가 델파이조사 등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모든 연구진과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자문으로 참여해주신 다양한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현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셨던 북한 교양원, 보육원, 그리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차

요약 1

I. 서론 15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7
- 2. 연구 내용 21
- 3. 연구 방법 24
- 4. 선행 연구 41
- 5. 연구의 한계점 54

II.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및 제도 분석 57

- 1. 북한 영유아 관련 통계 분석 59
- 2. 북한 영유아 관련 법제도 분석 74
- 3. 북한 유치원 교육 제도 분석 105
- 4. 북한 탁아소 제도 분석 155
- 5. 소결 165

III.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이슈 분석 169

- 1. 국내외 언론 데이터 분석 171
- 2. '로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누리망 분석 203
- 3. 남북한 신문기사 비교 분석: 시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207
- 4. 특별 키워드 비교 분석: '통일', '코로나' 키워드를 중심으로 217
- 5. 소결 221

IV. 통일대비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탐색 1 :

통일 독일 영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변화 분석 223

- 1. 통일 이후 영유아의 돌봄과 양육 및 정책 변화 225
- 2. 독일의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 239

3. 소결	241
V. 통일대비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탐색 2 :	
평화·통일교육과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243
1. 분석 결과	245
2. 소결	272
VI. 통일대비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정책 제언	279
1. 정책 방향과 과제	281
2. 정책 방안 및 전략	293
3.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3단계 통일방안'	298
참고문헌	301
Abstract	311
부록	315
부록 1.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위한 연구 참여자 명단	315
부록 2.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316
부록 3.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319
부록 4. 북한 영유아교육·보육 관련 심층면담 질문지	330
부록 5. 북한 연구 네트워크 분석표	332



표 목차

〈표 Ⅰ-3- 1〉 북한 관련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기준	25
〈표 Ⅰ-3- 2〉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면담 대상자 특성 및 면담일자	27
〈표 Ⅰ-3- 3〉 FGI 면담 대상자 및 주제, 면담일시	29
〈표 Ⅰ-3- 4〉 심층면담 대상자 특성(출신, 지역, 성별, 연령)	29
〈표 Ⅰ-3- 5〉 심층면담의 중점 질문 개요	30
〈표 Ⅰ-3- 6〉 독일 유치원, 기타, 호르트 관계자 심층면담 일정	32
〈표 Ⅰ-3- 7〉 면담대상자 및 기관특성 1	32
〈표 Ⅰ-3- 8〉 면담대상자 및 기관특성 2	33
〈표 Ⅰ-3- 9〉 면담대상자 및 기관특성 3	34
〈표 Ⅰ-3-10〉 면담대상자 및 기관특성 4	35
〈표 Ⅰ-3-11〉 1차,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응답자 특성	37
〈표 Ⅰ-3-12〉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내용 구성	38
〈표 Ⅰ-3-13〉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내용 구성	38
〈표 Ⅰ-3-14〉 소셜 빅데이터 관련 회의일자 및 안건	39
〈표 Ⅰ-3-15〉 간담회 및 자문회의 일자	40
〈표 Ⅰ-4- 1〉 국내외 전체 키워드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순위 30)	42
〈표 Ⅰ-4- 2〉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국책기관 연구 동향	48
〈표 Ⅰ-4- 3〉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학계 연구 동향	51
〈표 Ⅰ-4- 4〉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해외 연구	52
〈표 Ⅰ-4- 5〉 영유아 평화통일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	53
〈표 Ⅱ-1- 1〉 북한 총인구 및 경제활동	59
〈표 Ⅱ-1- 2〉 북한 영유아 인구수 및 성비 (2008년 센서스 기준)	60
〈표 Ⅱ-1- 3〉 북한 탁아소 및 유치원 (2008년 센서스 기준)	60
〈표 Ⅱ-1- 4〉 남북한 출생 및 사망 인구	61
〈표 Ⅱ-1- 5〉 남북한 15~49세 여성 인구	62
〈표 Ⅱ-1- 6〉 남북한 인구 수 및 증감율	63
〈표 Ⅱ-1- 7〉 남북한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 참가율	63
〈표 Ⅱ-1- 8〉 남북한 영아사망률, 5세 이하 사망자, 및 모성사망비	64
〈표 Ⅱ-1- 9〉 북한 유아교육에 등록된 36-59개월 유아 비율 (2017)	66
〈표 Ⅱ-1-10〉 취원 및 취학율	67

〈표 II-1-11〉 학습지원	68
〈표 II-1-12〉 영역별 3-4세 아동 발달	71
〈표 II-1-13〉 가정 내 아동용 도서 및 장난감	73
〈표 II-2- 1〉 남북한 법령 비교 (출산 및 유급휴가, 근로기분 단축, 수유시간)	78
〈표 II-2- 2〉 남북한 법령 비교(교육 및 보육의 이념)	91
〈표 II-2- 3〉 남북한 법령 비교(연령기준)	92
〈표 II-2- 4〉 남북한 법령 비교(시설의 이원화)	92
〈표 II-2- 5〉 남북한 법령 비교(무상보육 시기)	94
〈표 II-2- 6〉 남북한 법령 비교(보육비 또는 교육비 지원)	95
〈표 II-2- 7〉 남북한 법령 비교(시설기준)	97
〈표 II-2- 8〉 남북한 법령 비교(교사자격)	99
〈표 II-2- 9〉 남북한 법령 비교(교사자격)	104
〈표 II-3- 1〉 북한 유치원 높은반 교과서 5권의 하위 내용	109
〈표 II-3- 2〉 북한 유치원 월별 행사 예시	128
〈표 II-5- 1〉 탁아소와 유치원 비교	167
〈표 III-1- 1〉 수집 데이터	171
〈표 III-1- 2〉 불용어 예시	177
〈표 III-1- 3〉 주요키워드 별 연관어 TF-IDF Top 100	184
〈표 III-1- 4〉 필터링 된 연관어	187
〈표 III-1- 5〉 '유치원' 중요 키워드의 매개중심성 결과	190
〈표 III-1- 6〉 '유치원' 중요 키워드 연결고리 분석	191
〈표 III-1- 7〉 '탁아소' 중요 키워드의 매개중심성 결과	193
〈표 III-1- 8〉 '탁아소' 중요 키워드 연결고리 분석	194
〈표 III-1- 9〉 '교육', '보육', '육아' 중요 키워드의 매개중심성 결과	196
〈표 III-1-10〉 '교육', '보육', '육아' 중요 키워드 연결고리 분석	197
〈표 III-1-11〉 '아동', '유아', '어린이' 중요 키워드의 매개중심성 결과	199
〈표 III-1-12〉 '아동', '유아', '어린이' 중요 키워드 연결고리 분석	200
〈표 III-1-13〉 '학교' 중요 키워드의 매개중심성 결과	202
〈표 III-1-14〉 '학교' 중요 키워드 연결고리 분석	202
〈표 III-2- 1〉 데이터 개요	204
〈표 III-2- 2〉 키워드 별 수집 건수	204
〈표 III-2- 3〉 로동신문 중요 키워드의 매개중심성 결과	206

〈표 III-2- 4〉 로동신문 중요 키워드 연결고리 분석	206
〈표 III-3- 1〉 남한언론, 북한언론에 나타난 빈출단어 예시	213
〈표 III-4- 1〉 뉴스/블로그, 로동신문 ‘통일’ 키워드 출연빈도 차이	217
〈표 III-4- 2〉 뉴스/블로그, 로동신문 ‘코로나’ 키워드 출연빈도 차이	219
〈표 IV-4- 1〉 통일 이후 동서독의 영유아 및 호르트 시설의 변화 (베를린 제외), (%)	229
〈표 IV-4- 2〉 통일 이후 독일의 육아지원기관 및 아동 수 현황 (1994~2002)	232
〈표 IV-4- 3〉 동서독에서 2019년 3월 1일에 유아원 (Kindertageseinrichtungen) 및 공적으로 영유아 보육 (Kindertagespflege*)을 지원하는 3세 미만의 영아+	234
〈표 V-1- 1〉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방향성에 관한 문제점	246
〈표 V-1- 2〉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방향성에 관한 정책제언	249
〈표 V-1- 3〉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점	252
〈표 V-1- 4〉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제언	255
〈표 V-1- 5〉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교육과정 관련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258
〈표 V-1- 6〉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사교육의 문제점	260
〈표 V-1- 7〉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사교육에 관한 정책제언	263
〈표 V-1- 8〉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교사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265
〈표 V-1- 9〉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연계 등의 문제점	267
〈표 V-1-10〉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연계 등에 관한 정책제언	269
〈표 V-1-11〉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의 통합 및 학제에 관한 중요도	271

〈표 V-2- 1〉 조사결과 요약표(통일대비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방향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73
〈표 V-2- 2〉 조사결과 요약표(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74
〈표 V-2- 3〉 조사결과 요약표(예상되는 남북한 교육과정 관련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275
〈표 V-2- 4〉 조사결과 요약표(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사교육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76
〈표 V-2- 5〉 조사결과 요약표(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교사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277
〈표 V-2- 6〉 조사결과 요약표(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연계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77
〈표 V-2- 7〉 조사결과 요약표(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의 통합 및 학제에 관한 중요도)	278



그림 목차

[그림 Ⅰ-3- 1] 인터뷰 참여자 모집안내 공고문 예시	27
[그림 Ⅰ-3- 2] 독일 유럽 유치원 건물 사진	33
[그림 Ⅰ-3- 3] 독일 유럽 유치원 입구 사진	34
[그림 Ⅰ-3- 4] 무지개 기타, 유치원 건물 전경 사진	35
[그림 Ⅰ-3- 5] 연구수행절차	40
[그림 Ⅰ-4- 1] 국내 문헌자료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망	41
[그림 Ⅰ-4- 2] 국외 문헌자료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망	43
[그림 Ⅱ-3- 1] 북한 00 유치원 전자교과서 홍보 예시	154
[그림 Ⅲ-1- 1] 노이즈 데이터 예시	172
[그림 Ⅲ-1- 2] 3차 데이터 정제 필터링 키워드 및 필터링 근거	173
[그림 Ⅲ-1- 3] 본문길이 히스토그램	174
[그림 Ⅲ-1- 4] Top10 언론사별 북한육아관련 뉴스 데이터양	174
[그림 Ⅲ-1- 5] 3차 데이터 정제 필터링 키워드 및 필터링 근거	175
[그림 Ⅲ-1- 6] LDA 알고리즘	176
[그림 Ⅲ-1- 7] 문장의 형태소 분석, 정수 변환 예시	177
[그림 Ⅲ-1- 8] 토픽 수에 따른 통일성(Coherence)지표, 복합성(Perplexity)지표 결과	178
[그림 Ⅲ-1- 9] 토픽 예시	178
[그림 Ⅲ-1-10] 토픽 간 유사도	179
[그림 Ⅲ-1-11] 토픽으로 추출된 주제별 데이터 수	179
[그림 Ⅲ-1-12] 토픽으로 추출된 주제별 Top10 단어	180
[그림 Ⅲ-1-13] 남양유업의 북한 영유아 대상 7억원 지원 뉴스 예시	180
[그림 Ⅲ-1-14] 연대별 북한 영유아 실태와 지원	181
[그림 Ⅲ-1-15] '주제 5' 관련 뉴스들의 사진 예시	182
[그림 Ⅲ-1-16] TF-IDF 알고리즘	183
[그림 Ⅲ-1-17] '유치원' 워드클라우드	189
[그림 Ⅲ-1-18] '유치원'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망	191
[그림 Ⅲ-1-19] '탁아소'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192
[그림 Ⅲ-1-20] '탁아소'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망	193
[그림 Ⅲ-1-21] '교육', '보육', '육아'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195

[그림 Ⅲ-1-22] '교육', '보육', '육아'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망	196
[그림 Ⅲ-1-23] '아동', '유아', '어린이'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198
[그림 Ⅲ-1-24] '아동', '유아', '어린이'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망	199
[그림 Ⅲ-1-25] '학교'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201
[그림 Ⅲ-1-26] '학교'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망	202
[그림 Ⅲ-2- 1] 영상, 사진 등의 비핵 텍스트 데이터 예시	204
[그림 Ⅲ-2- 2] 로동신문 빈출단어 Top100 워드클라우드	205
[그림 Ⅲ-2- 3] 로동신문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망	206
[그림 Ⅲ-3- 1] 연도별 남북한 신문기사 추이: 남한 국내신문, 북한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208
[그림 Ⅲ-4- 1] 북한 개학연기에 대한 부산일보사에 뉴스 (출처: 부산일보사, 2020.02.27)	219
[그림 Ⅲ-4- 2] 북한의 신형코로나비루스 예방수칙 방송	220
[그림 Ⅲ-4- 3] 북한의 탁아소 소독사업	220
[그림 Ⅲ-4- 4] 방역대책을 선전하는 로동신문 중 일부 (출처: 로동신문, 2020.09.16)	221
[그림 V-1- 1] LFF 분석결과(현황과 방향성에 관한 문제점)	247
[그림 V-1- 2] LFF 분석결과(현황과 방향성에 관한 정책제언)	251
[그림 V-1- 3] LFF 분석결과(교육과정에 관한 문제점)	253
[그림 V-1- 4] LFF 분석결과(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제언)	256
[그림 V-1- 5] LFF 분석결과(교육과정 관련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259
[그림 V-1- 6] LFF 분석결과(교사교육의 문제점)	261
[그림 V-1- 7] LFF 분석결과(교사교육에 관한 정책제언)	264
[그림 V-1- 8] LFF 분석결과(남북한 교사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266
[그림 V-1- 9] LFF 분석결과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연계 등의 문제점)	268
[그림 V-1-10] LFF 분석결과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연계 등에 관한 정책제언)	269
[그림 V-1-11] LFF 분석결과(통합 및 학제에 관한 중요도)	272

1. 서론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영유아 교육·현황을 분석하고, 기초 자료들을 토대로 통일대비 영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임.

나. 연구 내용

-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선행연구 분석
-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분석
- 북한 유치원 교양원, 보육원 관계자 면담 분석
-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이슈 분석
- 통일대비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탐색
- 통일대비 남북한 영유아교육·보육에 관한 정책 제언

다.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소셜 빅데이터 분석
- 개별 심층 면담 및 FGI 분석
- 전문가 델파이 의견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라. 선행 연구

- 국내 문헌 자료 네트워크 분석

- 전반적으로 북한 영유아 관련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물이 다수이고, 통일교육, 통일, 남북한 비교 연구물, 북한 어린이, 유아통일교육에 대한 연구물들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음.

□ 국외 문헌 자료 네트워크 분석

- 국외 문헌자료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망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로 북한 어린이, 북한이탈어린이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이며, 특히 정신건강, 영양상태, 발달 지연, 치료, 빈곤 어린이, 인도적 지원과 매개되어 있음.

□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해외 연구

-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UN 산하 기관에서 문헌 분석을 한 연구들이며, 특히 인도주의적 접근에 기반한 북한 아동과 여성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원조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룸.

2.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및 제도 분석 1

가. 북한 영유아 관련 통계 분석

□ 일반현황

- 북한의 총인구는 2018년 25.6백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그 중 가임 인구라고 볼 수 있는 15~49세 여성 인구 수는 6.5백만 명으로 추계되었음. 경제활동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1.4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이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18년 현재 70.5%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 현재, 탁아소와 유치원에 재원 중인 영유아 통계를 보면,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아동의 수가 점점 감소하였고, 탁아소와 유치원의 시설 수 역시 감소세를 보였음.

□ 영유아교육과 보육 현황

- 북한은 1975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2012년 9월 25일 제12차 최고인민회의의 6차 세션에서 채택된 법에 따라 2014년 4월 1일부터는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함. 북한의 교육시스템은 초등, 중등, 중등, 고등 교육 및 특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음. 해당 교육시스템에는 탁아소 5년, 유치원 2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의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12년간의 보편적인 의무교육은 1년의 유치원 교육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가 해당됨.

나. 북한 영유아 관련 법제도 분석

□ 북한의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법제도

- 북한의 영유아교육보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이하 「어린이보육교양법」이라고 한다)」이 규율함.
- 제1장은 대한민국 법률의 체계와 비교하자면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우선적으로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이념적 성격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음. ‘혁명의 계승’과 ‘사회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음. 혁명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이 “조국의 미래이며 대를 이은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라는 점과(제1조)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법”(제4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제6조)을 강조하고 있음.
- 나라의 꽃봉오리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슬기롭게 키우는 것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의무임. 국가는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림(제22조).

□ 남북한 법제도 비교 분석

- 남한의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은 국가주의적, 이념주의적 색채가 강함.
-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출생 이후 취학 전 어린이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대체로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통일대비 남북한 영유아관련 법제도의 방향과 과제

- 가장 우선적으로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지의 문제임. 영유아에 대한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은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었음.
- 현 정부에서 유보통합에 관한 논의는 주춤해졌으나, 유보통합 논의는 언제든 지 재점화할 공산이 큼.
- 북한의 아동 관련 법령들은 대체로 추상적인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음. 반면, 남한은 유아교육은 교육부, 교육청의 관할이고, 보육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함.

다. 북한 유치원 교육 제도 분석

□ 북한 유치원 교육의 기본 방향과 특성

- 북한 유치원 교육목적은 김정은 시대에도 역시 이전의 유치원 교육목적과 다름없이 ‘혁명사업을 이어갈 후비대를 양성’하는 것임. 2013년 이후 교육개혁이 있었음도 여전히 유치원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치사상교양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음.
- 유치원 과정에서 어린시절이야기는 별도의 교과서가 있지는 않은 대신 도록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학교 과정에서는 책으로 제공됨.

□ 북한의 유치원 높은반 교과서의 내용과 실행양상

-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어 북한 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통합교과서 5권이 등장하고, 통합교육을 시작함. 이에 기존의 9개 교과목에서 생활주제로 볼 수 있는 5개 교과서로 편찬됨. 이를 살펴보면, 1권 “우리유치원” (4-5월), 2권 “무지개동산”(6-8월), 3권 “참말 좋은 우리나라” (9-10월), 4권 “흰눈이 내려요”(11-12월), 5권 “소학생이 된대요”(2-3월)임.

□ 놀이 교육

-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놀이에는 운동놀이, 춤놀이, 지능놀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모든 놀이들이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동적인 놀이들임.

□ 통합교육의 실천

- 통합교육이란 우리말, 셈세기, 관찰, 정서교육, 노래와 춤, 만들기 등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교과를 의미함. 유치원 낮은반에 대한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제시해주지는 않음. 통합교육은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임.

□ 방과 후 놀이 학습 체계

-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 시간까지 낮은반은 모나무 쌓기, 종합놀이, 조선지도 맞추기 등 지능 놀이감을 주어 그들이 지루함과 긴장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양원이 유도하며 선생님과 함께 교실 청소도 같이하고 낫잡살이불정리도 시키며 시간을 맞추어 나감.
- 귀가한 어린이들을 때때로 가정방문하면 가정의 환경에 따라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가 다름. 상·중위층 집 어린이들은 귀가 후 노트북을 켜놓고 아동영

화를 보며 부모의 지도하에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숙제가 끝나면 어린이들은 인라인(로라 스케이트)를 타러 광장 아니면 로라 스케이트장에 나가 즐겁게 놀이를 함.

□ 수재양성을 위한 특수 어린이들의 교육

- 귀가 후 유치원에서는 수재양성을 위해 특수한 어린이들은 유치원에 남아서 담당 교양원의 지도를 받음. 유치원 교양원의 지도에는 그 어떤 계급의 차이가 적용되지 않음.

□ 북한 유치원 시스템의 전달체계, 재정지원현황

- 북한에서는 오전 돌봄제도가 따로 없음. 교사는 8시에 출근하여 8시 30분까지 조회를 함. 9시까지는 아이들이 체조를 하고 이후 20분 간 수업, 10분 간 휴식을 하게 됨. 세 번째 수업 시간은 간식 시간임.
- 유치원 내 급식실이 있음. 간식은 국가에서 지급됨. 빵, 손가락 과자, 사탕 등 다양하게 지급됨. 단, 도시에 있는 유치원에만 간식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됨.
- 김정은 집권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유치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없으므로 부모의 부담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 이 때문에 교양원은 학부모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북한 유치원 학제, 재정지원현황, 전달체계

- 2012년을 기점으로 기존 의무교육이 11년제에서 12년제로 변경되었으며 유치원 높은 반부터 포함되는 것으로 제도의 변화가 있음. 학제개편 이전에도 유치원 높은반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어있었으며 기존 4년제의 소학교가 5년제로 늘어난 것임.
- 북한 유치원은 낮은반과 높은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입학연령이 낮은반은 만 4세, 높은반은 만 5세인 것으로 드러났음. 만 4세 미만은 탁아소를 다니게 되어 있어 연령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었음.

□ 교양원 자격, 양성체계, 재교육 관리체계

- 북한의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양원 양성은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근거하여 전국 22개 교원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3년제 교양원학과, 도·시·군에 설치된 1년제 교양원양성소, 통신교육체계에 의해서 양성함 유치원의 어린이보육교양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교육지도기관, 지방행정기관, 해당 감독통제 기관이 관장함.

- 도마다 3년제 교원대학이 있으며 교양과와 교원과로 나뉨. 교양과를 졸업하면 유치원 교양원이 되고, 교원과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됨.

□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변화

- 김정은 시대 들어 유치원 통합교육이 특히 강조됨.
- 유치원의 통합교육의 특성과 우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유치원 통합교육에서는 놀이와 관찰, 이야기해보기와 같은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자기의 개성발전을 촉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유치원 교육의 목적을 사회주의 철학에서 개인의 개성발전의 촉진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전의 교육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임.

라. 북한 탁아소 제도 분석

□ 보육의 목적과 방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2013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8호로 수정보충)에 따르면, 탁아소는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의 기간에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탁아소에서 가르치는 내용 및 보육 내용은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옴. 또한 보육원들도 마지막 일과가 끝나면 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됨.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가 수준의 보육 과정을 북한에서는 ‘교수안’이라 함.

□ 북한 탁아소 시스템의 전달체계, 복지 및 보건 체계, 재정지원현황

- 북한의 탁아소 및 유치원 시스템은 시,군,구,동, 리마다 국가책임으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사회주의 헌법에도 구체적으로 체계화가 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경제가 어려워 운영이 어려운 추세임.
- 탁아소 운영에 필요한 지침 및 요령은 보건소에서 내려온다고 함. 탁아소 및 유치원 담당 지도원들은 주로 여성이며,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을 함. 아이들이 아플 경우 의사가 적절하게 돌보고 있는지를 점검함.

□ 보육 종사자 관리

- 탁아소의 교사는 ‘보육원’이라 칭함. 보육원은 대학 졸업장이 없더라도 교수 강습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양성반에서 학습하면 보육원이 될 수 있음.
- 북한의 탁아소에 근무하는 보육원의 양성은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근거하여 중앙의 보육전문학교, 지방의 고등전문학교, 공장 및 기업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학교, 통신교육체제에 의해서 양성됨.
- 보육원 양성 선생들은 2년에 한 번씩 급수시험에 응시하고, 결과에 따라 월급이 올라가기도 함.

3.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이슈 분석

가. 국내외 언론 데이터 분석

□ 데이터 표집

- 데이터 수집은 네이버 뉴스, 네이버 블로그, 구글 뉴스의 채널을 통해 한글뉴스(606,951건), 블로그(715,023건), 영문뉴스(7,286건)의 데이터를 수집함. 한글 검색키워드의 경우, 북한을 반드시 포함하며 유치원, 탁아소, 교육, 보육, 유아, 아동, 학교, 교양원 중 하나 이상의 키워드가 포함된 것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영문의 경우, ‘North Korea’를 반드시 포함하며 kindergarten, nursery, education, childcare, children 중 하나 이상의 키워드가 포함된 것을 대상으로 수집함.

□ ‘유치원’ 및 ‘탁아소’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진행’, ‘강령’, ‘사상’, ‘정책’ ‘김정은’ 등의 키워드를 통해 김정은과 정치사상교육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 또한 ‘인재’, ‘과학’, ‘컴퓨터’, ‘영어’, ‘축구’ 등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북한의 유아교육도 인재 교육과 과학교육, 스포츠 교육, 컴퓨터 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탁아소’ 키워드의 경우 ‘대북’, ‘병원’, ‘세계’, ‘식량’, ‘기금’, ‘영양실조’, ‘유니세프’, ‘의료’ 등 다른 주요 키워드들 보다 ‘지원’에 관련된 노드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행사’, ‘국제’, ‘분유’, ‘결식’, ‘임산부’ 등의 연관어를 통해

사업과 행사 등을 통한 구호적 개념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나. '로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누리망 분석

- 로동신문을 분석을 분석한 결과, 국내 신문기사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지원', '통일', '교류' 관련 키워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업', '발전', '혁명' 등의 키워드들이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음.

다. 남북한 신문기사 비교 분석: 시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 빈출단어 '통일' 비교 분석

- 단어 '통일'은 남한에서는 빈출 수와 비중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하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한에서는 2,043(0.57%), 북한에서는 32(0.02%)로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났음.

□ 빈출단어 '김정은' 비교 분석

- '김정은'이란 빈출 단어는 남한과 북한 모두 빈출 수와 비중이 높게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한에서는 1,420(0.40%), 북한에서는 408(0.25%)로 나타났음.

□ 빈출단어 '의무교육' 비교 분석

- 단어 '의무교육'은 남한에서 338(0.09%), 북한에서는 144(0.09%)로 남한과 북한 모두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줌. 남한에서는 북한의 교육에 대한 소개, 김정은의 교육 정책 등에 대해 주로 언급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교육사업', '김정은', '교원대학' 등과 같은 단어가 의무교육을 언급할 때 많이 표현됨.

라. 특별 키워드 비교 분석: '통일', '코로나' 키워드를 중심으로

□ '통일' 키워드 비교 분석

- '통일' 키워드에 대해서는 남한의 뉴스와 북한의 로동신문에서 큰 차이를 보임. 뉴스/블로그 5,151건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통일' 키워드에 빈도수는 2,043개로 전체 단어 중 0.57% 달하는 비중을 가졌지만, 로동신문의 경우 737건에 대해 32개로 전체 단어 중 0.02%에 그치는 비중임.

□ '코로나' 키워드 비교 분석

- '20년도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 역시 북한에 대해서 북한과 남한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줌. 20년도 초부터 남한에서는 북한의 코로나 대처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어린이, 유아에 코로나 노출에 대해 20.02부터 동년 04월까지 80개에 달하는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됨.
- 북한 내에서의 사망자나 감염자 등의 언급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다른 국가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만 언급함. 하지만, 북한 내에서의 사망자나 감염자 등의 언급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다른 국가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만 언급함.

4. 통일대비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탐색 1 : 통일 전후 독일 영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변화 분석

- 동서독으로 분단된 후 유아원과 유치원은 각기 다른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에 의해 상당히 다르게 발전되었음. 그러나 두 기관들이 프리벨의 놀이에 대한 이해와 교육관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음.
- 동독의 영유아 교육기관은 주로 국가가 또는 국가가 경영하는 공장이나 기업체에서 설립되었음. 일률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점차 개인의 자유가 배제되고 국가의 견고한 정책을 따르게 되었음.
- 서독의 돌봄과 양육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설립하였지만, 교회와 각종 사회복지단체가 자유롭게 설립하였음. 국가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독립적이고 사적인 영유아의 돌봄과 양육 기관을 지지해왔음.
- 통일 이후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 유아교사들은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의 적응 과정이 필요했음. 특히 동독의 일원화된 영유아 돌봄 체계에 익숙해 있던 동독 유아교사들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서독 체계에 적응하기 위하여 따로 훈련을 필요했음.

5. 통일대비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탐색 2 : 평화·통일교육과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 전문가 의견 분석에서는 통일대비 영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성, 교육과정, 교사교육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일 후 예상되는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변화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평화·통일교육은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교육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거의 없어 현재 대체로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연구, 교육의 철학과 목표, 방향성들을 확립하고 활발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세계시민교육과 인권교육 등을 포함하여 포용과 사랑의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누리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관련 활동 자료들도 부족할 실정으로 실제 교육과정 실행시 누락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조사됨.

- 평화감수성을 가진 민주시민교육, 평화공동체 내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누리과정을 개정하여 세계시민교육, 민주정치교육, 공동체 교육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교육을 할 수도 있도록 정확한 정부 지침과 정책 문서가 필요하며, 현장에서는 평화감수성 내면화를 위한 핵심역량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교사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이 형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교수학습방법 및 교육자료 등이 부족하며, 평화와 통일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에 현장 교사들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함.

- 교사교육과정을 대면으로 실시하고, 평화·통일교육 역량 모델 개발과 민주시민교육 학습모델 개발이 필요함.
- 필수교과로 평화·통일교육을 다루어야 하며, 주무부처 통합과 재원 확보가 필요함.
- 남북한 교사양성 제도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교사양성 통합 모델 마련, 남북한 영유아 교사 간 교류 및 소통 채널 확보 하고, 남북한 유아교육·보육의 이질성과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북한 교원간 왕래를 활성화가 필요함.
- 현직교사들을 위해 통일 후의 역사의 재인식과 통일한국의 가치관과 신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재교육도 필요함.

- 남북한의 영유아교사의 자격과 양성제도, 양성기간이 달라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
- 관련 제도와 교육의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국정과제와의 연계의 측면에서 관심 자체가 협소하고 특정 지역 중심의 일회성 행사 형태로 연계되고 있으며,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평화·통일교육은 시민사회나 국정과제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국정과제로 관련 주제의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고, 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통일 초기에는 남북한의 유아교육·보육제도의 일원화보다 남북한의 제도를 그대를 인정하면서 통합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북한 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 연령을 기준으로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계 통합 정비를 위한 기초 연구들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함.
- 남북한 기관운영 및 학제 비교연구, 통합 모델 연구, 용어의 통일을 위한 연구 등이 필요함.

6. 통일대비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정책 제언

가. 정책방안

- 남한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학제개편, 유보통합 논의 필요
- 평화·통일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한 누리과정 개정 필요
-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을 통한 유아 단계 포함
- 유아교육·보육에서 평생교육까지 인권, 민주시민교육, 양성평등교육, 포용 정책과 연계한 평화통일 정치교육 필요
- 영유아 평화·통일교육 관련 시민대상 북한 이해 교육의 재구조화
- 영유아 평화통일 관련 교사교육 제도 개편
-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을 위한 남북한 협의체 구성(유아,교사, 시민단

체, 연구자 포함)

-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필요
- 통일 관련 미래연구 필요
- 북한 영유아교육보육 관련 연구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 개방성 개선 필요
- 육아정책연구소에 북한영유아교육연구센터(가칭) 마련: 정보, 학술연구, 인적 교류 플랫폼 구축

나.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3단계 통일방안'

- '평화 및 교류협력 단계(1단계)'에서는 남북한의 유아교육고 보육관련 정보, 학술,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와 추진체를 구축하도록 함.
 - 민관학 통합 추진체를 일원화하고 관련 통계자료 DB를 구성함. 육아정책연구소에 '북한영유아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고, 남북한 협력과 이질감을 줄이기 위한 남북한 영유아교육보육 용어 정리 및 표준화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
 - 또한 민주시민교육에 기반한 정치교육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갈등해결, 평화교육 등을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학교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 남한의 남남갈등을 줄이기 위해 학제개편과 유보통합, 의무교육 체제 구축을 통일을 대비하여 구상하고, 실천함.
- '남북연합 단계(2단계)'에서는 남북 간 공통된 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협의체를 통한 평화적 교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통의 정책 모델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남북 간 영유아교육보육 관련 본격적인 인적교류와 정보, 연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임.
 - 남북한 제도 통합시 장애요소 및 공동의 목표를 개발하여 함께 단계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배제되도록 하는 것에 선제적 합의를 전제로 남북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제, 법제도, 교사제도 등의 협력과 통합 방안을 제시함.
 -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도적인 원칙에 기초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치적 관계 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교류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 '통일국가 단계(3단계)'에서는 구성원의 이해 증진 및 심리적 이질성의 완화를 위한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함.
- 통일 전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혼란을 줄이고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성이 높고 평등하며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통일 영유아교육보육 제도를 구축함.

I

서론

- 0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 내용
- 03 연구 방법
- 04 선행 연구
- 05 연구의 한계점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일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 중 하나이다. 대통령은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 100년이 되는 2045년까지는 One Korea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평화경제론을 제안하였다. 이는 1차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고, 더 나아가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통일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의미한다. 2019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이 1주년을 넘겼고, 비핵화 정책,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성 등의 여러 대북 정책들이 굴곡은 있지만, 여전히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북한과의 협력과 번영 정책의 핵심은 ‘평화’이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에 발을 맞추어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서도 평화를 중심으로 통일 한반도에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탁아소), 교육의 방향 등을 새롭게 그려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전문대학 2-3년, 대학교 4-6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무교육 기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이다. 취학 전 유아교육의 경우, 2013년부터 누리과정 정책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부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완전 무상교육, 5세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누리과정 정책은 무상교육을 확대하여 사실상 의무교육의 효과를 기대한 바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3년 무상교육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반면, 북한의 교육체제는 1999년 어린이보육교양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정, 2011년 보통교육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정으로 유치원 2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전문대학 2-3년, 단과대학 3-4년, 일반대학 4-6년으로 이루어져 있다(최민수, 1996; 한만길, 2014). 로동신문(2012)을 살펴보면, 북한은 2012년 9월 25일부터 12년제 의무교육 추진을 법으로 정하여

2013년부터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의무교육기간은 유치원 높은반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교롭게도 남한과 북한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추구하고 있는 12년제 의무교육을 2013년을 기점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면담자료와 문헌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만 5세 유치원 높은반은 의무교육이며, 교과서가 존재한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은 통합교육에 기반한 그림책 형식의 새로운 교과서를 기반으로 유치원 교육을 하고 있다. 북한의 유치원 교사인 교양원은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교육계획안을 쓰고, 재교육과 평가도 받는다. 자격과 승급제도도 존재한다. 또한 북한의 탁아소는 100인 이상의 규모일 경우, 의사 선생님이 배치되고, 영유아의 월령에 따라 반을 나누고 발달에 알맞은 보육을 추구하고 있다. 동, 군마다 유치원과 탁아소가 있고 100% 국립 유치원, 국립 탁아소이다.

‘알면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정확하게 북한의 영유아가 어떤 놀이를 하고 놀고, 무엇을 배우는지, 북한의 유치원 선생님인 교양원과 탁아소 선생님인 보육원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 잘 모르고 있다. 우리와 가장 가깝고, 놀랄 만큼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유아교육과 보육제도에 대해 우리는 놀랄 만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분단이라는 장벽에 갇혀 분단 후 60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통일에 대한 노래를 천천히 잊어가고 있다. 우리가 더 이상 통일을 꿈꾸지 않는다면, 미래세대 통일 한반도, 통일 한국을 실현해나가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에 대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연구와 관심은 타 영역에 비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통일대비 남북 간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의 통합 및 협력을 기대한다면, 정보와 인적 교류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들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에 관한 실태 파악과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 기조가 아무리 유연하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 유치원과 탁아소의 교육·보육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자료들은 대북지원단체들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북지원단체들도 북한 탁아소의 개·보수지원, 의료 지원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실질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간 대부분의 북한 영유아 연구들은 대부분 북한 관련 2차 자료,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면담, 국제기구 자료, 기존의 선행연구 등에 기반하여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영유아가 다니는 유치원과 탁아소, 보육원과 교양원의 처우, 북한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실행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들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 영유아에 대한 연구들은 양은 많지 않지만, 역대 정권의 대북 정책 기조와 북한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강조점은 달리하며 주로 정책기관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예컨대,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서문희, 김선화, 박영자(2011)는 북한의 자녀 양육관, 탁아소·유치원 운영 실태를 개괄하였고, 이윤진, 구자연(2013)은 남북한 보육체계, 영유아 및 시설 현황, 보육 목적, 보육과정, 교원양성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이윤진, 김아름, 이민경, 박영자, 김화순(2016)은 남북한 여성가족 통계비교 연구에서 남북한 학제 취원율, 아동수, 기관 규모 등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윤진(2017)은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에 대한 연구를 하여 아동관련 복지영역을 권리 중심으로 통합한 법률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성은(2018)은 북한 영유아 및 아동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조와 발전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북한의 임신, 출산 및 영유아 아동의 보건복지 현황과 실태, 국내외 북한 영유아 및 아동지원 사업의 현황, 북한 영유아 및 아동지원 사업 네트워크 분석, 북한 영유아 및 아동지원 사업의 통합 모델 등을 탐색하였다. 대북 지원 사업의 네트워크의 관계망을 파악하여 지원사업의 발전방안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새롭게 의미있는 접근이다.

한편, 홍승아 외(2016)는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통일 이후 0-5세 아동 돌봄 서비스는 선별이 아닌 보편적 서비스를, 양육수당보다는 보육 서비스를 선호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양옥승(2005, 2012, 2014)은 통일 한국의 표준 유아교육과 보육 제도를 제시해왔고, 교육 복지형 유아교육·보육 체제 구축, 유치원과 보육 시설의 기능 통합, 유치원 기간 학제화, 다문화주의와 평화교육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 보면, 김정은 시대 이후에는 점차 보다 다양한 방식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에 대비하여 체제 간 통합,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연구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추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최근의 연구 동향과 이전 연구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담론이나, 이슈들을 분석하여 남북한 통일 연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金正은 시대에 접어들어 최근까지의 새로운 정책 동향이나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도 있다. 또한 통일대비 영유아교육·보육에 관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그동안 정체되어 담론조차 열려있지 않은 영유아 평화·통일교육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지 학술적으로 연구해나갈 필요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가 차단되어 자료수집이 어려운 북한 영유아교육·보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지난 10년 동안 북한 영유아교육·보육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 관련 연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金正은 시대부터 지금까지 국내외 언론 데이터에서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담론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논의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영유아교육·보육에 관한 최근 동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참고하였다. 국내 언론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누리망을 분석하고 이슈들을 추출하였다. 아울러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체제를 보다 깊이있게 알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에서 유치원 교양원, 탁아소 보육원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을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북한의 현상을 최대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북한 유치원 체제 내에서 배우는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 방법 등이 2013년 이후 변화를 맞이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탁아소의 변화 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황에 기반하여 통일대비 영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미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독일의 통일 전후 영유아교육보육 제도의 변화를 문헌과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였고, 영유아 평화·통일교육과 제도에 관한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영유아 교육·현황을 분석하고, 기초자료들을 토대로 통일대비 영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북한 영유아교육·보

육 현황에 관한 기초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대비 남북한 육아 협력 및 교류 시스템 구축과 북한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 영유아교육·보육 정책의 통일대비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여 부처와 정책입안자들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 내용

가.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선행연구 분석

북한 영유아교육·보육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0년 6월까지 200여 개의 국내외 학술자료의 국문 영문 초록 주제어를 분석하여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북한, 통일, 영유아, 유아동, 어린이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들의 연결망을 분석하고,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책연구기관 보고서, 논문 등의 연구 주제어를 분석하였고, 이를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이상의 자료 중, 북한의 영유아교육·보육 현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 통일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에서 수행한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등 유아동 관련 법령, 정책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수집·분석하였다. 국외 자료로는 국제기구에서 발행한 보고서, 국내외 매체, 대북 지원사업 시민단체(네트워크) 등이 발행한 북한 영유아교육보육에 관한 2차 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데이터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나.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분석

1) 통계, 법제도, 북한 영유아교육·보육제도 내용 분석

북한의 영유아교육·보육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취학 전 영유아와 관련된 법·제도, 영유아교육·보육에 관한 최근 정책의 이슈와 쟁점, 동향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북한의 일반 현황과 영유아교육·보육 현황을 파악하고 남북한을 비교하였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청, 통일부에서 발행하는 각종 통계자료, 운영 편람, 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북

한 영유아 인구수 및 성비, 북한 유치원 및 탁아소 현황, 남북한 출생 및 사망인구, 남북한 여성인구, 유아교육기관 등록 비율, 학습 참여율, 아동발달 정도와 놀이감 보유비율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남북한의 법령 분석을 실시하였다. 북한 영유아교육보육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기 위해 어린이보육교양법, 아동권리보장법 등의 영유아 및 양육 관련 법들을 분석하였고, 남한 법령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 분석을 위해 북한 유치원 높은반 교과서, 교양원 잡지, 어린이보육교양법, 유치원 월간지 꽃봉오리, 교육신문, 노동신문, 관련 교수안 등을 분석하였다.

2) 북한 유치원 교양원, 보육원 관계자 면담 분석

유치원과 탁아소의 교육, 보육과정(프로그램), 운영관리, 교직원 관리, 아동발달 성과, 가족과 지역사회, 김정은 시대에 변화된 점 등을 북한이탈주민 면담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북한 유아교육·보육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북한 유아교육·보육 관련 전문가 11명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의 주제와 범위는 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목적과 최소기준, 재정, 전달체계, 교육·보육과정과 학습 기준, 돌봄, 관련 부처의 지원, 서비스의 질, 교직원의 질, 가족 및 지역사회의 참여, 아동발달과 성과, 놀이 등이었다. 또한 북한 유치원 높은반 교과서 분석의 경우, 북한 유치원 높은반 교과서에 대한 문헌분석과 이를 현장에서 실행해본 경험이 있는 교양원의 면담을 통해 교과서의 실행양상을 파악하였다.

다.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이슈 분석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의 정치사회 현황과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언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국내 외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여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과 정책, 동향에 관한 핵심 이슈들을 발굴하고,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새로운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근 이슈가 되는 코로나와 통일 담론에 관한 10년간의 추이 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북한 매체를 비교 분석하여 관련 이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라. 통일대비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탐색

1) 통일 전후 독일 영유아교육·보육 제도의 변화 분석

가) 문헌 내용 분석

연구진들은 독일이 통일이 되고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서독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현재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독일의 유치원, 기타, 호르트 담당자들을 심층면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심층 면담 내용들을 독일 문헌 조사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상의 근거자료들을 토대로 독일통일 이후 30년간 변화된 서독과 동독 지역 유치원과 유아원, 및 기타 체제를 파악하고, 통일 한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의 통합 과정에서 동독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의 돌봄과 양육 및 정책을 고찰하였다. 그 후 지속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을 조명하면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나) 심층면담을 독일 유치원 및 기타 관계자 면담 분석

독일이 통일된 지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독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변화된 모습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교직원 면담을 포함하였다. 정치사회적 변화, 서독과 동독의 유치원, 어린이집 체제의 변화, 시사점 등을 연구의 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전문가 의견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2) 평화·통일 교육과 제도에 관한 전문가 의견 분석

북한의 유아교육·보육 현황을 기초로 통일대비 육아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 통일 후 예상되는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 바람직한 대비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 통일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제도와 유아평화·통일교육의 문제점, 개선방안, 예상되는 통일 한국의 변화 등을 도출하였다.

마. 통일대비 남북한 영유아교육·보육에 관한 정책 제언

이상에서 연구한 북한 유치원과 탁아소 제도의 현황과 면담자료, 국내외 언론 데이터 결과, 사례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등에 기반하여 남북한을 비교하면서 통일대비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방향과 관련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추후 통일을 대비하여 우리가 준비할 점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문헌분석

1) 선행연구 분석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수집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북한영유아교육보육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 학계연구, 해외연구, 영유아평화·통일교육 관련 연구 그룹으로 묶어 정리하였다.

지난 10년간의 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술검색엔진 리스포유와 구글스칼라에서 2011년부터 2020년 6월 3일(수집종료일)까지의 자료들 중에서 ‘남북한 영유아’, ‘남북한 유아교육’, ‘남북한 보육’, ‘남북한 통일교육’, ‘남북한 보건’, ‘남북한 영양’, ‘North Korea’, ‘young children’, ‘unification’, ‘defectors’, ‘refugee’의 키워드로 추출된 200여 건의 문헌자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추출된 연구물들에서 초록에 제시된 주제어들을 중심으로 문헌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제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물은 제목에서 3개의 주제어를 도출하여 분석 키워드를 구성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아동, 북한이탈영유아 등은 북한이탈어린이로, 법령 분석 등에 관한 주제들은 법제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분석의 효과를 높였다. 북한 영유아 관련 연구들은 양이나 연구의 범위 자체가 넓지 않고 관련 주제어들도 ‘북한이탈어린이’, ‘북한이탈주민’, ‘통일’, ‘남북한’ 등의

키워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매개중심성이 낮은 키워드들이 다수였다.

통계처리방법으로는 분석도구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도출하였으며, 연결망을 시각화하였다.

〈표 I-3-1〉 북한 관련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기준

구분	내용
학술검색엔진	리소포유, 구글스칼라
기간	2011년~ 2020년 6월(6월 3일:수집종료일)
키워드	남북한 영유아, 남북한 유아교육, 남북한 보육, 남북한 통일교육, 남북한 보건, 남북한 영양
키워드 (영문)	North Korea, young children, unification, refugee, defectors

2) 통계 및 법제도 관련

통계 및 법제도 관련 자료들도 영유아교육보육관련 자료들에 한정하여 자료를 발췌하고, 연구진과의 회의를 거쳐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북한의 법제도는 우리나라의 법령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하도록 하였다.

3) 북한 자료 분석

북한 영유아교육보육 관련 자료들은 코로나 19로 공공기관인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터의 휴원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북한자료센터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북한 관련 자료들은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으나, 2-3년 이전 자료들도 모두 포함하였다. 이는 김정은 시대 전후로, 놀이교육과 통합교육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복사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방대한 자료를 전사하기 어려워 교원수첩, 꽃봉오리, 교양원 잡지, 북한 유치원 높은반 교과서 등과 같은 북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통합교육과 유치원 교육에 한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발췌하여, 원본 전사 작업을 하였다.

4) 독일 사례 분석¹⁾

독일 사례에 관한 문헌분석의 목적은 독일의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의 돌봄과 양육 및 정책을 논하여 통일대비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의 돌봄, 양육 및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문헌분석은 연구진과 독일 현지 전문가가 6월부터 기획하여 10월까지 진행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독일 현지에서 면담한 직접 경험자들의 면담 내용을 인용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아울러 연구진들은 독일의 통계청 등의 추가 자료들을 번역하고, 연구하여 내용을 함께 수정·보완해 나갔다.

나. 소셜 빅데이터 분석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국내외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관련 키워드를 수집하여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고, 뉴스와 블로그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구글링을 통해 관련 키워드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필터링의 정교성을 높이고, 국내외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초자료들을 시각화하였다. 온라인 상에 업로드된 북한 영유아 관련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후, 추이분석, 워드 클라우드 분석, 관계망 분석, 시계열 분석 등을 실시하여 북한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 개별 심층 면담 및 FGI 분석

1) 북한이탈 교양원, 보육원 관계자 면담

가) 표집 및 면담 대상자 특성

본 연구에서 면담 대상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및 영유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들로 한정하였다. 북한에서 교양원, 보육원, 탁아소 소장 및 의사, 또는 책임자 역할자, 소학교 교사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다. 면담대상자는 총 11명이었으며, 대면, 비대면, 서면의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총 28회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자 표집 방법으로 눈덩이표집, 목적표집을 실시하였다. 통일 연구자와 통일부 관계자를 통해 면담 대상자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탁아소 경

1) 독일사례의 경우, 현지 전문가인 김해순 교수님(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 교수)의 기여가 컸음. 김해순 교수님은 독일 관련 자료수집과 원고 작성, 심층면담에 크게 기여하셨음.

힘이 있는 보육원 표집과 양강도 이외의 교양원 표집에 어려움이 있어, 북한이탈 주민들을 위한 누리망인 '00온 사이트'에 면담대상자 공개모집을 실시하였다. 공개모집 공고문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림 I-3-1] 인터뷰 참여자 모집안내 공고문 예시

육아정책연구소

인터뷰 참여자 모집안내

| 대상 | * 김정은 시대 탈북민으로 한정

- 1) 탁아소 소장 혹은 보육원 출신
- 2) 교원대학 교양과(유아교육 전공) 교원(교수) 출신
- 3) 유치원 원장 혹은 교양원 출신

| 문의 |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부연구위원(책임연구자),
김지수 연구원 02-398-7718 / jskim@kicce.re.kr

<표 I-3-2>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면담 대상자 특성 및 면담일자

대상	소속	특성	면담일자
최○○	전) 북한 교양원	- 양강도 해산시 소재 유치원 근무경험 - 김정은 시대 탈북	2020.5.18. 2020.5.20. 2020.6.12.~6.15.(서면)
김1○○	전) 북한 탁아소 소장	- 양강도 해산시 소재 탁아소 근무 경험 - 김정일 시대 탈북	2020.5.22. 2020.5.26. 2020.6.25.~6.26.(서면) 2020.9.20.(FGI) 2020.10.20.(FGI)

대상	소속	특성	면담일시
박○○	전) 북한 탁아소 의사	- 양강도 해산시 소재 탁아소 근무 경험 - 김정일 시대 탈북	2020.5.29. 2020.6.29. 2020.9.20.(FGI) 2020.10.20.(FGI)
한1○○	전) 북한 교양원	- 양강도 해산시 소재 유치원 근무경험 - 김정은 시대 탈북	2020.7.27.
강○○	전) 북한 교양원	- 양강도 김정숙군 소재 유치원 근무경험 - 김정은 시대 탈북	2020.8.10. 2020.9.21. 2020.10.6.(FGI)
김2○○	전) 북한 교양원	- 함경북도 회령시 소재 유치원 근무경험 - 김정일 시대 탈북	2020.8.27.~8.31.(서면)
한2○○	전) 북한 교양원, 인민학교 교사	- 함경남도 함흥시 소재 유치원 근무경험 - 김정은 시대 탈북	2020.9.12. 2020.9.16. 2020.9.21.(FGI)
최○○	전) 북한 교양원	- 평안남도 맹산군 소재 농촌유치원 근무 경험 - 김정은 시대 탈북	2020.9.12. 2020.9.17.
신○○	전) 고등중학교 교사	- 함경북도 청진시 소재 고등중학교 근무 경험 - 김정은 시대 탈북	2020.9.21.(FGI)
정○○	전) 북한 보육원	- 함경북도 온성군 소재 탁아소 근무경험 - 김정은 시대 탈북	2020.10.5. 2020.10.6.(FGI)
김3○○	전) 북한 교양원	- 함경북도 연사군 소재 유치원 근무경험 - 김정은 시대 탈북	2020.10.9. 2020.10.16. 2020.10.20.

참고: 1) 탈북자 총 11명, 같은 성씨(김 3명, 한 2명)는 숫자로 구분함
2) 면담 횟수는 총 28회(개별면담, 집단면담, 서면자문 포함)

개별심층면담 보다 FGI를 통해 더 깊은 면담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담 대상자가 친숙하거나, 비슷한 경험을 가진 면담 대상자들을 2명씩 파트너를 구성하고 집단 포커스 면담을 진행하였다. 사전에 면담대상자들에게 면담의 내용과 면담 파트너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북한 탁아소와 유치원, 유치원과 학교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3개의 주제(북한 탁아소, 북한 유치원, 북한 학제 및 학교)를 설정하고, FGI를 진행하였다. 북한 탁아소 주제의 경우, 다른 면담 대상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워 동일 면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2회 FGI를 실시하여 보다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3-3〉 FGI 면담 대상자 및 주제, 면담일시

대상	소속	주제	면담일시
김100	전) 북한 탁아소 소장	북한 탁아소	2020.9.20.(FGI) 2020.10.20.(FGI)
박00	전) 북한 탁아소 의사		
강00	전) 북한 교양원	북한 유치원	2020.10.6.(FGI)
정00	전) 북한 교양원		
한200	전) 북한 교양원, 인민학교 교사	북한 학제 및 학교	2020.9.21.(FGI)
신00	전) 고등중학교 교사		

참고: 1) 같은 성씨(김 3명, 한 2명)는 숫자로 구분함

이상의 연구에 참여한 면담 대상자 11명의 개인 특성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신의 경우, 교양원은 8명(72.0%), 보육원/탁아소 소장 2명(18.0%), 고등중학교 교사 1명(10.0%)이었다. 지역의 경우, 양강도 5명(45.0%), 함경도 5명(25.0%), 평안도 1명(10.0%)이었다. 성별은 모두 여자였다. 연령의 경우 평균은 46.6세였고, 20대가 2명(18.0%), 30대가 1명(10.0%), 40대가 3명(27.0%), 50대가 3명(27.0%), 60대가 2명(18.0%)였다.

〈표 I-3-4〉 심층면담 대상자 특성(출신, 지역, 성별, 연령)

구분	빈도 및 백분율		
	빈도(명)	비율(%)	
출신	교양원	8	72.0
	보육원/탁아소 소장	2	18.0
	고등중학교 교사	1	10.0
지역	양강도	5	45.0
	함경도	5	45.0
	평안도	1	10.0
성별	여자	11	100.0
연령 (평균: 46.6세)	20대	2	18.0
	30대	1	10.0
	40대	3	27.0
	50대	3	27.0
	60대	2	18.0

나) 면담 절차

심층면담은 5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은 북한 영유아교육·보육의 구체적인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개인 또는 집단 면담 형태로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은 사전 면담 가이드 제공 및 면담 승인을 받고, 면담 일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면담 일정과 함께 면담 장소를 결정하였다. 면담 장소는 제보자가 면담참여 및 응답에 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제보자가 원하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대면 면담시간은 대략 3시간 내로 하고, 사전에 제공된 면담 질문지 상의 면담 질문을 순차적으로 질문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동이 어려운 경우, 서면과 전화를 통한 면담을 보완하여 진행하였다.

추천받은 북한 관련 전문가들과의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북한 영유아 교육 보육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전문가 면담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코로나 19로 직접 면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 면담 또는 서면을 통해 자문을 구하였다. 면담 진행 초기에 정보 동의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면담 가이드 상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녹취 허락, 전사 내용 재검토, 연구분석 결과의 제공 등에 대한 약속도 설명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다음의 정보 수집 포인트를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준비하여 실시하였으며, 심층면담 자료와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다음과 같은 정보수집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표 I-3-5〉 심층면담의 중점 질문 개요

구분	면담 중점 질문
연구참여자 개인특성배경	- 귀하는 북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 교양원, 보육원 등 근무연한, 담당학급, 역할, 소속 유치원, 탁아소 현황 등
북한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목적과 학습 표준(프로그램 등)	- 북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본 방향과 목적,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은 어떠합니까? (방과후 과정 포함) - 북한의 유치원 높은반 교과서의 내용과 실행양상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가르치나? - 통합교육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 교육계획안 작성, 관리, 평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 북한에서는 영유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 북한 영유아들은 무슨 놀이를 합니까? (놀이감, 자유놀이, 교육과정 연계 등)

구분	면담 중점 질문
북한 유아교육 보육 시스템의 전달체계, 재정지원현황,	- 북한의 유치원과 탁아소는 어떻게 운영되나? (하루일과, 급간식, 낮잠시간, 등원하원시간, 행사 등) - 북한의 학제와 재정지원현황, 전달체계는 어떠합니까?
교직원 관리	- 교양원, 보육원 양성체계, 재교육 관리체계 - 교사월급, 근무시간 등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 수준	- 가족, 지역사회와 유보 시스템의 관계성
아동발달의 성과	- 아동발달 관리, 성과 등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변화	-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변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또는 제도가 있다면, 또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한반도 통일 예상	- 통일이 된다면, 영유아교육보육 체계는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기타	- 면담시 새롭게 알게된 점들에 관한 질문 추가

2) 독일 유치원, 기타, 호르트 관계자 심층면담

가) 표집 및 면담 대상자 특성²⁾

통일 독일의 영유아 교육·보육의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통일 독일의 동독, 서독지역의 유치원과 기타, 호르트를 방문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최근 독일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의 특징상 유치원과 영유아를 혼합하여 전일제 교육과 보육을 실시하는 기타가 다수였고, 호르트의 경우에도 유초등을 함께 돌보는 경우도 많았으므로 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0-2세를 위한 유아원(크리페)은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유아원(크리페)은 줄고 있는 추세이고, 대부분 기타에서 혼합연령으로 통합보육하는 경우가 많아 심층면담에서는 제외하였다. 독일 유치원, 기타, 호르트 관계자 심층 면담 대상자와 소속, 면담일자 및 장소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2) 독일의 심층면담자들은 자신의 사진과 이름에 대한 비공개에 동의하고 면담을 실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름을 이니셜로 처리하였고, 기관 사진만을 공개하였음을 밝힘.

〈표 I-3-6〉 독일 유치원, 키타, 호르트 관계자 심층면담 일정

	면담 대상자	소속	면담일자(장소)
1	Ms. M.	전 초등학교 방과후 (호르트) 교사	2020.8.17. 2020.8.24. (베를린 피노 학교 앞 카페)
2	Ms. L.	키타(유치원) 책임자	2020.08.18. (유로파 유치원, 키타)
3	Ms. S.	키타(유치원) 책임자	2020.08.18. (레겐보겐 유치원, 키타)
4	Ms. M2.	키타(유치원) 교사	2020.08.25. (유로파 유치원, 키타)

독일통일 이후 30년간 변화된 서독과 동독 지역 유치원과 유아원, 및 키타 체제를 파악하고, 통일 한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 유치원, 키타, 호르트 관계자 심층 면담 대상자와 소속, 면담일자 및 장소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면담대상자 1: Ms. M.

〈표 I-3-7〉 면담대상자 및 기관특성 1

면담 대상자	Ms. M., 피노우 초등학교 (Finow Schule) 전 방과후 교사
면담대상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대상자는 Ms.M.은 68세 여성으로 정년퇴임한 방과후 교사였음(독일은 65세 정년퇴임). ○ 피노우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방과후 반과, 초등 호르트 아동들을 통합하여 돌봄을 제공한 방과후 교사였음.
소속기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노우 슐레(Finow Schule, Schoeneberg, Berlin) 초등학교는 1969년에 서베를린에 설립되었으며, 베를린이 다문화사회화 되면서 이에 맞추어 1994~1995년에 다문화 가족 아동을 돌보는 돌봄 호르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 ○ 통일 후 베를린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져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였다고 함. 이 학교에는 일반 취학 전 1년 유아를 위한 유치원이 있었음. 취학전 1년 유치원(반)은 한 학급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로의 과도기적 역할을 했으며, 오전 유치원 프로그램과 오후 호르트가 존재하였음.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일은 2020년 8월 17일, 24일, 베를린 피노 학교 앞 카페에서 이루어졌음. ○ 학교 내에서 인터뷰를 하려면 베를린시 교육청에서 허락을 받아야한다고 했고, 코로나 19 대응행으로 학교 내에서 인터뷰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임.

(2) 면담대상자 2: Ms. L.

〈표 I-3-8〉 면담대상자 및 기관특성 2

면담 대상자	Ms. L.
면담대상자 특성	Europa Kindergarten(유럽유치원), 유치원 책임자
소속기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ropa Kindergarten(유럽유치원). 영아, 유아, 취학 전 아동, 종일제, 사립유치원 ○ 1976년에 “Max Moritz” 유치원으로 시작. 진보적인 부모가 모여서 시작하였음. ○ 베를린 다문화사회를 위해 시에서 다문화 유아 기관의 전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도에 유럽유치원으로 전환하였음 이 유치원은 베를린 시에서 인정한 사립유치원임. ○ 시 교육지침에 따라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수행하고 있음. 사립유치원이지만 받았던 교사의 월급은 베를린 시에서 지원되고, 유치원을 위해 예컨대 책상 구입 등에 필요한 지원비는 유치원 책임자와 동료들과의 합의 아래 사용되고 있음. ○ 다양한 언어(독일어, 영어, 프랑스)가 핵심이며, 언제나 두 교사가 원어민인 독일어-영어 교사 또는 독일어-프랑스어 교사가 한 그룹에서 유아를 돌보며 두 개 언어로 교육을 함. ○ 교육 내용과 분야로는 언어, 수학(물건 등을 가지고 많고 적고 크고 작고 등의 분간과 인식 정도), 음악, 체육, 사회 및 자연 과목(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인간, 동물, 공기, 물, 식물, 기후 등)이 있다. 음악, 체육, 등의 수업은 외부 전문 교사가 와서 함. ○ 유치원비에 대한 유아의 부모들의 자가 부담은 없고, 단지 식비로 한 달에 23유로 지불함.
비고	면담일: 2020.08.18. 면담장소: 유로파 유치원, 기타

[그림 I-3-2] 독일 유럽 유치원 건물 사진



참조: 2020년 8월 25일 현지 촬영

[그림 I-3-3] 독일 유럽 유치원 입구 사진



참조: 2020년 8월 25일 현지 촬영

(3) 면담대상자 3: Ms. S.

〈표 I-3-9〉 면담대상자 및 기관특성 3

면담 대상자	Ms. S.
면담대상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 S.는 무지개 유치원 및 키타(Regenbogen Kita, Kindergarten) 책임자 ○ 유치원 책임자인 Ms. S.는 동독에서 태어나서 동독에서 유치원을 다녔고, 거기서 유치원 교사가 되어 통일 후 과도기에 동독 유치원에서 근무하다 2013년에 현재 서독 유치원에 채용되었다고 한다.
소속기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지개 키타, 유치원(Regenbogen Kindergart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유아, 취학 전 아동, 종일제, 시립 유치원 ○ 유치원은 베를린 시에 속하며, 베를린 시의 교육프로그램을 토대로 자립적으로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형성하여 수행하고 있다. 유치원 내에는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였다. 시립 유치원으로 유치원 교사는 시 공무원으로 시에서 채용한다고 하였다. ○ 시에서 유치원 운영비를 배정받으면, 필요에 따라 유치원 책임자가 비용을 배정한다. 유아의 부모들에게는 유치원비의 부담은 거의 없으며, 단지 식비로 한 달에 23 유로를 지불한다고 한다. ○ 교육 분야는 언어, 수학, 음악, 체육, 사회 및 자연 과목이다.
비고	면담일: 2020.08.18. 면담장소: 레겐보겐 유치원, 키타

[그림 I-3-4] 무지개 키타, 유치원 건물 전경 사진



(4) 면담대상자 4: Ms. M2.

〈표 I-3-10〉 면담대상자 및 기관특성 4

면담 대상자	Ms. M2.
면담대상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유치원(Europa Kindergarten), 유치원 교사 ○ Ms. M2.는 동독에서 태어나서 동독에서 유치원을 다녔다. 동독에서 유치원 교사와 정은 3년이었는데, 1년 다니던 중 통일이 되어, 2년 차부터는 서독의 유치원 교사 과정을 다니고 졸업시험을 보았다.
소속기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기관: 유럽 유치원(Europa Kindergarten) - 영아, 유아, 취학 전 아동, 종일제, 사립유치원
비고	<p>면담일: 2020.08.25. 면담일자: 유로파 유치원, 키타</p>

나) 면담 절차

코로나 19 대유행과 연구계획 및 예산의 한계로 연구진들이 독일 현지를 직접 방문할 수 없어 독일 현지 전문가의 연구 협력을 통해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을 직접 실시한 현지 전문가는 독일의 전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교 교수 출신의 노련한 통일 연구자로서 연구진과 면담내용과 일정, 대상자 섭외에 대해 비대면 회의, 온라인, 서면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협력하였다.

현지 전문가는 40여 년간 독일에 거주하면서 동서독 유치원과 키타를 모두 경험하였다.

사례조사로 선정된 기관은 사전에 연락하여 연구목적, 사례조사 방법, 정보보호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사례조사 참여의 허락을 구하였다. 사례분석의 경우, 독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 유치원(키타) 책임자 2명, 유치원 및 키타 교사 1명, 호르트 교사 1인을 면담하였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유치원과 키타, 호르트 내부 면담은 어려웠으며, 면담 약속도 재설정되거나, 취소되는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에 더 많은 교육자와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면담은 2020년 8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현장 전문가는 매차 진행된 면담 내용을 연구진과 공유하고, 다음 면담 내용에 환류하는 과정을 거치며, 심층면담의 내용의 방향성을 유연하게 진행해 나갔다.

라. 전문가 델파이 의견조사

1) 응답자 특성

연구수행을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가 20명을 선정하였으며, 1차와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전문가 패널 20명은 영유아 관련 북한, 통일, 평화교육 관련한 연구 경험자, 관련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현장 전문가,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참여 동의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20명의 응답자 개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20명의 경우 대학에 근무하는 경우가 13명(65.0%), 유치원 및 시민단체에 근무하는 경우가 7명(35.0%)이었다. 학위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15명(75.0%), 석사학위 소지자 1명(5.0%), 학사 학위 소지자는 4명(20.0%)였다. 전공은 유아교육이 15명(75.0%), 아동가족학 2명(10.0%), 기타 전공이 3명(15%) 였다. 성별은 여자가 19명(95.0%)으로 대다수였고, 남자는 1명(5.0%)이었다. 연령의 경우 평균은 54.5세였고, 50대가 1명(5.0%)로 다수였다. 60대와 40대는 4명(20.0%), 30대는 1명(5.0%)으로 소수였다.

〈표 I-3-11〉 1차,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및 백분율	
		빈도(명)	비율(%)
소속기관	대학	13	65.0
	유치원 및 시민단체	7	35.0
학위	박사	15	75.0
	석사	1	5.0
	학사	4	20.0
전공	유아교육	15	75.0
	아동가족학	2	10.0
	기타	3	15.0
성별	여자	19	95.0
	남자	1	5.0
연령 (평균: 54.5)	30대	1	5.0
	40대	4	20.0
	50대	11	55.0
	60대 이상	4	20.0

2) 조사절차 및 조사지 내용 구성

전문가 델파이 1차 조사는 전문가가 생각하는 정책대안이나 중요 요소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델파이 조사 문항은 개방형으로 개발되었다. 1차 조사결과와 연구진의 이론적 검토 결과를 결합하여 2차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1차 조사 기간은 2020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e-mail 조사,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제시된 조사항목에 대한 양적 의견 조사로 문항에 대한 중요도와 동의정도를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기간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 7일 동안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e-mail 조사,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였다.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는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의 내용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3-12〉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내용 구성

구분	문항	질문내용
I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서의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과 개선 방안	1.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평화·통일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2.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구성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해 주세요.(현황 및 방향성, 프로그램, 교사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 칸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II	통일이 된다면 예상되는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변화에 관한 시나리오	-통일이 된다면 예상되는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변화에 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주시고, 예측되는 문제점과 바람직한 대비 방안(방향성, 교육과정, 교사양성 및 재교육 시스템, 기관 통합 및 유보통합, 학제) -예측되는 문제점과 바람직한 대비 방안(방향성, 교육과정, 교사양성 및 재교육 시스템, 기관 통합 및 유보통합, 학제)
III	기타 추가 의견	-기타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IV	개인특성배경	-소속기관, 연령, 성별, 학력, 근무경력

〈표 I-3-13〉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내용 구성

구분	문항	문항수
1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방향성에 관한 문제점	14
1-1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방향성에 관한 정책제언	20
2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점	12
2-1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제언	16
2-2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교육과정 관련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10
3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사교육의 문제점	9
3-1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사교육에 관한 정책제언	24
3-2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교사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3
4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연계 등의 문제점	7
4-1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연계에 관한 정책제언	6
5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의 통합 및 학제에 관한 중요도	13
총계		134

2) 조사방법 및 통계처리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진은 회의를 거쳐 질적분석을 실시하였고, 개방형으로 서술된 내용들에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다룰 유의미한 문항들을 추출하였다. 2차조사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Cronbach의 α 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차 조사의 134문항 전체의 신뢰도 평균은 .96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는 평균, 표준편차, 내용타당성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nce: CV)를 도출하였다. 평균이 높으면 델파이 조사 문항에 대한 중요도 평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CVR은 델파이 조사 문항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통계량이다. CVR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의 수에 따라 최소값이 결정되는데(이경진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2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가 20명이고, CVR의 판단기준을 표본수에 따라 제시한 Lawshe(1975)의 기준에 따라 0.42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변이계수인 CV는 표준편차(σ)를 산술평균(μ)로 나눈 것이다. CV값이 0.5보다 낮을 경우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델파이 조사의 중요도와 CVR을 교차하여 각각의 평균과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문항으로서의 중요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주요 문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LFF(Locus for Focus)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 방향 설정, 면담내용 구성, 소셜 빅데이터 분석, 정책 시사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가,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21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표 I-3-14〉 소셜 빅데이터 관련 회의일자 및 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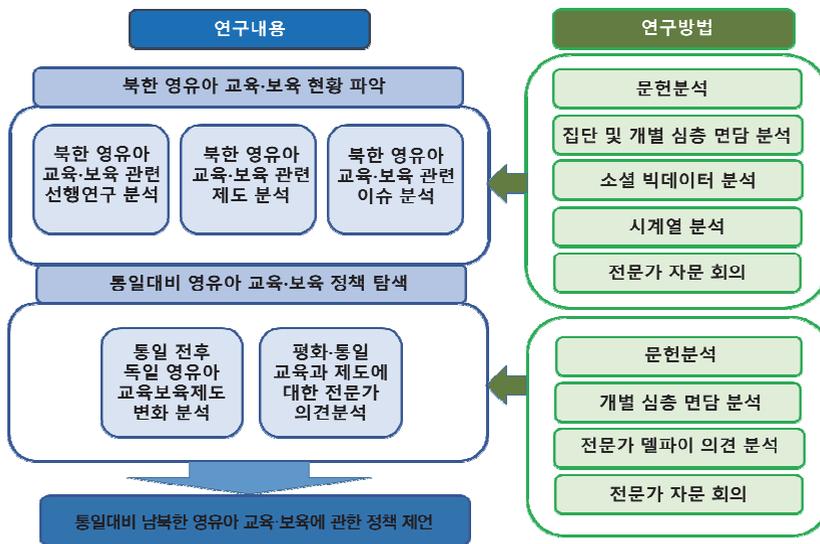
회의일자	회의안건
2020.03.30.	소셜 빅데이터 분석 신뢰성 제고 방법 논의
2020.04.21	소셜 빅데이터 분석 신뢰성 제고 방법 및 분류체계 논의
2020.05.26.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현황 수집 및 분석
2020.07.07.	수집 데이터 2차 필터링 및 심층분석 논의
2020.09.11.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논의

〈표 I-3-15〉 간담회 및 자문회의 일자

회의일자	간담회/자문회의
2020.5.26.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법제 논의
2020.5.27.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연구 계획 및 내용 자문
2020.6.30.	북한 유아교육 관련 자료 수집에 관한 자문
2020.7.1.	독일 통일과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에 관한 연구 자문
2020.7.3.	독일 통일 및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관련 연구 분석
2020.7.15.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교육·보육 제도 통합 과정 분석
2020.8.11.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의견 수렴
2020.8.12.	독일 분단 이후 영유아 돌봄과 교육 및 정책: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2020.8.20.	독일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의 돌봄과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
2020.8.21.	학계 전문가 및 보육교직원 의견 수렴
2020.9.10.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법제 논의
2020.9.17.	통일대비 영유아 돌봄·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
2020.9.28.	통일교육 관련 자문회의
2020.10.5.	평화 및 통일교육 관련 자문회의
2020.10.6.	통일 대비 유치원 교육 체계 통합에 대한 논의
2020.10.20.	통일 연구 관련 영상보고서 제작 논의

이상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연구수행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3-5] 연구수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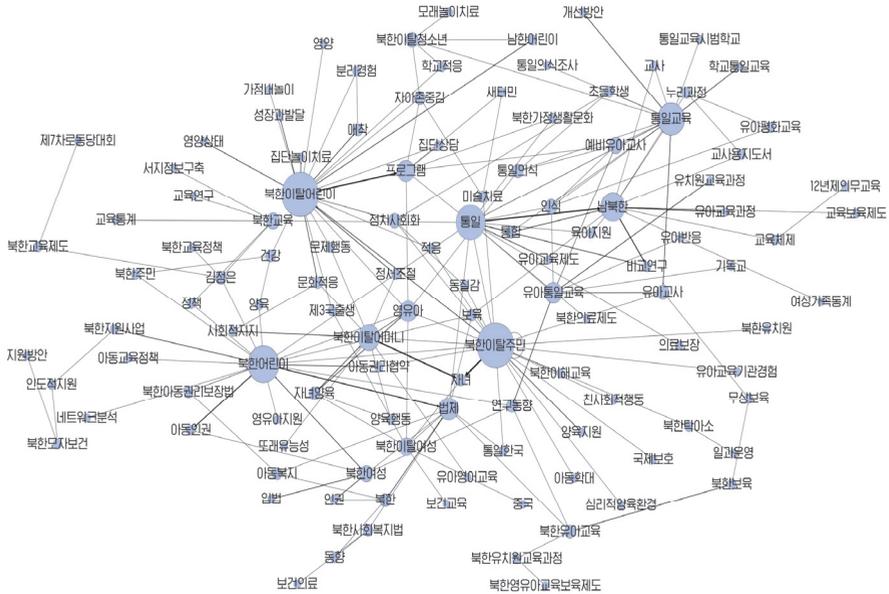


4. 선행 연구

가. 국내 문헌 자료 네트워크 분석

국내 문헌자료들에 관한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망을 살펴보면, 주로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어린이’, ‘북한이탈어머니’, ‘통일’, ‘통일교육’, ‘남북한’ 키워드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북한 영유아에 관한 현황을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북한 연구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북한이탈주민’에서도 특히 ‘북한이탈어머니’와 자녀인 ‘북한이탈어린이’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고, 이들의 문화적응과 정서조절 및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였다.

[그림 I-4-1] 국내 문헌자료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망



‘남북한’ 키워드는 ‘통일’, ‘통일교육’과 연결되어 있었다. ‘남북한’의 경우 주로 ‘교육보육제도’, ‘유아교육과정’, ‘비교 연구’와, ‘유아통일교육’은 ‘유아교사’, ‘연구동향’, ‘유치원 교육과정’, ‘예비교사’, ‘유아반응’, ‘기독교’ 등과 매개되어 있었다.

‘북한어린이’도 연결중심성이 높았는데, 주로 ‘북한아동권리법’, ‘아동권리협약’, ‘북한여성’, ‘아동인권’, ‘법제’, ‘김정은’ 등과 매개되었다.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자녀’와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으면서 ‘북한이탈어머니’, ‘북이탈주민’, ‘보건교육’, ‘중국’, ‘북한이탈어린이’와 연결되어 있었다. ‘김정은’은 연결중심성이 높지는 않았으나, ‘북한어린이’, ‘북한유아교육’, ‘북한교육정책’, ‘북한교육제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전반적으로 북한 영유아 관련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물이 다수이고, 통일교육, 통일, 남북한 비교 연구물, 북한 어린이, 유아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물들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다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의 경우에도, 유아통일교육은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물에 관한 연구들도 문제행동, 영양 결핍, 집단상담, 분리경험 등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여서 새로운 시각을 연구물들이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 국외 문헌 자료 네트워크 분석

국외 문헌자료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망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로 북한 어린이, 북한이탈어린이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이며, 특히 정신건강, 영양상태, 발달지연, 치료, 빈곤 어린이, 인도적 지원과 매개되어 있었다. 북한어린이의 경우에는 주로 영양과 발달에 대한 키워드들이, 북한이탈어린이의 경우, 정신건강에 대한 키워드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김정은 시대에 속하는 지난 10년간의 국외 연구에서도 여전히 북한어린이와 북한이탈어린이와 관련된 키워드들은 여전히 발달적, 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4-1〉 국내외 전체 키워드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순위 30)

키워드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북한이탈주민	0.16197	0.15658
북한어린이	0.14789	0.14188
북한이탈어린이	0.17606	0.09682
유아통일교육	0.06338	0.04021
통일교육	0.11268	0.08356
northkorea	0.14085	0.01400

다.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연구 분석

1)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국책연구기관 연구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물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윤진 외(2011)는 북한의 자녀양육관 및 가정 내 양육 실태를 고찰하여 향후 통일을 대비한 영유아 정책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를 기점으로 한 북한 주민의 탁아소·유치원 이용 실태를 분석했다. 특히 북한 헌법, 노동법, 가족법, 인민보건법 등과 함께 북한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 및 양육에 대한 세태 분석을 시도했으며, 탁아소에 관한 규정, 어린이보육교양법, 녀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등의 법제를 살펴보면서 북한 탁아소·유치원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해 조망했다. 이에 현행 남북한 보육·교육 체계는 차이점과 공통점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대비하여 시스템 통합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의 공통점을 늘려나가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남북한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언했다.

이윤진 외(2012)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녀양육에의 고충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취업과정에서 편견 등의 각종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을 하는 데 있어 안정되지 못한 주거 및 정서적 환경 속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외래어를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자녀를 교육하는데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면서 열등감, 자아존중감, 우울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영양 부족, 정체성의 혼란 등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착도우미 서비스, 신변보호담당관 서비스, 직업훈련 서비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비스,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서비스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50% 이하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어 꾸준한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며, 부모교육 매뉴얼의 제작 및 보급, 영양 지원, 영유아 대상 영양 및 언어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남성 중심의 서비스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의 확대, 편견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 부모교육의 확대 및 양육지침서의 개발, 주거 및 취업지원 등의 정책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임순희 외(2012)는 본 연구를 통해 북한 아동 교육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 이행 보고서를 작성해왔으나, 북한 내 실상은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과 북한 아동 교육권 실태를 분석하여 교육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근본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법제 분석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북한 아동은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노동법」에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노동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아동은 노동 현장에 투입되어 충분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덧붙여 출신성분에 따라 학업의 기회가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등 공정한 교육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무상보육 역시 경제난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2011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을 제정하여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인재양성 실현을 도모해왔다. 하지만 법률 제정 및 협약 가입에도 불구하고 북한 아동의 교육권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교육 부문에 있어 북한 아동의 접근성과 공정성이 추후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윤진 외(2013)는 본 연구를 통해 남북한의 육아지원분야에 대한 정책적 통합 시스템의 틀을 구축하고자 했다. 정부는 '3단계 통일방안'을 기저로 통일을 대비하고 있다. '화해 및 협력 단계(1단계)', '남북연합 단계(2단계)', '통일국가 완성(3단계)'의 순으로 남북 간 교류를 증진하고자 한다. 첫째, '교류협력 단계(1단계)'에서는 남북의 교육·보육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할 뿐 아니라 전문가 교류 및 공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남북연합 단계(2단계)'에서는 남북 간 공통된 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통일국가 단계(3단계)'에서는 구성원의 이해 증진 및 심리적 이질성의 완화를 위한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세 단계를 통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회복하고 정책적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정원 외(2014)는 북한 교육 정책의 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교육신문> 등의 실제 북한의 자료를 인용하며 북한 교육 현황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교

육신문에 따르면 유치원 과목은 기존 9개 과목에서 1개 과목으로 통합되었고 세 부적으로 '혁명사상교양과 도덕교양, 우리말 교육, 지능교육, 정서교양, 건강 및 단련교양'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학교급별 교과서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DB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로써 향후 북한 교육 자료를 활발히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정원 외(2014)는 이질성을 가진 현행 남북한 학제 하에서 남북한 교사 역할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분석했다. 남한은 '홍익인간'을 근간으로 학제를 이어 오는 반면, 북한은 수차례 개편해온 학제 변모 양상에 따라 교사의 지위 및 역할이 변화해 왔다. 북한 교사들은 남한 교사들에 비해 수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자율성보다는 통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교사의 교육 방향 및 역할의 통합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위해 향후에는 통합된 남북한 교원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김정원 외(2015)는 남북한 학제의 틀을 비교함으로써 통일대비 남북한 학제의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현행 남북한 교육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사립 교육기관의 유무다. 또한 북한은 형식적으로는 무상교육을 제공한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남북한의 구체적 학제 비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목표다. 남한은 '홍익인간'의 이념 하에 학제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선군혁명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둘째, 다양성 추구의 여부다. 남한의 경우 개인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국가의 규정 하에 획일적인 교육 일정이 적용된다. 셋째, 사회 교과 영역 유무다. 남한에서는 정치, 법, 경제 등에 대한 일반 사회 영역을 교과 영역에 포함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지도자 교과 수업을 강조한다. 넷째, 학교급별 교과 과정의 차이다. 남한에서는 초중고 학교급별 교과 과정이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지나, 북한은 학교급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초등 단계에서는 예체능 교과 비중이 높은 반면, 상급 과정으로 올라갈수록 과학 및 정보기술, 직업 교육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섯째, 개인 활동 관련이다. 남한에서는 봉사 및 진로 활동에 비중을 두는 반면, 북한에서는 과외활동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남

북한 학제 간 차이 속에서 통일 이후 많은 갈등과 쟁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통일을 대비해 학제 간 통합을 위한 점진적인 목표 설정 및 정책적 제안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했다.

이윤진 외(2016)는 그간 통일대비 정책 연구가 정치, 경제, 교육 등의 사회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왔으나,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부족한 실정임에 착안해 본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북한 여성이 처한 상황을 반영해 인구·보건, 가족, 경제·노동, 정치·사회의 4개 분야로 지표를 설정한 다음, 이를 성인지 관점에 따라 분석했다. 그 결과, 남북한 사회의 공통된 특징으로 인구·보건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진행,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상급학교에서의 여성 교원 낮은 비율, 경제·노동 분야에서는 M곡선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가족 분야에서는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합계출산율이 공통적으로 드러남을 밝혀냈다. 이상의 공통 분모를 바탕으로 여성이 정치·사회 분야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제도적 통합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의 의식의 차이를 줄이고, 통일을 대비한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김지수 외(2019)의 연구는 수차례 진행된 북한 학제개편 속에서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변화된 교육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정은의 집권 이후, 기존 9개의 유치원 교과목을 통합하여 1개의 교과로 개편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고 하였다. 특히 '놀이'를 강조한 활동 중심의 교육이주를 이룬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원법 및 교육강령집행법을 제정했으며, 교육 시설을 개선하고 기기 보급 및 시설을 정비하면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전 김정일 시대와는 차별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은 시대로 접어들면서 교육의 인프라 구축 및 교육과정의 개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추후 통일을 대비해 통합교육을 위한 남북한 학술 분야의 교류 및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조성은 외(2019)는 북한 사회 내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 체계와 실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복지 분야에서의 남북교류 방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여성의 노동과 건강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건, 교육 등에 대한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했으며, 통일 이후 복지 분야에서의 남

북한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 환경을 증진하고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며, 현행 아동·청소년 행사 위주의 단기적 교류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교류가 필요한 것으로 제언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4-2〉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국책기관 연구 동향

저자(년도)	연구목적	주요 연구 결과
이윤진 외(2011)	북한 영유아 양육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한 공동된 정책 방향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함.	* 자녀양육관, 양육태도, 양육신념, 북한의 탁아소 및 유치원 실태, 북한 가정 내 양육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한 교육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교류를 증진하고, 공통모형을 늘려나가야 할 것을 제안함.
이윤진 외(2012)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양육 실태 파악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문헌분석, 심층면담, 설문조사, 자문회의의 연구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양육실태를 조사함. * 기존의 남성 중심 서비스에서 여성을 중심으로한 지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주거 및 취업 지원,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함.
임순희 외(2012)	북한은 1990년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실행이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북한 아동의 교육권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북한 아동의 교육권 실태 조사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2011년 제정)'을 분석함. * 사회 전반적 영역에서의 아동 권리를 신장함으로써 북한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봄.
이윤진 외(2013)	육아지원분야에서의 남북한 정책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함.	* 문헌분석, 설문조사, 토론회, 면담 등의 연구 방법을 통해 남북한 교류사업의 현황 및 의견을 수집함. *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함.
김정원 외(2014)	북한 교육정책 현황을 분석, 학교급별 교과서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함.	* 유치원 과목은 기존 9개 과목에서 1개 과목으로 통합되었고 세부적으로 '혁명사상교양과 도덕교양, 우리말 교육, 지능교육, 정서교양, 건강 및 단련교양'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지정보 구축이 필요함.
김정원 외(2014)	남북한 교사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한 교육 추진 방향, 교사의 역할, 교원양성 프로그램 준비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헌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남북한 교사의 역할 및 교육과정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상이한 남북한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준비할 것을 제안함.

저자(년도)	연구목적	주요 연구 결과
김정원 외(2015)	남북한 학제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을 통해 남북한 학제의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목표, 다양성의 추구, 사회 교과 영역의 유무, 학교급별 교과 과정, 개인 활동의 비중 등에서 남북한은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함. * 통일 대비 남북한 학제 통합을 위한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윤진 외(2016)	여성 및 가족 분야에서의 통일 대비 정책이 부족함에 따라 성인지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에 기반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을 통해 여성가족분야에서의 통일 대비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통일을 대비해 제도적 통합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식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임.
김지수 외(2019)	김정은 집권 이후의 교육 개혁 방향을 분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시대 이후 북한 교육 인프라의 개선 및 교육과정의 개편이 이뤄졌음을 밝힘. * 법령의 제정을 제정하고 김정일 시대와는 차별화를 두고 있음. * 남북한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류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조성은 외(2019)	북한 여성,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의 복지 체계와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남북교류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심층면접,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한 복지 및 교류협력에 대한 실태를 분석함. * 인도적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출처: 1) 이윤진, 서문희, 김선화, 박영자(2011).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영유아 양육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이윤진, 이정림, 김경미(201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3) 임순희·조정아·이규창(201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통일연구원.
 4) 이윤진, 구자연(2013). 통일에 대비한 육아지원분야 통합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5) 김정원, 김지수, 김은주, 한승대, 강구섭(2014).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한국교육개발원.
 6) 김정원, 김지수, 최유림, 이슬기(2014). 남북한 교사 역할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7) 김정원, 김지수, 양희준, 강구섭, 나귀수, 신동훈, 김선, 박수현(2015).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8) 이윤진, 김아름, 이민경, 박영자, 김화순(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9) 김지수, 김지혜, 김희정, 김병연, 한승대, 강호제, 김선(2019). 김정은 시대 북한 유초중등 교육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0) 조성은, 고혜진, 송철중, 유민상, 이윤진, 이준우, 조영주, 정지웅, 김예슬, 조보배(2019).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국내 학계 연구

김성욱(2009)은 남북한의 현행 보육 관련 법령이 각기 상이한 가운데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포괄적인 법제를 정립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영유아보육법」 하에 보육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으나, 북한은 「어린이보

육교양법」 하에 교육 체계가 정립되어 있다. 이에 남북한 법제 간의 차이점을 고찰하고 유사점을 발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북한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있다. 남북한 보육 관련 법령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으나, 두 법제 간에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보육 기관의 이용 연령, 국가 운영 여부, 시설 안전공제회 설립 여부, 비용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사회주의 주체사상 이념을 주입 교육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 제도와 상이하다.

이소희 외(2014)는 북한의 보육제도가 시대별로 변모해 온 양상 및 현황을 고찰하였다. 북한 보육 제도는 「어린이보육교양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탁아소와 유치원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탁아소와 유치원은 주무부서, 반 구성, 교원 편성, 교육 과정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두 기관 모두 북한의 이념인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난 및 식량난에 직면하게 되면서 무상보육 시스템 작동에 난항을 겪게 되었고,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북한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옥승(2014)은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시스템을 고찰했다. 북한 탁아소와 유치원의 교육 과정 및 교사의 재량에 대해 살펴보고 북한 사회에 맞닥뜨린 경제난과 식량난에 속에서 탁아소와 유치원 운영의 실재를 고찰했다. 북한의 탁아소는 여성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으며, 유치원 취학 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을 토대로 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 위생, 영양 등에 대한 교육도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북한 유치원은 교과서를 편찬해 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도덕」 교과 과목 등에서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이념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1980년대에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발표하여 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경제난과 식량난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무상보육 제공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문을 닫는 탁아소와 유치원이 나오게 되면서 북한은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일부 개정하여 어려움을 타파하고

자 하였다.

장원주 외(2018)는 현행 남북한 유아교육과정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통합된 유아교육 정책의 수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현재 남북한은 상이한 이념 하에 교육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써 학제 및 교육목표 등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한의 어린이집·유치원과 북한의 탁아소·유치원은 대상연령, 의무교육 여부, 운영주체, 교육과정, 교수 및 학습방법 등에서 제도적 차이를 보이고 보이고 있어, 통일 시대를 맞이해 교육 제도의 상이함에서 오는 혼란을 극복하고 공통된 부분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상호간의 교류 및 이해가 필요할 것임을 주장했다.

강재희(2019)는 북한 탁아소 운영관리 및 일과운영의 현황을 고찰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남북한 보육 정책의 상이한 부분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탁아소 및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 북한 보육의 실재를 보다 자세히 규명하도록 시도했다. 분석결과, 첫째, 운영관리와 관련해 탁아소는 무상으로 운영되었으나 식량난을 거치며 일정 부분 부모의 지원을 필요로 하기도 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다니고 있으며, 공장 혹은 농장 지대에 위치한 탁아소에서는 야간 보육까지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일과운영과 관련해서는 모유수유를 위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으며, 교원 지침서에 따라 놀이, 수업, 식사 시간 등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업은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이념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었다.

〈표 I-4-3〉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학계 연구 동향

저자(년도)	연구목적	주요 연구 결과
김성욱(2009)	통일 대비 남북한 보육 관련법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통일 이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함	*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법」과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법제 간 차이점을 고찰함. *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남북 법제 간 공통점이 있으나, 「어린이 보육교양법」은 주체 사상을 강조하는 데서 차이가 있음
이소희 외(2014)	북한은 우리나라에 앞서 무상보육 제도를 도입한 국가로서 북한 보육의	* 북한 보육 제도의 시대별 변모 과정을 살펴보고, 북한 헌법 및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근거한 교육 이념 및 목표를 분석함. 또한 보육 체계 및 내용과 지원 현

저자(년도)	연구목적	주요 연구 결과
	이념 및 기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황을 고찰함 * 북한의 보육은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교육한다는 점이 특징임.
양옥승(2014)	북한의 영유아 교육 보육 시스템을 분석하여 통일에 대비하고자 함.	* 문헌분석 및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음. * 남한과 북한의 교육·보육 체계는 다르나, 통일을 대비하여 공통분모를 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
장원주 외(2018)	남북한 유아교육과정 제도 비교를 통해 통합 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문헌분석을 통해 북한의 유아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였음. * 남북한 교육제도의 차이점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호간 교류를 할 필요가 있음.
강재희(2019)	북한 탁아소 운영을 연구하여, 남한과 북한 보육 체계의 통합 방향 모색함.	* 심층면담을 통해 탁아소의 운영 방식 및 교육 과정 등에 대한 실태를 고찰함.

- 출처: 1) 김성욱(2009).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관한 연구. 남북법제연구보고서(II), 81-115.
 2) 이소희 외(2014). 북한의 보육 정책 및 현황.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5(1), 1-5.
 3) 양옥승(2014).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 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13(4), 259-280.
 4) 장원주, 이화도(2018). 남북한 유아교육과정 비교. 비교교육연구, 28, 217-242.
 5) 강재희(2019). 북한 탁아소의 운영관리와 일과운영. 육아지원연구, 14(2), 105-125.

3)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해외 연구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UN 산하 기관에서 문헌분석을 한 연구들이며, 특히 인도주의적 접근에 기반한 북한 아동과 여성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원조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I-4-4〉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해외 연구

저자(년도)	연구 목적	주요 연구 결과
UNICEF DPR Korea Country Office(2018)	북한 아동의 영양 및 위생과 교육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한 북한 아동의 권리 보장	* 북한 아동이 건강과 안전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인 정책 기틀 마련
UNICEF (2019)	북한 아동 및 여성의 건강과 교육 현황을 분석	* 북한 아동 및 여성의 영양 실조 개선 및 위생 관리, 그리고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지속가능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기대

저자(년도)	연구 목적	주요 연구 결과
Humanitarian Country Team (2019)	북한 주민의 영양·식량·수질·위생 등의 건강과 보육·교육 부문 현황 및 개선점 분석을 통한 원조 대책 모색	* 인도주의적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전략 수립 및 활성화 대안 구축

출처: 1) UNICEF DPR Korea Country Office(2018). Annual Report for 2018.

2) UNICEF(2019). The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DPRK.

3) Humanitarian Country Team(2019). 2019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4) 영유아 평화통일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

관련 연구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 평화통일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들은 드물고, 담론 자체도 다층적이고 모호하며, 주로 다문화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양진희, 2020). 조정아, 김엘리, 문아영, 윤보영(2019)은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연계되어야 하고, 교육 방향성이 정립되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박창현(2020)은 정치교육의 틀에서 평화·통일교육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함양, 교사양성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젠더교육을 논의 등을 제안하였다.

〈표 I-4-5〉 영유아 평화통일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

저자(년도)	연구 목적	주요 연구 결과
양진희 (2020)	유아세계시민교육을 지표로 유아민주시민교육, 유아다문화교육, 유아국제이해교육, 유아평화교육의 계열적 특성을 5개 교육담론 간 특징을 분석	* 유아다문화교육에 대한 담론에 집중 * '유아세계시민교육은 유아교육기관, 가정, 지역사회가 상호 연계된 사회교육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함. *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정의 또한 다층성과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
안수현, 김상림 (2018)	유아통일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개념도 분석을 통해 유아교사의 유아통일교육에 대한 지식체계를 고찰	* '북한에 대한 이해', '분단/통일의 이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통일정책', '남북관계', '교육활동',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의 7개 대표용어 도출
박창현 (2020)	정치교육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할과 쟁점 제안	* 유아정치교육은 담론 자체가 부재함. * 유아교사의 정치적 중립, 누리과정에서의 정치교육 구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민주적 참여구조 만들기, 교사노조활동 보장 방법 등의 쟁점 제안 * 유아교사의 정치교육을 위한 감수성, 기본소양교육, 민주시민교육 역량 함양, 비판교육과 실천교

저자(년도)	연구 목적	주요 연구 결과
		육 필요, 다양한 시민학교와 함께 교사의 자발성 독려하기,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내면화하기, 교 사양성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젠더교육을 논의하 기, 평화·통일교육과 연계하기, 노동조합에서 정 치교육을 강화하기, 공공성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하기, 평생교육 법제도 개선 제안
조정아, 김엘리, 문아영, 윤보영 (2019)	평화통일 및 통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현장과 이론적 논 의 장에서 쟁점을 다룸	* 교육방향성 정립과 사회적 논의 필요 * 역량 중심으로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 내용체계 개편 * 민간영역 자율성 확대와 거버넌스 구축 * 시대적 과제와 평화지향성을 반영한 통일교육 관 계법령 정비

- 출처: 1) 양진희(2020).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유아세계시민 관련 연구동향 및 교육담론 분석. 유아교육연구, 40(1), 251-240.
 2) 안수현, 김상림(2018). 유아교사의 유아통일교육에 대한 지식체계 고찰: 개념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8(3), 91-104.
 3) 박창현(2020). 정치교육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할과 쟁점(2020년 연합학술대회, 정치교육의 방향과 과제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육행정학회 자료집, 327-343.
 4) 조정아, 김엘리, 문아영, 윤보영(2019).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5.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북한 영유아교육·보육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그러나 북한 방문하여 직접 현황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기에 남한의 연구자로서 북한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와 법제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 자료의 경우에도 통일부와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자료 외에, 유치원과 탁아소의 수, 교양원과 보육원의 수, 영유아 수 등에 대한 자세한 통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법제도의 경우에도 실제로 관련 법체계와 관련된 법령의 남북한 비교는 일부 가능하였지만, 법시행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면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법령의 통합, 제도의 통합 등을 제안하였으나, 여전히 이러한 제안들은 가상의 제안으로 연구진들의 하나의 작은 의견일 뿐이다.

둘째, 북한 영유아교육·보육 관련 이슈 분석에서는 김정은 시기 동안의 국내 신문기사에 관한 소셜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우리 언론에 비추어진 북한의 모습이므로, 자료로 볼 때, 2차 자료 분석이나 다름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진은 노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매체를 분석하였으나, 매체에 대한 접근과 자료의 한계로 지난 3년간의 자료만을 분석할 수 밖에 없었다.

셋째, 북한 영유아교육·보육체제 분석은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에 근거한 체제 분석이므로 그 자체로 한계가 존재한다. 연구진은 북한이탈주민을 11명 분석하고, 28회의 면담을 진행하여 최대한 심층면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면담 대상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표집이었다. 또한 우연이자 필연으로 조우하게 된 면담 대상자들의 고향이 양강도, 평안도, 함경도와 같은 북경지역이었다. 이에 본 연구의 영유아교육보육의 현황은 북경지역의 현황에 기반한 내용이 다수일 수 밖에 없었으므로, 면담 내용들을 북한 전체의 현황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통일이 요원하더라도 결국 통일이라는 거대담론, 거대주제 하에서 북한의 영유아교육·보육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해야 했다. 이에 연구진은 통일대비는 결국 남북한 영유아교육보육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제대로 된 정보를 아는 일, 이질감을 극복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일, 유아통일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하였다. 연구진은 담론조차 없고, 누리과정에도 없는 통일 한국, 통일 한반도에 대한 재인식과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진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통일 이후 독일이 겪었던 영유아교육보육제도의 변화에 비추어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예측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의 한계가 있다. 동서독의 모습과 통일 이후 독일의 과도기, 통일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 독일의 모습은 통일 한국의 미래의 모습을 예측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북한 분단 60년이라는 긴 시간의 장벽과 남북한의 더욱 커지는 경제적 격차 등과 같이 독일과는 다른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독일 사례를 ‘오래된 미래’라고 여기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독일의 영유아교육제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시사점을 찾는 것은 그 자체로

오류를 내포한다.

또한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 조사에 참여한 한국의 영유아, 또는 평화교육 전문가들조차도 통일 한국을 고려한 영유아교육보육의 미래를 가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통일 한반도에 대한 상상력이 고갈된 탓이다. 이러한 상상력은 정치와 제도의 혁신에서 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한 꾸준한 기초 연구들로 충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연구진은 탐색적 성격이 짙은 본 연구가 통일 한반도의 상상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및 제도 분석

- 01 북한 영유아 관련 통계 분석
- 02 북한 영유아 관련 법제도 분석
- 03 북한 유치원 교육 제도 분석
- 04 북한 탁아소 제도 분석
- 05 소결

II.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및 제도 분석

1. 북한 영유아 관련 통계 분석

가. 일반현황

북한의 총인구는 2018년 현재 25.6백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그 중 가임인구라고 볼 수 있는 15~49세 여성인구 수는 6.5백만 명으로 추계되었다. 경제활동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1.4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이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18년 현재 7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 북한 총인구 및 경제활동

단위: %, 천명

구분	총인구 ¹⁾	총인구 증감율 ¹⁾	15~49세 여성인구 ²⁾	15~49세 여성인구(%) ²⁾	15세이상 인구 ³⁾	경제활동 인구 ³⁾	경제활동 참가율(%) ³⁾
1970	-	-	3,690	48.6	9235	5800	62.8
1980	-	-	4,620	50.9	11501	7453	64.8
1990	-	-	5,750	55.1	14847	9873	66.5
2000	22,929	86.5	6,115	52.0	16574	11548	69.7
2010	24,549	49.2	6,605	52.6	17464	12253	70.2
2015	25,184	50.2	6,711	52.1	19324	13630	70.5
2016	25,308	49.1	-	-	19861	14002	70.5
2017	25,430	48.2	-	-	20004	14103	70.5
2018	25,550	47.0	-	-	20130	14192	70.5
2020			6,485	49.2			

주: 1) 군인은 15세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으며, 2003년 이후 16세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됨

2) 15~49세 여성인구, 15~49세 여성인구(%)는 5년 단위 생산되는 인구 추계자료이며, 그 외 항목의 자료는 2018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임.

자료: 1) KOSIS,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AQ201&vw_cd=MT_RTITLE&list_id=OTIT_WDITIT_Y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A7 (2020. 6. 2. 인출). 원출처: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World Bank:인구 동향

2) KOSIS,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E02&conn_path=I3 (2020. 4. 28. 인출). 원출처: UN\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3) KOSIS,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27&conn_path=I3 (2020. 4. 28. 인출).

2008년 현재, 영유아 인구수 및 성비를 보면, 영유아의 경우 남아가 여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 북한 영유아 인구수 및 성비 (2008년 센서스 기준)

단위: %

구분	인구수			성별 비중			성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0~4세	872,173	837,866	1,710,039	7.4	6.8	7.1	104.1
5~9세	943,048	903,737	1,846,785	8	7.3	7.7	104.4

자료: 통계청(2019). 2019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p.234.

2008년 현재, 탁아소와 유치원에 재원 중인 영유아 통계를 보면,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아동의 수가 점점 감소하였고, 탁아소와 유치원의 시설수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표 II-1-3〉 북한 탁아소 및 유치원 (2008년 센서스 기준)

단위: 개소

구분	탁아소		유치원		계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1976 ¹⁾	37,000		23,000		60,000	3,500,000
1987 ¹⁾	28,358		19,262		47,620	2,000,000
1995 ¹⁾			16,000	745,000		
2000 ²⁾	27,017	1,500,000	14,167	748,416	41,184	2,248,416
2003 ³⁾	28,000	1,523,000	14,312	757,000	42,312	2,280,000
2006 ⁴⁾	28,000	1,281,000	13,638	691,774		1,972,774

출처: 1) 양옥승(2014)의 자료(p. 263)의 최신 자료 여부를 확인 후 재인용하여 작성함.

2) Library of Congress (2007). Federal Research Division Country Profile: North Korea

3) UNESCO(2003).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ational Plan of Action on Education for All

4) UNESCO(2008). Country Report on Education For All(EFA)

북한과 남한의 비교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북한의 경우 영아사망률은 1970년 58.0%에서 1990년 27.4%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00년 다시 증가하여 57.8%에 이르렀다가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20년 현재 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5세 미만 사망률을 보면, 43.4%(1990)에서 60%(2000)까지 상승하였다가 점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조출생률은 2010년 이후 감소하였다가 2015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사망률은 10.7%(2000)에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8년 9.9%, 2019년 10.0%, 2020년 10.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합계출산율은 2.0명 수준에서 변동 없이 일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남한의 경우 영아 사망률과 모성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조사사망률의 감소량보다 조출생률의 감소량이 더 커서 자연증가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1-4〉 남북한 출생 및 사망 인구

단위: %, 명

구분	북한							남한						
	영아 사망률 ¹⁾	5세 미만 사망률 (%) ²⁾	모성 사망비 ³⁾ (출생아 십만 명당)	조출생률 (인구 천명당) ⁴⁾	조사 사망률 (인구 천명당) ⁴⁾	자연 증가율 (인구 천명당) ⁴⁾	합계 출산율 (가임 여성 1명당) ⁴⁾	영아 사망률 ¹⁾	5세 미만 사망률 (%) ⁴⁾	모성 사망비 ³⁾ (출생아 십만 명당)	조출생률 (인구 천명당) ⁵⁾	조사 사망률 (인구 천명당) ⁵⁾	자연 증가율 (인구 천명당) ⁴⁾	합계 출산율 (가임 여성 1명당) ⁵⁾
1970	58.0							56.5			31.2	8.0	23.2	4.5
1980	36.3							33.6			22.6	7.3	15.3	2.8
1990	27.4	43.4						15.6	8.0		15.2	5.6	9.6	1.6
2000	57.8	60	128	17.5	10.7	6.9	2.0	6.9	6.8	16	13.5	5.2	8.3	1.5
2010	27.3	29.5	97	14.4	9.1	5.3	2.0	3.5	4.1	15	9.4	5.1	4.3	1.2
2015	18.5	21.1	82	14.7	9.6	5.1	2.0	3.0	3.5	11	8.6	5.4	3.2	1.2
2016		20		14.8	9.7	5.1	2.0		3.6		7.9	5.5	2.4	1.2
2017		19		14.9	9.8	5.1	2.0		3.7		7.0	5.6	1.4	1.1
2018		18.2		15.0	9.9	5.1	2.0		3.6		6.4	5.8	0.6	1.0
2019				15.0	10.0	5.0	2.0							
2020	13.9			15.0	10.1	4.9	2.0	2.1						

- 주: 1) 1세미만에 사망한 영아수를 그해 1년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수로 나눈 비율로서 보통 1,000분비로 나타냄(증위가정). 각 해당년도는 5년 간격 기간의 수치를 의미함(예: 1970년은 1970-1975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3) 맞출반 아님: 유아반과 영아반 중 총일반을 의미함.
 4) 1993년 및 2008년 북한에서 실시한 인구일제조사(인구센서스) 결과를 이용하여, 1993-2008년 센서스 사 이 연도의 과거 북한인구와 2009-2055년 장래 북한인구를 추계한 결과를 통해 산출함.
 4-1) 조출생률: 특정연도의 총 출생아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1,000분비.
 4-2) 조사사망률: 특정연도의 총 사망자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1,000분비
 4-3) 자연증가율: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 의한 자연증가분을 총인구(7월1일 연앙인구)로 나눈 1,000분비로서, 일정기간 동안의 인구증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인구성장률과는 다른 개념임.
 4-4)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 자료: 1) KOSIS,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284&conn_path=13 (2020. 4. 28. 인출). 원출처: UN「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2) KOSIS,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E03&conn_path=13 (2020. 4. 28. 인출). 원출처: UNICEF「<http://data.unicef.org>」.
 3) KOSIS,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BWB0093&conn_path=13 (2020. 4. 28. 인출). 원출처: UN「<http://unstats.un.org/sdgs>」
 4) KOSIS,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01_006 (2020. 6. 02. 인출). 원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5) e-나라지표, http://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011 (2020. 6. 02. 인출). 원출처: 인구동향조사

15~49세 여성인구 규모를 보면, 1970년까지는 북한의 15~49세 여성인구 비율이 48.6%로 남한의 46.7%보다 높았고, 1975년부터 남한이 북한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2015년부터 다시 북한의 여성인구 비율이 남한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 II-1-5〉 남북한 15~49세 여성 인구

단위: %, 명

구분	북한		남한	
	15~49세 여성인구 (천명)	비율 (%)	15~49세 여성인구 (천명)	비율 (%)
1960	3,194	52.0	5,848	46.9
1965	3,551	53.1	6,504	45.6
1970	3,690	48.6	7,437	46.7
1975	4,217	49.6	8,719	49.8
1980	4,620	50.9	9,959	52.7
1985	5,259	53.9	11,072	54.7
1990	5,750	55.1	12,128	56.9
1995	5,889	52.6	12,858	57.4
2000	6,115	52.0	13,418	57.5
2005	6,535	53.4	13,385	55.9
2010	6,605	52.6	13,167	53.4
2015	6,711	52.1	12,759	50.2
2020	6,485	49.2	11,949	46.3

자료: KOSIS,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E02&conn_path=I3
(2020. 4. 28. 인출). 원출처: UN「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다음으로 남북한의 인구구성 변화를 보면, 남한이 북한보다 전체적으로 인구규모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구증가율에 있어서 남한은 2015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북한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II-1-6〉 남북한 인구 수 및 증감율

단위: %, 명

구분	북한 인구	증감율	남한 인구	증감율
2000	22,702	86.6	47,008	83.9
2010	24,187	51.9	49,554	49.9
2015	24,779	47.4	51,015	52.8
2016	24,897	47.6	51,218	39.8
2017	25,014	47.0	51,362	28.1
2018	25,132	47.2	51,607	47.7
2019	25,250	47.0	51,709	19.8
2020	25,368	46.7	51,781	13.9

주: 2010.11월에 작성한 북한인구추계 자료임(1993년 및 2008년 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추계)
 자료: KOSIS,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21&conn_path=I3
 (2020. 4. 28. 인출). 원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http://kosis.kr>북한인구추계」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한이 북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기준 북한 70.5%와 남한 63.1%).

〈표 II-1-7〉 남북한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천명

구분	북한			남한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1970	9,235	5,800	62.8	17,468	10,062	57.6
1980	11,501	7,453	64.8	24,463	14,431	59.0
1990	14,847	9,873	66.5	30,887	18,539	60.0
2000	16,574	11,548	69.7	36,192	22,151	61.2
2010	17,464	12,253	70.2	40,825	24,956	61.1
2015	19,324	13,630	70.5	43,239	27,153	62.8
2016	19,861	14,002	70.5	43,606	27,418	62.9
2017	20,004	14,103	70.5	43,931	27,748	63.2
2018	20,130	14,192	70.5	44,182	27,895	63.1

주: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에 군인이 포함되지 않으며, 2003년 이후 자료는 16세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KOSIS,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27&conn_path=I3
 (2020. 4. 28. 인출).

남북한 모두 1970년 영아사망률은 50%를 넘겨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20년 현재, 북한 13.9%, 남한 2.1%를 보이고 있다. 5세 미만 사망자의 경우, 1990년 기준, 북한은 43.4%이고, 남한은 8%로 기록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모성사망비는 2000년 기준, 출생아 십만 명당 북한은 128명, 남한은 16명이고, 2015년 현재, 북한 82명, 남한 11명으로 특히 북한에서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1-8〉 남북한 영아사망률, 5세 이하 사망자, 및 모성사망비

단위: %, 명

구분	북한			남한		
	영아사망률 ¹⁾	5세미만 사망자(%) ²⁾	모성사망비 ³⁾ (출생아 십만명당)	영아사망률 ¹⁾	5세미만 사망자(%) ²⁾	모성사망비 ³⁾ (출생아 십만명당)
1970	58.0	.	.	56.5	.	.
1980	36.3	.	.	33.6	.	.
1990	27.4	43.4	.	15.6	8.0	.
2000	57.8	60	128	6.9	6.8	16
2010	27.2	29.5	97	3.5	4.1	15
2015	18.5	21.1	82	3.0	3.5	11
2016	.	20	.	.	3.6	.
2017	.	19	.	.	3.7	.
2018	.	18.2	.	.	3.6	.
2019
2020	13.9	.	.	2.1	.	.

주: 1) 1세미만에 사망한 영아수를 그해 1년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수로 나눈 비율로서 보통 1,000분비로 나타냄(중위가정). 각 해당년도는 5년 간격 기간의 수치를 의미함(예: 1970년은 1970-1975년).

2) 유치원 이용 아동2세(보육연령) 아동 4명을 포함.

3) 맞출반 아님: 유아반과 영아반 중 종일반을 의미함.

자료: 1) KOSIS,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284&conn_path=I3 (2020. 4. 28. 인출). 원출처: UN「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2) KOSIS,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E03&conn_path=I3 (2020. 4. 28. 인출). 원출처: UNICEF「<http://data.unicef.org>」.

3) KOSIS,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BWB0093&conn_path=I3 (2020. 4. 28. 인출). 원출처: UN「<http://unstats.un.org/sdgs>」

나. 영유아 교육과 보육

북한은 1975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2012년 9월 25일 제12차 최고인민회의의 6차 세션에서 채택된 법에 따라 2014년 4월 1일부터는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시스템은 초등, 중등, 중등, 고등 교육 및 특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교육 시스템에는 탁아소 5년, 유치원 2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의 과정³⁾이 있는데, 여기서 12년간의 보편적인 의무교육은 1년의 유치원 교육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가 해당된다.

북한은 유치원을 통해 아동의 소학교 진학에 대한 준비를 향상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조직적인 학습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이다. 특수교육은 9-18세의 장애인 인구를 대상으로 9년 간 진행된다. <표 IV-1-0>는 36-59개월 유아 중 현재 유아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관련 자료를 보여준다⁴⁾. 제시된 자료는 보편적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학교에 다니는 아동(소학교 4-5세)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유아교육에 등록된 36-59개월 유아의 수는 913명으로 비율은 72.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 지역(도시/농촌) 등에 따른 유아교육 등록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구역별로 보면, 함경북도가 53.3%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자강도가 88.1%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령에 따른 등록률도 차이가 있는데, 36-47개월의 경우 66.8% 수준인 반면, 48-59개월의 경우 78.5%로 더 높게 조사되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20%-40% 구간의 등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CL400> 북한정보포털 번역 참고

4) UNICEF(2018)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 중에서 UB8 질문을 기반으로 함.

〈표 II-1-9〉 북한 유아교육에 등록된 36-59개월 유아 비율 (2017)

단위: %, 명

	북한 유아교육에 등록된 36-59개월 유아 비율	36-59개월 유아 수
계	72.7	913
성별		
남	72.7	467
여	72.8	446
지역특성		
도시	72.8	542
농촌	72.6	371
행정구역		
양강도	64.9	28
함경북도	53.3	90
함경남도	67.5	119
강원도	68.7	60
자강도	88.1	52
평안북도	77.8	106
평안남도	77.8	156
황해북도	70.1	97
황해남도	76.9	94
평양	77.7	112
월령		
36-47개월	66.8	454
48-59개월	78.5	459
어머니의 학력		
소학교	(*)	1
고급고등학교	71.8	748
대학 이상	76.8	164
아동의 기능적 어려움		
있음	(*)	18
없음	72.7	895
소득수준		
20% 이하	75.1	182
20% 초과 40%	70.4	380
40% 초과	74.0	351

주: *는 샘플수 25명 미만임.

자료: UNICEF(201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110.

〈표 II-1-10〉는 교육기관⁵⁾에 취학율을 보여 주는데, 공식 소학교 입학 연령보다 1세 낮은 아동을 포함한 참여율 분포를 나타낸다⁶⁾. 조사대상 중 450명의 학력 6세의 아동 중 유아교육 프로그램 등록률은 92.6%, 소학교 등록률은 4.5%로 총 97.1%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표 II-1-10〉 취원 및 취학율

단위: %, 명

구분	아동의 비율			총계	등록률	학력 6세 아동의 수
	유아교육 프로그램 등록	소학교 등록	둘 다 등록하지 않음			
계	92.6	4.5	2.9	100.0	97.1	450
성별						
남	94.6	3.3	2.1	100.0	97.9	227
여	90.5	5.8	3.7	100.0	96.3	223
지역특성						
도시	92.5	5.2	2.2	100.0	97.8	283
농촌	92.7	3.3	4.0	100.0	96.0	166
행정구역						
양강도	(93.7)	(2.1)	(4.2)	100.0	(95.8)	15
함경북도	(95.9)	(4.1)	(0.0)	100.0	(100.0)	48
함경남도	71.5	20.8	7.6	100.0	92.4	70
강원도	(92.8)	(0.0)	(7.2)	100.0	(92.8)	27
자강도	(92.8)	(4.8)	(2.4)	100.0	(97.6)	23
평안북도	(88.7)	(2.2)	(9.0)	100.0	(91.0)	52
평안남도	(100.0)	(0.0)	(0.0)	100.0	(100.0)	81
황해북도	(100.0)	(0.0)	(0.0)	100.0	(100.0)	38
황해남도	(100.0)	(0.0)	(0.0)	100.0	(100.0)	42
평양	(97.6)	(2.4)	(0.0)	100.0	(100.0)	55
어머니의 교육수준						
고급중학교	91.7	4.9	3.5	100.0	96.5	376
대학 이상	97.1	2.9	0.0	100.0	100.0	74
소득수준						
20% 이하	91.3	3.9	4.8	100.0	95.2	95
20% 초과 40%	93.1	4.4	2.5	100.0	97.5	168
40% 초과	92.7	4.9	2.3	100.0	97.7	188

주: ()는 샘플수 25명 미만임.

자료: UNICEF(201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111.

5) 북한의 학기는 4월에 시작하며 공식적인 소학교 입학 연령은 7세임.

6) SDG 지표 4.2.2.(조직적인 학습 참여율)에 상응하는 지표임.

뇌 발달은 생후 1년 동안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시기 영아의 가정환경의 질과 주 돌봄자와의 상호작용이 이들의 발달을 좌우하는 주요 결정 요인임은 잘 알려져 있다. 상호작용적 돌봄에 대한 아동의 초기 경험은 중요한 신경과학적 기능을 제공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인지,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부모의 자녀 활동에의 참여, 아동을 위한 책과 장난감의 가정 내 존재, 돌봄의 조건 등은 아동의 상호작용적 돌봄 측정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에게 초기 자극과 상호작용적 관리를 제공하는 여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여기에는 책 읽기, 그림책 보고 이야기 들려주기, 노래 부르기, 집 밖에서 아이를 데리고 놀기, 아동과 이름 짓기, 숫자 세기, 그림 그리기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조사결과를 보면, 가구 내 성인 가족이 4개 이상의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94.8%로 평균정도 혹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부와 모의 참여율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부의 경우 4개 이상의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21.3%에 그쳤으나, 모의 경우 80.4%로 나타나, 자녀의 활동에 대한 자녀 어머니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구역별 자료를 보면, 자강도의 경우 부의 참여율이 36.2%로 다른 행정구역 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황해남도의 경우 부의 참여율이 9.1%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연령별 부의 참여율은 2세 18.2%, 3세 20.9%, 3세 24.7%로 자녀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1〉 학습지원

단위: %, 명

구분	성인 가구 구성원 참여율			부모 중 동거하는 비율		부 참여율		모 참여율		2-4세 아동수
	4개 이상의 활동	평균 정도의 활동	활동 하지 않음	부	모	4개 이상의 활동	중간 숫자의 활동	4개 이상의 활동	중간 숫자의 활동	
계	94.8	5.6	0.3	97.1	98.9	21.3	2.1	80.4	4.7	1,364
성별										
남	94.4	5.5	0.4	97.3	98.7	20.0	2.1	80.7	4.7	698
여	95.2	5.6	0.2	96.8	99.1	22.7	2.2	80.2	4.7	666

구분	성인 가구 구성원 참여율			부모 중 동거하는 비율		부 참여율		모 참여율		2-4세 아동수
	4개 이상의 활동	평균 정도의 활동	활동 하지 않음	부	모	4개 이상의 활동	중간 숫자의 활동	4개 이상의 활동	중간 숫자의 활동	
지역특성										
도시	94.9	5.6	0.2	97.0	98.4	21.8	2.1	81.0	4.7	813
농촌	94.6	5.5	0.4	97.2	99.6	20.7	2.1	79.7	4.7	552
행정구역										
양강도	99.3	5.5	0.0	98.5	98.5	13.8	2.2	68.2	4.2	43
함경북도	100.0	6.0	0.0	95.5	97.0	30.2	2.4	88.2	5.2	134
함경남도	91.1	5.5	0.8	97.1	100.0	22.0	2.2	75.0	4.6	180
강원도	98.6	5.7	0.0	96.4	99.3	27.7	2.4	91.3	5.1	88
자강도	97.2	5.6	0.0	98.6	100.0	36.2	2.6	83.5	5.1	78
평양북도	83.8	4.9	0.0	97.0	97.8	18.4	2.2	73.5	4.4	159
평양남도	94.9	5.4	0.0	96.2	99.3	13.5	1.6	80.6	4.6	232
황해북도	93.1	5.5	1.4	95.1	98.6	27.3	2.3	66.3	4.0	144
황해남도	97.2	5.6	0.7	98.6	99.3	9.1	1.7	90.0	5.1	140
평양	100.0	5.9	0.0	99.2	99.2	24.0	2.4	86.6	5.1	167
연령										
2세	94.1	5.5	0.2	97.3	99.5	18.2	2.0	82.0	4.8	451
3세	95.2	5.6	0.5	97.3	98.9	20.9	2.1	79.4	4.7	457
4세	95.0	5.6	0.2	96.7	98.2	24.7	2.3	79.9	4.6	457
모 교육수준1)										
소학교	(*)	(*)	(*)	(*)	(*)	(*)	(*)	(*)	(*)	1
고급중학교	94.0	5.5	0.4	96.7	98.9	20.9	2.1	79.5	4.7	1,116
대학 이상	98.2	5.7	0.0	98.8	98.8	23.2	2.2	84.6	4.9	248
부의 교육수준										
탁아소/유치원/없음	(*)	(*)	(*)	(*)	(*)	(*)	(*)	(*)	(*)	1
고급중학교	94.8	5.5	0.4	100.0	99.4	22.1	2.2	79.7	4.7	810
대학 이상	94.3	5.6	0.3	100.0	99.5	21.4	2.2	82.8	4.8	513
생물학적 부의 가정 부재	(100.0)	(5.8)	(0.0)	(0.0)	(82.0)	(4.9)	(0.4)	(64.1)	(4.1)	40
기능적 어려움										
있음	(80.4)	(5.0)	(0.0)	(100.0)	(100.0)	(11.6)	(2.1)	(70.1)	(4.5)	26
없음	95.1	5.6	0.3	97.0	98.9	21.5	2.1	80.6	4.7	1,339

구분	성인 가구 구성원 참여율			부모 중 동거하는 비율		부 참여율		모 참여율		2-4세 아동수
	4개 이상의 활동	평균 정도의 활동	활동 하지 않음	부	모	4개 이상의 활동	중간 숫자의 활동	4개 이상의 활동	중간 숫자의 활동	
소득수준										
20% 이하	94.7	5.5	0.5	98.3	98.9	21.5	2.2	78.8	4.7	271
20% 초과 40% 이상	94.8	5.6	0.4	96.8	99.3	20.9	2.0	79.5	4.7	553
40% 초과	94.7	5.5	0.2	96.8	98.5	21.7	2.1	82.3	4.8	540

주: 1) 이 표와 보고서 전체에서, 모의 교육수준은 5세 미만 아동 보호자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사망했거나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 5세 미만 아동 보호자의 교육적 성취도를 의미한다. In this table and throughout the report, mother's education refers to educational attainment of mothers as well as caretakers of children under 5, who are the respondents to the under-5 questionnaire if the mother is deceased or is living elsewhere na: not applicable
 ()는 25-49 비가중 케이스를 기준으로 함. Figures that are based on 25 - 49 unweighted cases.
 *는 샘플수 25명 미만임.

자료: UNICEF(201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103.

유아기의 발달은 다차원적이며, 생애 초기 몇 년 간 운동, 인지, 언어, 사회-감정적, 자기통제 기술과 능력 등이 순차적으로 발달한다. 신체적 성장, 문해력, 수리력, 사회-감정적 발달 및 학습 준비는 아동의 이후 삶의 기초를 세우고, 건강, 학습, 복지의 궤적을 설정하는 전반적인 발달의 중요한 영역이다.

북한 아동의 발달현황에 관한 공공정책 제안에 활용하고자 10개 항목 모듈을 사용하여 조기 아동 발달 지수(ECDI)를 계산하였다. 해당 지수는 아동이 3-4세 까지 성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목표를 기초로 네 개의 영역 중 적어도 세 개의 영역에서 발달적으로 정상 수준에 있는 아동의 비중(%)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10개의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문해-수리력: 4개 영역에서 아동의 발달이 정상궤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항목이다. 아동이 최소 10개의 알파벳 글자를 식별/명명할 수 있는지 여부, 최소 4개의 단순한 단어를 읽을 수 있는지 여부, 1부터 10까지의 모든 숫자의 기호를 알고 인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이들 중 적어도 두 가지를 충족한다면, 해당 아동은 발달적으로 정상 수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2) 신체적 요소: 아동이 손가락을 사용하여 작은 물체를 집어들 수 있는가를 측정한다. 즉, 막대기나 바닥의 돌멩이처럼 작은 물체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 수 있거나, 엄마/돌봄자

가 아이가 가끔 너무 아파서 놀 수 없다고 보고하지 않는다면, 아동은 신체적 영역에서 발달적으로 정상 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

- 3) 사회-감정적 요소: 다음 중 두 가지가 사실일 경우 아동은 발달적으로 정상 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 아동이 다른 아동과 잘 어울릴 경우, 아동이 다른 아동을 발로 차거나 물거나 때리지 않을 경우, 그리고 아이가 쉽게 산만해지지 않을 경우 등이다.
- 4) 학습능력: 아동이 지시에 따라 어떤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거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해당 아동은 본 영역에서 발달적으로 정상 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

영역별로 보면, 문해-수리력에 있어서 EDCI 지수가 28.6%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체적 요소, 학습능력 등은 각각 99.7%, 97.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문해-수리력에 있어서 평안남도가 22.0%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양강도가 37.5%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초기아동 발달지수에 있어서도 행정구역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황해남도가 72.6%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평양이 98.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아동의 연령별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세의 경우 문해-수리력이 정상 수준인 것으로 간주되는 아동의 비율이 14.9% 수준에 그쳤으나, 4세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4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교육에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문해-수리력 정상 수준의 아동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교육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아동 중에서는 32.0%의 아동이 정상 수준의 발달을 보이는 반면, 유아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정상 수준의 발달을 보이는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2〉 영역별 3-4세 아동 발달

구분	각 영역에서 발달한 아동의 비율				초기 아동 발달 지수	3-4세 아동 수
	문해-수리력	신체	사회-정서적	학습		
계	28.6	99.7	86.4	97.7	87.7	914
성별						
남	28.4	99.8	84.9	98.0	86.2	468
여	28.8	99.5	88.1	97.3	89.2	446

구분	각 영역에서 발달한 아동의 비율				초기 아동 발달 지수	3-4세 아동 수
	문해-수리력	신체	사회-정서적	학습		
지역특성						
도시	29.9	99.7	88.0	98.0	88.9	542
농촌	26.8	99.6	84.2	97.1	85.9	372
행정구역						
양강도	37.5	100.0	91.2	100.0	94.6	28
함경북도	25.5	100.0	70.1	98.9	80.1	90
함경남도	37.2	100.0	88.0	98.9	92.3	120
강원도	26.7	100.0	93.7	100.0	94.8	60
자강도	30.3	97.8	82.8	96.8	84.9	52
평안북도	23.9	100.0	79.1	94.6	78.0	105
평안남도	22.0	100.0	92.3	98.9	91.2	156
황해북도	36.5	99.0	89.6	97.0	90.7	97
황해남도	25.2	99.0	76.7	92.6	72.6	94
평양	29.6	100.0	98.8	100.0	98.8	112
연령						
3세	14.9	99.7	86.2	96.7	85.0	457
4세	42.3	99.7	86.7	98.6	90.4	457
유아교육 참여						
참여	32.0	99.7	88.5	97.6	89.9	665
미참여	19.6	99.6	80.9	97.7	81.9	248
모의 교육수준						
소학교	(*)	(*)	(*)	(*)	(*)	1
고급중학교	29.4	99.6	86.9	97.4	87.8	749
대학 이상	25.1	100.0	84.3	99.0	87.3	164
기능적 어려움						
있음	(*)	(*)	(*)	(*)	(*)	18
없음	28.9	99.7	86.7	97.7	87.9	896
소득수준						
20% 이하	28.7	99.1	79.0	95.3	80.9	182
20% 초과 40% 이상	26.0	99.8	87.6	97.1	87.9	379
40% 초과	31.4	99.7	89.1	99.5	91.0	353

주: (*)는 25-49세 비가중 사례를 바탕으로 함.

*는 샘플수 25명 미만임.

자료: UNICEF(201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107.

생애 초기에 책을 접하게 되면 아동이 인쇄물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학업성취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5세 미만 아동의 모(또는 돌봄자)에게 자녀를 위해 가지고 있는 아동 책이나 그림책의 수와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장난감 종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동용 도서의 경우 3권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50.3%) 10권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2.3%) 보다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산품 장난감이 89.9%를 차지하여 집에서 만든 장난감(41.9%) 비중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용 도서 보유의 경우, 행정구역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강도의 경우 3권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5.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평양(64.4%), 자강도(63.6%), 함경북도(62.1%) 등에서는 60%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13〉 가정 내 아동용 도서 및 장난감

단위: %, 명

구분	아동용 도서 소장		사용 장난감				5세 이하 아동 수
	3권 이상	10권 이상	집에서 만든 장난감	가게구입 /공산품 장난감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가정용품	2개 이상 장난감	
계	50.3	2.3	41.9	89.8	39.6	59.4	2,275
성별							
남	50.0	2.4	42.3	89.8	40.4	60.3	1,164
여	50.6	2.3	41.4	89.8	38.7	58.4	1,111
지역특성							
도시	55.0	3.2	40.0	91.6	36.5	56.9	1,361
농촌	43.1	1.0	44.6	87.2	44.1	63.1	914
행정구역							
양강도	35.2	3.1	43.5	86.9	39.6	57.5	71
함경북도	62.1	1.4	52.9	95.5	62.3	76.9	221
함경남도	47.5	1.8	41.3	89.3	43.7	60.2	298
강원도	50.8	0.9	40.9	93.2	29.3	55.8	148
자강도	63.6	3.0	46.3	85.4	32.8	56.3	131
평안북도	40.7	0.5	18.5	78.2	29.1	35.5	264
평안남도	47.9	1.8	47.6	90.1	35.0	67.3	386
황해북도	47.1	2.1	41.3	90.4	52.3	67.8	242
황해남도	40.6	2.9	58.8	89.1	53.1	74.2	237
평양	64.4	6.3	31.9	97.6	19.3	39.9	278

구분	아동용 도서 소장		사용 장난감				5세 이하 아동 수
	3권 이상	10권 이상	집에서 만든 장난감	가게구입 /공산품 장난감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가정용품	2개 이상 장난감	
연령							
0-1세	29.0	1.0	31.0	82.0	20.3	40.0	911
2-4세	64.4	3.2	49.1	95.1	52.4	72.3	1,364
모의 교육수준							
소학교	(*)	(*)	(*)	(*)	(*)	(*)	1
고급중학교	49.1	2.0	43.3	89.0	40.2	60.1	1,854
대학 이상	55.3	4.0	35.8	93.2	36.6	56.4	420
기능적 어려움 (2-4세)							
있음	(40.3)	(4.0)	(25.6)	(95.5)	(60.4)	(66.4)	26
없음	64.9	3.2	49.6	95.1	52.3	72.4	1,339
소득수준							
20% 이하	43.3	0.8	46.5	87.0	45.7	63.6	448
20% 초과 40% 이상	48.2	1.7	42.7	88.9	43.3	62.4	912
40% 초과	55.7	3.7	38.8	92.2	32.8	54.3	914

주: ()는 25-49 비가중 케이스를 기준으로 함. Figures that are based on 25 - 49 unweighted cases.

*는 샘플수 25명 미만임.

자료: UNICEF(201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104.

2. 북한 영유아 관련 법제도 분석

가. 법제도 및 현황

1) 법체계

북한의 영유아교육보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이하 「어린이보육교양법」이라고 한다)」이 규율하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 교육보육 및 아동복지와 관련한 법규정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이하 「여성권리보장법」이라고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이하 「아동권리보장법」이라고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 (이하 「보통교육법」이라고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이하 「장애자 보호법」이라고 한다)」 등에 산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북한 법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법제도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법제

가) 연혁 및 구성

북한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련 법령은 「어린이보육교양법」⁷⁾이다. 이 법은 1976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7호로 채택된 이후에 1999년 3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8호와 2013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8호로 수정보충 되었다. 제1장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 제2장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제3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 제4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 제5장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보육원, 교양원, 제6장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의 총 6장 6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나) 법의 목적과 원칙

(1) 강한 이념적 성격

제1장은 대한민국 법률의 체계와 비교하자면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이념적 성격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혁명의 계승’과 ‘사회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혁명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이 “조국의 미래이며 대를 이은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라는 점과(제1조)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법”(제4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제6조)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관련해서는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사회주의적시책”(제7조) 등을 내세운다. 아울러 어린이들을 키우는 것을 가정이 아닌 ‘사회적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본다(제2조). 보육을 사회주의국가의 중요시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내세워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제2조). 이러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해 국가가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7) 장명봉(편) (2018). 최신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903-907면.

지도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8조).

또한 북한의 보육환경 및 여건의 현실적 상황과 무관하게 선진적이고 우월적인 보육제도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체제선전을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제6조)”, “가장 훌륭하게 마련된 현대적인 보육교양조건에서 세상에 부럽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제5조)” 등이 대표적인 체제선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린이들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워준다(제9조)”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체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망명자들의 자녀들도 국가부담으로 양육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나, 북한의 현실태를 감안하면 규범과 실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괴리되어 있는 명목상의 규정에 불과하다.

(2) 국가와 사회의 책임 강조

「어린이보육교양법」을 관통하는 최우선 원칙은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운다는 점이다(제2조·제5조). 그리고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적용대상은 출생한 때부터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모든 어린이를 말한다(제5조·제10조). 이 법이 지향하는 바대로 보육이 이뤄진다면, 출생 이후 취학 전 모든 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셈이다.

국가와 사회의 부담은 국가의 지도통제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제8조)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관한 구체적 내용

(1) 원칙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어린이양육이 국가와 사회적 부담임을 강조하며, 총 11개의 조문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는 사업에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요

구를 철저히 관철한다(제11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제12조).

(2) 시설과 식량 제공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어린이보육교양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에 건설하고 악기, 놀이감, 출판물, 교구비품 같은것을 갖추어주어야 한다(제13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거리와 마을, 어린이들이 있는 곳곳에 아동공원과 놀이터를 꾸리고 여러가지 놀이시설을 갖추어주어야 한다(제14조). 국가는 어린이옷, 신발과 여러가지 어린이용품을 제일 좋게 만들며 그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상하는 정도 또는 그보다 낮게 값을 정하고 그 차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제17조). 시설 등의 제공에 관해 규정할 때에는 구체적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나,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좋게 만들며’ 등의 추상적 표현으로 시설 및 의복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엄밀성이 결여된 북한 법규범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말미암아 이 법을 선언적 규범에 불과하게 만들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자부터⁸⁾ 식량을 공급받는다(제15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젓, 고기, 알, 과일, 남새와 당 과류 같은 여러가지 가공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제16조).

(3) 혁명열사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한 보호

국가는 혁명열사, 애국열사,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그들의 보육교양에 깊은 배려를 돌린다(제19조).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는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키운다(제18조). 혁명열사 등의 국가유공자와 군인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8) 북한의 원문대로 ‘태어어나부터’라고 표기하였다.

(4) 모성보호

국가는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에게 산전산후 휴가를 보장한다. 산전산후 휴가기간의 생활비와 식량, 분배몹은 국가와 사회협동 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는 산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통하여 임신한 여성들을 제 때에 등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 산후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그에 맞는 험한 일을 시키며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로동시간안에 젓먹이는 시간을 보장한다. 국가는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의 로동시간을 줄이고 그들에게 용근 생활비를 준다(제20조). 임신부에게 산전산후휴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어린이를 양육하는 여성의 노동 시간 감축 및 수유시간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간 및 기준 등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다. 1976년 제정되어 2013년 최종개정된 이 법과 달리 2010년 제정되어 2015년 최종개정된 「여성권리보장법」 제33조는 근속연한과 무관하게 여타의 휴가와 별개로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임신부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것(근로기준법 제74조)보다 더 긴 휴가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한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 한번에 둘이상의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에게는 유급으로 일정한 기간 산후휴가를 더 준다. 3명 이상의 쌍둥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일정한 기간 옷과 포단, 젓 제품 같은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보조금을 주며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의료일금을 따로 담당시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아 준다(제21조). 다자녀를 양육하거나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I-2-1〉 남북한 법령 비교(출산 및 유급휴가, 근로기준 단축, 수유시간)

	남한법령	북한법령
출산휴가	출산 후 45일, 총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 후 60일, 총 120일)	산전 60일, 산후 180일
유급휴가	최초 60일은 유급	한번에 둘이상의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에게는 유급으로 일정한 기간 산후휴가 추가

	남한법령	북한법령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 허용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임산부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 근로금지	국가는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그들에게 옹근 생활비를 줌 (구체적인 시간 규정하지 않음)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	노동시간 중 첫먹이는 시간 보장

라) 보육 및 교육의 방향성과 기준

(1) 시설에 대한 기준

나라의 꽃봉오리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슬기롭게 키우는 것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제22조). 탁아소와 유치원은 어린이들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피며 집단보육규범과 위생방역규범의 요구에 맞게 키워야 한다.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꾸리고 방안의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보장하며 공기, 햇빛⁹⁾, 물과 의료기구, 체육기재에 의한 몸단련을 나이와 체질에 맞게 정상적으로 시켜야 한다(제23조). 국가는 온천과 약수터, 바다가, 경치좋은 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료양시설을 잘 꾸려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제27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상태를 종합분석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어린이보육사업을 과학화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제28조).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보장’, ‘경치좋은 곳’ 등의 불명확한 표현으로 시설기준을 규정하여 구체성이 결여됨으로서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의료 및 영양 기준

북한의 의료수준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제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나, 규범상으로는 전반적인 무상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탁아소에 아동병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아동에게 전반적인 무상의료가 제공된다면 매우 이상적인 사회

9) 북한의 원문대로 ‘햇빛’이라고 표기하였다.

겠지만, 현실에서 실현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경우 법은 국가와 사회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체제선전도구에 불과하게 된다.

탁아소와 유치원은 영양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주식과 새참을 어린이들의 나이와 특성에 맞게 충분히 먹여야 한다(제24조).

국가는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를 준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의료봉사는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무상치료제에 따라 무료로 한다. 탁아소, 유치원마다 의료일군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공급하며 전문 의료기관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병을 제때에 예방치료한다(제25조).

국가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며 녀성들의 사회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탁아소가 있는 모든 곳에 아동병동을 둔다. 아동병동에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정도로 앓는 탁아소의 어린이들을 받아 치료한다(제26조). (어린이보육교양법 인용)

(3) 의무교육 이전 교육의 방향 및 내용

북한의 의무교육 이전 교육의 방향 및 내용을 고려하면, 유치원 높은반 1년은 학교전 의무교육을 주나, 학교전 교육에는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혁명적인 조직생활기품을 키우며, 문화어, 글자쓰는 법, 셈세는 법과 같이 학교교육을 원만하게 받을 수 있는 기초지식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교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유치원의 높은반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준다. 학교전 의무교육기간에는 어린이들에게 혁명적인 조직생활기품을 키워주며 문화어, 글자쓰는 법, 셈세는 법 같은 학교교육을 원만히 받을수 있는 기초지식을 준다(제36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하도록 한다(제37조). (어린이보육교양법 인용)

마) 보육기관

어린이보육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탁아소는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유치원에 가기전까지의 기간에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유치원은 남한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며, 취학 전 아동들이 학교에 갈 준비교육을 주는 교육 기관이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을 국가가 맡아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제39조). 유아교육과 보

육기관이 남한과 마찬가지로 이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국가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주택지구와 여성들의 일자리에 가까운 곳에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주, 월 탁아소, 유치원을 널리 조직운영한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와 건물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두는것을 금지한다(제40조).

보육원, 교양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기도 하다. “어린이들을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새세대로 키우는 영예로운 혁명가”, “보육원, 교양원은 인민의 높은 존경과 신임을 받는다”, “국가는 보육원, 교양원을 사랑하고 적극 도와주어.. 모든 정력을 다 바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린다”, “일군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수여를 비롯한 배려”(제41조) 등이 그 예이다.

한편으로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자기의 온갖 정열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충복, 진정한 혁명가가 되어야”(제42조),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제43조)라고 규정함으로써 혁명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

보육원, 교양원을 비롯한 어린이보육교양기관 일군은 어린이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질병이 없어야 하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해당한 자격을 소유하여야 한다. 어린이보육교양기관 일군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 어린이보육교양기관에서 일할수 없다(제44조).

보육원, 교양원은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소유하여야 하며 모든 면에서 어린이들의 참다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제45조).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명랑하고 품성이 바른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워야 한다(제46조).

바) 국가의 보육사업에 대한 지도 및 통제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 즉 유치원과 탁아소 관련 사업들은 내각의 하에 중앙 교육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다 (제 47조 참조).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다음과 같이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1. 어린이보육교양강령과 탁아소, 유치원사업규범을 만들며 보육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한다. 2.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한다. 3. 보육원, 교양원의 양성과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한다. 4. 어

린이보육교양사업과 관련한 기술방법적인 지도를 한다(제48조).

지방정권기관은 관할지역안의 탁아소와 유치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조직지도한다. 1.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며 해당 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도록 한다. 2.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의료봉사를 주기 위한 사업을 한다. 3. 탁아소, 유치원을 건설하고 보육교양설비를 갖추며 식료품을 비롯한 물질적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제49조).

이러한 지도통제강화를 위해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 “정치사업을 앞세우고”(제50조),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을 정확히 집행하”, “어린이관리책임제를 강화”(제51조), “보육원, 교양원을 수요에 맞게 질적으로 양성”(제52조) 등을 강조한다. 지도통제를 위하여 법 위반시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제60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과학연구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문예기관은 어린이교육교양을 위한, 영화, 노래, 춤, 동시, 동화 같은 혁명적인 문예국가는 어린이용품과 식료품의 생산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어린이용품 및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에서 어린이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제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며 그 질을 높이도록 한다(제54조).

국가는 중앙과 지방에 탁아소, 유치원물자공급기관을 둔다. 탁아소, 유치원물자공급기관은 어린이용품, 식료품 같은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물자를 책임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제55조). 사회협동단체는 탁아소, 유치원의 물질적조건을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협동농장은 닭, 염소, 젖소 같은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 과일과 남새를 잘 저장하여 농장의 탁아소와 유치원에 필요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제56조). 육아원과 애육원에서의 어린이보육교양과 그에 대한 지도통제사업은 이 법에 따른다(제57조).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절약하여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제58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어린이보육교양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제59조).

사) 어린이보육교양법의 특징

「어린이보육교양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이념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가주도의 보육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나타난

다. 북한에서는 사립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보육시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보육 및 양육비용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어린이보육을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국가의 지도통제를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은 물론이고, 보육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등의 배려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한계점도 뚜렷하다. 국가의 지원규모 및 대상, 시설 여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데 머물고 있다. 설사 추상적 법규범이더라도 경제적 여건과 재정적 여력이 뒷받침된다면, 국가주도의 보육체계를 구축하여 부모가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고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겠지만, 북한의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법규범은 선전도구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3) 유치원 학제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¹⁰⁾

「보통교육법」이 유치원 학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11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55호로 채택되어 2013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55호로 수정보충되었고, 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8호로 한 차례 더 수정보충되었다.

가) 중등일반의무교육의 학제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는 12년이며 학교전교육 1년과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한다(제10조). 보통교육기관은 학업내용과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1년제 학교전교육을 위한 유치원
2. 5년제 초등교육을 위한 소학교
3. 3년제 낮은 단계의 중등교육을 위한 초급중학교
4. 3년제 높은 단계의 중등교육을 위한 고급중학교
5. 장애자교육을 위한 맹, 룡아학교

10) 장명봉(편) (2018). 최신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892-896면.

6. 특정한 대상의 교육을 위한 학원

7. 수재형의 학생들을 위한 제1중학교(제19조)

남한의 학제와 비교하자면, 유치원을 1년과정으로 두고 있고 초등학교 과정을 5년제로 하여 1년 더 짧다. 그 외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은 동일하다.

나) 학령연령 및 무상교육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 나이는 5살부터 16살까지이다. 뛰어난¹¹⁾ 소질과 재능을 가졌을 경우에는 나이 또는 학년에 제한없이 교육을 앞당겨받을 수 있다(제 11조).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해마다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를 빠짐없이 장악하여 취학시켜야 한다. 그러나 육체적 및 지적장애를 받는 어린이는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취학나이를 늦출 수 있다.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내야 한다(제12조).

중등일반교육은 무료이다. 학생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일체 교육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보통교육기관은 학생이나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하여 일체 요금을 받을 수 없다(제 13조).

의무교육연령을 5세부터 16세까지로 규정하여 유치원부터 고급중학교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하고 있다.

4) 아동복지 관련 법제

가) 연혁 및 구성

북한의 아동복지 관련 법령은 「아동권리보장법」¹²⁾이다. 이 법은 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07호로 채택되어 2014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호로 수정보충되었다. 총 6장 62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11) 북한의 원문 그대로 표기하였다.

12) 장명봉(편) (2018). 최신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1132-1136면.

나)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원칙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권리 보장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로 보장”(제1조)하고, 출신성분이나 성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직위와 무관하게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한다(제3조). 이 법의 적용대상 아동의 연령은 16살까지이다(제2조).

아동은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 국가는 12년 동안 무료의무교육과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제5조).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는 가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6조).

국가는 아동의 건강 교육교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일 좋은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하고(제8조), 아동권리보장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발전시킨다(제9조). 이 법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익을 보호하는데서나서는 문제들을 규제한다. 아동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에 따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입한 아동권리보장관련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10조).

다)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아동은 생명권과 발전권(제11조), 출생과 함께 이름을 가질 권리, 국가와 사회,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제13조), 부모의 출생등록 의무부과(제14조). 국적과 이름, 가족관계 같은 신원을 보존할 권리(제15조), 표현의 자유 및 명예훼손 금지(제16조), 아동의 사생활과 가족, 서신, 명예, 인격에 대한 법적 보호(제17조), 아동에 대한 범죄를 금지(제18조), 아동노동금지(제19조), 청원권(제20조), 망명아동 권리의 법적 보호(제2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생명권과 발전권(제11조), 출생과 함께 이름을 가질 권리, 국가와 사회,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2조).

공화국공민사이에 출생한 아동,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공화국공민과 다른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 아동,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 아동, 공화국령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출생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제13조).

북한에서 출생등록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지, 부모의 출생등록 의무부과를 하는 규정이 있다(제14조). 아동은 자기의 국적과 이름, 가족관계 같은 신원을 보존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기관은 아동의 신원을 정확히 등록하며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15조).

아동은 소년단 같은 아동단체에 가입 할수 있으며 말이나 서면 또는 출판물, 예술 작품 같은것을 통하여 자기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 할수 있다. 사회질서나 공중도덕,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익에 해를 주는 견해를 표시하는것 같은 행위는 할수 없다(제16조). 아동의 사생활과 가족, 서신, 명예, 인격은 법적으로 보호된다(제17조).

아동에 대한 범죄를 금지하는 규정들이 있다. 아동을 유괴, 매매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아동을 유괴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막아야 한다(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아동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공민은 아동에게 로동을 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제19조).

아동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아동의 신소, 청원을 제때에 접수하여 책임적으로 처리하며 그것을 묵살하거나 되는대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공화국에 망명한 아동, 개별적으로 공화국령역에 들어 온 아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제21조).

라) 교육, 보건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교육과 보건은 아동의 성장과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제22조)을 강조하면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무료로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제23조).

「아동권리보장법」은 조직규범도 두고 있는데,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아동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을 제대로 조직해 운영을 바로 함으로서 모든 아동이 교육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 교육기관은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이고 사회 교육기관은 도서관,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등이 포함된다(제24조).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모든 학령 아동을 입학시켜야 하고 아동교육기관과 부모는 아동이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할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제25조).

아동교육일군은 언제나 아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욕설, 추궁, 모욕, 구타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제26조). 아동은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특수한 재능을 가진 아동이 자기의 희망에 따라 교육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제27조).

아동은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의 권리를 가진다.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극장, 영화관, 공원, 유희장, 동물원, 식물원 같은 시설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바로하여 아동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제28조).

출판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아동의 성장과 교육교양에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문예 작품을 비롯한 각종 도서들을 아동의 심리와 수요에 맞게 잘 만들어 보급하여야 한다(제29조).

장애 아동은 다른 아동과 똑같은 교육과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맹,聋아학교를 바로 운영하며 장애 아동의 교육, 치료,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제30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아동은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다(제31조).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깊은 산골, 외진섬 같이 주민지역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의 아동에 대한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제32조). 아동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드는 일체 진찰비와 실험 검사비, 약값, 입원 치료비, 료양비, 료양소에 오가는 려비, 건강검진비, 의료상담비, 예방접종비, 교장기구비 같은것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제33조).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탁아소, 유치원, 학교에 의료일군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원만히 공급하며 아동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도록 하여야 한다. 병이 난 아동에 대하여 서는 제때게 전문의료기관을 통하여 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4조).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필요한 곳에 전문 아동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아동병원 또는 아동병동을 꾸리고, 그 관리운영을 바로하여 모든 아동을 든든하게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제35조).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온천과 약수터, 바다가, 경치좋은 곳에 료양시설을 잘 꾸리고 아동들이 적극 리용하면서 건강을 증진하도록 온갖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제36조). 해당 기관, 기업소는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제와 영양식품, 생활용품을 더 많이 개발하고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아동물자공급기관과 해당 상업 기관, 교육기관은 생산된 제품이 아동들에게 정확히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제37조).

마)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가정은 아동생활의 중요한 거점이다.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에 유리한 가정적환경을 보장하며 그들의 교육교양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제38조). 아동은 부모의 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부모는 아동에게 모범이 되며 그들에 대한 양육과 교양을 잘하여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야 한다(제39조).

부모 또는 후견인은 신체상결함이 있는 아동에 대한 교육교양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그의 생활과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야 한다(제40조).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제41조).

가정에서는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홀시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제42조). 가정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 무관심, 욕설, 추궁, 구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제43조).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아동을 위하여 후견인을 정한다. 아동의 후견인으로는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수 있다(제44조). 공민은 다른 사람의 아동을 수양하거나 립양할수 있다. 이 경우 수양, 립양한 아동을 친자식처럼 양육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아동의 수양, 립양권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선거권을 박탈당한자, 아동의 건강에 해를 줄수 있는 질병이 있는자 그밖에 보육 교양능력이 없는자는 아동을 수양하거나 립양할수 없다(제45조). 아동은 상속권을 가진다. 해당 기관과 공민은 아동이라는 리유로 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제46조).

바)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법 기관은 아동범죄를 취급하는 경우 사건취급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에게 차례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제47조). 대한민국 형법과 마찬가지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다. 14살에 이르지 못한 아동은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범죄실행당시 14세 이상의 아동은 사형대상이 될 수 없다(제48조). 14살이 상에 이른 아동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아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아동

과 차별하지 않는다(제49조). 사회적교양처분은 대한민국의 보안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를 저지른 14살이상의 아동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제50조). 아동 범죄를 취급처리하는 과정에 아동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 강제적 방법으로 아동에게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제51조). 아동 증인채택시 심문할 경우 부모 등의 입회 필요, 입회 없을 경우 증인심문금지(제52조), 체포 구속의 이유와 장소 고지(제53조) 등의 적법절차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혼을 금지하고, 이혼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혼하지 않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고 있다(제54조). 이혼시 아동양육은 합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살 이하 아동은 모친이 양육하도록 하고 있고, 매달 양육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양육비 아동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범위에서 재판소가 정한다(제56조). 아동을 둔 부부의 이혼을 금지하나, 사적 영역이므로 원칙적으로 막진 못하고, 가급적 이혼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가가 지도편달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14살이상의 아동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기관은 아동이 변호인을 선정 하고 그의 방조를 받을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제50조). 법기관은 아동범죄를 취급처리하는 과정에 아동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강제 적 방법으로 아동에게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제51조). 법기관은 아동을 증인으로 데려다 심문할 경우 그의 부모나 후견인, 교원 같은 보호자를 립 회 시켜야 한다. 보호자의 립회 없이 아동을 증인으 로 심문할수 없다(제52조).

법기관은 아동의 부모를 범죄자로 체 포, 구속하였을 경우 아동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체 포, 구속의 리유와 구속장소 같은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제53조). 리혼은 아동의 불행으로 된다.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리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재판소는 아동을 가진 부부리혼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아동의 리익을 위하여 부부가 갈라지 지 않도록 교양하여야 한다(제54조).

부모가 리혼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문제는 아동의 리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정한다.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3살아 래 아동은 어머니가 양육한다(제55조).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아동의 양육을 맡은 당사자에게 아동이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 까지 양육비를 월마다 지불하여야 한다. 양육비는 아동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범위에서 재판소가 정한다(제56조).

사)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제57조).

국가는 해당 과학연구기관을 른튼히 꾸리고 아동보호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제58조). 국가계획 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아동보호사업에 필요한 자금, 자재, 설비, 물자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제59조). 아동에 대한 교육교양과 보건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아동을 위한 교육교양사업과 보건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제60조).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사업 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제61조).

이 법을 어겨 아동권리보장사업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 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제62조).

나. 남한법령과 북한법령의 비교

1) 쟁점별 비교

가) 교육 및 보육의 이념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의 하위법률이어서 교육의 이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교육의 이념은 「교육기본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은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의 이념을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

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이념에 대해 여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혁명위업’, ‘해방’, ‘공산주의건설’,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 등을 강조하고 있다.

〈표 II-2-2〉 남북한 법령 비교(교육 및 보육의 이념)

남한법령		북한법령
교육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우리 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데 이바지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훌륭하게 마련된 현대적인 보육교양조건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 이 배려는 우리 나라에 세워진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 그리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사회주의적시책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며 나라의 경제 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끊임없이 증대된다.

나) 연령기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들 기관이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의 연령 기준이 상이하 다. 「유아교육법」은 제2조 정의 조항 제1호에서 “유아”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 반면,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는 “영유

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양자 간의 차이는 부모들이 0-2세 아동을 유치원에 취원시킬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은 “태어난 때부터 학교에 가기전까지의 어린이”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II-2-3〉 남북한 법령 비교(연령기준)

남한법령		북한법령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정의 조항 제1호에서 “유아”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2조 제1호는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제10조 이 법에서 어린이라 함은 세상에 태어난 때부터 학교에 가기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다) 시설의 이원화

「유아교육법」의 유치원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가 교육을 받는 학교이고,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다.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도 시설을 탁아소는 유치원에 가기전까지의 기간에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고, 유치원은 학교에 가기전까지의 어린이들에게 학교에 갈 준비교육을 주는 교육 기관이다. 그 외에 육아원과 애육원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을 국가가 맡아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표 II-2-4〉 남북한 법령 비교(시설의 이원화)

남한법령		북한법령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9조 어린이보육교양기관에는 탁아소, 유치원과 육아원, 애육원이 속한다. 탁아소는 유치원에 가기전까지의 기간에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유치원은 학교에 가기전까지의 어린이들에게 학교에 갈 준비교육을 주는 교육 기관의 하나이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을 국가가 맡아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라) 무상보육시기 및 보육료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고(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34조의 2 제1항).¹³⁾

영유아보육법은 무상보육에 관한 특례조항을 2011년 6월 7일 개정하여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¹⁴⁾의 자녀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무상보육 대상자를 ①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② 장애아, ③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정하고 있다. 다만 제1항이 정하지 않은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하여 장관의 재량을 열어두고 있다.

한편, 유아교육법은 2012년 3월 21일 개정하여 기존의 무상교육대상자를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다.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만 3세 이상인 유아도 무상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다¹⁵⁾

13)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7(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이 정하고 있다.

1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15) 유아교육법은 2012년 3월 21일 개정하여 기존의 무상교육대상자를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다.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 받은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예산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하고 있고(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장애아와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동조 제2항). 따라서 장애아와 다문화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지만, 그렇지 않은 무상보육 대상자에 대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다. 그 외에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은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제2조)고 규정하면서, 식량공급(제15조·제16조), 옷과 신발(제17조), 무상치료(제2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식량공급의 경우 북한이 식량부족국가이다 보니, 어린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식량공급을 하기 위해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2-5〉 남북한 법령 비교(무상보육 시기)

남한법령		북한법령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동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동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	제10조 이 법에서 어린이라 함은 세상에 태어난 때부터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남한법령		북한법령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p>이집</p> <p>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p> <p>②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p> <p>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표 II-2-6〉 남북한 법령 비교(보육비 또는 교육비 지원)

남한법령		북한법령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p>제26조(비용의 부담 등)</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 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p> <p>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34조(무상보육)</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p> <p>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자부터 식량을 공급받는다.</p> <p>제16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젓, 고기, 알, 과일, 남새와 당 과류 같은 여러가지 가공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p> <p>제17조 국가는 어린이옷, 신발과 여러가지 어린이용품들 제1종 좋게 만들며 그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상하는 정도 또는 그보다 낮게 값을 정하고 그 차액은 국</p>

남한법령		북한법령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p>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p>	<p>가에서 부담한다.</p> <p>제25조 국가는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를 준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의료봉사는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전반적무상치료제에 따라 무료로 한다. 탁아소, 유치원마다 의료일군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공급하며 전문의료기관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병을 제때에 예방치료한다.</p>
<p>동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p>	<p>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p>	

남한법령		북한법령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교구비		

마) 시설기준

현행 법령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공간구성, 기초환경 및 설비, 안전시설 등의 면에서 상이한 기준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시행령 및 별표에 의해 자세한 규율이 제공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은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유치원의 교사, 복합시설, 교사용 대지, 체육장, 교지,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교구, 급수·온수공급시설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서도 유사하게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은 제15조의2에서 놀이터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제15조의3에서 비상재해대비 시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일응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우리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세한 시설기준과는 달리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가령,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에 건설(제13조)”, “악기, 놀이감, 출판물, 교구비품 같은 것(제13조)”, “방안의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보장(제23조)”, “온천과 약수터, 바다가, 경치 좋은 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료양시설(제27조)” 등으로 규율하고 있다.

〈표 II-2-7〉 남북한 법령 비교(시설기준)

남한법령		북한법령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제13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어린이보육교양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

남한법령		북한법령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p>동법 시행령 제 8 조(유치원의 설립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법 제 15조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 2 조(시설·설비기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제 3 조(교사) 제 3 조의2(복합시설) 제 4 조(교사용 대지) 제 5 조(체육장) 제 6 조(교지) 제 7 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제 8 조(교구) 제10조(급수·온수공급시설) 제11조 삭제 <2005.11.4.> 제12조(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제17조(학생정원의 증원에 따른 시설기준 등)</p>	<p>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동법 시행규칙 제 9 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p>	<p>에 건설하고 약기, 놀이감, 출판물, 교구비품 같은것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 탁아소와 유치원은 어린이들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피며 집단보육규범과 위생방역규범의 요구에 맞게 키워야 한다.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꾸리고 방안의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보장하며 공기, 햇빛, 물과 의류기구, 체육기재에 의한 몸단련을 나이와 체질에 맞게 정상적으로 시켜야 한다. 제27조 국가는 온천과 약수터, 바다가, 경치좋은 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료양시설을 잘 꾸려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p>

바) 교사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뉘고, 각각 교육과정 수료 및 승급교육을 받아야 한다.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의 직원은 질병이 없어야 하

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해당한 자격을 소유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보통교육법」은 유치원의 교원자격을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그와 같은 교육을 받은 대상으로서 정해진 기준에 도달한자로 규정하고 있다.

〈표 II-2-8〉 남북한 법령 비교(교사자격)

남한법령		북한법령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p>「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p> <p>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p> <p>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p> <p>④ 삭제</p> <p>⑤ 삭제</p> <p>제23조(강사 등) ①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외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p>	<p>「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p> <p>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p> <p>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p> <p>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p> <p>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사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어린이보육교양법 제44조 보육원, 교양원을 비롯한 어린이보육교양기관 일군은 어린이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출수 있는 질병이 없어야 하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해당한 자격을 소유하여야 한다.</p> <p>어린이보육교양기관 일군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 어린이보육교양기관에서 일할수 없다.</p> <p>보통교육법 제19조 (보통교육기관의 구분)</p> <p>보통교육기관은 학업내용과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p> <p>1. 1년제 학교전교육을 위한 유치원</p> <p>제30조(교원의 자격)</p> <p>보통교육부문의 교원자격은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그와 같은 교육을 받은 대상으로서 정해진 기준에 도달한자에게 준다.</p> <p>교원은 높은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여야 하며 자질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1조 (교원자격 급수)</p> <p>보통교육부문의 교원자격급수는 교종별로 1, 2, 3, 4, 5급으로 하며 급수판정주기는 3년으로 한</p>

남한법령		북한법령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별표 1] 원장·원감자격기준(제22조제1항관련) [별표 2] 교사자격기준(제22조제2항관련) 동법 시행령 제26조(교원의 자격) 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자격검정령」	동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동법 시행령 [별표 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다. 교원자격급수판정을 위하여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에 교원급수사정위원회를 둔다. 교원자격급수사정절차와 방법, 평가기준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정한다.

2) 분석

가) 강한 국가주의적 이념주의적 색채

남한의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은 국가주의적, 이념주의적 색채가 강하다. “공산주의건설(제1조)”, “혁명위업의 계승자(제1조)”,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제4조)”,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제7조)”,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지도와 통제를 강화(제8조)”,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한다(제31조) ,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제50조)” 등의 규정이 단적인 예이다.

나) 무상보육 강조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제2조)”,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육교양하는 제도와 질서를 규제(제5조)”,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자부터 식량을 공급받는다(제15조)”, “임신한 녀성들을 제때에 등

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제20조)”, “모든 의료봉사는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전반적무상치료제에 따라 무료로 한다(제25조)” 등의 규정이 표방하고 있듯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 입각한 무상보육을 내세우고 있다.

3) 구체성의 결여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출생 이후 취학 전 어린이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대체로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제12조)”,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에 건설하고(제13조)”, “어린이용품을 제일 좋게 만들며(제17조)”, “경치좋은 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료양시설을 잘 꾸려(제27조)” 등의 법령규정은 북한에서 법령이 체제선전도구임을 알 수 있다.

“방안의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보장하며(제23조)”, “여러가지 주식과 새참을 어린이들의 나이와 특성에 맞게 충분히 먹여야 한다(제24조)” 등의 모호한 규정들이 산재해 있다. 대한민국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이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천양지차이다.

다. 통일대비 남북한 영유아관련 법제도의 방향과 과제

통일대비 남북한 영유아관련 법제도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의 의 관계 법령에 기반하여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의 범위 확대, 유보통합의 연계성, 법령의 추상성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의 범위 확대 여부

가장 우선적으로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지의 문제이다. 영유아에 대한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은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의 도입 여부가 이념적 논쟁을 촉발할 것을 계기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 범위 등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둘러싼 갈등, 학부모 간의 형평성 논란 등이 있어 왔다. 지난 10년 동안의 사회적

갈등은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로 이어졌다. 현재 수준의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오히려 초저출산시대와 코로나 19의 여파로 다음 단계의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공산이 크다. 2020년 8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2700명으로 1년 전(32만6800명)보다 2만4100명(-7.4%) 감소했다. 전년 대비로는 2016년부터 4년 연속 감소 흐름이다.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1년 전(0.98명)보다 0.06명(-6.0%) 하락했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심각한 수준의 초저출산시대에 진입했다.¹⁶⁾

한편, 코로나 19는 영유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 집은 코로나 19의 확산단계에 따라 휴원과 휴교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영유아의 학습 격차를 야기하는 한편, 긴급돌봄서비스의 수요 확대를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무상보육이 시작된 이후 시설에 영유아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급증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영유아의 안전을 이유로 시설에 보내길 원치 않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초저출산시대와 코로나 19는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을 어떻게 재편해야 할지 새로운 화두를 던질 것이다. 그 중 중요 쟁점은 영유아에 대한 무상의료도입 여부가 될 공산이 크다. 영유아에 대한 무상의료는 복지의 일환일 수도 있고,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 현재 무상의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이 대표적이다. 2019년까지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까지 무상접종 대상자였으나, 2020년부터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그 외 B형 간염·BCG결핵·DPT·소아마비·뇌수막염·MMR·수두·일본뇌염·A형 간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 국가 지원이 전부 또는 일부 이뤄지고 있다.

2020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가 확대된 것처럼 영유아에 대한 무상의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지만, 미래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논의를 할 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북한의 「보통교육법」은 중등일반교육 대상자를 5세부터 16살까지로 규정하고(제11조), 중등일반교육은 무료라고 정하고 있다(제13조). 그리고 북한의 「어린이

16)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26_0001142673&cID=10401&pID=10400

「보육교양법」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고(제2조), 임신한 여성들을 제때에 등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 산후의 건강을 보호한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에 대한 모든 의료는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 의하고(제25조), 모든 탁아소에 아동병동을 설치하는 것(제26조)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의료수준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어느 정도의 무상의료가 어린이들에게 지원되는지 의문이지만,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한 의료지원이 무상임을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2) 유보통합과의 연계성

현정부에서 유보통합에 관한 논의는 주춤해졌으나, 유보통합 논의는 언제든지 재점화할 공산이 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있기도 하고, 현재의 이원화한 체계가 혼선을 초래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쪽 모두에 일정 수준 형성되어 있다.

다만 유보통합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점은 다양한 쟁점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이원화한 관리체계에서 비롯되는 세부적인 쟁점들은 차치하고, 관리부처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중 어디로 정할지,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할지 아니면 이원화된 체제를 유지하되 관리감독만 통합할지, 신법을 제정할지 아니면 기존법령을 개정할지, 시설과 교사기준을 통합할지 아니면 이원화할지 등의 중요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유보통합의 모델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한다.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해도, 각론에선 치열한 다툼이 이뤄지니 통일과 같은 격변기어나 유보통합의 실현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만약 통일과정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면, 북한의 법령은 참고할만한 지점이 있다.

북한은 국가의 아동보육교양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조하고 있으나, 법제도에서 구체적인 관리부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률은 「어린이보육교양법」으로 단일화했으나, 시설은 탁아소와 유치원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의 직원을 자격을 단지 질병이 없어야 하고, 필요한

전문지식과 해당한 자격을 소유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보통교육법」은 유치원의 교원자격을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그와 같은 교육을 받은 대상으로서 정해진 기준에 도달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컨대 탁아소와 유치원의 교사기준도 다른 것으로 본다.

유보통합의 모델로 북한처럼 관리부처와 법령은 일원화하되, 기관과 교사기준은 이원화하는 모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리감독의 일원화라는 유보통합의 장점은 살리되, 유아교육과 보육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현재의 이원화한 시스템의 장점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II-2-9〉 남북한 법령 비교(교사자격)

	남한	북한
관리부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원화	명문규정은 없으나, 단일부처 감독으로 추정
법령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이원화	어린이보육교양법
기관	유치원과 어린이집	탁아소와 유치원
교사기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기준 이원화	탁아소와 유치원 교사기준 이원화

3) 법령규정의 추상성

북한의 아동 관련 법령들은 대체로 추상적인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기준들이 결여되어있고, 막연한 표현으로 지원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방식은 법령을 체제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실제로 구체적인 지원을 이뤄지지 않은 채 이상적인 구호만 제시함으로써 체제의 안정성만 유지하려는 것이다.

다만, 법령규정의 추상성은 통일대비 법제도에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처벌·권리제한·의무부과를 규정하는 법령은 법규범의 수범자가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수혜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때에는 법령의 불명확한 표현도 일정 수준 허용된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격차를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주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현 시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보아야 한다. 유아교육은 교육청의 관할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별로 다양한 지원을 하

는 것이 지방분권의 정신에 부합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유아교육과 보육에서 지원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선 통합법령이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북한 유치원 교육 제도 분석

가. 북한 유치원 교육의 기본 방향과 특성

1) 북한 유치원 교육목적과 방향

가) 정치사상교양 목표와 내용

북한 유치원 교육목적은 김정은 시대에도 역시 이전의 유치원 교육목적과 다름 없이 ‘혁명사업을 이어갈 후비대를 양성’하는 것이다. 2013년 이후 교육개혁이 있었음도 여전히 유치원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치사상교양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 혁명적인 어린이보육교양이 강조되고 있다.

어린이들은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혁명의 후비대이며 나라의 귀중한 보배입니다.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가 키우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린이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따라 배우도록하며 집단을 사랑하고 조직을 귀중히 여길 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¹⁷⁾

이와 같이 정치사상교육을 중시하면서 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김정은 어린이시절 따라 배우기를 통하여 흠모하도록 하는 감화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다. 유치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구실’이라고 하는 ‘계급교양실’에서 정치사상교양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유치원들에서는 계급교양실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체험자, 목격자들과의 상봉모임을 조직하여 어린이들에게 미제와 일제, 지주, 자본자들이 어떤 원수놈들인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계급의식의 싹을 키워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유치원에서는 별도의 정치사상교양

17) 사설,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 학교전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 『교양원』주체98(2009) 제1호, p.3.

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어린시절 따라배우기를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그들의 탄생신화 상징물인 백두산 정경 시골집 모형 걸개그림 등의 교수매체를 통하여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¹⁸⁾

다만 김정은 어린시절 이야기까지는 가르치지 않는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김정은 시대의 교육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정치사상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김정은이 어린시절 총을 잘 쏘고 백마를 탔다는 영웅 이야기를 가르치고는 있으나, 김정은은 애육원, 유치원, 탁아소 방문이 많고, 영유아를 사랑하는 지도자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교육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과정에서 어린시절이야기는 별도의 교과서가 있지는 않은 대신 도록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학교 과정에서는 책으로 제공된다. 도록판은 전국의 내용이 동일하며 인쇄소에서 인쇄한 후 전국에 배급한다. 도록판은 사진으로 되어 있으며 공간 삼 면에 붙여야 한다.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있는 사진으로 제작되었으며 신격화하는 내용이다. 도록판 그림에 따르면 김정일은 두 살 때 이미 우리글을 썼고, 은방울 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으며, 청각이 두드러져 교향곡이 울리는 소리에서 특별한 발견을 하는 등 아주 천재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

000 어린시절 이야기 교육은 유치원은 도록판으로 가는 거죠. 소학교는 책이 있어요. 도록판은 사진을 붙이는 거죠. 전국이 똑같아요. 전국이 똑같은데 그걸 인쇄소에서 찍어가지고 매 교육 기자재다 내려 보내면 교육 기자재에서 빨간 천으로 해서 그 도록판은...이렇게 커요. 사진인데 그걸 틀로 해가지고 그걸 교실의 삼면에다가 다~붙이는 거예요. 신격화죠. 다른 게 없어요. 신격화인데, 김정은이 어렸을 때 백마를 타고 총을 잘 쏜다든지, 김정일이 벌써 천재여서 두 살 때 우리 글을 썼다든지, 은방울 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다든지, 아니면 청각이 두드러져서 음을 술한 교향곡이 울리는 소리에서 뭘 잡아냈다든지 (한200, 2020-09-12)

나) 계급교육 및 체제 유지를 위한 교육

북한 교과서는 자본가와 지주,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가지도록 하여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계급 교육과 체제 유지를 위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 사람들의 교육 체계가 또 뭐가 있나하면 김부자의 교육 체계 그거는 옆으로 내놓고 북한에서 국어를 배워주잖아요. 국어에 대해서는 이려는 거예요. 자본가와 지주가 한국 사람인 거예요. 다. 근데 자본가 하고 지주가 공장하고 토지, 땅을 다 북한에다가 나누고 한국으

18) 15)와 동일

로 왔어요. 근데 이 토지 문서를 이 사람들이 땅에다가 다 파묻고 한국으로 갔는데 통일이 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제 땅을 찾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국어를 배워주는 거예요. 국어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사람들 다 지주하고 자본가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질성을 딱 띄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대한 그 어떤 증오를 만들어 붙인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 그렇잖아. (최00, 2020-05-20)

출신성분이 좋은 아이들을 골라 평양에서 하는 축전에 참여시키기 위해 사적인 비용을 내고, 특정 한 학생이 축전에 참여하게 되면 약 3천 달러를 직접 치러야 한다. 그 중 1천 달러는 실제 사용하게 되는 금액이지만 나머지 2천 달러는 지역 사회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즉, 축전을 가기 위해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축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도당 교육부, 교육학, 시장, 시학, 교수 강습대, 담당자에 대가를 주어야 참여가능하다. 평양에서 행사 준비를 하는 데는 약 6~8개월이 소요되며 봉화 여관 혹은 소평양여관 또는 모란봉여관에서 지내게 되며 3층은 밀폐한다. 그곳에서는 사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중앙당 문화예술부에서 지급되는 비품으로 생활을 하게 된다. 축전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6~8개월 가량 평양으로 올라간 뒤 지방 해산시로 내려오기만 하면 된다. 축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출신 성분이 좋아야 하며 서류를 통해 심사한다.

내가 축전을 간다고 하기만 하면 남이, 다른 집에 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집 애가 하잖아요. 내가 가야하는데 부모에게 3000달러를 받아요. 우리 00시에서 53개 유치원이다. 53개 유치원에서 양강도는 2개 유치원 밖에 못 간다. 해산시가 이르면 53개에서 2개 밖에 못 가는 거예요. 경쟁이잖아요. 그럼 이걸 뽑아주는 것이 도당교육부, 교육학, 시장, 시학, 교수 강습대, 담당자 다 100% 찢러줘야 하는 거예요. 안 주면 입이 이만큼 나와요. (최00-

근데 일단 내가 부모들한테 그만큼 거뒀죠? 그럼 가서 준비품이 있는 거예요. 그게 1000달러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것이 가서 한 6개월-8개월 있는 거예요. 평양에 가서 행사 준비를 하는데. 근데 평양에 가서 애들을 봉화 여관 아니면 어디 소평양여관 아니면 모란봉여관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3층을 밀폐.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중앙당에서 나오는 거죠. 문화 예술부에서 나오는 거죠. 애들이 물 한 모금, 모든 것이 다 중앙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가서 1전도 안 써요. 역으로 시장에서 김부자가 먹는 게 통-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축전에 올라간 애들이 6-8개월 평양에 올라갔다가 지방 00시에 내려오기만 하며 달러요. 키가 이만큼 큰데다가 얼굴이 하얘요. 한국 애들 처럼.

그러니까 나라에서 해주는 것은 학부모가 해주는 전부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한 번 해주면, 부모는 따라도 못 와요, 거기. 그니까 거기 한

번씩 올라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인 거죠. 우선 애들이 출신 성분이 좋아야 해요. 출신 성분이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런 행사 나가기 전에는 저리 짝 내려서 애들 서류를 뽑는 거예요. 5살 애들도 다 서류 뽑아요. 사돈에 팔촌, 고모, 사촌, 삼촌까지 다 보는 거예요.(최00, 2020-05-18)

라) 통합교육

북한의 교육과정이 통합교육과정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교수학습방법의 일부만 바뀌었을 뿐, 교육의 목표는 이전과 다름이 없다.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여도, 통합의 요소에는 여전히 이전 교과교육인 썸세기, 우리말 교수 등이 교육계획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보편적인 교육에 대한 목표를 정할 때에도 일차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김정은의 어린시절 따라 배우기의 정치사상 교양에 관한 목표로부터 시작하여 보편적인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따른 목표로 이어지고 있다.

남한의 유치원은 교과서가 없는 반면 북한의 유치원은 교과서로 학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1975년에 보육교양제를 실시한 이후 11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해왔으나 2012년에 12년제 교육과정으로 개편되면서 유치원이 낮은반과 높은반으로 구분되었고 높은반부터 12년제 의무교육에 들어가게 되었다. 유치원 낮은반은 보육교양제로 교과서가 없으며 춤, 노래, 체육 등의 놀이 및 활동 위주의 교육과 어린시절이야기 교과를 배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치원 높은반은 어린시절이야기부터 국어, 썸세기, 그리기, 만들기, 체육, 음악 등의 교과를 학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 낮은반은 노래, 춤, 체육, 뛰어놀기, 어린시절이야기 등의 활동 중심 교육을 한다. 높은반에서 가르치는 어린시절이야기는 별도의 교과서 대신 연구실에 사진을 붙여놓고 가르친다. 교과서는 우리말, 썸세기, 그리기, 만들기만 있다. 체육은 교사의 재량으로 가르친다.

우리가 원래는 75년도에 보육교양제를 실시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1년제 의무 교육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탈북하기 직전 2012년도에 이것을 바꿔놓은 거예요. 12년제로 바꿔서 애들을 낮은 반, 높은 반 이렇게 갈라놓아가시고 높은 반부터 12년제 의무교육에 들어간 거죠. 낮은 반은 보육교양제라 교과서가 없어요. 애들이 노래하고 춤, 그리고 위대한 역사 있죠. 그 혁명. 어린 시절 이야기. 체육, 놀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높은 반은 다 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국어, 그리고 썸 세기, 그리기와 만들기, 체육, 음악 이렇게 수업으로 하는 거죠. (신00, 2020-09-21)

높은 반은 교과서가 있는데 낮은 반은 교과서가 없어요. 그냥, 노래, 춤 그다음에 혁명 어린 시절 이야기 그저 노래 춤밖에 없어요. 좀 나가서 체육. 뛰어놀기. 높은 반이 어린 시절 있죠, 그건 교과서를 안 해놓고 연구실이 있어요. 여기로 말하면 연혁소개서 같은 거 있죠, 벽에다가 어린 시절 사진을 찍. 그리고 교과서는 우리말 교과서, 셈 세기, 그리기와 만들기 밖에 없어요. 체육은 뭐 그냥 선생이 그냥 나가서 교수하는 대로. 오늘은 달리기도, 이런 식으로 교사가 하는 대로 하는 거죠. (정00, 2020-10-05)

2) 북한의 유치원 높은반 교과서의 내용과 실행양상

가) 유치원 높은반 교과서의 내용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어 북한 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통합교과서 5권이 등장하고, 통합교육을 시작하였다. 이에 기존의 9개 교과목에서 생활주제로 볼 수 있는 5개 교과서로 편찬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1권 “우리유치원” (4-5월), 2권 “무지개동산”(6-8월), 3권 “참말 좋은 우리나라” (9-10월), 4권 “흰눈이 내려요”(11-12월), 5권 “소학생이 된대요”(2-3월)이다. 유치원 높은반에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배우고 있으며, 1권, 2권은 낮은반에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각 교과서의 하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3-1〉 북한 유치원 높은반 교과서 5권의 하위 내용

1권	2권	3권	4권	5권
우리유치원	무지개동산	참말 좋은 우리나라	흰눈이 내려요	소학생이 된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은 좋아요 • 우리반 동무들 • 나의 몸 • 우리들의 하루 • 색동이네가 하는 일 • 도레미 형제들 • 태양절 • 꽃씨를 심어요 • 즐거운 물놀이 • 곱게 추어요 • 봄이 왔어요 •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 물에 뜨는 것은 무엇일까요 • 출전복을 올려라 • 아버지, 어머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즐거운 6.1절 • 풍선을 날려요 • 어느 길로 가야 할지요 • 어느 것이 길가요 • 누가 높은 곳에 있나 • 빨간별 다섯 • 제일 고와하셔요 • 세여보고 말해보세요 • 욕심많은 까마귀 • 여섯을 알아요 • 거울 속에 내가 있어요 • 깨끗이 씻자요 • 아껴쓰자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을 합쳐 일해요 • 남이는 무엇을 물렸을까요? • 비교해보자요 • 우리나라 생일날 • 우리나라 제일이야 • 우리 동산 꾸려요 • 들놀이 • 쓸쓸이와 지지배배 • 좋은일을 해요 • 소리만 같애요 • 신기해요 • 재여보자요 • 느렁뱅이 너구리 • 어떻게 젖까요 • 풍년이 왔어요 • 재미나게 말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집 • 재간동이 곱등어 • 사랑의 온실 • 꼬마곰의 려행 • 깨끗이 거두자요 • 손꼽아 기다려지요 • 도적을 쳐부신 소년 • 김치하는 날 • 보물산 • 혼썰난 야옹이 • 작은 산삼과 큰 산삼 • 눈이 왔어요 • 수박따기 • 우리 어머니 • 누가 이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명성절 • 수자를 써보자요 • 우리 선생님 • 무슨 글자를써야 할가요 •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 • 어떻게 말할가요 • 호박풍년 • 함께 모여 노래가 되었어요 • 내 이름도 써요 • 손까지도 셀수 있어요 • 봄나들이 • 셀수 있어요 • 또박또박 쓰자요

1권	2권	3권	4권	5권
우리유치원	무지개동산	참말 좋은 우리나라	흰눈이 내려요	소학생이 된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는 일 • 꼭 지키자요 • 나는 어디에 있을가요 • 물에 풀려요 • 집일을 도와요 • 인민군대될래요 • 다림이와 고슴도치 • 인사를 잘하자요 • 선을 찾아 그려보자요 • 주의하자요 • 혼자서 할 수 있어요 • 무슨 표식일가요 • 어디에 놓을가요 • 놀고먹던 꿀꿀이 • 다음번 〈광명성〉호는 내가 • 도와주자요 • 금도끼와 쇠도끼 • 어느짐승의 발자국일가요 • 꼬마곰은 무엇을 몰랐나 • 말을 곱게 해요 • 곰동산과 토끼동산 • 함께 놀아요 • 우리가 왕이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아냈어요 • 우리가 사는 거리와 마을 • 세기놀이 재미나요 • 맛이서로 달라요 • 맑고미운 미국놈 • 동물원구경 • 무더운 여름 • 토끼와 거북기 • 보고싶은 대원수님 • 전쟁로벌할아버지 • 강과 바다 • 병원놀이 • 아롱다롱 무지개 • 거북선 • 지주, 자본가는 나쁜놈 • 혼자 만들었어요 • 무슨 모양인가요 • 맛있는 과일들 • 진흙빚기놀이 • 봉선화 • 나비와 수탉 • 나무를 사랑해요 • 집짓기 놀이 • 우쭐대던 장미꽃 • 솜박곡질 • 남새풍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있어요 • 지녀가자요 • 을밀대이야기 • 하늘 • 세여보자요 • 민속명절 • 친한 동무 • 염소네 형제 • 누가 옳을까요 • 서늘한 가을날 • 더하기도 해요 • 농작물 • 말꼬리 잇기 • 참 멋있어요 • 약속 • 호수가의 동무들 • 어똥게 만들가요 • 함께 만들어보자요 • 뉘아보자요 • 나는 크면 무엇이 될까 • 재미있어요 • 몇이 될까요 • 가면놀이 재미나요 • 내가 만든 사과나무 • 덜어보자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해요 • 바로앉아 쓰자요 • 철이의 일요일 • 무엇이 있어야 할가요 • 생일을 축하해요 • 재미나는 몸단련 시간 • 제힘으로 꾸려요 • 영웅아저씨 •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 꽃줄놀이 • 얼음으로 만들었어요 • 함께 놀자요 • 활쏘기놀이 • 우리는 하나래요 • 원숭이형제 • 고마운 사람들 • 연아연아 올라라 • 새 집에 왔어요 • 썰매놀이 신나요 • 스물도 서른도 알아요 • 맞추어 보세요 • 나를 찾아보세요 • 재미나는 글자놀이 • 설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하하자요 • 훌륭한 어머니들 • 수자를 찾자요 • 고기잡이 • 소꿉놀이 • 소학생이 된대요 • 우리나라 사계절 • 우리집 자랑 • 졸업을 축하해요

모든 교과서는 각 주제마다 혁명사상 및 도덕교육, 우리말 교육(듣기, 말하기, 일기, 쓰기), 지능교육(셈세기, 덧셈, 뺄셈, 이야기), 정서교양(울동, 음악, 미술), 건강 및 몸 단련(무용, 체조) 5개 세부영역을 포함하고 있다(교육신문, 2014, 05, 08). 개정 이전의 교과서를 5권의 교과서로 통합하여 그 속에 내용으로 포함시킨 형태이다. 개정 이후 유치원 교육은 통합교과 도입과 더불어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평양 등의 일부에서만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밖의 지역, 또는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러한 정책의 흐름이 연결되지 않고, 이전 교과교육 방식으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도 하였다. 통합교육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제한된 의

미의 통합으로 모든 교육내용은 김부자에 관한 정치사상교육의 예를 들어 교육하고 있다. 또한 '지주, 자본가는 나쁜놈', '딥고 미운 미국놈들'과 같은 교육내용들도 이전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포함되어 정치사상교육과 계급교양을 녹아든 유치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 전반에 걸쳐 지능교육, 특히 수과학과 인지교육이 강조되어 있다. 소학교 입학 전에 50까지 세고,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담고 있다. 사회교육의 측면에서는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교과서의 형식을 살펴보면, 글자가 많 않은 그림책 형식으로 되어 있어, 교과서는 교양원의 수업을 위한 그림자료로 이용되기도 한다. 기존의 분리된 교과형식의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유아의 다양한 경험을 끌어낼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 높은반 교과서는 교육성에서 제작하며 인쇄는 평양 교육부 인쇄소에서 한다. 각 도마다 교육 기재 관리소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 교과서를 배부해준다. 그러나 교과서는 전시용이거나, 일부 시범수업을 위한 용도만 쓰이거나, 교양원이 수업할 때 쓰는 교육자료로 아이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자가 여전히 부족한 북한은 종이가 귀한 편이라, 이전에 교과교육을 했던 교과서도 지방의 유치원의 경우 다 찢어져 있고 상태 자체가 좋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다고 한다.

교육성에서 만드는 거죠. 인쇄소가 따로 있어요. 평양 교육부 인쇄소라고요. 그리고 각 도에 교육 기재 관리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차가 막 데리러 들어오거든요. 여기로 말하면 기차에다가 강통채로, 60톤짜리 막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걸 도 교육 기재부 관리소에 놓는 거예요. 그걸 놓으면 시에다가 먼저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다 군에 풀어주고, 군에 다 가져가면 군에 사람들이 위에다 풀어주고. 이래 가지고 교과서를 다 나눠주는 거죠. (김300, 2020-10-09)

나) 실행양상: 지도안 준수와 검열

지도안은 국가가 지정해주므로 모든 유치원이 동일하게 가르쳐야한다. 유치원 높은반의 경우 교과서가 있어 이를 토대로 가르쳐야 하지만, 낮은반의 경우는 교과서가 없다. 대신 국가에서 낮은반 교수지도안을 배부해준다. 가령 '보고 싶은 원수님'을 배운다고 한다면 이를 4분의 1씩 학습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교육국 및 강습소에서 검열을 나오기 때문에 교사가 임의로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교수안을 준수해야만 한다. 교수안의 체계에 따른 수업 여부를 점검받게 되므로 수업 차수에 맞춰 가르쳐야 한다. 검열을 받기에 앞서 책임 교양원은 교양원들의 기록을 일제히 거둬들여 선행 검사를 한다. 여기에는 교양원, 원장, 기타 검열자의 서명이 표기된다.

우리는 교수(지도)안이라고 불려요. 교수안. 국가가 짜주는 거고, 전국의 모든 유치원이 똑같이 가르쳐야 해요. 낮은 반도 교수안이 내려와요. 노래와 춤이다. 그럼 교과서는 없잖아요. 그러면 노래와 춤인데 예시로 보고 싶은 원수님, 보고 싶은 대원수님 하면 이것을 4분의 1씩 하라. 그러면 이것을 쪼개는 거죠. 왜 교수안이라는 것을 내려보내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쪽 하던 과정의 1학기, 한 몇 개월이 지나서 강습소, 교육국 이런 데에서 검열이 나오는 거예요. 교수안 검열. 근데 교수안 검열을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성에서든 내려온 교수안 체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 강습으로 알려준 체계가 있으니까 그 체계를 보면서 했냐, 안했냐를 보는 거예요. 2분의 1씩 나가 그대로 정리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O표를 하는 거예요. 사인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채우라고 체크를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뭘 했는가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책임 교양원이 있잖아요. 책임 교양원이 검열 나오기 전에 짝 거둬서는 봐주는 거예요. 짝. 그러니까 여기에 교수안이라고 하면 교수안.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쪽 다 하잖아요. 여기에 사인이 있어요. 우선 책임 교양원, 원장.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사인. 사인이 또 있는 거예요. 시학이 나오겠는지, 교수 강습대에서 나오겠는지, 교학에서 나오겠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사인이 없어. (최00, 2020-05-18)

다) 유치원 교육내용

통합교과로 수업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통합의 하위 요소로는 교과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말교육, 셈세기, 체육교육, 음악교육 등이 그렇다. 그러나 예전 교과교육과 같이 원리중심, 우리말 옮겨말하기 방식이 아닌 놀이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1) 놀이를 통한 우리 말 교육

유치원 우리 말 과목교수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글자읽고쓰기에 대한 지식을 원리적으로 가르쳐준 다음에 그 지식을 다져주고 실생활에 써먹을수 있는 기능을 숙련시켜주어야 한다. 우리 말 공부 몇가지로 ①말꼬리잇기놀이 ②귀속말전하기 ③단어찾기 ④글자맞추기 ⑤글자만들기 놀이 등이 있다¹⁹⁾.

(2) 쉼세기 교육

(가) 통합교과서와 놀이를 통한 교육

수학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유치원 쉼세기 교육에서 어린이들의 능동적인 사고력을 적극 키워주며 그들이 자체의 힘으로 문제의 본질을 납득하도록 하는데서 쉼세기교과서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²⁰⁾우리나라에도 오래전부터 전래져내려오는 우수한 민속놀이들이 많다. 지방에 따라 산가비놀이, 산대놀이, 수가비놀이, 수가지놀이, 수대놀이라고 불려온 산가지놀이도 있다. 산가지놀이는 자기 지방의 특성에 따라 참대, 사리, 수수대, 나무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리용하여 임의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다. 산가지로 여러 가지 모양만들기, 산가지로 문제풀기(형태바꾸기, 삼각형없애기), 산가지로 쉼놀이 및 글자만들기가 있다²¹⁾.

(나) 다매체편집물 및 컴퓨터 활용한 쉼세기 교육

우리 창광유치원에서 새로 제작한 다매체편집물《꽃봉오리》는 어린이들의 쉼세기교육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매체편집물로 쉼세기교수를 진행한 결과 어린이들의 인식능력은 배로 높아졌고 교수의 밀도와 그 질에서, 어린이들의 지능계발에서 새로운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²²⁾.

학교들에서는 교수내용의 특성과 학생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 가지 교수수법을 옹계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수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첫째로, 쉼세기수업의 수효표상형성단계에서 지능결개그림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사물현상속에서 정확한 수효를 알고 기억하게하며 간단한 상식을 결합하여 지능을 계발시킬수 있다. 둘째로, 각이한 종류의 형태, 크기, 색깔을 가진 대상물과 그림표, 네모띠 등의 순서와 위치를 달리하면서 해당 수효의 표상을 가지며 이미 알고있는 수효와의 차이점을 찾게 할수 있다. 셋째로, 수자와 수효표상을 주는 수학적 추리능력을 키워줄수 있다²³⁾.

쉼세기교재는 다른 과목교재들과 달리 추상적인 수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하여 유치원어

19) 전병두, “우리말 공부놀이”, 『교양원』주체100(2011) 제4호, pp.28-29.

20) 로경화, “쉼세기교과서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수학적 지능을 키워주려면”, 『교양원』주체99(2010) 제1호, p.31.

21) 김영애, “산가지놀이방법 몇가지”, 『교양원』주체99(2010) 제3호, pp.31-32.

22) 허인희, “컴퓨터편집물로 쉼세기과목교수의 효과성을 높이었다”, 『교양원』주체100(2011) 제2호, pp.48-49.

23) 한성희, “어린이들에게 수효표상을 잘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교양원』주체98(2009) 제4호, p.31.

린이들이 리해하기 힘들어한다. 이로부터 썸세기교수에서는 어린이들의 수준과 교재내용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직관물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리용하는 문제가 보다 중요하게 제기된다. 정은실교양원은 높은반 썸세기수업《여섯》(9/9)에서 컴퓨터편집물을 잘 구성하여 리용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인식적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썸세기수업의 효과를 높였다. 어린이들이 직관적으로 알수 있도록 컴퓨터를 조작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더하기식의 성질들을 찾아내도록 하면서 관찰력, 사고력도 키워주었다²⁴⁾.

(3) 음악교육

(가) 유치원 낮은반에서의 청음지도

유치원 낮은반단계에서 청음지도를 실속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청음지도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그 수준을 높이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청음지도의 첫 단계에서는 우선 음의 크기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주어야 한다. 정음지도의 다음 단계에서는 어린이들이 소리길이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청음지도의 다음 단계에서는 음의 높이에 대한 식별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²⁵⁾.

(나) 들숨과 날숨지도 음악교육

유치원시기 어린이들의 호흡은 어른들에 비하여 일련의 제한성과 특성을 가진다.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잘하려면 호흡관계를 잘 지켜야 한다는데 대하여 알려주고 들숨과 날숨지도를 생활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²⁶⁾.

(다) 가창력 지도

유치원 낮은반 어린이들은 노래수업을 통하여 가창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높은반에 이르면 노래를 잘 부르는가 못부르는가에 대하여 구별할줄 알며 노래내용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할만 한 어휘도 소유하게 된다²⁷⁾.

24) 조금순, “컴퓨터편집물을 리용하여 썸세계 수업의 효과를 높였다”, 『교양원』주체100(2011) 제3호, pp.25-26.

25) 안일룡, “낮은반어린이들에 대한 청음지도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교양원』주체99(2010) 제2호, p.48.

26) 김옥희, “노래교수시 어린이들의 호흡지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교양원』주체99(2010) 제3호, pp.30.

27) 안일룡, “유치원 높은반 어린이들에 대한 노래지도에서 나서는 문제”, 『교양원』주체99(2010) 제3호, pp.28-29.

(라) 시창지도 음악교육

유치원 음악수업에서 시창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시창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은 악보에 의하여 정확히 노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음악적 청각을 발산시킬 수 있다²⁸⁾.

(4) 노래와 춤 교육

(가) 노래와 춤 교양원 본보기 동작 보여주기

유치원 노래와 춤 과목수업에서 교양원이 본보기동작보여주기를 잘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춤동작을 가르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뉜다. 우리 말과 셈 세기 수업과는 달리 노래와 춤수업은 해당 춤동작을 교양원의 실시동작으로 보여 주고 어린이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된다. 첫째로, 교양원은 어린이들에게 해당 춤교재에 반영된 동작을 정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로, 교양원은 본보기동작보여주기를 노래가사내용과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형상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로, 교양원의 본보기동작보여주기는 설명과 여러 가지 직관수단을 잘 배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넷째로, 교양원은 본보기동작을 보여주는데서 모든 어린이들이 잘 볼 수 있는 가운데위치에서 보여주어야 한다²⁹⁾.

(5) 그리기와 만들기 교육

(가)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그리기와 만들기

유치원에서의 그리기와 만들기 교수시간은 어린이들이 무척 흥미있어하고 좋아하는 시간이다. 그것은 그리기와 만들기가 직관형상적이고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심리에 가장 알맞기 때문이다³⁰⁾.

(나) 다양한 지적요소와 결합한 그리기 만들기

유치원에서의 그리기, 만들기 과목은 우리 말, 셈세기와 함께 기본과목으로 된다. 어린이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예민하고 정확한 관

28) 김옥, “어린이들의 시창능력을 키워주려면”, 『교양원』주제99(2010) 제4호, p.37.

29) 김영애, “노래와 춤과목수업에서 교양원의 본보기동작보여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양원』주제 98(2009) 제3호, pp.42-43.

30) 조금순, “그리기수업과 주의집중문제”, 『교양원』주제99(2010) 제2호, pp.39-40.

찰능력과 사고능력 같은 지적요소들의 도움을 동반하게 된다. 다양한 지능문제를 교수에 많이 리용하였더니 어린이들속에서는 그리기, 만들기과목에 취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들이 그림보고 그리기는 물론 생각하여 그리기, 노래듣고 그리기, 이야기듣고 그리기까지도 척척할수 있는능력을 가지게 되었다³¹⁾.

(6) 체육교육

(가) 대렬운동을 통한 체육교육

대렬운동은 바른 자세와 절도있는 동작을 요구하는 운동으로서 어린이들의 어깨가 퍼지게 하며 몸자세도 좋아지게 한다. 첫째로, 어린이들에게 대렬운동은 어떻게 하는 운동인가를 잘 알도록 하는 힘을 넣어야 한다. 둘째로, 대렬운동(걷기, 줄맞추어 걷기, 자연스럽게 걷기 등)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동작하도록 하는 데 힘을 넣어야 한다. 셋째로, 대렬운동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방향(오른쪽, 왼쪽, 앞, 뒤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주는데도 힘을 넣어야 한다. 넷째로, 대렬운동에서는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게 구령을 잘 주는데도 힘을 넣어야 한다.³²⁾

(나) 평형조절력과 체육수업

낮은반 운동과목 《돌다리》건너기는 짧은 시간(2시간)에 어린이들에게 평형조절능력을 키워주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된다³³⁾.

(다) 아침 어린이 룰동체조

《아침체조》는 어린이들의 육체적 능력에 맞게 가슴운동, 한팔운동, 두팔운동, 다리운동, 목운동, 옆구리운동, 몸통운동, 등배운동, 팔다리운동, 숨쉬기등 10가지의 가벼운 운동종목을 어린이들의 동심에서 룰동과 배합하여 2분간 하도록 만들어졌다.《어린이룰동체조》는 7개의 운동동작으로 구성하였으며 수행시간은 3분이다. 다리운동, 가슴운동, 목운동, 몸통운동, 뛰기운동, 팔다리운동, 정리운동으로 구성되었으며 노래는 아동영화 《소년장수》의 주제가《우리는 소년장수》곡으로

31) 김송영, “그리기, 만들기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지능을 높여주었다”, 『교양원』주체99(2010) 제2호, pp.44-45.

32) 전향숙, “어린이들에게 대렬운동기초 지식을 잘주자면”, 『교양원』주체99(2010) 제1호, p.48.

33) 조은순, “돌다리 건너기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평형조절능력을 키워주는 방법”, 『교양원』주체99(2010) 제3호, p.48.

써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한다³⁴⁾.

(7) 놀이 교육

(가) 놀이를 선정하고 지도할 때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놀이에는 운동놀이, 춤놀이, 지능놀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모든 놀이들이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동적인 놀이들이다. 놀이를 진행하여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우자면 일련의 요구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놀이를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 및 생리적 특성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다. 놀이시간은 20~30분정도로 하되 과외놀이때 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유식시간은 10~15분정도가 좋다. 놀이종목은 낮은 반과 높은 반에 따라 운동놀이, 춤놀이 등의 여러 가지 놀이가운데서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놀이는 식사, 잠자기, 공부하기 전에 인차 조직하지 말아야 한다. 놀이과정에 생긴 흥분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식사, 잠, 공부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양원들은 놀이를 지도할 때에 반드시 준비단계, 기본운동단계, 정리단계를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준비단계에서는 5~6분정도로 팔, 다리, 몸통을 간단히 움직이도록 하여야 하며 준비운동을 한 다음에는 기본운동을 잘 지도하여야 한다. 기본운동단계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도 매 동작들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리단계에서는 운동부담에 의해 높아졌던 맥박과 온몸의 활동상태를 본래대로 넘어가게 하여 어린이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시간은 3~5분간이 적당하다³⁵⁾.

(나) 놀이지도의 교양적 효과

놀이는 어린이의 성장과정과 떼어놓을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이며 활동분야이다. 그것은 놀이가 어린이들의 마음과 육체발달의 필수적요구로부터 발생발전하여 그들의 교육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양원들은 놀이가 어린이들의 마음과 육체발달을 적극 추동한다는것을 명심하고 놀이지도의 교양적효과를 더욱 높여나가야할 것이다³⁶⁾.

34) 장명숙, "우리식의 독특한 교육교양형식인 유치원 일과활동에 대하여", 『교양원』주체99(2010) 제2호, pp.50-51.

35) 강성현, "유치원에서 놀이진행과정에 지켜야 할 요구", 『교양원』주체98(2009) 제1호, p.53.

(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의 민속놀이

민속놀이란 우리 인민들 속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오면서 풍속이나 습관으로 즐겨온 고유한 민속오락을 말한다. 첫째로, 어린이들이 민속놀이를 하는 과정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실성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 민속놀이의 교육교양적 목적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게 놀이를 꾸미며 이끌어 주어야 한다. 셋째로, 민속놀이를 계절과 날씨조건을 잘 고려하여 조직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은 바람개비 놀리기 놀이, 수건돌리기놀이, 줄넘기놀이, 연피우기놀이, 팽이치기놀이, 제기차기놀이, 딱지치기놀이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속놀이들을 즐겁게 하면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강성대국의 미래들로 튼튼히 자라나게 하여야 한다³⁷⁾.

(라) 유치원 낮은반 관찰과 놀이의 결합

유치원에서의 관찰은 어린이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관찰이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형식이라는 것과 관련된다. 관찰은 유치원 낮은반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교육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관찰을 놀이와 밀접히 결합하면 자연의 리치를 알려주면서 그들의 지능을 계발하는데 효과적이다³⁸⁾.

(8) 룰동 교육

(가) 집단주의 정신을 키우는 유치원 낮은반 룰동

유치원에서의 춤실기교육은 낮은반 룰동수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유치원 낮은반 룰동수업은 일정한 특성을 가진다. 우선 춤으로서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교수목적에 전적으로 복종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치원에서의 룰동수업은 개별적인 생활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집단생활에 첫발을 들여놓는 어린이들에게 집단주의정신의 싹을 틔워주는 특성을 가진다³⁹⁾.

36) 김국화, “놀이는 어린이들 속에서 마음과 육체발달의 추동력”, 『교양원』주체100(2011) 제3호, p.32.

37) 김국화, “어린이들속에서 민속놀이를 잘 조직하기 위한 방도 몇가지”, 『교양원』주체98(2009) 제3호, p.34.

38) 박혜영, “유치원 낮은반 어린이들의 야외관찰지도에서 놀이방법을 적용하여 지능을 계발시키는 방법”, 『교양원』주체98(2009) 제4호, p.39.

39) 강정숙, “유치원 낮은반 룰동수업의 특성과 그 지도에서 나서는 요구”, 『교원선진수첩』주체98(2009) 제4

(9) 수재교육 및 과학교육

(가) 유치원에서의 수재 발굴과 지도⁴⁰⁾

○ 수재적 재능의 싹을 가진 어린이 발굴

수재적재능의 싹을 가진 어린이들을 제때에 찾아내여 키우기 위한 사업과 교육수단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도 힘있게 진척되어 좋은 결실을 맺었다.

○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지닌 수재 선발

《컴퓨터수재 양성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수재교육에 대한 주체적인 이해와 관점, 수재형의 학생선발과 수재교육내용구성, 수재교육체계와 교육방법, 수재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있다.

○ 수재적 특성인 지적호기심과 집중력

뛰어난 소질과 재능의 싹을 가진 어린이들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지적호기심이 매우 강하고 머리를 쓰는 일에 남달리 높은 의욕을 가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집중력이 매우 강하며 무슨 일이든지 끝장을 보고야마는 인내력이 있는 것이다.

○ 가정과 연계한 수재 지도

수재적인 어린이들을 잘 키우자면 첫째로, 유치원의 교육강령을 충분히 집행한 기초우에서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로, 어린이들의 뛰어난 소질과 재능의 특성에 맞게 개별지도를 체계적으로 주어야 한다. 셋째로, 강정과의 밀접한 연계밑에 부모들과 통일적보조를 잘 보장하여야 한다.

(나) 과학기술 발달에 공을 들이는 북한

○ 과학기술교육 강조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교수용다매체의 설계는 학습자가 교수내용을 원리적으로 보다 쉽게 인식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⁴¹⁾

호, pp157-158.

40) 사설,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 학교전 교육사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 『교양원』주체 98(2009)년 제1호, p.3.

41) 박성진,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이끌어줄 수 있는 교수용다매체의 설계방법”, 『교원선전수첩』주체

○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수재 육성

학생들이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적극 키워주어 남다른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앞으로 나라의 과학기술과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⁴²⁾

3) 통합교육의 실천

통합교육이란 우리말, 셈세기, 관찰, 정서교육, 노래와 춤, 만들기 등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교과를 의미한다. 유치원 낮은반에 대한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제시해주지는 않는다. 이 통합교육은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이다. 교수안은 통합교육 다섯 권이 매우 두꺼운 분량의 책자로 지급이 된다. 이를 교수안이라 볼 수 있지만 내용이 자세하지는 않은 편이다. 다섯 권은 3대장군 어린시절이야기, 셈세기, 우리말, 정서, 관찰, 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놀이’는 아이들이 주의 깊게 물체를 보고 인식하는 것을 일컫는데 아이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수업이라 볼 수 있다.

통합교육이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5가지를 가르친다는 내용이에요. 3대장군 어린시절 그리고 셈세기교수법, 우리말교수법, 정서가 있고. 아마 관찰이나 놀이. (한00, 2020-07-27)

4) 교수방법 및 평가

교양원 잡지에 나타난 북한의 유치원 교원들이 실천하고 있는 교수방법 및 평가에 대한 분석은 교수방법 관련 적용사례와 평가 관련 적용사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교수방법 적용사례

(1) 해설과 설복의 방법

모든 교양원들은 교수방법을 부단히 탐구하면서 설득력있고 감명깊은 수업을 보장하여 어린이들의 가슴마다에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98(2009)년 제3호, pp.110-111.

42) 로순녀, “바둑놀이를 지적능력을 부쩍 높여주었다”, 『교양원』주제98(2009)년 제2호, p.54.

키워주며 주체위업실현의 미더운 계승자들로 준비시켜야 한다⁴³⁾.

(2) 깨우쳐주는 교수 중 문답식 교수 방법

유치원 썸세기 교수에는 교과서와 여러 가지 교편물이 리용되게 된다. 첫째로, 교과서그림을 잘 리용하면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더 잘 계획할 수 있다. 둘째, 교과서그림 관찰을 잘시키면 교수밀도를 높일수 있다. 셋째, 썸세기교수에서 교과서그림을 잘 리용하면 어린이들의 관찰력과 사고력, 지적능력을 높여줄수 있기 때문이다⁴⁴⁾.

(3) 깨우쳐주는 교수 중 직관물과 실물

유치원 썸세기 수업을 직관물과 실물을 통한 수업으로 되게하기 위해서는 썸세기 수업에서 직관물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잘 알고 그에 기초하여 직관물리용을 바로하여야 한다. 유치원에서 수와 산법교육에서 기본직관물은 모나무이다. 어린이용직관물과 그의 리용에 대한 관찰수법 그리고 교양원용직관물과 실물보이기를 배합한 설명수법이 있다. 직관물조작에는 어린이조작과 그것을 실현해주기 위한 교양원의 본보기조작이 있다⁴⁵⁾.

(4) 문답식 교수방법을 통한 우리말 교육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교양적 효과성을 높이자면 문답방법을 잘 적용하여야 한다(평양남산유치원 원장 편영숙)⁴⁶⁾. 말하기능력을 키워주는것은 유치원 우리말 과목교수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라고 생각한 나는 여기에 적지않은 품을 넣어왔다. 어린이들은 배운 문장으로 그 시간에만 알뿐 기일이 지나면 잊어버리기가 일쑤였다. 결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나는 다른 방법을 적용해보리라 작성하였다. 나는 우선 첫째 시간에 진행되는 그림 관찰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교재내용을 충분히 인식시키기로 하였다. 교과서 리용률이 많은 이 시

43) 사설,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 학교전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요구”, 『교양원』주체98(2009) 제1호, p.3.

44) 한영해, “썸세기교수에서 교과서그림을 통한 관찰조직을 잘하여 교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양원』주체98(2009) 제2호, p.44.

45) 계정해, “썸세기수업에서 직관물이 차지하는 위치와 직관물리용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교양원』주체98(2009) 제2호, pp.45-46.

46) 편영숙, “문답방법을 잘 적용하여 이야기내용을 리속속들이 깨우쳐 주었다”, 『교양원』주체98(2009) 제2호, p.39.

간에 교과서 그림관찰을 정확히 하여야 어린이들이 그림보고 말하기를 잘할수 있게때문이었다. 우선 그림내용설명을 문답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다. 실례로《구두》 교재라면 다음과 같은 문답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에 ‘어머니가 철이에게 구두를 사주었습니다’라는 문장들이 표현되도록 하고, 과외교양시간을 통하여 이를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을 권하기도 한다⁴⁷⁾.

- 여기에 무엇이 많습니까?(구두)
- 구두가 많은 여기는 어디일까요?(상점)
- 철이 어머니는 철이에게 어떤 구두를 사주었습니까?(빨간구두)
- 빨간 구두를 받아안고 철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기뻐하고있다.)
그런 다음 어린이들을 지명하여 그들이 자기가 아는 것 말해보게 한다.
- 상점에는 구두가 많습니다.
- 어머니가 철이에게 구두를 사주었습니다.

(5) 새로운 교수요강에 따른 우리말 교수방법

우리 말《고슴도치》(1/4시)

△되살리기.

- 재미나는 우리 말 공부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 그럼 누가《하늘》이라는 말로 말만들기를 해보겠습니까? (어린이 2명 지명). ○《하늘》, 이 말에는 무슨 받침이 있습니까? 그럼《ㄹ》받침이 들어간 말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지요.
-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받침이 들어간 글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글자일까요?

△ 새지식주기. (고슴도치박제품을 보여주며)

무엇입니까? (고슴도치) 이 고슴도치박제품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 우리 유치원 동무들이 공부를 잘하라고 보내주신것입니다. 오늘은 고슴도치가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새로운 글자를 배우지요. 동무들은 오늘 공부를 하면서 자기 힘을 밀고 용감하게 싸우면 그 어떤 원수도 이길수 있다는것을 잘 알아야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말들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제목을 선생님이 쓰겠습니다. 모두 배운 글자를 찾아보세요. (칠판글 《고슴

47) 사설, “창조적방법만이 은을 나타낸다”,『교양원』주체98(2009) 제1호, p.36.

도치) 선생님을 따라서 말해보지요.《고슴도치》제목이 모두 몇 글자입니까? (4글자) 그럼 이 중에서 어느것이 배운 글자입니까? (고, 도, 치) 예, 이렇게 세 글자가 배운 글자예요.

○ 그럼《고》자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고기) (…중략)

△ 다지기. 어느 어린이가 공부를 잘하였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동무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어린이 지명) -누가《우쭈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이 지명) -그럼《우쭈대다》라는 말을 넣어 말만들기를 해보겠습니까? (어린이 지명) -누가 이기고 지는 가 하는것을 알아내기를 하는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어린이 지명) -고슴도치의 가시털은 어떻다고 합니까? (어린이 지명) -그럼 누가 《날카롭다》라는 말을 가지고 말만들기를 해보겠습니까? (어린이 지명) 모든 어린이들이 오늘 공부를 잘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을 지명하여 칭찬) (칠판글읽기) -교과서를 접으세요. -오늘 공부를 끝마치겠습니다⁴⁸⁾.

(6) 어감교육을 통한 우리 말 지도

우리 말은 매우 류창하며 억양도 좋고 유순하고 아름답습니다. 발음지도는《우리 말》과목교수에서 반드시 하여야 할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되는 것만큼 교양원은 발음지도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들을 옹게 설정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어감교육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모음체계에 대한 어감을 형성시켜 주어야 한다. 우리 말의 모음은《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체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발음기관의 운동으로 보나 형태상으로 보나 체계가 정연하여 따라서 귀에 익히기 쉽고 발음하기 쉽게 되어있다. 교양원들은 발음지도를 할 때 우선 발음기관들의 구조와 움직임의 정확히 알고 어린이들이 옹게 발음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즉,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과 목구멍의 형태, 혀끝, 혀뿌리의 움직임, 이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잘 알고 발음지도를 해야 한다⁴⁹⁾.

(7) 새로운 교수요강에 따른 썸세기 교수방법

썸세기《여섯》(9/9시)

△되살리기. 모나무 둘 꺼내세요. 모나무 넷을 덧붙이며 세여보세요.

○ 몇입니까?(여섯) ○○어린이, 나와서 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2+4=6 (4+□=6 보이며)

○ 둘에 넷을 덧붙이면 여섯이니까 넷에 몇을 덧붙이면 여섯이 될가요?(둘) ○○어린이, 넷에 둘을 덧붙이는 더하기식을 보며 어린이그림으로 문제를 만드세요.《어린이들 넷이 갑니다. 둘 더 옵니다.

48) 리혜숙, “새로운 교수교양방법들을 부단히 탐구하자”,『교양원』주체98(2009) 제1호, pp.27-28.

49) 전병두, “유치원 어린이들의 말소리지도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교양원』주체98(2009) 제1호, p.50.

○ 몇입니까? 여섯입니다.》참 잘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맨아래 접시를 보세요. (3+3=□ 문제를 보이며) ○○어린이, 비둘기로 말해보세요.《비둘기 셋 있습니다. 셋 더 날아왔습니다. 몇입니까?》답을 모나무로 놓아봅시다. ○○어린이, 몇입니까?(여섯) 모나무 여섯에서 다섯을 떼어내세요.

○ 몇입니까?(여섯) 모나무 여섯에서 다섯을 떼어내세요.

○ 몇이 남았습니까?

○ 어린이, 나와서 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6-5=1

△ 새지식주기. 이번 시간에는 여섯에서 더하기, 덜기를 더 잘해보겠어요. (《더하기와 덜기》 따라말하기 2회) (그림을 보이며) 웁아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사랑속에 세워진 닭공장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을 먹이시려고 우리 나라 곳곳에 닭공장을 세워주시였습니다. (-~중략) ○○어린이는 6-5=1로 말해보자요. (떼어내기로 덜기문제를 만들도록 한다. 그리고《가져갔다》,《먹었다》등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것을 알려준다. (6-3=3, 1+5=6 등 여러 문제표를 제시하면서 각이한 대상으로 문제를 만들도록 한다.) 모두 오늘 공부를 잘했습니다⁵⁰⁾.

△ 다지기. (6-□=□ 보이며)

○ 여섯에서 어떤 수들을 덜수 있습니까? 예, 여섯보다 작은 수들을 덜어야 합니다. (1, 2, 3, 4, 5) 순서대로 '하나씩 덜어보겠습니다. ○○어린이, 6-1는 몇입니까?(다섯) ○여섯에서 둘을 덜면 몇입니까?(넷)

○ 이번에는 몇을 덜가요?(셋) 6-3=3

○ 그러니 여섯에서 몇 덜수 있습니까?(다섯번) 1 2 3+□=6보이며 4 5

○ 하나에 몇을 더하면 여섯이될가요?(다섯)

○ 둘과 몇이 여섯입니까?(넷) ○셋에 몇을 더 가져오면 여섯이 될가요?(셋)

○ 두 번째 식에서 수자들의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4+2

○ 자리를 바꾸어도 답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다)

○ 여섯이 되자면 다섯과 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

○ 그러니 답이 여섯이 되는 더하기식은 몇입니까?(다섯) 이렇게 여섯에서 덜기도 다섯 번 할수 있고 답이 여섯이 되는 더하기도 다섯번 할수 있습니다.

50) 정은실, “새로운 교수교양방법들을 부단히 탐구하자”,『교양원』주체98(2009) 제1호, pp.29-30.

(8) 새로운 교수요강에 따른 이야기 교수방법

이야기《꿀꿀이 삼형제》(첫째 시간) 어린이 여러분! 이번 시간《우리 집 자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 어느 어린이가《우리 집 자랑》에 대하여 말해볼까요? ○어린이? 잘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자문자답) 잘 들어보세요. 하루종일 먹고 자고 놀기만 하는 짐승은 무슨 짐승일까요? (대답정리) 그래요. 꿀꿀돼지랍니다. 또 착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악착한 짐승은 무슨 짐승일까요? 예, 승냥이입니다. 꿀꿀이 삼형제와 승냥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어요.《꿀꿀이 삼형제》(제목 따라말하기 2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무슨 일을 하나 해도 깨끗하게 잘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면서 이야기공부를 해보지요. 옛날 어느 한 동산에 꿀꿀이 삼형제가 엄마꿀꿀이와 함께 살았어요. (…중략) 모두 잘 들었어요? 첫째꿀꿀이는 집을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어린이? 벼집으로 지었습니다. 첫째는 왜 산밑에 집을 지었을가요? ○어린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무엇으로 집을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어린이?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제일 부지런한 막내꿀꿀이는 집을 어디에 지었을까요? 산꼭대기에 지었습니다. 어떤 집을 지었습니까? 벽돌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생각들을 하었습니까? ○어린이?(어린이 3~명을 지명) 모두 훌륭한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일하기를 즐겨워하시였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돕는 시간을 정하고 재미나게 노시다가도 그 시간에는 꼭꼭 어머니의 일손을 도우시였어요. 그분이 아니예요. 선생님 일손을 도와 유치원마당도 깨끗이 쓰시였습니다. 어린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따라 배워 일하기를 좋아하고 무슨 일이나 알뜰하고 성실하게 해나가야 하겠어요. 오늘 이야기공부를 끝마치겠습니다⁵¹⁾.

(9) 심리적 특성에 맞게 하는 교수방법

교수내용의 특성과 학생들의 준비 정도에 맞게 여러 가지 교수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수내용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인식시킨다.

△ 춤동작을 결부하여 노래가사를 빨리 인식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의 우월성

- ① 어린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게 노래와 춤을 지도할수 있게 한다.
- ② 련관성과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와 춤을 결합하면 교수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할수 있기 때문이다.
- ③ 어린이들을 정서적으로 교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노래가사지도에서 춤을 결합하여 인식시키는 방법

51) 김향미, “새로운 교수교양방법들을 부단히 탐구하자”, 『교양원』주체98(2009) 제1호, pp.31-33.

- ①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다양한 지도방법을 적용하여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정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다.
- ② 노래가사지도에서 표현적인 동작을 결합하여 어린이들이 가사의 뜻을 빨리 이해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⁵²⁾.

나) 평가 적용사례 분석

교수사업연구에서 정성적 고찰과 정량적 고찰을 통일시키는 것은 연구의 질적 수준과 효과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절실한 방법론적 요구입니다. 교수사업에 대한 정성적 고찰과 정량적 고찰을 통일시킨다는 것은 교수 사업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와 측면, 그의 속성에 대한 질적 고찰과 그것들의 발현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량적 관계에 대한 고찰을 하나의 연구과정으로 진행시키며 밀접히 결합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⁵³⁾.

5) 놀이(놀이감, 자유놀이, 교육과정 연계 등)⁵⁴⁾

면담자 A에게 북한 유아들은 어떻게 노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방과후 어린이들의 놀이를 우선 떠올렸다. 이는 유치원 내에서는 교수안대로 수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보니 남한에서 생각하는 자유놀이의 개념이 자리잡혀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 방과 후 놀이 학습 체계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 시간까지 낮은반은 모나무 쌓기, 종합놀이, 조선키도 맞추기 등 지능 놀이감을 주어 그들이 지루함과 긴장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양원이 유도하며 선생님과 함께 교실 청소도 같이하고 낮잠실 이불정리도 시키며 시간을 맞추어 나간다.

52) 김옥희, “춤동작은 결부하여 노래가사를 빨리 인식시키기 위한 교수방법”,『교양원』주체98(2009)년 제1호, p.51.

53) 백운도, “교수사업에서 정성적고찰과 정량적 고찰의 통일문제”,『교원선진수첩주체98(2009)년 제3호, pp.155-156.

54) 교양원 A의 면담과 서면 면담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1) 경제적 계층에 따른 놀이의 차이

귀가한 어린이들을 때때로 가정방문하면 가정의 환경에 따라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가 다르다. 상·중위층 집 어린이들은 귀가 후 노트북을 켜놓고 아동영화를 보며 부모의 지도하에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숙제가 끝나면 어린이들은 인라인(로라 스케이트)을 타러 광장 아니면 로라 스케이트장에 나가 즐겁게 놀이를 한다.

하위층 집 어린이들은 귀가 후 숙제를 끝내고는 친구들과 함께 남자어린이들은 못치기, 딱지치기, 땅먹기, 숨바꼭질 등을 하며 여자어린이들은 줄놀이, 수자먹기, 땅속 글자 찾기 등의 경제적 부담이 없는 놀이를 한다. 어떤 어린이들은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장마당에 찾아가 어머니 옆에서 숙제도 하고 물건을 같이 거들어 주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렇게 북한 어린이들의 놀이 방식은 경제적 차이로 하여 놀이의 수준이 다르다.

(2) 수재양성을 위한 특수 어린이들의 교육

귀가 후 유치원에서는 수재양성을 위해 특수한 어린이들은 유치원에 남아서 담당 교양원의 지도를 받는다. 유치원 교양원의 지도에는 그 어떤 계급의 차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한 아이디어나 IQ가 좋은 어린이들은 유치원에서 특별히 수재교육을 시킨다. 바둑 신동, 글짓기 신동, 그림그리기 신동, 붓글씨 신동 이런 어린이들은 1년에 진행되는 수재 대회에 참가하여 문예 창작사 분들의 지도하에 좋은 성적을 가져오며 여기서 잘 한 어린이에게는 문예 창작상과 표창장 기념선물도 드린다.

(3) 유치원 방과 후 교육: 음악신동 교육의 의의

유치원 방과 후 제일 중요한 것은 유치원의 명예가 걸리고 어린이와 가정의 행운이 걸려있는 음악신동 교육이라고 한다. 북한은 유치원에 어린이가 입학하면 학부모는 온갖 정열을 다 쏟는다고 한다. 교육의 첫 과정이며 자신의 미래인 자녀가 첫 배움의 길에 들어서는데 때문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과 학부모의 열성은 남과 북의 학부모는 동일하다로 보면 된다는 것이다.

예능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천성적인 재능이 필수이지만 북한은 인물본의

주의라 계급의 차이 없이 예뻐야 하고, 이런 어린이들은 선발된 상황에서 예능 지도 교양원의 지도하에 방과 후 자신의 재능에 맞는 기악, 성악, 무용, 회화 등 분야에서 재능을 꽃피우도록 하고 있다.

5세, 6세 엄마의 젖가슴에서 아직도 어리광을 피울 나이에 이들은 모든 명예를 걸머쥐고 혹독한 훈련과 긴 시간과 부모와 떨어져 평양으로 떠나 레슨 받으려 장기간을 떠나 교육을 받는다. 이런 어린이들은 전국 유치원 어린이 종합공연과 전국 방송축전과 TV원판녹화 등 여러가지 예능 프로에 참가하여 김부자의 위대성을 선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전국 유치원 어린이 종합공연에 참가하는 행운을 맞아 김부자들과의 기념사진촬영을 한 어린이들은 미래가 탄탄대로이다.(최00, 2020-05-16, 서면자료)

나) 행사(명절, 등산, 야유회 를 포함하여 유치원에서 하는 활동들)⁵⁵⁾

월별 행사의 경우에도 주로 삼부자의 생일과 전승절, 당창건일 등을 당과 관련된 행사를 중심으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월별 행사

〈표 II-3-2〉 북한 유치원 월별 행사 예시

구분	행사명	내용 및 설명
1월	설맞이 모임	설맞이 모임에는 어린이들 종합공연을 한다. 1월 8일 김정은의 생일을 맞아 선물 전달식이 있으며 충성의 노래모임을 진행한다.
2월	김정일 생일 2월 19일 학업시작	김정일의 생일을 맞아 선물을 받고 2월 19일부터 학업을 시작한다.
3월	3.8절 모임	국제부녀절인 3.8절을 맞아 어머니에게 꽃을 만들어 선물하는 모임을 가진다.
4월	첫 개교 4월 15일 태양절	첫 개교이며 4월 15일 태양절을 맞아 유치원 어린이들의 종합공연을 진행하며(소년회관 또는 경기장, 예술극장내·외) 동상을 찾아 인사드리고 유치원에 돌아온다.
5월	등산(원족)	5월에는 등산(원족:한국에서는 야유회)을 진행한다. 등산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조선의 산과 들 지리를 잘 알아야 하며 한그루의 나무와 한포기의 풀 한줌의 흙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아낄 줄 아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자라나도록 교육교양 하는데 목적이 있다. 등산 장소는 혁명적적지, 동물원, 식물원 열사릉 등 다양한 곳이다.
6월	6.1절	국제 아동절 6.1절을 맞아 시 유치원 어린이들의 대 집단 체조와 체육대회 어린이들의 종합공연 수재 어린이들의 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 된다.

55) 면답자 최00 교양원의 서면자료로 구성함(2020-06-15)

구분	행사명	내용 및 설명
		6·1절은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융합하여 최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는 한국의 어린이 체육대회와 비슷하나, 북한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이기자 정신으로 한다.
7월	전승절 7.27	전승절 7.27을 맞아 어린이들과 학부모 교양원들 속에서 모범적인 분들로 선발되어 인민군대 병영을 찾아가 위문공연도 하고 기념품 증정식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한다.
8월	우리민족의 명절 조국해방의 날 8.15일	우리민족의 명절 조국해방의 날 8.15일이다. 8월 15일은 방학기간이라 어린이들이 집에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9월	하반기 시작의 날이자 9월 9일 공화국 창건일	하반기 시작의 날이자 9월 9일 공화국 창건일을 맞아 어린이들이 동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휴식을 준다. 9월 중순에는 가을 등산 (아우회)를 진행한다. 등산 방식은 봄 등산하고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10월	당창건 10월 10일	당창건 10월 10일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당의 사랑에 대한 교육을 심히 시켜며 이 시기는 북한이 김장전투 기간이라 어린이들이 김장 방학 겸 5일간 휴식한다.
11월	어머니날	어머니날이라 어린이들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일 찾아 하나씩 실천하게 한다.
12월	김일성의 어머니 김정숙의 생일	김일성의 어머니 김정숙의 생일을 맞아 원내에서 충성의 노래 모임을 진행한다. 어린이들과 교양원들이 노래와 춤으로 위대성에 대하여 선전한다. 이 밖에도 유치원에서는 교편물 전시회 같은 행사와 유니세프에서 어린이들에게 보내주는 의류품과 우유 등 여러 행사들을 진행한다.

(2) 기타 행사(선물증정 및 교실 등 원내 환경꾸리기)

1월 8일, 2월 16일, 4월 15일 선물과 유니세프 물품들은 하늘 아래 첫동네 어린이들에게도 또 장애를 가져서 유치원에 등교 못하는 어린이들에게도 학년 아동 조사에서 수락된 어린이들에게도 빠짐없이 찾아 다 드린다.(최00, 2020-6-15)

8월 방학이면 유치원은 바쁘다. 교수강습 12일이 끝나면 교실꾸리기를 하는데 이것도 행사이다. 교실꾸리기와 유치원꾸리기가 끝나면 단계별로 검열이 내려온다.시교육부, 시당, 도교육부, 도당, 근로단체, 교수강습소 등 이 외에도 행사들이 많이 진행된다. 이렇게 원내 환경꾸리기가 잘 되고 교양원들의 자질향상 급수가 높고 예능에서 신동이 많이 나오고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이 잘되면 원내에서 당원이 속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최00, 2020-6-15)

나. 북한 유치원 시스템의 전달체계, 재정지원현황,

- 1) 북한의 유치원 운영(하루일과, 급간식, 낮잠시간, 등원하원시간, 행사 등)
 - 가) 유치원 운영 시간

북한에서는 오전 돌봄제도가 따로 없다. 교사는 8시에 출근하여 8시 30분까지 조회를 한다. 9시까지는 아이들이 체조를 하고 이후 20분 간 수업, 10분 간 휴식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수업 시간은 간식 시간이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 점심시간이다. 30분간 식사를 하고 아이들은 뛰어 놀며 시간을 보낸다. 이 사이 교사들은 청소를 한다. 30분 동안 청소하고 아이들은 1시부터 3시까지 오침을 한다. 이 사이 교사들은 교수안을 작성한다. 즉, 수업시간은 오전 3시간, 오후 1시간으로 짜여있다. 오후에는 20분 간 복습을 하고 4시 30분이면 귀가를 한다. 선생들과 아이들이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나선다. 큰 도로로 가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손을 잡고 큰 길까지 귀가를 시키고 이후 선생님은 다시 유치원으로 들어간다. 차 사고도 있다. 귀가는 4시 30분이나 엄마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맡아달라는 의미에서 교사에 용돈을 주기도 한다. 이에 교사는 저녁 9시에 퇴근을 한다. 즉 공적 업무는 4시 30분까지이나 이후 교사의 재량에 따라 아이를 맡아주는 것이다. 운영 시간은 국가에서 정해진 규정이며 전국이 동일하다.

아침에 우리 8시에 선생들이 출근하잖아요. 8시에 출근해서 8시 30분까지 조회를 하는 거예요. 조회하고 9시까지 애들이 체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분 수업, 10분 휴식인 거예요. 애들은 주의집중이 없으니까 20분을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을 놀리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3시간, 그리고 10시부터 사이에 그런게 있는 거예요. 2시간 치고 세 번째 수업 시간 전에 새참 시간?, 여기서는 간식이라고 하나? 그 다음에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 점심시간. 그리고 한 30분 애들 밥 먹고 뛰어 놀게 하고, 교사들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청소하고. 애들을 오침을 시키는 거죠. 1시부터 3시까지. 네. 오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오침을 시키는 시간에 선생님이 앉아서 교수안을 작성하는 거죠. (한 200-09-12)

수업은 이제 오후에 1시간을 해요. 오후에 또 20분 수업을 치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복습을 20분하고 4시 30분에 귀가를 시키는 거죠. 귀가는 차로 돌아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손을 쥐고 ...여기가 유치원이다 하면 우리 유치원에서 나오면 큰 대도로가 있잖아요. 대도로가 있으면 이쪽으로 빠지는 애들은 대도로가 없으니까 손을 손에 쥐어가지고 그 쪽으로 가라고. 대문까지는 선생님 쳐서 나오는 거예요. 노래 노래 부르면서~ 이러면서 노래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도로에 가는 애들은 손에 쥐고 선생님이 큰 길까지 딱 귀가를

시커가지고 애들이 다 뿔뿔이 헤어져서 들어가는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들어가는 거죠. 다 보죠. 가다가 애들 큰길 쪽에 나가지만 하면 선생님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집 안 들어가고 왜 큰 길 쪽으로 가니 왜. 사건 사고 나면 선생님 책임 있잖아요.

(연속) 4시 30분 귀가인데 엄마들이 일을 한다하기 보다는 엄마들이 장사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봐달라고 한 달에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으로, 솔직히 퇴근을 하는 게 9시예요. 그 때까지 애들을 봐주는 거예요. 그것은 공적인 시간이 아니라 사적인 시간인거죠. 내가 원래는 4시 30분까지는 공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는 내가 봐줘도 되고 안 봐줘도 돼요. 부모들이 좀 더 봐달라고 돈을 주는거죠.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그럼 그냥 9시까지 봐주는 거죠. 그럼 9시 넘어 퇴근하면서 유치원에서 들러서 애들을 다 손에 쥐고 가는 거죠.(한200-09-12)

나) 유치원 급식 및 간식

유치원 내 급식실이 있다. 최00이 교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UN에서 쌀을 포장해서 보내줘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지급해줬다. 그러나 이후 UN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게 되었고 때문에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가져와 먹는 방식이다. 간식은 국가에서 지급된다. 빵, 손가락 과자, 사탕 등 다양하게 지급된다. 단, 도시에 있는 유치원에만 간식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은 시골 동네에서는 옥수수를 튀겨서 나눠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실은 있어요. 있었는데 제가 올 때에는 UN에서 쌀을 그냥 포장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다음에는 UN이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요. 그 전에도 도시락 썼어요. (최00, 2020-05-18)

간식은 나라에서 나와요. 빵이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때는 손가락 과자라고 하는데, 과자 같은 것도 있고 사탕도 좀 나오고. 뭐 여러 가지예요. 근데 도시만 그런 거 같아요. 촌은 촌대로 뭐 다른 게 있겠죠? 촌은 또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촌에서 온 선생님들이, 우리가 강습할 때는 촌에서도 다 도시로 올라오거든요. 선생님보고 간식은 어떻게 주냐고 물어보니까 옥수수랑, 팥 튀어서. 그거. 그거 해서 준다고 한더라고요. 각 자기 지방에. (최00, 2020-05-18)

다) 학급운영예산: 교실꾸리기에 필요한 예산은 부모로부터

김정은 집권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유치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없으므로 부모의 부담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양원은 학부모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실 꾸리기 및 책상 교체 등의 교구 비품을 필요한

시기에 학부모에 요청하는 방식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경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의무교육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도 똑같아요. 나라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나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솔직히 뭐랄까 김정일이, 김부자의 사무실에는 딱 차있겠죠. 그런데 국민을, 인민을 구할 수 있는 금고는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인민을 먹여 살려야 될 금고는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이 금고의 돈이 어디 가있는가? 이 인민들한테. 각 세대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집이 금고인 거죠. 우리는 은행을 몰라요. 카드를 몰라요. 통장을 모르는 거예요. 현찰을 다 가지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금고인 거예요. 이 금고를 학부모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사로서 이 학부모의 금고를 털어야 하는 거예요. (최00, 2020-05-20)

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모를 두들겨가지고, “학부모님, 여기 교실 꾸리기가 있는데, 이 책상을 이번에 다 교체를 해야 하겠는데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 집의 애를 엄청 잘 봐줘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이 있는 부모면요. 그러면 “네, 선생님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하면 책상이 한 20개다 하면 이 20개를 교구 비품에 가서 엄마가 돈을 내서 그거를 100% 바꿔오는 거죠. 그래서 교실에다 놓아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한 몫씩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이,,, 그러니 돈있는 집과 없는 집 학생에 대한 차별 있죠. 여기 같았으면 큰 일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선 먹고 살아야하고 내가 내 교실을 운영해야 하니깐. 나라는 아무 것도 대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이렇게 많이 신경 쓰는 거죠. 많이 연구를 하는 거죠. (최00, 2020-05-20)

라) 귀가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북한의 유치원은 오후 4시 30분이면 유치원 운동장에 어린이들과 교양원이 모여서 낮은 순위별로 교양원의 지시에 따라 귀가한다. 귀가는 대도로나 없는 곳의 어린이들은 손을 잡고 함께 가도록 하고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들은 교양원과 함께 자동차를 주의하여 함께 건넌 다음 좌우로 갈라져 가는 어린이들을 지켜봐 준다. 일반 어린이들은 이렇게 교양원과 함께 제 시간에 귀가를 하지만 부모가 시장에 나가거나 맞벌이 하는 부모가 있는 어린이들은 교양원이 시간 연장으로 돌봐준다. 그렇지만 교양원의 특근이라는 것은 아니며 학부모의 편리와 어린이의 위험도를 방지하기 위해 돌봐 주는 것이다. 동화책은 수업시간 외 방과 후에 읽어 준다. 정규 수업은 3시 50분에 끝나고 4시 30분 이후 귀가할 학생은 집으로 간다. 방과 후에는 그림책 읽기 및 복습을 하며, 교사의 재량에 따라 배우는 시간 또는 놀이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오후시간에는 세계 여러 나라 동화집 있죠. 신데렐라, 백 한 마리의 뱀의 뱀, 뱀 그런 거 다 세계동화 있죠. 김정일 시대 때. 그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매 유치원마다 다 준 거예요. 산골 마을 유치원까지. 그래서 그걸 다 읽어줘요. 읽어줘가지고. 수업시간에는 아니고요. (김300, 2020-10-09)

4시부터 아, 3시 50분부터 방과후일 거예요, 아마. 3시 50분 전에 수업이 끝났고. 아니죠. 방과후 시간도 시간인 거죠. 시간을 하고, 그림책 읽어주거나 하고, 4시 30분에 귀가를 하죠. 그림책도 하고. 어떤 선생들은 그 날의 뭐, 자기가 배워줄 수 있는 것도 배워주고. 복습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방과후는 아무튼 간에 4시 30분부터인거니까. 끝이 나서는 있는 애 들하고는 뭐 놀 거야? 무슨 놀이 하겠다 하면 가서 진흙놀이 가져다가 교실에서 펼쳐 놔주면 애들끼리 그냥, 그냥 놀고. (최00, 2020-05-20)

2) 북한 유치원 학제, 재정지원현황, 전달체계

가) 북한 유치원 학제의 특성

(1) 높은반부터 12년 의무교육제

2012년을 기점으로 기존 의무교육이 11년제에서 12년제로 변경되었으며 유치원 높은 반부터 포함되는 것으로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학제 개편 이전에도 유치원 높은반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어있었으며 기존 4년제의 소학교가 5년제로 늘어난 것이다. 이어서 초급 중학교 3년과 고급 중학교 3년을 더하여 총 12년제로 이루어져있다.

유치원 높은 반부터 12년제 의무교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12년제. 2012년부터 12년제. 12년도 이전에는 11년제 의무교육으로 들어가죠. 높은 반이 그냥 의무제로 들어갔었는데 원래는 북한이 초등학교를 지금 소학교라고 하잖아요. 원래 초등학교를 4년제를 만들었는데 초등학교를 5년제로 만든 거예요. 그레가지고 초급 중학교를 3년 고급 중학교를 3년 해서 12년이 된 거죠. (최00, 2020-05-20)

북한은 1975년에 보육교양제를 실시한 이후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해왔으나 2012년에 12년제 교육과정으로 개편되면서 유치원이 낮은반과 높은반으로 구분되었고 높은반부터 12년제 의무교육에 들어가게 되었다. 유치원 낮은반은 보육교양제로 교과서가 없으며 춤, 노래, 체육 등의 놀이 및 활동 위주의 교육과 어린시절이야기 교과를 배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치원 높은반은 어린시절이야기부터 국어, 셈세기, 그리기, 만들기, 체육, 음악 등의 교과를 학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가 원래는 75년도에 보육교양제를 실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1년제 의무 교육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탈북하기 직전 2012년도에 이것을 바꿔놓은 거예요. 12년제로. 바뀌서 애들을 낮은 반, 높은 반 이렇게 갈라놓아가지고 높은 반부터 12년제 의무교육에 들어간 거죠. 낮은 반은 보육교양제라 교과서가 없어요. 애들이 노래하고 춤, 그리고 위대한 역사 있죠. 그 혁명. 어린 시절 이야기. 체육, 놀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높은 반은 다 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국어, 그리고 셈 세기, 그리기와 만들기, 체육, 음악 이렇게 수업으로 하는 거죠. (최00, 2020-05-20)

(2) 의무, 무상교육이나 국가 지원은 제로

표면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상은 자본주의와 유사한 운영 형태를 띠고 있었다.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의 지원이 줄어들었고 학부모가 운영 주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면담자 A는 교양원으로 3년간 근무한 후 예능 분야 교육자로 활동하며 유치원생들의 종합 공연 등을 도맡아왔다. 이 경우 공연을 위한 비용은 전액 자부담이며 국가의 지원은 없었다.

북한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안에 들어가보면 자본주의보다 더한 자본주의예요. 내가 잘할 때는 사회주의 나라여서 나라에서 다 해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애를 낳고, 우리 큰 애가 96년도 생인데 북한이 94년부터, 95년부터 고난의 행군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나라에서 지원이 없어진 거예요. 모든 운영은 학부모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부모는 자본주의인거예요. 유치원하고 부모 사이에는 자본주의가 부르는 거죠. 내야 하는 거예요. (최00, 2020-05-20)

우리시절에는 정신없이 당과 수령을 위해 나가서 일만 했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해주 거죠. 근데 지금은 하나도 해주는 게 없으니까. 학부모가 100% 하는 거죠. 시장이 그저 우리대로 말하면 경제 유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100% 시장에 나가서 돈을 모아서... 탁아서, 유치원, 초등, 고등 거기도 다 똑같아요. (최00, 2020-05-20)

(3) 연령별 이원화: 만 4세 이하는 탁아소, 만 5세 이상은 유치원

북한 유치원은 낮은반과 높은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입학연령이 낮은반은 만 4세, 높은반은 만 5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 4세 미만은 탁아소를 다니게 되어 있어 연령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었다.

만 4세 아래는 탁아소예요. 높은 반은 만 5세, 낮은 반은 만 4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4) 학군제이나 유치원 선택 가능

북한은 유치원과 소학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한국과 같은 병설 유치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 유치원을 졸업하면, 거주하는 동 인근의 소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이다. 최00이 해흥유치원에서 교양원으로 근무할 당시 학생들은 해흥유치원 졸업 이후 인근의 해신소학교 및 해신중학교로 입학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유치원은 단독으로 되어있는 거죠. 우리 유치원을 해흥 유치원이라고 했는데 해흥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면 그 주변에 해신 소학교가 있고 그 옆에 해신 중학교가 있죠. 그 다음에 옆에는 해산 1고등이 있죠. 거의 그저 이렇게 자기 동네에 관계되어서 들어가는 거죠.(최00, 2020-05-20)

(5) 학년아동조사 방식: 유치원 및 소학교 선정

만 5세부터 7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타 유치원으로 옮겨가게 되면 원아 수가 줄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양원 인원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만일 교사가 타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한다면 학부모들은 그 교사를 따라 유치원을 보내기도 한다.

유치원은 선택이 가능하므로 이럴 경우 출신 성분이 좋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장들 사이에서 신경전이 일기도 한다. 소학교 역시 선택 가능하다. 북한에서도 한국과 유사하게 유치원과 소학교를 선택해 다닐 수 있지만 차가 없는 관계로 장거리에 있는 곳으로의 등원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 가까운 곳에 다니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동하고 원장님이 명단을 주는 거예요. 명단을 적어내서 1반부터 57반까지다 하면 내가 1반부터 57반에 가는 거 동에서 명단이 뽑아진 거 하고 내가 유치원에 들어와야 할 애들이, 학년 아동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묶어두는 거죠. 그래서 만 5세부터 만 7세부터 애들을 우리가 뽑는 거죠. 이것도 전쟁인 거예요. 인원수가 줄면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인원수가 줄면 우리가 교양원 축소를 해야 하는 거죠. 인원 축소를 해야 하나까 이 애들을 가지 못하게 엄격하게 단속하는 거죠.(최00, 2020-05-20)

나는 우리 동네 살지만, 여기서 사는 교사가 다른 유치원 교사를 한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그 교사를 따라서 그 유치원을 막 보내는 엄마들이 있는 거예요. 선택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소학교도 정해져 있지 않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통근 거리가 너무 멀면 우리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유치원 다니는

걸 기본으로 하는 거죠. 이동이 어려워서 그렇지, 유치원과 소학교를 선택하는 것, 그건 자유예요. 어딜 가겠더라는. 그래서 원장님들 막 싸움 엄청 해요. 출신 성분 좋은 애들도 확보해야 하니까.(최00, 2020-05-20)

(6) 북한 유치원의 유형

북한은 100% 국공립 유치원으로, 유치원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이는 지역의 리 단위까지 국가가 세운 유치원이 있기 때문이다.

너무 많죠. 몇 개가 있다고 말해야 하겠는가. 리까지 다 있잖아요.(한200, 2020-09-16)

한국의 유치원은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되나, 북한의 유치원은 오로지 국가에서만 운영되며 동/군/리 유치원, 공장(기업소)유치원, 군부대 유치원으로 나뉜다. 공장 유치원은 한국의 직장 어린이집과 유사한 개념으로, 부모가 공장에 근무할 경우 자녀는 공장 유치원에 다닐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시설의 측면에서는 군부대 유치원이 가장 우수하며, 공장 유치원의 시설도 좋은 편이다. 동 유치원은 일반 유아들이 제한 없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시설이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장 유치원은 부모 중 한쪽만 공장에 재직해도 자녀가 등원 가능하나, 군부대 유치원은 철저히 아버지가 군부대 소속이어야 다닐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부대에서도 장교급에 해당하는 직급이어야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동 유치원, 그 다음에 공장 유치원, 군부대 유치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요. 다 나라에서 운영해요. 그냥 소속이 어디에 붙는가 하는 거죠. 북한은 국공립, 사립 이것이 갈라지지 않고 동 유치원이나, 공장 유치원이나, 아니면 군부대 유치원이나 이렇게 분할이 되는 거죠.(한200, 2020-09-16)

그러니까 동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개 아파트가, 북한은 인민반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반이라고 하잖아요. 한 개 동, 한 반 그렇게 있거든요. 해흥동이다 하면 그 주변이 다 해흥동이잖아요. 뭐, 인민반이 1반부터 한 107반, 7반까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소속된 아이들이 그 유치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빠가 한국어로 말하면 기아자동차 다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직공장을 다니다 하면 큰 공장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 공장을 다니다 애는 동 유치원을 안가고 공장 유치원을 가는 거죠. 공장 유치원에 가는데, 공장 유치원은 시설이 좀 더 좋아요. 군 부대가 제일 좋아요. 군대는 공무원이라. 군부대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엄마든 아빠든 한명만 다녀도 애를 보낼 수 있어요. 군부대 유치원은 철저히 아빠가 장교해야만 그 유치원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예요.(강00, 2020-08-10)

나) 관할 부처와 전달체계

유치원 관할 부처는 한국의 교육부의 위상에 해당하는 교육성이다. 그리고 도마다 교육부, 그 하위에는 교육과가 존재한다.

교육성이 제일 위죠. 교육부는 매 도마다 있죠. 도마다 교육부가 있고 그 밑에는 시당은 교육과, 시당행정위원회. 근데 교육부는 도당에도 있고 도 행정위원회 안에도 있어요. 근데 교학은 행정위원회에서 하죠. 시학. 시학이란 건 뭔가, 시당행정위원회에서 검열하는 사람들, 우리를 지도를 하는 사람이죠. 그걸 시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당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학이 있거든요? 교학은 도당교육부에서 나오는 사람이구요. 그 다음에는 강습소가 있어요. (한200, 2020-09-12)

근데 이 사람 밑에서 또 한명이 또 간섭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로단체비서라고 있어요. 시행정위원회 근로단체비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총괄을 하는 거예요. 근로단체비서가 모든 교육부를 다 총괄하는 거죠. 교육국장이, 교육부장이 제일 세고. 도당책임비서 다음에 이 사람이 힘을 써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국 교학, 교학이 그 다음에 힘이 있고, 교학 전에 시 근로단체비서가 최고예요. 이 사람들은 다 당원이고, 이 사람들은 여기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야 하나. (한200, 2020-09-16)

다) 지역간 격차

현재의 유치원 건물은 국가에서 지은 건물이나 내부 인테리어는 학부모의 도움으로 바꾸기도 하여 지역별 시설 간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면담자 A는 한국에 온 이후 한국 유치원을 몇 차례 방문했다. 평양 유치원은 시설이 우수하고 한국 유치원과 다른 점이 없을 정도다. 특히 김정숙 탁아소는 한국에 있는 어린이집보다 시설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다. 김정숙 탁아소 및 창광 유치원은 외국에서 시설을 지으므로 한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못지않게 뛰어나다. 그러나 유치원 시설의 지역별 편차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강원도는 아주 가난한 지역으로 유치원 시설이 무너져내릴 정도라고 한다.

엄청 시설이 차이가 나죠. 편차가 많아요. 그런데 건물은 다 그 전에 건물이에요. 다 나라에서 해줬던 건물. 근데 안에 인테리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느냐. 거기에 관계되어가지고 나도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유치원 교사를 했다 보니까, 너무 궁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유치원을 좀 봤어요. 또 원장님들도 오시는 거예요. “원장님, 저 북한에서 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왔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아, OO씨, 가요, 가요.” 하고 가서 보는 거예요. 보면 평양하고 한국, 하나도 틀리는 거 없어요. 똑같아요. 평양이. 네. 평양이 시설이 엄청 좋아요. 김정숙 탁아소 같은 건 한국보다 더 좋아요. 솔직히. 모든 시설을 외국에서

지으니까. 그리고 창광 유치원도 시설이 100% 다 외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못지않아요. (최200, 2020-09-12)

평양이외의 지역의 유치원은 평양과 비교해볼 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시는 좀 괜찮아요. 정말 여기서 뭘 도와준다고 하면 가까운 지대가 강원도 아니에요. 강원도 그쪽으로는 진짜 못 살아요. 거기를 가보면 눈이 감겨요.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지대마다 차이가 나는 거죠. (최200, 2020-09-12)

반면, 최00이 근무한 동 유치원에서 교양원으로 근무했으며 교사 수는 23명, 원아 수는 320명으로 규모가 매우 큰 편이었다. 원아 수가 150명 가량의 유치원은 규모가 적은 편으로 분류되며 보통은 평균적으로 100명대의 유치원생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는 동 유치원에 다녔죠. 애들이 한 320명? 정도로 엄청 커요. 작은 유치원도 있고 큰 유치원도 있어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100명대 정도가 될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제일 작은 유치원은 시. 시국이니까 한 150명? 150명이 제일 적을 거예요. 저희 교사가 23명이었지요. (최00, 2020-05-18)

한편 좋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이라고 하여 좋은 유치원에는 모두 상위계층만 다니는 것은 아니며 지역 인근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느 반에 소속될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창광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 모두가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없고 빈민층의 아이들도 다닐 수는 있다. 그러나 배정되는 학급 및 선생님은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창광 유치원이다 하면 엘리트 애들만 들어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빈민 가족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내가 이 유치원에 들어가서 내가 어느 선생님에게, 어느 학급에 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 잘사는 애들만 그 유치원에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최00, 2020-05-20)

라) 북한의 학생기록 관리 방식

한국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통해 학생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서류 문서로 관리하며 5년 간 보관한다.

그거는 교육부에서. 우리는 컴퓨터에다가 수록을 하지 않고 서류로 쌓아두는 거요. 컴퓨터로는 안 되는 거죠. 서류를 남겨놓고 이걸 5년 보관해요. (최00, 2020-05-20)

다. 교직원 관리

1) 교양원 자격, 양성체계, 재교육 관리체계

가) 유치원 교양원 양성 및 자격체계

북한의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양원 양성은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근거하여 전국 22개 교원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3년제 교양원학과, 도·시·군에 설치된 1년제 교양원양성소, 통신교육체계에 의해서 양성한다. 유치원의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교육지도기관, 지방행정기관, 해당 감독통제 기관이 관장한다. 북한에서 운영하는 1년제 교양원양성소는 유치원 교양원에 대한 교사수급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때 일시적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통신교육체계는 1년제 교양원양성소에서 유치원 교양원을 배출한 경우 주로 학기 중에 TV방송으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교원대학교에 나가서 집체교육으로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볼 때 북한에서 정기적으로 유치원 교양원을 양성하는 곳은 전국 22개의 3년제 교원대학 유치원 교양원학과이다.

교원대학 유치원 교양원학과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으로는 정치사상 교과목과 전공교과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사상 관련 교과목으로는 김일성 혁명역사, 김일성 로작, 김정일 혁명역사, 김정일 로작, 백두산3대장군 어린시절, 군사훈련 등이다. 둘째, 전공교과목으로는 교육학, 교육심리학, 외국어(영어, 로어), 컴퓨터교육, 국문강독, 문화어(우리말 문법),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음악, 미술, 체육, 어린이위생학, 체육교수법, 도화공작교수법, 음악교수법, 쉼세기교수법, 무용(유치원 노래와 춤동작), 여학생 실습(음식요리, 봉제), 자연관찰, 교육실습 등이다(최민수, 1996; 이윤진, 2014).

한국에서는 유치원 원장이 대학에 출강하는 경우가 있지만 북한에서는 교원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평생 그 일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심리 교과를 가르친다고 하면 60세가 될 때까지 그 대학에서 심리학만 가르치게 된다. 또한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를 나와야 한다. 소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교원이라 칭한다. 교원 이외에 경리 및 회계 등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선생님이라고 칭한다.

한국은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이려잖아요. 내가 강단에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그 학교에 어느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와가지고, 교수님이잖아요. 가르쳐주잖아요. 우린 그런 게 절대 없어요. 내가 대학이다, 교원대학의 교원과 선생님이다 하면 내가 교원과에서 아동 심리를 가르쳐준다고 하면 이 선생님은 이 대학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서 영원히 60이 될 때까지 그대로 그 대학에서 심리학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른 데 안가요. 교원대학 교원인 거죠. 사범대학을 나오면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거죠. 이들을 우리는 교원이라고 하죠. 우리는 다 교원이라고 불러요. 대학도 교원. (최00, 2020-05-20)

북한에서는 교양원 출신이 아닐지라도 당원이면, 유치원 원장을 할 수 있다. 만약 당원이 아니라면 원장이 될 수 없다. 교장도 마찬가지다. 원장으로서 자질이 있고 기업을 운영해나갈 역량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원이 되지 못했다면 입당을 시켜준다. 최00이 소속되어 있던 유치원의 원장은 유능한 편은 아니었으므로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책임교양원이 업무를 도맡았다고 한다. 이 책임교양원은 처음에는 당원이 되지 못했으나 시당에서 입당을 시켜주어 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원장은 특히 운영을 잘 해야 하며 예능으로 우세한 유치원을 잘 이끌어가야 좋은 유치원으로 인정해준다.

원장이 되려면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교양원을 하지 않았어요. 교양원을 안하더라도 내가 당원이면 그냥, 당원이 아니면 원장은 못해요. 책임 교양원은 4급 이상. 원장의 경우, 급으로 올라가서 원장이 되는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원장은) 딱 당원이어야 하니까, 밀어넣는 곳이 다 있어요. 유치원 원장으로. 그러면 그 원의 시스템은 난장판이 되는 거죠. (김300, 2020-10-09)

나) 교사교육

(1) 교양원 양성 교육

북한은 각 도마다 3년제 교원대학이 있으며 교양과와 교원과로 나뉘어 있다. 교양과를 졸업하면 유치원 교양원이 되고, 교원과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 그러나 면답자 A는 교원대학 출신이 아닌 해산시 소재의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사범과에서 양성을 받은 후 교양원이 되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교양원 양성대학을 졸업한 후 6급을 부여 받게 된다. 그 이후 1년에 한번 씩 자질향상시험을 치른다. 가장 낮은 급수는 6급이며 5급, 4급, 3급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다. 3급부터는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월급도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원래 교양원은 각 도마다 교원대학이 있어요. 3년제 교원대학. 교원대학에 교양과가 있고 교원과가 있는 거죠. 교양과를 졸업하는 사람들은 유치원 교양원이 되는 거고. 교원과를 졸업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 학교를 안 졸업했어요. 나는 이 학교를 안 졸업하고, 나는 00에 예술 대학을 졸업해서 사범과로 양성을 들어갔다가 나와서 교양원이 된 거죠. (최00, 2020-05-20)

교원 양성 기관에서는 대학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교양 뿐 아니라 인간학 및 심리학을 다루며 어린이와 관련한 과목들도 학습한다. 교원 양성 기관에서는 담당 교원을 교수님이라고 칭하지는 않는다. 교수님이라는 칭호는 오직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을 비롯한 평양 소재 7대 대학에 있는 교수에게만 칭한다. 또한 인민 대학습당을 거쳐 박사가 된 경우에만 교수가 될 수 있다. 지방 대학에서는 교수라 부르지 않고 교원이라 한다. 즉 박사 및 교수는 평양에만 있다.

인간학. 대학은 똑같아요. 심리학도 배우고. 일반적인 걸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애들이 그걸 배워주는 거죠. 어린이가 관련된 그런 걸 다 배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성기관에서는 우리가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담당 교원들이 있는 거예요. 대학은 딱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 공업 대학, 그 다음에 평양 어학 대학, 경제 대학, 그러니 평양에 있는 7대 대학 있죠. 7대 대학에 교수, 박사는 인민 대학습당을 거쳐서 나온 사람만이 교수가 되는 거예요. 지방 대학에는 교수가 없어요. 교수라고 안 불러요. (최00, 2020-05-20)

(2) 교사 양성교육 내용 및 방법

교원선전수첩에 제시된 교양원 대상 교사교육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교사교육은 비교수법 적용, 자연관찰 실습, 어린이해부학 과외학습지도, 실례학습방법과 마이크로교수방법 등으로 상당히 체계적인 교수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가) 비교수법 적용 교사교육

사물현상을 고찰하는데서 비교수법을 적용하는 것은 나타난 현상의 원인을 빨리, 그리고 정확히 찾아내고 실천 활동에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으로 공고히 하는데서 우수한 교수방법이다. 어린이와 어른의 해부생리적 특성을 비교하여 가르치면 대상에 대한 관찰을 높여줄 뿐 아니라 현실에 응용할수 있는 실천적 능력도 높아지게 된다.⁵⁶⁾

(나) 자연관찰 실습

교원대학 교양원학과 《자연관찰》실습에서는 학생들이 유치원교육활동을 벌릴수있는 교양원

56) 리명철, “교원대학(어린이위생학)과목교수에서 비교수법을 적용하자면”, 『교원선전수첩』주제98(2009)년 제1호, pp.70-71.

으로서의 리론실천적자질을 원만히 갖추도록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그러자면 실습요강에 반영된 동물과 식물 등에대한 관찰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연현상을 정확히 관찰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하며 그들이 동물원과 식물원을 통한 동식물과 식물원을 통한 동식물관찰을 자체적으로 조직진행할수 있는 집행능력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로, 관찰과제를 명백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로, 학생들에 대한 관찰지도를 원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처럼《자연관찰》실습과정에서 학생들이 유치원교육실천에서 제기되는 관찰실습을 자립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들에게 관찰의 방법론을 터득시킬뿐아니라 관찰능력도 높여주어야 한다.⁵⁷⁾

(다) 어린이해부학 과외학습지도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게 하자면 과외학습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교원대학《어린이위생학》과목의 과외학습과정에 학생들은 강의에서 배운 어린이몸의 해부생리적 특성과 위생학적 요구, 어린이관리(영양, 건강, 생활) 등에 대한 지식을 공고히 다지고 그에 대한 실천능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과외학습지도는 배운 내용을 공고히 다져주는 방법, 학습내용에 대한 자체평가방법, 새 교재내용에 대한 예습지도방법으로 이루어진다.⁵⁸⁾

(라) 실례학습방법과 마이크로교수방법

교원대학 《셈세기교수법》과목에서 학생들에게 교수실천능력을 키워주려면 셈세기교수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교수방법론적 원리들을 옹계 파악시켜야 한다.《셈세기교수법》학과목망 교수체계를 구성하여 실례학습방법과 마이크로교수방법을 지원한다. 마이크로교수방법은 학습가능확정, 본보기보여주기, 학생의 해보기록화, 록화자료를보면서 분석, 토론, 다새해보기 기능개선으로 진행된다. 컴퓨터망상의 마이크로교실은 컴퓨터와 록화설비들을 리용하여 학생이 자기의 교수실천행동과정을 기록하고 자체평가를 하며 조별평가와 교원의 평가를 받을수 있게되어야 한다.⁵⁹⁾

유치원 교양원 양성기관인 00 교원대에서 양성과정을 거친 교양원의 면담내용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교원대 내에서 유치원 교사반(교양과)의 한 학년은 28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학년은 두 개의 학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아동 심리학, 노래, 춤, 풍금 등을 배운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아노 시간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으며, 3대장군의 어린시절이야기 등도 배웠다고 한다. 한편 3대장군은

57) 조순옥, “교원대학 《자연관찰》실습에서 학생들의 관찰능력을 높여주자면”,『교원선전수첩』주체98(2009)년 제4호, p.76.

58) 리명철, “교원대학 《어린이위생학》과목의 과외학습지도방법”,『교원선전수첩』주체100(2011)년 제4호, pp.87-88.

59) 리장욱, “학생들의 교수실천능력을 높여줄수 있는 방교수체계”,『교원선전수첩』주체100(2011)년 제4호, pp.139-140.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을 일컬으며, 김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김정은에 대한 내용은 현재까지는 노래로만 부르며 학습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치원 현장으로까지는 보급이 되어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실습은 2학년 2학기에 한두 달 정도 유치원으로 나가 실습교사로 활동한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한 후 결혼을 하게 되면 실제로 교사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졸업과 동시에 교사 자격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라 설명했다.

우리 유치원 교사반이 한 학년이 28명 정도, 한 학급이 2학급으로 나뉘서, 과목은 아동 심리학, 어린이 노래, 춤 노래, 풍금, 3대장의 어린시절이야기 뭐 이런 것도 배웠고.아 실습을 2학년 2학기에 나가는데 그게 한 두 달 정도. 유치원을 졸업하면 애들이 다 시집을 가고, 누가 교사를 해. 이러니까 교육 현장은 많은데 일하는 애들은 적고 막 그러니까(한 00,2020-07-27)

(2) 교양원 재교육

(가) 교양원 자질향상시험제도

북한에서는 유치원 교양원의 자질을 매우 강조한다.

유치원에서는 교양원들이 교원의 자질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며 교수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도는 교원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질향상의 된바람을 일으키게 하며 모두가《10월 8일 교범교사자》들의 대오에 들어설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⁶⁰⁾.

이런 이유로 현직 교사가 되어도 교양원들은 자질향상시험을 봐야 한다. 교양원 자질향상시험은 난이도가 높은 편이며 시험의 내용은 교수안 쓰기다. 출제되는 문제를 예상할 수 없어 끝없이 공부해야 하므로 자질향상시험에 응시하기 전에는 강습도 받는다. 방학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으로 두 번이 있는데 강습을 받고 약 3일 간 자질향상시험을 치게 된다. 응시 장소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등으로 배정을 받고 한 줄씩 앉아 응시한다. 도 교육국에는 교육국 시학과 교학이 있고, 시당에는 시행정부 시학이 있으며 그 다음에 교수 강습소가 있다고 한다.

우리는 자질 향상 시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1년에 한번씩. 그러니까 제일 낮은 급수가 6급이에요. 6급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5급, 4급, 3급. 3급부터는 월급도 좀

60) 사설,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 학교전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 『교양원』주체98(2009)년 제1호, p.4.

높아요. 그런데 그 월급은 뭐 만족하기에는 뭐... 그런데는 아무튼 내가 3급이나 6급이나 1급이나 하는 데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좀 달라지죠. 양성 대학에서 나올때는 똑같이 6급을 주는 거예요. (최00, 2020-05-20).

자질 향상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시험이 어려워요. 자질 향상 시험에서 합격이 돼야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우리가 교수안을 쓰잖아요. 교수안을 쓰는 걸 다 하는 거죠. 애들이 대학에서 시험 치는 것처럼 어느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끝이 없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질 향상 시험을 치기 전에 강습을 받는 거예요. 방학이 2번 있잖아요. 겨울방학 여름 방학이 있는데, 우리가 보름씩, 우리가 교사들이 다 강습을 받는 거죠. 강습을 받고 한 3일 동안 자질 향상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장소는 국가가 지정해주는 거죠. 어디 중학교면 중학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이렇게 지정해주고 한 줄씩 딱 앉아가시고 우리 도 교육국에는 교육국 시험이 있고, 교학이 있고, 시당에는 시행정부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교수 강습소가 있는 거예요. 교수 강습소에서 나와 가지고 아예 면밀하게 컴퓨터 못하게 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월급도 못 받고, 그래서 남의 애들을 애보개처럼 봐주잖아요. (최00, 2020-05-20).

북한은 교사자격시험의 승급 체계를 통해 교사의 질 관리를 하고 있다. 북한은 자질향상시험을 치뤄 4급에서 5급으로 한 단계 내려가게 되면 월급 등의 처우가 낮아진다. 그러므로 교양원은 늘 공부하는 자세여야 한다. 책임 교양원은 4급 이상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원장 자격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당에 소속된 자만이 가능하고,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 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교사자격시험을 통해 원장자격을 얻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며, 이렇게 원장이 되는 경우는 정말 실력이 좋은 경우에 가능하다.

교원 시스템은 한국보다 북한이 더 좋은 거 같아요. 교양원에 대한 존중이나, 자격시험도 되게 까다로운 거거든요. 한국은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자격 따면 원감이 될 수 있고 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매번 시험을 보지는 않거든요. 자격 시험을 봐서 계속 급을 올리니까 늘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해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4급인데 이번에 000에서 우리 1월달에 무조건 보거든요. 그러니까 5일까지 쉬고 6일부터는 강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습 지나서 자질 향상 시험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4급인데 시험을 쳤어. 낮아. 5급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이 떨어지죠. (최00, 2020-05-20).

교원대학 졸업 후 곧바로 교원양성소에서 진급시험을 보는 방식이다. 교원양성소는 각 시마다 한 군데씩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격증 명은 '2급 자격증', '1급 자격증'으로 불린다. 시험은 1년마다 응시한다. 교사들은 진급시험보다 급수

시험에 더 많이 응시한다. 자격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면담자 D는 급수가 6급까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만약 응시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시험 응시를 위한 전화 및 통지가 온다. 급수시험에서는 ‘3대장군 어린시절’과 ‘주체사상’에 대한 시험을 치른다. 또한 ‘통합교육의 기본 목적은 무엇인가?’와 같은 내용도 시험에 출제된다.

교사 승급시험에서는 필기와 실기를 모두 응시해야 하며 특히 ‘삼대장의 어린시절’에 대한 춤 등을 봐요. 해마다 시험을 쳐야 하니까 6급을 채워서 6급이라고 해서 안친다고 그런 거는. 안보면 일단 교육부 교육부에서 시험을 보라고 계속 전화도 오고 통지도 오고 하니까. 그냥 제일 기본으로 보는 게 점수가 제일 낮은 게 바로 그 3대 장군 어린시절 주체사상.네 통합교육의 기본 목적은 무엇인가예요.(한00, 2020-07-27)

(나) 재교육내용 및 방법

북한의 교양원은 방학 동안 주로 강습을 받는다. 교사연수를 강습을 통해 받는 것이다. 그 예를 들어 ‘기리기’ 주제로 교육 받는다면 2일 동안 4시간으로 나눠 배우게 된다. 전국의 수업은 동일하나 그 방식은 교사에 따라 상이하다. A 교사가 기리기를 ‘ㄱ’에 ‘ㅣ’를 합치면 ‘기’가 된다고 설명한다면, B 교사는 ‘기리기’를 놓고 가르치는 등 교사마다 방식이 각기 다르다.

우리가 방학기간에 강습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기리기다. 우리가 기리기를 4분의 2씩 한다. 이렇게 배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2씩을 하면 우리가 기리기를 이걸 2일 동안에 4시간을 쪼개서 해라. 예를 들어서 국어가 2시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한00, 2020-07-27)

이것은 공통적으로 내려와요. 성에서부터 쪽 내려오기만 하면 그건 전국에 그대로 배워주는 데. 똑같죠. 배워주는데, 배워주는 방식은 교실에 따라서, 교사에 따라서 다른 거죠. 내가 “‘ㄱ’에 ‘ㅣ’를 합치면 ‘기’입니다.” 아니면 어떤 선생님은 또 “자, 이것은” 기리기를 놓고 어떻게 다 다르게 배워주는 거죠. 배워주는 방식은 달라요. (한00, 2020-07-27)

이외에도 아침체조 동작연습, 해보기수업을 통한 자체교사연수, 교수경연과 교수경험토론회를 통해 연수를 받는다.

웅진국 유치원에서는 모든 교양원들이 높은 자질을 갖추고 어린이교사교양사업에 전념하고 있다.《오늘 저녁부터 모든 선생들이 아침시간에 진행할 체조동작연습을 하여야 하겠어요.》그날 저녁부터 원장은 자신이《지도교원》이 되어 교양원들의 체조동작들을 바로 잡아주고 세련시키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였다. 원내 교수경연과 교수경험토론회도 수시로 조직하여 교양원들의 자질을 부쩍 높여나갔다. 이 과정에 교양원들의 자질은 눈에 띄게 높아지게

되었으며 그만큼 어린이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에서는 질적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⁶¹⁾.

이 유치원 교양원들의 자질은 하나같이 높다. 매월 원장은 분과장들과 마주앉아 그달에 진행할 해보기수업계획을 세우고 그에따르는 분공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매주 2~3명의 교양원들이 해보기수업에 출연하게 되었다. 원장은 분과장과 함께 신입교양원의 해보기수업을 여러번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일반화하게 되었다.《교수의 성과는 그 준비과정에 결정된다는 말도 있지만 이처럼 해보기수업을 실속있게 준비하도록 하는 과정에 교수수준이 올라가고 교양원들의 자질도 높아지게 되었답니다.》⁶²⁾

교양원들은 우리 말과 셈세기, 노래와 춤, 그리기와 만들기를 비롯한 각 과목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방법들을 부단히 연구하여 교수경연과 교수경험토론회들을 정상적으로 조직하고 모두가 교육방법들을 써보게하면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능교육방법을 모든 과목교수에 받아들여 어린이들의 지능을 적극 계발시키며 뛰어난 재능의 싹을 가진 어린이들을 제때에 찾아내어 잘 키워주어야 한다.⁶³⁾

2) 교사월급, 근무시간 등

가) 교양원 봉급 제도

북한 내 교사는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최00 교양원에 의하면 월급 지급액에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98만원을 지급 받다 2010년도에 변화가 있었다.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북한 돈으로 매월 148,000원을 받던 것으로 밝혔다. 한국에서는 월급을 받으면 적금 및 생활비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가능하지만 북한에서는 월급, 즉 보육 일당을 받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다고 한다. 탈북 직전 쌀 25kg에 14만원 했는데 월급이 14만원대니 쌀 2kg도 살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월급이 올라 쌀 20kg라도 살 수 있는 몫을 만들어 주었으나 생활하는 데는 여전히 궁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탓에 부유한 학부모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학부모 모임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학급 내에서도 경제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에는 지원을 할 수 없었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축에 있는 학부모 위주로 논의가 오간 것으로 밝혔다. 한 달에 교양원의 생활비

61) 본사기자, “주선으로 틀어진 고리-웅진군유치원 원장 주명숙 동무의 사업에서-”, 『교양원』주체98(2009)년 제1호, p.37.

62) 본사기자, “해보기수업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줄 때”, 『교양원』주체98(2009)년 제2호, p.55.

63) 사설,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 학교전 교육사업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 『교양원』주체98(2009)년 제1호, p.4.

및 반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논의한 뒤 위원회 소속 5명은 비교적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여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월급을 지급해주는 주체가 국가가 아닌 학부모였다.

내가 떠나올 때 쌀, 우리 한 지대라고 하는데, 25kg에 14만원 했어요. 그런데 내 월급이 14만원인거예요. 그 전에는 쌀 2kg도 못 샀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월급을 올려준 거예요. 올려줘서 쌀 20kg라도 우리 뭇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못 사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월급가지고 못사는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비리가 엄청 많다고 말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학부모를 쫓는 거죠.

우리가 한 학년 올라가면 학부모 이런 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학부모 위원장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 위원을 선택해서 5명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이렇게 5명을 구성해서, 학부모들이 자기들 5명에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경제적 수준차이가, 빈익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한 달에 선생님이 먹고 살아야하는데 이만한 돈이 든다, 그리고 반 운영에 이만한 돈이 든다.” 이야기를 꼭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경제적인 걸 구매타산을 하는 거죠. 해서 위원으로 선출된 5명은 좀 많이 내야 해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거죠. 아무튼 위원장은 선생님을 그저 먹여 살리는 것,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명은 반을 운영하는 거죠. 그렇게 운영해나가요. 국가는 지금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어요. (최00, 2020-05-18)

북한에서는 월급을 지급 받기 위한 통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다. 유치원에 근무하는 경리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을 수령해 와 98만원을 봉투에 넣어 월급으로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간혹 빈 봉투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월급을 유치원 내 경조사 비 등으로 제해 놓고 준 경우에 해당한다. 때로는 마이너스 봉투를 주기도 하여 교양원은 월급을 받을 기대를 하지 않기도 한다. 면담자 A는 교양원으로 5년간 근무하며 온전한 98만원을 지급 받은 적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은행 업무와 화폐에 대한 감을 익히게 되었지만 북한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중국 화폐 또는 달러를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방식이며 약 2,000달러를 받는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경제적으로 우세한 지역으로의 이동이 있고 지역별 교육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권력 혹은 권위를 가진 학부모의 경우 유치원 원장에게 돈을 주고 이를 통해 유치원 교양원과 원장은 생활비를 충당해가는 구조라고 전했다.

우리는 통장이란 게 없어요. 통장이란 게 없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봉투가 있으면 우리

가 유치원에 경리가 있어요. 경리 선생님이 은행에 가서 OO 은행이 있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타는 곳이 아니라, 돈을 타 쓰는, 현찰을 타 내오는 거죠. 가지고 나와서 98만원을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봉투에다가 넣어주는데 어떨 때 보면 봉투에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빈 깍지만 있는 거예요. 빈 종이만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 월급은 꿈도 안 꾸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 받은 적도 없는 거 같아요. 월급을 재보지도 않은 거 같아. 월급을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

거의 모든 교사들이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초등학교든 고급 중학교든 유치원이든 다 상관없어요. 잘 사는 거요.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에 어느 구역을 치겠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해운동이다, 이러면 1반부터 107반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노른자가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아파트라는 거죠. 한 사람이 잘 사는 아파트에다가 들어가면 따라서 못사는 사람이 웃돈주고 저쪽으로 가고, 잘사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는 집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교육격차가 엄청 심하죠. 아빠가 권력이 있다든지, 엄마가 권위가 많다든지 그러면 이 교사는 제일 좋은 구간을 맡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만한 돈을 원장님한테 주는 거죠. 드리면 나는 그 구간을 치면 한 학기에 그걸 다 ~~~는 거죠. 학부모한테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북한도 요즘은. 이해가 조금 안되시죠? 학부모가 은행인 거예요. 학부모를 우리가 터는 거예요. 두들겨가지고. (최00, 2020-05-18)

3) 유치원 교양원의 사회적 지위와 삶

가) 유치원 교양원 선호도와 사회적 지위

탁아소와 유치원 교사는 선호도에서 차이가 난다. 부모가 경제적 지위와 권력이 있는 경우 자녀를 유치원 교양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교양원은 2년에 한 번씩 학급이 바뀌므로 입학과 졸업을 반복하며 과정을 치르는 반면, 소학교는 5년제이므로 한 담임교사가 맡은 학급이 5년간 이어지므로 교사에 이득이 없다. 그러므로 교양원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년에 한번씩 전국 유치원 어린이 종합 공연을 하는 곳은 유치원 뿐이므로 교양원은 선망 받는 직업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북한 사회 내 교양원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상위 1% 내 권력자 사이에서 교양원이 직업적으로 선호되는 직업까지는 아니다. 여성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교양원과 교원이다. 북한에서는 선호할만한 특정한 직업이 없는 편이다.

탁아소하고 유치원은 완전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유치원 교양원을 많이 선호를 하는 거예요. 돈이 좀 있고 부모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교양원을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전 의무교육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내가 처음에 낳았

어. 그런데 교육을 제일 먼저 받는 곳이 유치원인거예요. 부모의 정열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김300, 2020-10-09)

그리고 교양원은 2년에 한 번씩 학급이 바뀌는 거예요. 졸업시키고 내보내고 졸업시키고 내보내고 하는데, 초등학교는 우리로 하면 소학교는, 5년인 거예요. 5년 담임이 짝. 5년 만에 다시 또 한 학급. 그러니까 너무 지루한 거죠. 나한테도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양원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양원이 뭐가. 1년에 한 번씩 전국 유치원 어린이 종합 공연 이란 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연을 하는 건 오직 유치원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선호하는 거죠. (강00, 08-10)

유치원 교양원 및 원장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했으며, 긍지를 가지는 직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지위는 그래도 좀 높다고 말해.. 말해야겠죠? 아무튼 뭐, 한국이든 북한이든 교사다. 교양원이든 교원이든 교사든 말이 붙으면 긍지감은 있어요. 그런 건 있는 거예요. (한00, 2020-07-27)

나) 교사들의 삶과 경제활동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이후 교사들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체면을 지키느라 궁핍한 생활을 한 교사들도 많았다고 한다. 가난을 면치 못해 학부모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체면을 잃게 되고 교권이 상실되기도 했다. 국가에서는 군대에 지급하기도 빠듯하여 교원에까지 배급할 수는 없는 구조였다. 그러므로 교원들도 시장으로 나가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최 00 역시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을 때 교사들이 우리도 공무원이라, 교사들이 좀 정직하고 고지식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교사인데 이불 가지고 나와서 하나라도 팔면 먹고 살 수 있지 않나, 근데 내 이미지가 달라져. 내가 이걸 들고 나와서 시장에다가 팔면 “아유, 그 선생은 그거 가지고 나가 팔더라.” 이미지 때문에 굶어 죽은 교사 엄청 많아요.

그냥 교원들도 이제는 얼굴은 철갑을 쓰고 시장에 나가는 거죠. 다 장사해요. 나도 시장에서 장사를 엄청 잘했어요. 우리 집 하고 우리 교실하고 뿌락치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북한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는 돈 가치하고 우리가 보는 돈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거기서 중국 돈, 일본 돈, 다 만지고 오잖아요. 그걸 계산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그 장사를 하다가 온 거예요. 근데

어린애들까지 이제 그걸 다 해요. 왜? 너무 이제 이게 세계적인 돈의 유통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북한 돈 안 쓰는 거죠. 북한 돈 짓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화폐교환을 시키는 거죠. 화폐 교환을 하면서 경제가 자꾸 침체가 오는 거죠. 중국 돈이 아니면 달러를 치는 거예요. 학부모들 자체가 그것으로 선생들한테 주는 거죠. 달러로 말하면 2000달러로 쳐요. (최00, 2020-05-18)

라.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변화

1)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변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또는 제도

가) 세계적 교육추세에 알맞은 교수내용과 방법의 혁신 강조

김정은 시대 들어 인재와 과학기술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의 토대로 삼고자,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건설과 사회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인재와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의 주되는 전략적자원이고 무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인재육성과 과학기술발전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추진하며 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여 사회경제발전을 떠메고나갈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교양원 잡지 2019-1, 6쪽, 신년사 김정은)

나) 통합교육의 강조

김정은 시대 들어 유치원 통합교육이 특히 강조되었다. 유치원의 통합교육의 특성과 우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유치원 통합교육은 10개의 학과목으로 교육하던 방법을 탈피하여 혁명사상, 도덕교양, 우리말교육, 지적발전에 필요한 교육, 정서교양, 몸을 튼튼히 하는 교양으로 구분하되 학과목의 필요에 따라 통합하라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 교육개혁과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강조하는 맥락과 일치하며, 교육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은 학과목별로 구성된 교육내용을 하나로 통합하고 수업의 제한된 틀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는 교육방법이다.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것은 오늘 교육발전에서 하나의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유치원교육에서의 통합교육의 특성은 무엇인가. 우선 10개의 학과목으로 나누어 교육하던 종래의 방법과는 달리 그것을 하나로 종합하여 가르치는 교육방법이라는 것이다. 즉, 혁명사상과 도덕교양, 우리말교육, 지적발전에 필요한 교육, 정서교양,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한 교양으로 구분하되 그것은 학과목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놓은 교육내용들의 영역들이며 교육과정에 서로 침투되고 결합되어 어린이교양에 리용된다는 것이다.(교양원, 2013-1, 32쪽, 김형직 사범대학 김중철)

유치원 통합교육에서는 놀이와 관찰, 이야기해보기와 같은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자기의 개성발전을 촉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의 목적을 사회주의 철학에서 개인의 개성발전의 촉진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전의 교육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이다. 또한 통합교육을 통해 지식의 활용성을 높이고, 유아의 흥미와 적극성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업의 제한된 틀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와 관찰, 이야기 해보기와 같은 활동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초보적인 지식과 기능, 실천능력을 키워주는 교육방법이라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재미있는 놀이활동과 견학, 관찰, 해보기와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동하면서 초보적인 지식과 기능, 고찰능력과 탐구능력을 키워나가게 되며, 자기의 개성발전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다.

통합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월성이 나타난다. 우선 각과목들의 개념, 원리, 방법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보다 쉽게, 정확히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분야의 지식들이 서로 연관속에서 체계화되면서 학습효율이 높아지고 배운지식을 더 잘 활용해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며 어린이들의 인식적 흥미를 높여 학습활동에서 자각성과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교양원, 2013-1, 32쪽, 김형직 사범대학 김 중철)

다) 음악 및 예능 교육에서 스포츠 교육으로

음악 유치원은 각 도마다 하나씩 있으며 본부 유치원은 신의주에 있다. 이 유치원 출신은 신의주 예술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북한에서는 예능 및 예술 분야를 아주 높게 본다. 예능과 체육에 능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김부자와 기념촬영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이 분야를 아주 높게 본다.

질: 저희가 유튜브 찾으면 창광 유치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답: 그건 다 음악 유치원인 거예요. 음악 유치원이 각 도마다 딱 하나 있어요. 신의주는 본부 유치원이예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을 졸업한 애들은 신의주 예술 대학 있죠. 거길

무조건 입학은 하는 거죠. 시험을 쳐서 입학은 하고 나머지 인원수가 모자라는 것은 일반 유치원에다가 입학은 시키는 거예요. 각 도 마다 다 있어요. 예술 쪽을 예술하고 그 여기로 말하면 체육학과, 예체능 쪽을 우리가 많이 주시를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러면 어이없는 짓이죠. 우리는 왜냐하면 예능하고 체육을 잘 해야만이 김부자를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는 거예요. (최00, 2020-05-20)

부모가 아주 가난한 경우라도 학업이 우수한 아이, 두뇌가 명석한 아이, 외모가 출중한 아이의 경우 선생님이 이 아이의 성공을 위해 힘쓴다. 기념촬영을 하게 되면 서류에 빨간색 기록이 남고 이후의 인생은 탄탄대로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기념촬영을 한 사람이 드물다. 최00의 아들은 김정은과 기념촬영을 한 이후 군입대를 면제 받게 되었다.

질: 그럼 TV에 나오는 애들은 되게 잘 사는 애들 위주로 나오는 건가요?

답: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예쁘면, 예뻐야 되는 거야. 아 근데 진짜 그 애는 예뻐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집이 너무 못 살아. 애가 있지. 정말 그런 애들은 많지. 평양도 그래요. 우리가 평양 창광 유치원에서 그 노래하던 애가 이름이 은 뭐였던가, 독창하던 애가 있었어요. 남자인데 노래도 잘하고 예쁘게도 생기고. 이러니까 선생이 자기가 직접 데려다가 키우더라고요. 김부자와 기념촬영 한 번만 하면 거의 뭐 다 일어서는 상황이 되니까. 다 밀어서 넣으려고.. 그래서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능에 왜 이렇게 신경을 써요.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질: 그것 때문에 예능에 신경을 쓰는구나.

답: 우리 애도, 우리 큰 애도, 김정일을 모시고 촬영을 한 거예요. 기념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군대를 안 갔어요. 개는 가겠다는 데에 보내는 거예요. 군대도 안가고, 그 다음에 대가 있으면 조선 선단 6차대대 하면은 애가 촬영을 했네? 그럼 우선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라이벌이에요. 어이없는 짓이죠.

(최00, 2020-05-20)

한편, 최근 김정은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여 특별한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스포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예능 분야에 집중한 반면 현재는 각도마다 축구학교를 설립하는 등 스포츠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스포츠 선수들이 김정은과 기념촬영을 하면서,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녀를 스포츠 분야로 진출시키고자 한다. 즉 지도자가 바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김정일 시대 때는 사람들이 막 예능에 대해서 정신없이 애들을 막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 때는 세계 축구 학교도 내오고, 각 도마다 축구학교를 내오고, 막 이래서 이 사람이 스포츠를 이 사람이 스포츠를 준수했던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래서 스포츠 하는 선수들이 많이 기념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정신없이 머리를 동여매고 아이들을 다 집어넣는 거죠. 제가 올 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도 스포츠에 대해서는 조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능은 그전과 다르게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능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도자가 바뀔에 따라서 좀 무엇인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강 00, 2020-10-06 FGI)

라) 북한 컴퓨터 및 ICT 교육의 강조

북한에서는 컴퓨터 교육을 김정은 시대 이후에 보다 강조되어 왔고, 모두가 보통교육을 받을 경우,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북한에서는 컴퓨터 및 노트북을 이용하지만 해외 사이트로의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어 세계적인 정보를 접하지는 못한다는 한계점은 있으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인민들은 대부분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도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상당히 크다.

북한의 컴퓨터 교육같은 것들은.. 그 전에도 있었는데, 많이 유포가 되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 시대, 우리 시대는 아니지. 내가 애를 낳고 우리 애들을 키울 때만해도 우리 애들도 다 컴퓨터를. PC있죠, 노트북. 이런 거 다 운영을 하거든요.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딸도 엄청 잘 했어요. 아들도. 지금하곤 애들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열리지 않아서 세계적인 정보를 못 본다 뿐이지, 모든 건 다 하는 거예요. 나도 금방 온 사람이잖아요. (한200, 09-21, FGI)

옛날에, 20년 전에 온 사람들은 컴퓨터 못하거든요. 엄청 많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엄청 잘 해요. 어떻게 잘하느냐? 거기서 다 하고 오잖아요. 나라가 너무 못 살고, 유신 체계를 한다 뿐이죠. 근데 인민은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본주의인거예요. 자본주의보다 더 한 자본주의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 무너져요. 배급을 안 주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아니예요. 우리가 얼마나 북한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와보니까 너무 똑똑하다고. 한국에서 내가 자랐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2200, 09-12)

예컨대 00 유치원과 같은 체제 선전의 대표 유치원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하여 교육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 평양 소재 일부 유치원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교육환경과 내용의 측면에서 거의 유사하거나 더 좋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 유치원의 모든 교육기자재는 해외에서 들여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래 그림을 보면, 통합교과서의 내용이 전자교과서화 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II-3-1] 북한 00 유치원 전자교과서 홍보 예시



출처: <https://www.instagram.com/p/BwMFXo8IVMM/>

그러나 외부인터넷망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정치사상교육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2년제로 교육개혁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교양원도 있었다.

김정성이 뭐 스위스 유학까지 해가지고 자유 뭐 그걸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다른 나라처럼 교육의 힘을 넣어서 12년제로 바꿔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유롭게 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또 정치 사상적으로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실행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자유롭게 하라고 하면 인터넷도 다 열어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한00, 2020-07-27)

마. 통일 후, 영유아교육보육 체계의 변화 예상

통일 후, 또는 통일을 가정하려면, 우선 정치사상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어떤 방식을 사상적 통합을 이룰 것인지 논의하고, 남북한 유치원 교사가 동일한 교육목표에 동의하고 이를 추구해야한다는 것이다.

통일이 되었다는 테두리 안에서 얘기를 한다면, 북한교사, 남한교사의 사상이 다르다. 가르치는 과목, 사상통합부터 해야 해요. 언어가 똑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저절로 됩니다. 서로 다른 사상은 아이들을 지배하게 되므로, 교사들의 사상이 동일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00, 2020-05-20)

통일이 되어도 문화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탈북을 하여 남한에 살면서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하였다. 특히 북한 사람들이 자본주의화 되어가고 있고,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있어서 남북이 화합하면, 국가가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저는 통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북쪽에서 내려와서 느낀 게 이게 한 민족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따뜻함이라는 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게 같은 거를 느꼈는데. 비슷한 게 많아요. 뭐 흰쌀밥을 같이 먹고 있는 것처럼 같은 점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게 같아가지고 그런 거를 느껴가지고 진짜 한민족이 한민족인가봐요. 통일되어도 그래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잘 화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북한의 사람들이 자본주의 엄청 되고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 생활 의식수준이 올라가고 있어요. 딱 합해지면 다 좋은 걸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강00, 2020-08-10)

4. 북한 탁아소 제도 분석

가. 북한 탁아소의 목적

1) 보육의 목적과 방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2013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8호로 수정보충)에 따르면, 탁아소는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의 기간에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을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건장하며 지능이 발달되고 문화적소양이 높은 미래의 역군으로 키우는 기관이다(제 5장, 제 38조)라고 하여 탁아소에서도 지능발달과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일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탁아소는 유치원에 가기전까지의 기간에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어린이보육교양법 제5장 제39조)

2) 보육 표준

탁아소에서 가르치는 내용 및 보육 내용은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 또한 보육원들도 마지막 일과가 끝나면 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가 수준의 보육 과정을 북한에서는 ‘교수안’이라 한다. 이 교수안에 모든 학습 지침이 지정되어 있다. 국가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교수안이 똑같이 내려오지만 교사의 자질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량은 달라진다.

전 국가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똑같이. 교수안이 똑같이 내려와요. 근데 교사의 기질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애들을 더 가르치고 그게 있어요. 저 때는 유치원이 없으니까 주로 탁아소 애들이니까 갈라놓을 데도 없고, 통합해서(김00, 2020-05-22)

공부 안하고 섹세기 안 배우고 춤 안하고 이렇게 보고 많이 나가서 밖에 나가서 바깥놀이를 하고. 오침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고 나면 선생님들이 배워주지 않으면 그 뭐라 하는 유희오락을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네, 미끄럼도 타고.(김300, 2020-10-09)

유치원에서는 ‘가겨겨겨, 나나너너’ 정도의 낱자와 ‘동그라미, 세모’ 등의 글을 배우는 수준이었다. 가정에 따라 자녀를 탁아소에 보내지 않아도 유치원 높은반에는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 학업 때문에 생활이 궁핍해 탁아소에 보내지 못하더라도 유치원 높은반은 반드시 보낸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학습이 없으면 학업적으로 밀릴 수 있으므로 유치원 높은반은 꼭 보내는 추세라고 했다. 이를 위해 탁아소의 유치원 준비반에서도 글자를 배우기도 한다고 하였다.

유치원 준비반에서는 우리 때만 해도 유치원에서 통 글자로 가겨겨겨, 나나너너 그다음 그런 정도. (김00, 2020-05-20)

나. 북한 탁아소 시스템의 전달체계, 복지 및 보건 체계, 재정지원현황

북한의 탁아소 및 유치원 시스템은 시,군,구,동, 리마다 국가책임으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 헌법에도 구체적으로 체계화가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어려워 운영이 어렵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유치원이나 탁아소의 시스템은 정말 잘 되어있어요. 우리도 사회주의 헌법을 보면 그게 또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어요. 근데 국가가 못 사니까 밑에 정부에서 밑에 놈들이 약한 자

들을 뜯어먹고 그게 심해서 그렇지 정말 제도는 잘 되어있어요.(김00, 2020-05-20)

1) 북한 탁아소 운영(하루일과, 급간식, 낮잠시간, 등원하원시간, 행사 등)

가) 탁아소 일과 운영

탁아소 직원들은 오전 8시까지 출근하며 각자 맡은 반을 청소한다. 이후 복장을 갖추어 입고 아이들을 맞은 준비를 한다. 그 시각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등원시킨다. 9시부터는 큰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 아침 체조를 한다. 김 씨 일가를 찬양하는 동요에 맞춰 체조를 하고, 이후 간식을 먹는다. 2층에는 궁전처럼 지어진 김일성, 김정일 연구실이 있는데 그 곳에서 큰 아이들은 김 부자의 어린시절 사진을 보며 도록 공부를 한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을 먹고 밖에서 놀이시간을 가진 후, 2~3시 정도에 한 시간 가량 오침을 하는데 이는 반마다 다르다고 전했다. 오후 5시가 넘어 6시 정도에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러 와서 하원을 한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경우도 있다.

직원들은 고조 8시까지 무조건 출근해요. 애 엄마들은 8시에 애들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8시 출근해가지고 자기 저만큼 자기 방을 청소해. 별도로 청소를 따로할 게 없어요. 저만큼 자기 방을 청소하고 애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박00, 2020-05-29)

.9시부터는 음, 이 말하자면 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바깥에 나가서 체조를 해요. 시안에 애들 앞에 나가고. 애들은 조금씩하고 싹 나와서 이렇게 아침 체조. 그 아침체조를 한 것을 그 내용이 다 일반적인 체, 일반적이 내용이 아니야. 김 씨 일가를 찬양하는 무언가의 동요 가를 그런 데를 맞춰서 체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놀다가 그 다음에 또 간식을 먹고, 그 다음에 또 2층에 올라가면 제일 구석에 아이 궁전처럼 그려놓은 나야 그런 가르킨 데 김일성, 김정일 연구실이라는 것이 있어요.(박00, 2020-05-29)

하루일과는 주로 놀이와 보육으로 이루어지나, 김일성 3부자의 어린시절 이야기와 같은 정치사상교육을 도록으로 공부시키는 시간은 반드시 지켜나가고 이쨌다. 한편, 탁아소는 4시 30분이면 원생들이 귀가하지만 저녁 9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경우도 있다. 탁아소 교육에 대해서는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운영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탁아소에서는 특별한 지침은 없는 것으로 있어요. 탁아소도 4시 30분 귀가예요. 탁아소에 5세, 6세는 입학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못들어와요. (김00, 2020-05-20)

2) 북한의 탁아소 제도

가) 탁아소 입학 조건

시설 수 측면에서 보면 탁아소가 유치원보다 시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4세 이하의 모든 유아가 탁아소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탁아소는 보육교양제로 어머니가 사회로 진출하여 일을 할 경우에만 자녀가 탁아소에 다니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가 탁아소에 소속될 수 없었으나 현재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존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방식에서 현재는 부모의 지원 하에 탁아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자녀를 탁아소에 보내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를 보내기도 한다. 즉 예전에는 탁아소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으며 어머니가 직장에 다닐 경우에만 자녀가 탁아소에 다닐 수 있었다.

탁아소가 유치원보다는 적어요. 그러니까 100% 탁아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탁아소는 보육교양제니까 엄마가 사회 나와서 진출해서 일을 해야 만이 소속이 되는 거예요. (김00, 2020-05-20)

지금은 세월이 좀 궁핍하다보니까 탁아소도 나라에서 운영을 못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엄마가 거의 자부담을 하는 거죠. 내가 편하고 탁아소에 내가 애를 놓겠다고 하면 엄마가 자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전에는 나라에서 다 대줬으니까. 엄마가 일을 해야 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엄마가 계속 업고 키우는 거죠. (최00, 2020-05-18)

나) 반 편성

젓먹이반, 젓떼기반, 교양반, 유치원 준비반으로 나누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탁아소 인원에 따라 반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한 달이 지나면 젓떼기반으로 이동하는 등 인위적으로 구분을 한다. 한편 발육이 늦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젓떼기반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

우리 탁아소 총명에 따라서 너는 젓먹이 반이다, 젓 떼기 반이다 이렇게. 한 달 지나면 젓 떼기 반이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누죠. 거기서도 특별히 발육이 늦은 애들은 준비반에 있어야 하는데 젓떼기 반에 있을 수도 있고. (김00, 2020-05-20)

3) 북한의 영유아 복지 및 보건 시스템

북한의 경우 복지 시스템이 거의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가난한 가운데 학업 또는 외모가 뛰어나지 않을 경우는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없다고 봐야한다. 또한 장애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복지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애 영유아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가 집에 방치를 한다.

복지시스템은 없어요. 그저 수수하게. 코 나오면 그냥 코 나오는 대로. 얹어지면 얹어지는 대로. 그냥 가면 가는 대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죠. 뭐. 공부 잘 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엄마들 자체가 안 보내려고 그래요. 집에만 그냥 놔두는 거죠. 놔두고 방치를 하는 거죠.(김00, 2020-05-22)

보건시스템의 경우, 담당자가 정해있는 것은 아니나, 유치원과 탁아소에 절기마다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약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다. 동 마다 있는 진료소가 유치원과 탁아소를 담당한다.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므로 머리가 큰 편이며 머리카락의 상태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교육성 혹은 진료소에서 보건 지원을 위한 노력은 거의 없으며 발달 및 장애 영유아를 위한 공공시스템도 전무한 실정이다.

보건은, 진료소마다 나오더라고요. 담당은 없어요. 진료소에서 나와요. 나와서 절기에 감기가 온다 하면 진료소에서 와서 애들한테 약 나눠주고. 동 마다 진료소가 있는 거죠. 그 진료소가 그 유치원을 담당하는 거죠.(박00, 2020-05-29)

(아이들 신체계측과 발달 체크) 그거는 다 해줘요. 그러나 못사는 집 애들은 영양이 부족하니깐 우선 머리가 커요. 머리가 크고, 머리카락도 다, 뭐랄까. 영양이 부족해서. 그러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공공 시스템은 전혀 없죠. (박00, 2020-05-29)

약 100인 이상의 규모가 작은 탁아소에는 의사가 근무하기도 한다. 백 명 이하의 작은 탁아소에서 아이가 아픈 경우에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탁아소에서 아이가 아픈 경우, 탁아소 내 병동으로 데리고 가는데, 탁아소 내 병동에는 침대가 있고, 병동 내에서 아이들을 치료해줄 수 있다.

작은 탁아소에는 없어요. 작은 탁아소는 없어요. 기준이 있지. 백 명 이상이 있지. 백 명 이상은. 그 아래는 해당이 안돼요. 해당이.(박00, 2020-05-29)

어린이보육교양법 26조의 '탁아소에 있는 모든 곳에 아동병원을 둔다'는 내용은 사실상 맞지 않는다고 했다. 도마다 하나씩 아동 병원이 있다고 한다.

아동 병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탁아소에 있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도마다 하나씩 아동 병원 있어요.(박00, 2020-05-29)

4) 탁아소 비용 및 지원 체계

탁아소 비용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천차만별이다. 교실을 꾸미는 등의 비용은 학부모의 부담으로 가능하지만 외국에서 들여오는 교구 및 비품은 학부모가 일절 관여할 수 없고 당 자금으로 충당한다. 즉 기자재는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매년 들어오지만 필요한 만큼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많이 내는 사람은 또 많이 내고, 다 천차만별인거죠. 지정은 안 되어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교실을 꾸밀 때, 근데 이런 거 외국에서 교구 비품들이 들어온다, 이런 거는 절대로 학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 자금으로 하는 거죠. 다 기자재는 나라에서 해주죠. 매년 들어오죠. 근데 충족을 못시켜요.(최00, 2020-05-20)

탁아소는 국가가 운영 주체이지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자녀를 보내지 않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상위계층은 김정숙 탁아소와 같은 우수한 탁아소에 자녀를 보낸다.

돈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탁아소는 국가가 경영하기는 하지만, 보내도 되고 안보내고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엄마들이 얘기가, 만 4세 미만 아이들은 그냥 돈이 없으면 안 보내기도 하죠. (최00, 2020-05-20)

5) 탁아소 평가 및 관리

탁아소 운영에 필요한 지침 및 요령은 보건소에서 내려온다고 한다. 탁아소 및 유치원 담당 지도원들은 주로 여성이며,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 아이들이 아플 경우 의사가 적절하게 돌보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집회를 통해 비판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북한에서는 해고라는 개념 없이 비판을 통해 개선하도록 한다. '하나는 전체다.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에 대한 공산주의적 구호가 목표다. 또한

모두 같이 잘 살고 같이 가자는 목표를 가진다고 했다.

안하면 보건소에서 다 점검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수시로 내려오면서 어, 이 뭐냐 탁아 유치원 담당 지도원들이 주로 여자들이 해요. 우리는 여자가해요. 우리는. 그리고 순회해요. 제대로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우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무슨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을 볼 때는 현실을 직접 와서 목격을 하는 거지. 문제가 있으면 무슨 그 무슨 비판회 같은 거를 열고, '하나는 전체다.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에 대한 공산주의적 구호다. 그러니까 다 같이 가자. 골고루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가자 그게 구호고 목표인데 .(박00, 2020-05-29)

다. 보육 종사자 관리

1) 보육원 양성체계

가) 보육원 양성

탁아소의 교사는 '보육원'이라 칭한다. 보육원은 대학 졸업장이 없더라도 교수 강습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양성반에서 학습하면 보육원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탁아소에 근무하는 보육원의 양성은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근거하여 중앙의 보육전문학교, 지방의 고등전문학교, 공장 및 기업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학교, 통신교육체제에 의해서 양성된다.

보육원 양성소를 1년 다니면 보육원 자격증을 받는다. 급수는 1급, 2급, 3급까지 있다. 졸업을 하면 3급을 받는다. 보육원의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 지방행정기관, 해당 감독통제 기관이 관장한다. 보육원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진 교과목으로는 보육학, 위생학, 생리학, 영양학, 아동심리학 등이다.

보육원은 그냥 양성 반을 나누는 거예요. 보육원 양성반이 있거든요. 교수 강습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은 간단해요. 대학을 안 나와도 되거든요. 일반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최00, 2020-05-20)

당 정책, 보육학, 영양학, 노래와 춤, 소아과학, 딱 6개만 알려줘요.네. 딱 6개만 알려줘요. (정00, 2020-10-05)

보육원 양성소 관리는 시의 탁아 유치원 전담 지도원이 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탁아소 관리를 통합해서 하고 있다. 북한 유치원과 탁아소는 법과 행정, 전달체계

측면에서 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원 양성소는 시에서 .. 탁아 유치원 전담 지도원이라는게 있어요.

2) 재교육 관리체계

보육원 양성 선생들은 2년에 한 번씩 급수시험에 응시하고, 결과에 따라 월급이 올라가기도 한다.

급수시험이라는 걸 봐야 해요. 그거를 보육원 선생들이 2년에 1번 그 시험을 보면 월급도 올라가고 급수에 따라서 월급이 조금씩 올라가서.(박00, 2020-05-29)

라. 아동발달, 아동인권, 아동학대

가) 아동 학대 실태 및 아동권리 보장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어린이는 나라의 왕이다.’, ‘교육자는 혁명가들을 인재하는 공예사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실상은 CCTV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급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며 학대도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치화되고 있지는 않다. 북한에서는 교사가 학생에 신체적 상해를 입혀 흔적을 남겼을 경우에만 학부모들이 항의를 한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처벌은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

원래 북한은 있잖아요. 어린이는 나라의 왕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는 혁명가들을 인재하는 수예사다. 공예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은 아이티 강국이니 CCTV도 있으니 애들에 대한 그런 거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아무 조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문을 딱 닫고 들어가서 교육을 하면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애들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파르타 교육, 그것이 아직도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 아동학대 같은 것도 엄청 많죠. 오직 선생님이 강하게 해서 애들이 멍이 들었다거나, 오직 흔적이 남았을 때만 부모들이 항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어쩌다 한번씩은 처벌받는 거죠. (김00, 2020-05-22)

마. 김정은 시대의 변화

김정은 시대에 나타난 탁아소의 변화로는 저출산 현상과 극심한 경제난으로 문을 닫는 탁아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김정은 시대에 들어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 아이들이 한집에 한 명꼴 정도라고 하였다. 아이들이 줄어, 탁아소 정원충족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북한에도 저출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 때도 저는 무조건 하나 낳으라고 해서 하나 낳아서 우리 애를 키우라고 해서 하나 낳았거든요. 그래도 안 낳는 곳은 없지만,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김300, 2020-10-09)

이와 더불어 간식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도시락은 아이들이 지참해 오는 방식이고,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탁아소에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아이들이 꽤 많은 것으로 전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장마당에서 해매거나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한다. 즉, 탁아소에 다니기 위해서는 도시락을 준비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 한편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에 있는 어머니는 장마당이라도 나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00이 근무했던 탁아소는 2008년에 시설이 폐기되었다고 전했다.

탁아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간식을 줄만한 것이 없고— 밥은 도시락으로 먹는데 도시락을 못 싸는 아이들은 아예 못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못나오는 아이들은 그냥 돌아다니고 장마당 나가서 해매고. 도시락을 쌀 수 있는 수준이어야지. 근데 또 대체로 엄마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 엄마들 있잖아요. 다 장마당 가죠. 우리가 2009년에 여기 왔는데 2008년에 탁아소들은 거의 다 해체됐죠. 그래서 다 우리가 여기 온 거고. (김00, 2020-05-26)

유치원과 다르게 탁아소는 직장에 출근하는 어머니들이 일을 하는 동안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만들어진 곳이지만 오후 5시까지만 운영을 한다. 그래서 주 별로 선생 1명씩 교대를 하며 일찍 출근 또는 늦게 퇴근하며 일정을 조율한다. 전기가 없으므로 해가 지는 저녁 7시에는 모두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 하루 일과는 오전 맞이, 아침체조, 기저귀 갈기, 아이들끼리 놀이를 하며 하루를 보낸다.

바. 한반도 통일시 유아교육보육분야의 예상되는 변화

탁아소의 경우, 교육과정(curriculum)이 없으나, 삼부자 어린시절 이야기와 같은 정치사상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행사와 일정에 삶에서 정치 교양교육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는 정치사상교육은 탁아소 구성원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탁아소 직원들은 남북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삼부자 어린시절 교육이 반드시 빠져야 하고, 이 정치사상교육을 빼면 교육내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북한 교양원과 보육원이 반드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만약 북한 교양원이나 보육원이 남한의 영유아보육기관에 취업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부족한 지점이 일반지식수준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였다. 남한의 학부모보다 부족할 것이고, 남한 학부모들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박00: 그러면 어린시절 교육을 싹 빼면 콘텐츠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사들이 여기오면 재교육을 받아서 한국에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김00 : 일반 지식 수준을 따라가야 할 거예요. 일반 학부모보다 훨씬 못할 거예요.

(김00, 박00 FGI, 2020-09-20)

또한 북한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 남한의 기업이 북한에 들어오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남한과 북한의 격차로 교사 간 월급의 격차가 생키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북한 교양원과 보육원들은 좋아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아울러 남북한이 서로의 문화를 알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결국 남한의 체제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박00: 북한에서 남한에서 개성처럼 기업을 차리면 거기서 근무를 하겠다. 거기 아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거기로 가더라도 남한에서 어린이집에서 주는 월급과 한국에서 거기서 차려서 탁아소를 그대로 차렸을 때 월급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김00: 있지. 그래도 거기 사람들은 처음에 격차도 너무 좋아할거야.

박00: 남북한이 각자가 그 문화를 알아야 하지만 아이들 심리는 다 알고, 부모들은 다 한국 체제들을 따라가고 싶을거고. 어른들도 문화적 차이도 있고, 의식 수준이 다르고.

(김00, 박00 FGI, 2020-09-20)

그러나 북한은 유치원과 탁아소가 모두 국립이기 때문에, 남한의 사립 유치원을 북한에 지으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였다. 북한에서는 유치원이나 탁아소의 개인 사유화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박00: 북한에서 남한의 정부가 탁아소나 유치원을 세운다고 모르겠지만 개인(사립)이 세운다고 하면 늘려가는 것을 인정해줄까요? (김00, 박00 FGI, 2020-09-20)

5. 소결

북한 영유아(0~4세) 인구는 2008년 현재(통계청, 2019)⁶⁴⁾ 약 170만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8년 현재, 탁아소와 유치원에 재원 중인 영유아 통계를 보면,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아동의 수가 점점 감소하였고, 탁아소와 유치원의 시설수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⁶⁵⁾ 36~59개월 미만 영유아의 72.7%가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이러한 등록률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은 1975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2012년 9월 25일 제12차 최고인민회의의 6차 세션에서 채택된 법에 따라 2014년 4월 1일부터는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교육 시스템에서 영유아 교육은 탁아소 5년, 유치원 2년 과정⁶⁶⁾으로 이루어져 있고, 12년간의 보편적인 의무교육은 1년의 유치원 교육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가 해당된다. 유치원을 통해 아동의 소학교 진학에 대한 준비를 향상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조직적인 학습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유아교육에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문해-수리력 정상 수준의 아동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교육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아동 중에서는 32.0%의 아동이 정상 수준의 발달을 보이는 반면, 유아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정상 수준의 발달을 보이는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유아교육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지역적 유아교육 참여의 격차를 줄여나갈 지원이 무엇보다 선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영유아교육보육 관련 법령을 「어린이보육교양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령으로는 「녀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보통교육법», 「장애자보호법」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및 아동복지와 관련한

64) 통계청(2019). 2019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p.234.

65) UNICEF(201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110.

66)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CL400> 북한정보포털 번역 참고

법제도라 할 수 있다. 각 법령 별 주요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주체사상과 이념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국가가 주도하는 보육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보통교육법」은 유치원 학제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와 관련해서는 「아동권리보장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아동에 대한 무료의무교육과 무상치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권리보장법은 사회생활분야, 교육 및 보건분야, 가정생활, 사법분야 등 사회 전반의 범분야에 걸쳐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녀성권리보장법」은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출산의 자유, 임신부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 북한에도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교육과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 법령의 주요 조항이다.

통일을 대비하여 법제도 통합에 대한 이슈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의 범위 설정 문제다. 북한의 「보통교육법」은 중등일반교육을 무료라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은 국가와 사회가 키우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 유보통합에 관한 이슈다. 북한은 「아동보육교양법」으로 법제도가 단일화되어 있으나 시설은 탁아소와 유치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관리부처 법령, 기관, 교사기준에 대한 제도적 통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관련 법령에는 조항이 추상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교육보육 관련 법제도 간에는 기준, 목표, 특징, 주요내용 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남북한 교육보육 관련한 각 법제도의 특징 및 강조점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통일 현실을 반영하는 법령 및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유아교육·보육은 보건성에서 운영하는 탁아소와 교육성에서 관할 하에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체제 하에 운영되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만 4세를 기점으로 탁아소와 유치원에 등원하는 연령이 나뉜다. 탁아소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근거하여 반이 편성되며, 유치원은 낮은반과 높은반으로 구분되어 있다. 교원은 탁아소에서는 보육원, 유치원에서는 교양원으로 통칭되며, 교육과정 에 있어서는 탁아소는 놀이 위주의 활동 중심 교육, 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지적교육 및 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5-1〉 탁아소와 유치원 비교

	탁아소	유치원
연령	만 4세 미만	만 4세 이상
운영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군, 구, 동, 읍, 지역, 리 유치원이 있으며, 군과 동 수준에는 유치원이 하나씩 있음. * 기업소/공장/농장 탁아소 * 기타⁶⁷⁾: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 탁아소: 월요일에 맡겼다가 토요일에 데려감. 2) 월 탁아소: 1개월간 맡기는 장기간 집단 생활⁶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부대 유치원 * 시, 군, 구, 동, 읍, 지역, 리 유치원이 있으며, 군과 동 수준에는 유치원이 하나씩 있음. * 기업소/공장 유치원 * 농장 유치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전역의 공장, 기업소, 농장에 설치하여 근로·여성애 편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전역에 100% 국공립 유치원 설치 제공 * 인원수 적을 때는 탁아, 유치원 집에서 할 수 있음(그러나 개인 또는 사립 유치원은 불법임).
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발달단계에 근거하여 분리 젖먹이반(1-6개월) 젖떼기반(7-18개월) 교양반(19-36개월) 유치원 준비반(37-48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제 * 낮은반 1년(만 5세) * 높은반 1년(만 4세)
설립목적	탁아소는 유치원을 가기전까지의 기간에 어린이들을 국가적, 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 교양기관임.	유치원은 학교에 가기전까지의 어린이들에게 학교에 갈 준비교육을 주는 교육 기관임.
주무부처	보건성	교육성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보건성 * 지방: 시·도·군 보건부서(인민위 산하) * 리 단위(농촌, 농장): 군 경영위원회 산하 농촌위원회, 협동농장관리위원회 <p>근로단체조직, 당조직 연합, 지원, 실행하는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교육성 (교육상) - 지방: 교육부 (교육부장)
예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의 유치원, 탁아소: 중앙예산(학용품 필기도구 등) * 시·도·군의 유치원, 탁아소: 지방예산 * 농촌 협동농장 유치원, 탁아소: 공동소비자금은 없음. 생산물로 쓰긴 하나, 모두 정부가 지원함. <p>급식비는 주고, 군에서 생산한 토대로 준다. (부기, 경리)</p>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원, * 보육원 자격: 중학교 졸업자, 보육원 양성소를 거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원 * 교양원 자격: 교원대학교(3년제) 졸업, 교원양성소 거침, 통신대학, 교원·사범대학의 야간학부 졸업 후 교원자격검정시험 통과

	탁아소	유치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성 규칙 제1호 '탁아소에 관한 규정'(1949년 2월 1일 제정)에 근거·발육 및 양육 대책 수립 질병 예방, 위생적 습성 함양(제3조)⁶⁹⁾ (Lee Y.J, Seo M.H, Kim S.H, Park Y.J). * 모유, 이유식, 밥 먹이기, 용변 가리기, 언어교육(생후 1년 6개월-2년), 보행법, 노래, 유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사상교육(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린 시절 이야기) 15% * 지적교육(우리말, 셈세기, 관찰) 30% * 정서교육(노래와 춤, 그리기와 만들기) 20% * 체육교육 13% * 기타(놀이) 22%⁷⁰⁾ - 그네, 놀이, 조각품

67) 주, 월 탁아소는 예술가 그룹 등 일부 계층이 활용하기 적합하고, 경제가 어려워진후, 대부분의 주, 월 탁아소는 애육원 등 고아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있음. 주, 월 탁아소는 평양 근처에 2-3군데 이상 있는데, 평양시민들이 국가행사에 동원될 일이 많고, 행사를 자주하게 되면, 그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음. 월, 주탁아소에서는 우유도 먹이고, 점심도 줌.

68) Lee Y.J. Research on child care system of North Korea and issue on women. J Early Child Educ Educare Welf 2006;10:53-77.

69) Lee Y.J, Seo M.H, Kim S.H, Park Y.J. A study on the child rearing in North Korea preparing for reunification.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2012.

70) Choi M.S. A study on curriculum contents of kindergarten of North Korea. J Korea Open Assoc Early Child Edu 1996;1:203-228.

III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이슈 분석

- 01 국내외 언론 데이터 분석
- 02 '로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누리망 분석
- 03 남북한 신문기사 비교 분석: 시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 04 특별 키워드 비교 분석: '통일', '코로나' 키워드를 중심으로
- 05 소결

Ⅲ.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이슈 분석

1. 국내외 언론 데이터 분석

가. 데이터 표집

데이터 수집은 네이버 뉴스, 네이버 블로그, 구글 뉴스의 채널을 통해 한글뉴스(606,951건), 블로그(715,023건), 영문뉴스(7,286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한글 검색키워드의 경우, 북한을 반드시 포함하며 유치원, 탁아소, 교육, 보육, 유아, 아동, 학교, 교양원 중 하나 이상의 키워드가 포함된 것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영문의 경우, 'North Korea'를 반드시 포함하며 kindergarten, nursery, education, childcare, children 중 하나 이상의 키워드가 포함된 것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수집 키워드의 선택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북한 영유아 관련 논문, 문헌의 자료를 바탕으로 폭넓게 구성하였으며, 단일형태소⁷¹⁾로 구성하여 보다 넓은 범주를 포함하도록 선정하였다. 수집기간은 북측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본격적인 집권 이후인 2012년도부터 2020년 4월 현재까지의 8년 4개월간의 데이터를 전수 수집하였다.

〈표 Ⅲ-1-1〉 수집 데이터

데이터 분야	소셜 미디어 데이터	
데이터 정보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정형 데이터	
수집 키워드	필수 키워드	북한
	메인 키워드	유치원, 탁아소, 교육, 보육, 유아, 아동, 학교, 교양원
	키워드 조합	북한 and (유치원 or 탁아소 or 교육 or 보육 or 유아 or 아동 or 학교 or 교양원)
수집 채널	네이버 뉴스, 네이버 블로그, 구글 뉴스	
수집 기간	2012. 01 .01 ~ 2020. 04. 30 (8년 4개월)	

71) 예를들어, '보육' 형태소는 '어린이보육교양법', '보육원', '보육탁아제' 등을 모두 포함한다.

나. 데이터 전처리

1) 뉴스데이터 전처리

가) 1차 데이터 정제

데이터 수집 후 전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개별 데이터 관찰 결과 언론사 간 같은 기사를 게시하여 데이터가 중복되는 케이스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동일한 뉴스의 경우 한건 씩만을 남기고 중복 뉴스를 제거하였고 한 건의 선정기준은 게시일이 가장 빠른 뉴스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358,918건의 뉴스가 제거되어 248,033건의 뉴스로 1차 데이터 정제가 이루어졌다.

나) 2차 데이터 정제

1차 데이터정제 결과인 248,033건을 대상으로 1%인 2,480건을 난수를 통해 단순 랜덤 샘플링하였고 샘플링된 데이터를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노이즈데이터⁷²⁾가 상당수 확인되었다. 북한이라는 폐쇄적인 큰 주제에서 영유아, 아동, 유치원, 탁아소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소주제에 대한 데이터를 폭넓게 수집한 결과 많은 노이즈 데이터가 발생했다는 결론 끝에 뉴스의 본문을 배제하고 제목만을 통해 필터링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림 III-1-1] 노이즈 데이터 예시

URL	제목	언론사	게시일
https://news.na	[FunFun문화현장] 고 박경리 글, 단행본 출간	SBS(text)	2012-01-02
https://news.na	北김여정 서울은 처음...낯설지가 않아 ...강릉서 만찬(종합2보)	연합뉴스	2018-02-10
http://sports.ne	[올림픽] 북한 태권도 시범단, 힘찬 발길질	연합뉴스	2018-02-10
https://news.na	[올림픽] 북한 태권도 시범단 공연	연합뉴스	2018-02-10
https://news.na	박 대통령 휴가 구상?...5일 청와대 국무회의 주제	매일신문	2014-08-02
http://www.new	감옥 갈 각오하고 혁명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뉴데일리	2014-11-26
http://www.mec	‘중세 없는 복지’ 비판에 조선일보 “복지 구조조정” 외판 분석	미디어스	2015-02-04
https://news.na	북한 매체가 꼽은 ‘북한 인기처녀 베스트10’을 보니	헤럴드경제	2015-05-04
http://www.kor	“미주 한인들이 자랑스럽다”	미주중앙일보	2015-07-28
https://news.na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연합뉴스	2015-07-29
http://www.mo	동료평가제,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메디칼업저버	2016-03-09
https://news.na	헬기 사고 순직 해군 장병 3명, 명예헌신-용기 의 참 군인	이데일리	2016-10-01
https://news.na	칠레 중고교서 열린 북 인권 주간 행사	연합뉴스	2016-10-01
https://news.na	황교안 권한대행 가짜뉴스 단속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2017-02-28

72) 뉴스 본문 하단에 위치한 뉴스 헤드라인, 해쉬태그, 다른 뉴스의 링크 등의 요인에서 노이즈 데이터가 다수 발견됨이 확인되었다.

제목에 북, 北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며 앞서 수집에 활용되었던 유치원, 탁아소, 교육, 보육, 유아, 아동, 학교, 교양원에 추가적으로 어린이, 육아 키워드를 선정하여 10개의 키워드가 하나 이상 제목에 포함되는 뉴스만을 필터링하였다. 그 결과, 7,285개의 데이터를 선정하는 것으로 2차 데이터 정제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다) 3차 데이터 정제

노이즈가 상당부분 제거된 2차 데이터 정제 결과인 7,285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직접 개별 관찰해가며 필터링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해당 필터링 키워드가 포함된 뉴스를 제거하는 것으로 5,081개의 뉴스를 필터링하였다. 필터링 키워드의 리스트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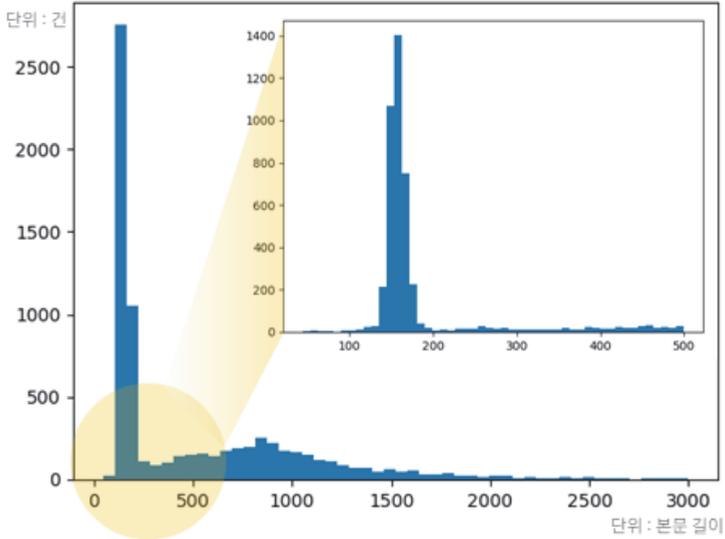
[그림 III-1-2] 3차 데이터 정제 필터링 키워드 및 필터링 근거

필터링 키워드	근거
디트리히 베르너	남북 교회와의 연대 강조 인물에 대한 뉴스
총북교총	남한의 안보교육 강화 강조 뉴스
탈북	탈북자 관련 뉴스
이탈	탈북자 관련 뉴스
안보	남한 안보 관련 교육 뉴스
보안	남한 보안 관련 교육 뉴스
전북교육청	남한 교육복지 사업 뉴스
미사일	일본, 북한 미사일 교육 관련 뉴스
경기북부	경기북부교육청 성폭행 교육 관련 뉴스
우석대학교	북한강좌 지원사업 관련 뉴스
총북대	안보교육진행 관련 뉴스
경북교육	독립운동길 순례 관련 뉴스

EDA⁷³⁾(Exploratory Data Analysis) 분석을 통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파악하였다. 제목, 작성자, 작성시간, 본문 등의 칼럼을 가지는 데이터를 칼럼별로 이상치 검사하였고 본문별 길이는 다음과 같았다.

73) EDA: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고 시각화하여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상치를 발견하거나, 관계성을 찾는 등 직관적 부분에 그 목적을 두는 분석방법

[그림 III-1-3] 본문길이 히스토그램



본문 길이의 최솟값과 최댓값은 44, 9838로 나타났으며 평균길이는 584였다.⁷⁴⁾ 언론사별로는 연합뉴스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게시했으며 뉴스1, 뉴시스, 국민일보가 그 뒤를 이었다. 북한에 대하여 보수적 성향이 강한 연합뉴스, 뉴시스, 국민일보, 매일경제 등에서 진보성향의 언론사들보다 많은 뉴스가 게시하였다. 이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1-4] Top10 언론사별 북한육아관련 뉴스 데이터양

연합뉴스	423
뉴스1	327
뉴시스	319
국민일보	227
노컷뉴스	217
KBS	196
아시아뉴스통신	150
아주경제	122
매일경제	118
데일리NK	116

단위: 건

74) 음절단위로 카운트

2) 블로그 데이터 전처리

가) 1차 데이터 정제

블로그 데이터의 경우 뉴스에 비해 대부분의 블로그 포스팅이 공신력과 객관성이 약하다 판단되었다. 그에 따라 공신력 있는 ‘대한민국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위원회’의 공식 블로그 위주의 2개의 블로그를 선정하였고 1,797개의 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지정하여 1차 데이터 정제를 마쳤다.

나) 2차 데이터 정제

1차 데이터 정제 결과 선정된 1,797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뉴스데이터의 2차 정제와 같은 선정과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112개의 데이터가 정제되었다.

다) 3차 데이터 정제

3차 데이터 정제 역시, 뉴스데이터와 동일한 정제과정을 거쳤으며 필터링 키워드의 리스트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그 결과 70개의 데이터를 정제하는 것으로 필터링을 마쳤다.

[그림 III-1-5] 3차 데이터 정제 필터링 키워드 및 필터링 근거

필터링 키워드	근거
유니콘	대학생 기자단 교육과정 관련 포스팅
UCC	남한의 UCC 사진 공모전 포스팅
탈북	탈북자 관련 포스팅
이탈	탈북자 관련 포스팅
안보	남한 안보 관련 교육 포스팅
보안	남한 보안 관련 교육 포스팅

다. 주제 분석 방법 및 절차

5,081개의 뉴스데이터, 70개의 블로그 데이터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현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5,151개의 데이터를 주제별로 군집화하였다. 주제별 군집화 과정은 토픽추출, 토픽검증, 주제추출, 주제별 이슈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1) 토픽추출

가)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주어진 문서에 대하여 어떤 주제들이 존재하는지를 확률적으로 서술하는 토픽모델 기법 중 하나로써 주어진 문서들에서 단어 수 분포를 분석하여 주제를 추출하고 예측한다. 이러한 LDA는 주제추출, 문서분류 등에 주로 활용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제 추출을 위해서 LDA를 활용하였으며, LDA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그림 III-1-6] LDA 알고리즘⁷⁵⁾

$p(z_{d,i} = j z_{-i}, w) = \frac{n_{d,k} + \alpha_j}{\sum_{i=1}^K (n_{d,i} + \alpha_i)} \times \frac{v_{k,w_{d,n}} + \beta_{w_{d,n}}}{\sum_{j=1}^V v_{k,j} + \beta_j} = AB$	
표기	내용
$n_{d,k}$	k 번째 토픽에 할당된 d 번째 단어의 빈도
$u_{k,w_{d,n}}$	전체 말뭉치에서 k 번째 토픽에 할당된 단어 $w_{d,n}$ 의 빈도
$w_{d,n}$	d 번째 문서에 n 번째로 등장한 단어
α	문서의 토픽 분포 생성을 위한 Dirichlet 분포 파라미터
β	토픽의 단어 분포 생성을 위한 Dirichlet 분포 파라미터
K	사용자가 지정하는 토픽 수
V	말뭉치에 등장하는 전체 단어 수
A	d 번째 문서에 k 번째 토픽과 맺고 있는 연관성 정도
B	d 번째 문서의 n 번째 단어($w_{d,n}$)가 k 번째 토픽과 맺고 있는 연관성 정도

① $P(Y = k X = x) = \frac{\pi_k f_k(x)}{\sum_{i=1}^k \pi_i f_i(x)} = \frac{\pi_k \frac{1}{\sqrt{2\pi\sigma}} \exp(-\frac{1}{2\sigma^2}(x - \mu_k)^2)}{\sum_{i=1}^k \pi_i \frac{1}{\sqrt{2\pi\sigma}} \exp(-\frac{1}{2\sigma^2}(x - \mu_k)^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π_k</td> <td>관측치가 k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사전확률</td> </tr> <tr> <td>$f_{k(x)}$</td> <td>우도 (likelihood)</td> </tr> <tr> <td>$\sum_{i=0}^k \pi_k f_i(x)$</td> <td>$P_{(x)}$ 사건 x가 발생할 확률</td> </tr> <tr> <td>σ^2</td> <td>모든 k개의 클래스에 대한 공통의 분산</td> </tr> </table>	π_k	관측치가 k 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사전확률	$f_{k(x)}$	우도 (likelihood)	$\sum_{i=0}^k \pi_k f_i(x)$	$P_{(x)}$ 사건 x 가 발생할 확률	σ^2	모든 k 개의 클래스에 대한 공통의 분산
π_k	관측치가 k 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사전확률								
$f_{k(x)}$	우도 (likelihood)								
$\sum_{i=0}^k \pi_k f_i(x)$	$P_{(x)}$ 사건 x 가 발생할 확률								
σ^2	모든 k 개의 클래스에 대한 공통의 분산								
② $\ln(P_k(x)) = x \cdot \frac{\mu_k}{\sigma^2} - \frac{\mu_k^2}{2\sigma^2} + \ln(\pi_k)$									

75) 출처: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데이터 과학(조엘 그루스 지음, 인사이트 펌)

나) 전처리

LDA는 수학적 연산으로 이루어지므로 LDA 분석을 위해서는 텍스트로 된 자연어를 정수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수로 변환 해주기에 앞서 문장을 최소한의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로 분할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형태소 분석과 정수 변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형태소 분석 도구는 Konlpy의 Okt(Open Korea Text)⁷⁶⁾를 사용하였다.

[그림 III-1-기] 문장의 형태소 분석, 정수 변환 예시

문장	철수는 사과를 좋아하고 영희는 사과를 싫어한다.
형태소 분석 문장	'철수' + '는' + '사과' + '를' + '좋아하고' + '영희' + '는' + '사과' + '를' + '싫어하다'
정수 변환	[1] + [2] + [3] + [4] + [5] + [6] + [2] + [3] + [4] + [7]

토큰화된 결과를 확인하고 불용어 사전을 구축하여 불용어를 제거하였다. 조사, 불필요한 명사, 형용사, 동사 등 제거된 불용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III-1-2) 불용어 예시

기자	고	뉴스스	등	말	경북	대해	뉴스
교육청	국민일보	총복	수	명	통해	이번	그
교육감	이탈	또한	이	은	김	대상	초
위해	연합뉴스	동영상	제	차	북	관련	것
서울	지난	출처	재	단	이후	및	더
사진	광주	경기도	위	때	때문	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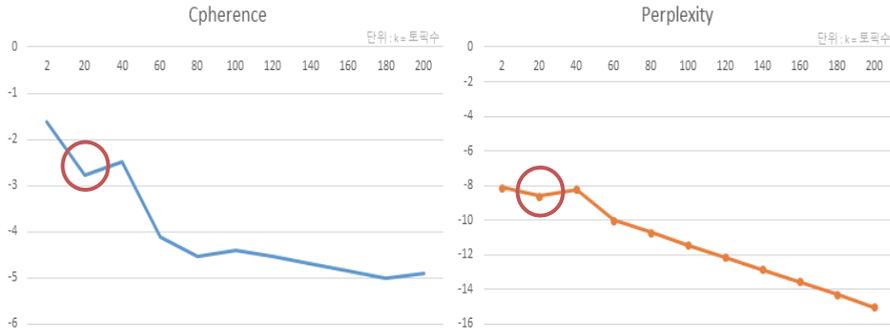
다) 최적의 토픽 수 탐색

LDA의 경우 토픽의 개수 즉, 주제의 개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적의 토픽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제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통일성(Coherence) 지표⁷⁷⁾와 오랫동안 토픽 모델링의 평가 지표로 활용되어 온 복잡성(Perplexity)지표⁷⁸⁾를 사용하여 최적의 토픽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통일성지표 결과 그래프에

76) Okt : 오픈소스 Konlpy의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중 하나로서 대량의 트위터 문장들을 기반으로 훈련되어 어느 정도의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문서에 대해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다.
 77) 특정 확률모델이 실제로 관측되는 값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78) 토픽 단어 간 유사도를 계산하여 의미론적으로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서 토픽 수 20, 40, 60, 80 지점에서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관찰되었고, 복합성지표 결과 그래프에서는 20, 40 지점에서 변곡점이 관찰되었다. 공통의 변곡점 중 통일성 지표와 복합성지표가 최솟값인 20을 최적의 토픽 수로 결정하였다.

[그림 III-1-8] 토픽 수에 따른 통일성(Coherence)지표, 복합성(Perplexity)지표 결과



2) 토픽검증

통일성 지표, 복합성 지표로 도출된 최적의 토픽 수 20으로 모집단인 5,151개의 데이터에 대하여 LDA분석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토픽은 단어와 확률을 가지며 각 하나의 토픽은 하나의 주제를 나타낸다. 다음은 5개의 토픽 샘플과 각각의 토픽 중 상위 10개의 단어들을 예시로 보여준다.

[그림 III-1-9] 토픽 예시⁷⁹⁾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조선	5.6%	김정은	1.9%	지원	3.3%	남북	4.3%	유치원	5.4%
학교	5.2%	혁명	1.6%	아동	3.3%	교류	3.9%	탁아소	2.4%
일본	4.3%	사상	1.3%	어린이	2.9%	학생	2.8%	방학	1.9%
배포	1.2%	신문	1.2%	식량	2.2%	사업	1.8%	방역	1.8%
제외	1.2%	강조	1.2%	유니세프	2.0%	평화	1.7%	처음	1.3%
무상	1.0%	대회	1.1%	영양	1.7%	추진	1.4%	사립	1.1%
정부	1.0%	사업	1.1%	기금	1.7%	제안	1.3%	모집	1.1%
대한민국	1.0%	발전	1.1%	유엔	1.6%	협력	1.2%	연기	1.0%
차별	1.0%	노동신문	1.1%	영양실조	1.4%	공동	1.2%	주민	1.0%
총련	0.9%	과학	1.0%	유아	1.2%	평양	1.0%	예방	1.0%

79) LDA의 경우 같은 데이터 셋이라 하더라도 확률에 기반 하기 때문에 시행시마다 그 결과 값(토픽)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

토픽이 제대로 추출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토픽별 상위 10개의 단어를 대상으로 토픽 간 유사도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픽 간 유사도는 정수변환 후 코사인 유사도⁸⁰⁾를 활용하였다. 50% 이상의 유사도는 9개가 발견되었으며, 이 중 60% 이상은 한 개에 그쳤다. 이는, 토픽이 제대로 추출되었으며 토픽의 수 20이 최적의 값을 검증한다.

[그림 III-1-10] 토픽 간 유사도

Topic 1	23.4%																			
Topic 2	33.8%	52.9%																		
Topic 3	0.0%	0.0%	0.0%																	
Topic 4	41.4%	31.8%	46.3%	0.0%																
Topic 5	17.3%	13.8%	18.7%	13.1%	11.5%															
Topic 6	6.8%	12.4%	26.8%	5.5%	0.0%	9.5%														
Topic 7	7.1%	4.7%	6.0%	32.4%	0.0%	57.3%	18.7%													
Topic 8	3.0%	24.2%	31.1%	0.0%	3.8%	2.5%	59.8%	16.8%												
Topic 9	11.0%	31.8%	48.4%	3.5%	14.1%	9.2%	70.2%	10.2%	57.0%											
Topic 10	7.7%	30.6%	34.0%	4.1%	22.4%	19.9%	35.3%	22.3%	52.1%	40.7%										
Topic 11	0.0%	4.6%	5.8%	29.6%	0.0%	10.9%	10.2%	32.3%	16.1%	9.8%	11.6%									
Topic 12	0.0%	4.6%	22.3%	0.0%	6.0%	0.0%	47.1%	4.0%	29.7%	36.6%	11.8%	3.8%								
Topic 13	5.6%	13.6%	17.2%	11.2%	5.0%	21.0%	53.7%	41.0%	56.2%	36.8%	34.6%	20.5%	26.3%							
Topic 14	14.2%	5.8%	7.4%	9.8%	0.0%	26.8%	38.4%	36.8%	27.7%	19.2%	14.8%	13.0%	12.5%	38.3%						
Topic 15	0.0%	16.7%	13.6%	6.7%	0.0%	0.0%	30.3%	9.2%	38.0%	31.8%	32.0%	8.8%	9.0%	26.3%	18.1%					
Topic 16	8.3%	12.7%	17.2%	7.4%	10.6%	12.3%	0.0%	11.2%	2.3%	8.5%	6.0%	6.2%	0.0%	4.6%	9.0%	0.0%				
Topic 17	20.2%	40.2%	41.9%	9.5%	32.8%	23.7%	5.1%	14.4%	5.6%	29.2%	26.1%	7.9%	0.0%	5.9%	5.1%	0.0%	19.4%			
Topic 18	0.0%	5.9%	18.0%	0.0%	6.1%	0.0%	27.9%	5.0%	20.9%	27.5%	19.6%	4.8%	25.1%	14.5%	6.2%	11.4%	0.0%	0.0%		
Topic 19	0.0%	9.6%	28.7%	0.0%	4.4%	0.0%	48.5%	8.2%	34.1%	54.3%	24.5%	7.9%	44.4%	28.1%	10.1%	18.6%	0.0%	0.0%	32.4%	
Topic 0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Topic 5	Topic 6	Topic 7	Topic 8	Topic 9	Topic 10	Topic 11	Topic 12	Topic 13	Topic 14	Topic 15	Topic 16	Topic 17	Topic 18	Topic 19

3) 핵심어 추출

도출된 토픽을 활용하여 뉴스, 포스팅 별로 가장 비중이 높은 토픽을 그 글의 해당 주제로 선정하였다.

[그림 III-1-11] 토픽으로 추출된 주제별 데이터 수

주제 0	49	주제 10	333
주제 1	203	주제 11	170
주제 2	182	주제 12	660
주제 3	190	주제 13	373
주제 4	587	주제 14	221
주제 5	92	주제 15	416
주제 6	353	주제 16	107
주제 7	187	주제 17	92
주제 8	125	주제 18	60
주제 9	371	주제 19	380

80) 두 벡터 간의 코사인 각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두 벡터의 유사도, 이 보고서에서는 정수변환 된 토픽의 단어들을 하나의 벡터로 하여 유사도를 계산

20개의 주제를 각각 개별적으로 정성분석⁸¹⁾하고, 토픽 간 코사인 유사도를 고려하여 주요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는 ‘주제 3’, ‘주제 4’, ‘주제 7’, ‘주제 10’, ‘주제 13’이었다. 해당 주제별 상위 단어는 다음과 같다.

[그림 III-1-12] 토픽으로 추출된 주제별 Top10 단어

주제 3	주제 4	주제 7	주제 10	주제 13
김정은	지원	김정은	학교	학교
사상	어린이	위원장	조선	의무교육
영국	아동	평양	인권	최고인민회의
영어	유엔	조선중앙통신	일본	중학교
노동신문	식량	건설	축구	김정은
보도	유니세프	비서	어린이	학생
혁명	사업	학교	유엔	평양
금지	영양	애육원	국제	사업
중국	영양실조	보도	아동	조선중앙통신
대한	계획	시찰	문제	노동신문

라. 주제별 이슈 분석

추출된 주제별로 군집화된 뉴스, 포스팅을 정성 분석하여 주제별로 이슈를 파악하여 북한의 교육, 육아의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였다.

1) 주제 3: 북한 영유아, 어린이 교육 관련 주제 분석

2015년 북에서는 친중사상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여 유사시 ‘중국’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사상교육을 펼쳤고 이에 대해 많은 뉴스에서 이 내용을 기사에 담으며 ‘중국’, ‘사상’ 등의 언급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영국의 경우 북한 영어 교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북한의 영어교육에 2015년 7억여 원을 지원하였다.

[그림 III-1-13] 남양유업의 북한 영유아 대상 7억원 지원 뉴스 예시

북한이 반미교육에 활용하는 잔혹한 그림들	2014-10-09 00:00:00
북한, 중국 유사시 적 사상교육	2015-01-04 10:20:00
"北, 울여를부터 '유사시 수은 적' 사상 교육"	2015-01-04 09:32:00
영국, 지난해 대북 ODA 7억원... 절반은 영어교육	2015-11-05 11:44:00
영국 北 영어교육 등 66만 달러 개발 원조 제공	2015-11-05 08:23:00
영국문화원, 지난해 북한 영어교사 400여명 영어 교육	2017-06-28 00:00:00
영국문화원, 지난해 북한 영어교사 400여명 교육	2017-07-02 00:00:00

81) 수치화된 정량적 분석이 아닌 의미적 접근 방식의 분석

2) 주제 4: 북한 영유아 식량 실태 및 지원 관련 주제

다음은 연도별로 실태보고와 지원을 개별 관찰 분류하고 그 변화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2012년 이후 북한의 영양실조와 발육부진, 영유아 사망률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2020년 현재까지 영유아의 28%가 영양실조, 20%가 발육부진에 시달리고 있으며 영유아 사망률은 남한의 8배에 달한다. 지원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지원 건수와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림 III-1-14] 연대별 북한 영유아 실태와 지원



3) 주제 7: 북한 애육원, 고아원 관련 주제

북한의 애육원과 고아원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준공 중에 있으며 신축 애육원과 고아원의 경우 '김정은'이 직접 방문하여 고충을 듣거나 직접 시찰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해당 주제의 글을 샘플링하여 확인한 결과 글의 모든 소스는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에서 시작하였다.

[그림 III-1-15] '주제 5' 관련 뉴스들의 사진 예시



4) 주제 10: 아동 복지, 인권 관련 주제

북한 아동에 대한 인권의 경우, 미국 NGO의 의해 정치 수용소에서의 유아 살해가 드러나고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북한 아동, 청소년의 인권실태가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제기하고, 북한 어린이가 부모와 떨어져 어린이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한다는 등의 실태를 고발했다. 또한 네덜란드,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NGO에서 북한 아동 인권에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축구’의 장려와 ‘축구’교육에 관한 글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5) 주제 13: 교육 제도 개선 관련 주제

북한은 ‘김정은’ 집권 기존 11년제 교육 제도에서 남한과 같은 전반적 12년제 교육제도로의 개편을 계획했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013년 준비, 전면시행을 예고하였으나 1년 연장되었고 2014년 다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교육위원회 보통 교육성의 말을 인용하며 12년제 교육을 예고하였다. 하지만 이후, 다시 의논 중이라고 밝혔으며 2017년이 4월이 되어서야 실시되었다. 373개의 글 중 30%가 넘는 100개 이상의 글이 12년제 교육에 글로 나타났다. 북한의 소스로 작성된 원격 교육, 컴퓨터 보급 등을 비롯한 교육의 보편화를 보여주는 글 또한 상당수였지만 해외 언론에서는 지방 학생에 경우 30%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는 실태를 고발했다.

마.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1) 네트워크 분석 개요

가) 네트워크 분석 목표

이 보고서의 주요 키워드들인 ‘유치원’, ‘탁아소’, ‘아동’, ‘유아’, ‘어린이’, ‘교육’, ‘보육’, ‘육아’, ‘학교’에 대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해당 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연관된 키워드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나) 네트워크 분석 과정

주요 키워드의 경우 그 성격이 비슷한 ‘아동’, ‘유아’, ‘어린이’를 하나의 키워드 모음으로 처리했으며 ‘교육’, ‘보육’, ‘육아’에 대해서도 키워드 모음으로 처리하였다. 해당 키워드별 연관어를 추출하기 위해 본문을 전처리 한 뒤 빈도 분석시 희소단어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의 정수변환인 TF-IDF로 처리하였다. TF-IDF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그림 III-1-16] TF-IDF 알고리즘

①	$tfidf(t, d, D) = tf(t, d) * idf(t, D)$	$N = D $: 총 문서 수
②	$idf(t, D) = \log\left(\frac{N}{1 + \{d \in D : t \in d\} }\right)$	$\{d \in D : t \in d\}$: 용어가 있는 문서 수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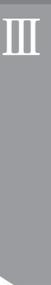
과도하게 많은 수의 단어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할 경우 중요성이 떨어지는 단어들로 인해 중요성이 높은 단어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고,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복잡도가 크게 증가하므로 적절한 개수로 제한하여 분석을 진행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TF-IDF별 상위 100개의 단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주요키워드 별 상위 100개의 TF-IDF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3〉 주요키워드 별 연관어 TF-IDF Top 100

No.	유치원	탁아소	교육,보육,육아	아동,유아,어린이	학교
1	베트남	어린이	교육	어린이	교육
2	교육	지원	학교	지원	학교
3	학교	식량	통일	교육	통일
4	어린이	국제	학생	아동	학생
5	지원	사업	남북	유니세프	어린이
6	유치원	아이	교류	사업	조선
7	의무교육	목사	지원	유치원	축구
8	조선	교회	평양	여사	남북
9	김정은	유치원	어린이	학교	평양
10	중학교	학교	사업	유엔	지원
11	평양	어린이날	김정은	교회	교류
12	아이	교육	교육청	식량	김정은
13	국제	탁아소	조선	인권	유치원
14	학생	아동절	유치원	영양실조	교육청
15	하노이	학생	교육감	평양	일본
16	마스크	방학	회의	조선	의무교육
17	애육원	행사	의무교육	국제	교사
18	육아	대북	혁명	재단	중학교
19	사업	소년단	축구	김정은	회의
20	식량	김정은	교사	대통령	총장
21	행사	영양실조	교과서	목사	영어
22	어린이날	통준위	여사	학생	사업
23	일본	코로나	영어	병원	교과서
24	탁아소	양강도	중학교	사랑	국제
25	교육감	영양	인권	아이	교육감
26	위원장	아동	한국	대북	교회
27	유엔	우리	협력	통일	한국
28	아동절	정부	일본	한국	아이
29	방문	평양	중국	베트남	보조금
30	아동	지역	대회	사망률	대통령
31	마약	개성	위원장	영양	지역
32	우리	여성	영국	정부	우리
33	소년단	선물	애육원	남북	목사
34	학기	의료	아이	기금	장관
35	방학	방역	우리	제재	아동
36	중앙	중단	서울	일본	사교육
37	한국	계획	제안	인도	서울
38	교육청	전국	국제	세계	교수
39	감자	연장	육아	의료	행사

III.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이슈 분석

No.	유치원	탁아소	교육,보육,육아	아동,유아,어린이	학교
40	태권도	육아	아동	회장	대회
41	대북	남북	의료	조사	대한
42	음악	공단	대한	교통	강원
43	박민영	사탕	정부	유아	수업
44	우정	통일	지역	보건	위원장
45	권정생	비율	사상	보고서	중앙
46	처음	재단	대표	행사	인민
47	중단	어깨동무	경제	여성	사랑
48	문제	보건	공동	우리	영국
49	사립	세계	중앙	어린이날	인권
50	교사	보육	교통	캠페인	교육부
51	여사	애육원	대통령	달리	마스크
52	남북	신동	건설	계획	청소년
53	교과서	유엔	추진	영유아	과목
54	주산	서울	유엔	지역	혁명
55	농아	공급	최룡해	애육원	경제
56	입학	남한	스위스	방문	최고
57	고급	진행	경기도	공연	탈북
58	정부	장관	인민	육아	정부
59	예술	생일	과정	협력	문제
60	코로나	대한	의원	올해	과정
61	선물	교사	보건	위원장	추진
62	사랑	연기	컴퓨터	대한	회장
63	이재정	조선	센터	소년단	학년
64	대한	상태	최고	마스크	속독
65	시작	콩우유	회장	단체	그림
66	지역	발육	과학	임산부	급식
67	보육	제재	행사	문제	제안
68	바둑	기구	미국	아동절	기념
69	모습	방문	내용	아동권리	초등학교
70	김일성	조사	사회	상태	프로그램
71	유니세프	물자	교수	중국	센터
72	생일	위원장	문화	탁아소	컴퓨터
73	강령	원산	남한	교류	여사
74	방역	과자	광해	가뭄	내용
75	주석	유니세프	사교육	미국	남한
76	북미	어린이재단	문제	전달	공동
77	경기도	달리	청소년	바둑	협력
78	무상	시작	프로그램	중앙	진행
79	정책	통합	대북	돕기	교원



No.	유치원	탁아소	교육,보육,육아	아동,유아,어린이	학교
80	보도	사랑	방문	모습	재단
81	시설	교양	재단	협약	학기
82	전국	임산부	총장	세이브더칠드런	사회
83	진행	명절	탈북	그림	치즈
84	교회	운동	교원	서울	대표
85	선전	반입	정책	건설	방학
86	교류	농아	진행	총장	중국
87	영재	유아	위원회	노동	경기도
88	묘향산	계층	위원장	기부	메시
89	대상	부진	인재	비율	장애인
90	당국	친구	제재	위원회	어학
91	유아	협력	통일부	진행	유엔
92	영양	취약	로동신문	상황	과외
93	정상회담	제공	병원	후원	영상
94	통일	준공	원격교육	대상	식량
95	연장	세상	사진	나눔	시작
96	신동	중앙	시설	분유	고급
97	중국	각지	보도	남한	세계
98	전면	지능	교육부	교육감	실시
99	사탕	정책	사랑	결식	대해
100	의원	포스터	보조금	방학	연구

다) 전처리

도출된 TF-IDF에서 ‘위해’, ‘통해’, ‘지난’과 같은 불용어를 1차적으로 제거하였으며 인사이트를 가지지 않는 ‘북한’, ‘광주’, ‘뉴시스’, ‘뉴스’, ‘기자’ 등의 키워드를 제거하였다.

이후, 단어 하나하나의 이슈를 확인하며 정성분석 하였고, 인사이트를 가지지 않는 불용어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핵심 키워드 ‘유치원’의 경우 불용어 41개를 제거 후 59개의 단어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탁아소’, ‘교육, 보육, 육아’, ‘아동, 유아, 어린이’, ‘학교’ 는 각각 필터링 후 71, 74, 76, 65개의 단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고, 단어와 빈도수(5,151개 데이터에 대해 해당 단어의 빈출 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빈도수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표 III-1-4〉 필터링 된 연관어

No.	유치원		탁아소		교육보육육아		아동유아어린이		학교	
	word	count	word	count	word	count	word	count	word	count
1	유치원	1,492	지원	323	교육	11,391	어린이	3,886	교육	6,222
2	학교	935	탁아소	319	학교	4,383	지원	2,272	학생	2,687
3	어린이	898	유치원	252	학생	2,934	아동	2,107	통일	1,808
4	지원	538	국제	199	통일	2,497	교육	1,633	어린이	1,398
5	김정은	496	사업	198	남북	2,386	학교	1,189	평양	1,388
6	평양	435	학교	173	평양	2,081	사업	1,131	남북	1,295
7	아이	355	교육	163	사업	1,773	유엔	1,124	조선	1,208
8	중학교	269	식량	136	김정은	1,749	유치원	1,025	김정은	1,136
9	사업	232	아이	132	지원	1,640	평양	1,023	지원	1,007
10	위원장	228	평양	123	어린이	1,461	국제	1,017	교사	880
11	아동	225	학생	116	한국	1,185	아이	754	사업	851
12	방문	196	김정은	107	정부	1,008	김정은	743	교류	849
13	행사	180	행사	101	교사	972	식량	708	한국	826
14	한국	179	영양	91	위원장	884	학생	698	유치원	754
15	시설	158	대북	84	지역	863	유니세프	691	국제	716
16	교사	152	계획	82	문제	799	대북	675	지역	643
17	일본	145	남북	74	국제	791	세계	642	진행	639
18	진행	143	세계	66	아이	770	영양	636	일본	615
19	문제	143	정부	66	정책	692	남북	612	문제	590
20	대북	139	방학	65	방문	671	유아	588	정부	557
21	남북	135	소년단	64	행사	620	영양실조	586	위원장	511
22	사랑	125	통일	60	대북	601	사랑	573	총장	499
23	정책	122	육아	59	의무교육	599	정부	566	의무교육	495
24	유엔	107	중앙	58	아동	582	지역	546	수업	482
25	추진	94	대상	58	교과서	563	계획	533	행사	469
26	통일	94	위원장	56	시작	559	통일	505	축구	427
27	교류	84	영양실조	54	일본	547	교회	465	영어	421
28	간설	84	의료	53	시설	532	보건	458	경제	418
29	인민	76	재단	53	전국	530	재단	436	대표	406
30	남한	74	사랑	51	유엔	428	협력	426	협력	398
31	로동신문	73	목사	48	김일성	403	방문	423	세계	393
32	경제	72	교회	48	육아	365	의료	406	청소년	390
33	중국	67	보건	48	사랑	334	행사	393	아동	378
34	교과서	64	단체	47	애육원	333	위원장	383	중국	345
35	협력	63	남한	45	선전	325	여성	383	인민	336
36	경기도	62	한국	44	처음	297	조사	330	대회	336
37	대통령	62	유엔	42	예술	259	목사	319	기념	322
38	사상	50	조사	38	보육	257	제공	315	센터	309
39	컴퓨터	48	위원회	35	여사	256	달러	314	사랑	308
40	대회	45	방문	35	유아	228	제재	308	공동	307
41	영어	45	비율	34	식량	224	임산부	284	남한	290
42	제재	44	간설	33	중단	216	어린이날	243	프로그램	286
43	병원	41	임산부	32	영양	180	기구	235	교회	281

No.	유치원		탁아소		교육보육육아		아동유아어린이		학교	
	word	count	word	count	word	count	word	count	word	count
44	재단	41	애육원	31	복미	176	정책	229	제안	274
45	여사	41	교류	30	무상	175	남한	223	과목	262
46	보건	39	유니세프	28	입학	164	육아	217	인권	255
47	의원	39	기금	24	탁아소	162	취약	210	컴퓨터	237
48	의료	34	공연	18	음악	153	애육원	203	유엔	228
49	통일부	33	문제	18	영재	149	교사	201	재단	226
50	센터	32	병원	17	교회	120	계층	196	학기	202
51	축구	29	중국	16	방학	120	중단	176	목사	200
52	프로그램	24	분유	15	사립	118	발육	172	영국	174
53	인재	22	캠페인	15	유니세프	115	소년단	170	사교육	170
54	과학	21	사망률	13	코로나	111	보육	161	보조금	170
55	인권	17	인권	12	마스크	101	공급	139	식량	153
56	회장	16	결식	12	강령	99	선물	112	과외	131
57	영국	16	후원	11	방역	94	원산	101	그림	130
58	보조금	9	회장	11	소년단	81	교양	90	방학	127
59	스위스	5	나눔	10	어린이날	68	양강도	88	급식	120
60	.	.	돕기	9	태권도	60	코로나	77	마스크	113
61	.	.	일본	5	감자	54	물자	68	장애인	103
62	.	.	노동	5	베트남	46	명절	62	여사	88
63	.	.	총장	4	바둑	45	연장	60	속독	68
64	.	.	기부	3	생일	43	어깨동무	58	어학	51
65	.	.	협약	2	선물	42	개성	53	메시	51
66	.	.	마스크	2	농아	32	과자	46	.	.
67	주산	27	방역	44	.	.
68	신동	25	준공	41	.	.
69	권정생	25	연기	36	.	.
70	하노이	21	사탕	34	.	.
71	우정	13	콩우유	24	.	.
72	사탕	2	신동	21	.	.
73	어린이재단	20	.	.
74	농아	14	.	.

라) 네트워크 분석 도구

네트워크 분석 도구로서는 Gephi가 사용되었으며, Gephi는 NetBeans 플랫폼에서 Java로 작성된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 전문 오픈소스⁸²⁾ 시각화 소프트웨어로서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저널리즘이나 논문, 연구 등에 여러 차례 활용된 신뢰도 높은 소프트웨어이다.

82) 오픈 소스는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원시 코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 혹은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준하는 모든 통칭을 일컫는 말 (출처: Wikipedia)

마) 네트워크 분석 참고사항

노드의 크기는 해당 노드 단어의 빈도수로 크기가 결정되며, 노드 간 연결(Edge)은 노드 간 관계성인 동시출연 빈도로 결정되어진다.

연결고리 분석 내에서 1차 연결과 2차 연결은 해당 두 단어가 연결(Edge) 되었음을 뜻하며, 두 단어가 모두 등장한 이슈를 다루었다. 1차 연결만 있는 경우 해당 키워드에 관한 이슈를 정리하였다.

2) ‘유치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가) 연관어 분석

[그림 III-1-17] ‘유치원’ 워드클라우드



‘유치원’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린 워드클라우드는 그림과 같으며, ‘진행’, ‘강령’, ‘사상’, ‘정책’ ‘김정은’ 등의 키워드를 통해 유치원부터 진행되는 북한의 유치원은 정치사상교육과 강령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재’, ‘과학’, ‘컴퓨터’, ‘영어’, ‘축구’ 등은 북한의 유아교육의 중점사항으로 보여 지는데,⁸³⁾ 이는 최근 북한 교육의 동향으로 파악된다.

‘방문’, ‘김정은’, ‘여사’, ‘시설’, ‘위원장’, ‘로동신문’, ‘건설’ 등의 연관어는 유치원, 애육원의 건설현장을 시찰하는 김정은 위원장에 모습을 로동신문에서 많이

83) 北, 발레에서 축구까지...최고급 영재교육, 채널 A, 2014. 07. 19

선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⁸⁴⁾

‘남북’, ‘대북’, ‘영국’, ‘사랑’, ‘유엔’, ‘추진’, ‘의료’, ‘재단’, ‘병원’, ‘교류’, ‘센터’, ‘통일부’, ‘의원’ 등의 연관어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남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북한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일본’, ‘보조금’ 등의 연관어는 북한과 일본 간의 마찰을 나타낸다.⁸⁵⁾

‘인권’, ‘유엔’, ‘스위스’, ‘인권’ 등의 연관어는 유엔 등의 국가단체에서 이루어진 북한 영유아의 인권문제, 기아문제에 대한 보고를 보여준다.⁸⁶⁾

‘중국’의 경우 김정은 정권이 유사시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라는 사상교육을 지시한 반면 ‘중국’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에 대북사업 1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이 확인되었다.⁸⁷⁾

나) 네트워크 관계망 & 연결고리 분석

‘유치원’ 키워드의 연관어들에 관련된 이슈를 모두 정성분석을 하였고 그 중 연관성이 깊고 중요한 키워드만을 선별하여 네트워크 연결망을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 최단 경로 상에 위치하는 정도를 특징하는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네트워크 연결망과 연결고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5〉 ‘유치원’ 중요 키워드의 매개중심성 결과

키워드	매개중심성	키워드	매개중심성
스위스	0.0024	보건	0.0021
김정은	0.0024	남북	0.0107
유엔	0.0047	중국	0.0098
과학	0.0008	일본	0.0052
영국	0.0021	보조금	0.0048
사랑	0.0039	유치원	0.0164
위원장	0.0087	사업	0.0092
행사	0.0004	인재	0.0008

84) [북한경제] 김정은 창전저리 소학교·탁아소 등 시찰, 파이낸셜 뉴스, 2012.05.31

85) 경기교육청, 北 개성 학교에 책걸상 5천개 등 지원, 매일경제, 2012.02.08

86) 유엔, "北 5살 미만 어린이 28% 발육저하", 노컷뉴스, 2013.03.19

87) 북한 올 여름부터 '반중' 사상교육, 경향신문, 2013.12.29

[그림 III-1-18] '유치원'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망



<표 III-1-6> '유치원' 중요 키워드 연결고리 분석

1차연결	2차연결	연결고리
스위스	김정은, 유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이 다녔던 스위스 국제 학교 이슈⁸⁸⁾ • 스위스(제네바 유엔사무국, 취리히세계대회 등)에서 북한 관련 이슈 • 스위스 국방부, 北 장교 교육지원
과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이 기초과학, 컴퓨터, 외국어 교육을 강조⁸⁹⁾ •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있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매일 수 천 명의 북한 아이들이 무료로 과외 교육을 받음⁹⁰⁾
영국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대북지원단체인 북녘어린이사랑(Love North Korea Children)의 활동⁹¹⁾ • 영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지원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육아원, 유치원 건설현장 시찰 ⁹²⁾
행사	-	국제 아동절에 진행 된 북한의 행사 ⁹³⁾
보건	남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⁹⁴⁾ • 남한 사업가 서경배 회장이 남북어린이어깨동무를 통한 북한 보건 사업에 기부
중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정권이 유사시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라는 사상교육을 지시⁹⁵⁾ • 중국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사업에 100만 달러를 기부⁹⁶⁾
일본	보조금	핵실험 이후, 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 ⁹⁷⁾
일본	유치원	북한 외무성은 일본 정부가 유아 교육 및 보육 무상화 대상에 재일조선 인종연합회계 유치원을 배제한 것을 비난 ⁹⁸⁾
사업	-	북한의 유치원 설립 사업 추진 ⁹⁹⁾
김정은	인재	김정은이 북한의 교육을 세계 추세에 떨어져 있다고 비판 한 뒤에 사고 력 중심의 교육으로 인재 발굴을 강조 ¹⁰⁰⁾

88) 스위스 학교에서 北 김정은, "가장 명칭하지는 않았지만, ...", 코나스넷, 2012.04.03

3) '탁아소'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가) 연관어 분석

'탁아소' 키워드의 경우 '대북', '병원', '세계', '식량', '기금', '영양실조', '유니세프', '의료' 등 다른 주요 키워드들보다 '지원'에 관련된 노드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행사', '국제', '분유', '결식', '임산부' 등의 연관어를 통해 기금을 통한 어린이 적선만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품을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 또한 지원의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¹⁰¹⁾ '인권', '사망률' 등은 북한 영유아의 높은 사망률과 낮은 인권을 보여주었다.¹⁰²⁾

[그림 III-1-19] '탁아소'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89) 北 김정은 '기초과학·컴퓨터·외국어 교육' 강조한 배경은, 아시아경제, 2012.10.13
 90) [판 북한] 김정은의 어린이 사랑? 만경대학생소년 궁전 준공, TV조선, 2015.12.11
 91) 英NGO, 北어린이 2만여명 빵·두유 지원, 뉴시스, 2014.09.23
 92) 北 김정은, 완공된 평양 옥아원·애육원 시찰, 매일경제, 2014.10.26
 93) [페이스북] 우리와 다른 듯 닮은 북한의 어린이날, KBS, 2019.05.06
 94) 정부, 국제기구 통한 800만 달러 대북지원 의결...영유아·임산부 대상, MBN, 2019.06.05
 95) "北, 울어넘부터 '유사시 中은 적' 사상 교육", 세계일보, 2013.12.29
 96) "중국, 북한 탁아소와 임산부 등에 식량지원으로 100만 달러 기부", 아주경제, 2014.07.08
 97) 북 핵실험 '불뚝'...일,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 확산, 한겨레, 2013.02.20
 98) 北외무성 "日,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악랄한 민족차별행위", 파이낸셜뉴스, 2019.08.24
 99) 북한 내 첫 농아유치원 10월 개원 예정, 뉴시스, 2015.06.26
 100) 北 김정은, 교육관련 노작 발표..."인재강국 강조", 노컷뉴스, 2014.09.06
 101) 유니세프, 영유아 보건 사업 등 대북지원사업 '재개', 노컷뉴스, 2013.08.21
 102) 北 영유아 사망률 한국의 8배...170만명 질병 위험 노출, 뉴스1, 2018.0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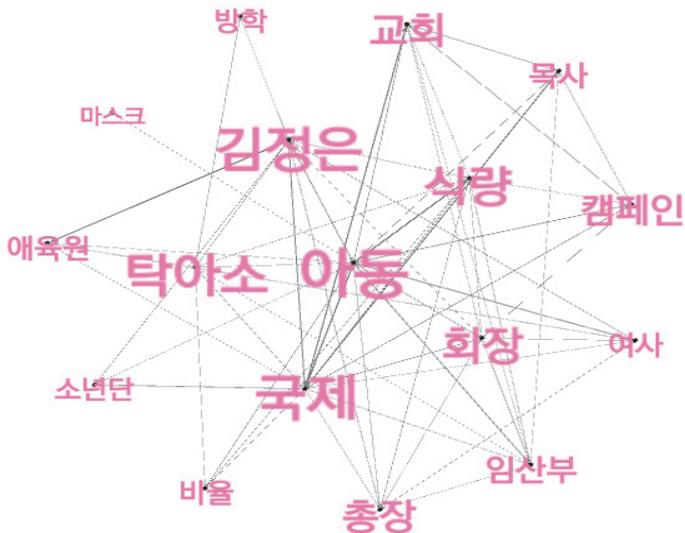
나) 네트워크 관계망&연결고리 분석

‘탁아소’ 키워드의 연관어들에 관련된 이슈를 모두 정성분석하였고, 그 중 연관성이 깊고 중요한 키워드만을 선별하여 네트워크 연결망을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7〉 ‘탁아소’ 중요 키워드의 매개중심성 결과

키워드	매개중심성	키워드	매개중심성
여사	0.0048	탁아소	0.0264
애육원	0.0057	캠페인	0.0092
국제	0.0331	방학	0.0045
목사	0.0066	아동	0.0331
식량	0.0184	비율	0.0044
총장	0.0126	마스크	0.0033
임산부	0.0042	교회	0.0106
김정은	0.0331	회장	0.0107
소년단	0.0083		

[그림 III-1-20] ‘탁아소’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망



〈표 III-1-8〉 ‘탁아소’ 중요 키워드 연결고리 분석

1차연결	2차연결	연결고리
여사	애육원	이희호 여사 애육원(교아원) 방문 ¹⁰³⁾
국제	목사	사순절 국제사랑재단-국민일보에서 북한 결식 어린이 도움, 교회 교인들과 목사도 참여 ¹⁰⁴⁾
식량	총장	WFP사무총장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촉구 ¹⁰⁵⁾
임산부	-	지방정부협회, 유니세프에 북한 내 영유아와 임산부를 위한 기금 전달 ¹⁰⁶⁾
김정은	소년단	어린이들이 의무 가입하는 소년단에서 수령과 당에 충성을 강조하는 사상 교육을 강조 ¹⁰⁷⁾
김정은	탁아소	김정은이 탁아소와 아동 백화점을 시찰 ¹⁰⁸⁾
캠페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캠페션, 북한 어린이 사역을 위해 커리큘럼 마련에 공을 들임¹⁰⁹⁾ • 국제사랑재단과 국민일보의 '사순절 북한 결식 어린이 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에 한국교회가 1억384만여원을 후원 • 샘복지재단, '북한 꼬마 사랑을 먹다' 캠페인을 개최
방학	탁아소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탁아소부터 대학까지 방학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 ¹¹⁰⁾
아동	비율	북한 양강도에서 아동 영양실조 비율이 32%로 북한 지역 전체 중 최고치를 기록 ¹¹¹⁾
마스크	-	일본에서 조선학교만을 마스크 배포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일본을 맹비난 ¹¹²⁾
교회	-	기아대책으로서 군산성광교회에서 북한 아동 지원 후원금을 전달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대형 교회와 면담 ¹¹³⁾ 한국 교회 봉사단에서 북한 영유아 영양 지원 캠페인을 시작
회장	-	북한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해 기금을 적선한 미주동부지회 지회장 이병홍 목사의 관한 이슈 ¹¹⁴⁾

4) ‘교육, 보육, 육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가) 연관어 분석

‘교육’, ‘보육’, ‘육아’ 키워드의 경우 북한의 교육 전반에 걸친 내용과 ‘코로나’,

103) 이희호 여사 방북 이틀째...아동시설·양로원 거쳐 묘향산 도착(종합), 연합뉴스, 2015.08.06
 104) 국민일보 국제사랑재단 공동 '북한 결식어린이 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 국민일보, 2015.05.31
 105) WFP 사무총장 "아동 목숨이 정치보다 우선" 대북 식량지원 촉구, MBC, 2019.04.04
 10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북한 아동 지원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금 전달, 아시아경제, 2019.12.31
 107) 야영하며 김정은에 충성맹세...북한의 어린이날은?, 채널A, 22014.05.05
 108) 北 김정은, 탁아소·아동백화점 시찰, 뉴스1, 2012.05.31
 109) "캠페션, 북한 어린이 돕기는 하나님 계획" 오늘까지 '북한 사역 서밋', 국민일보, 2015.06.09
 110) '코로나19 차단 사활' 北 유치원·학교 개학 연기, OBSNEWS, 2020.02.27
 111) "北양강도, 아동 영양실조 비율 32%로 최고 수준", DAILYNK, 2016.06.28
 112) 북한 '日, 조선학교 마스크 배포 차별' 보도..."조치때까지 시위"(종합), 연합뉴스, 2020.03.13
 113) 김연철 통일부 장관, 대형교회·교육계 잇따라 면담...대북 식량지원 논의, 아주경제, 2019.05.17
 114) 북한결식어린이 한생명 살리기 후원금, 국민일보, 2013.03.19.

‘방학’, ‘방역’ 등의 연관어를 통해 최근 이슈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¹¹⁵⁾

‘베트남’의 경우 ‘북한’이 지원하여 베트남에 설립한 우정유치원에 ‘김정은’이 방문할 것이라 예측하는 뉴스가 많이 등장하며 귀추가 주목되었다.¹¹⁶⁾

‘바둑’의 경우 북한에서 두뇌체육으로 간주하며 조기교육으로 ‘바둑’에 대한 조기교육 열풍이 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로 인한 실내 활동 증가 또한 바둑열풍에 크게 기여했다고 예측하였다.¹¹⁷⁾

일본과 북한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오래도록 마찰을 겪어 왔으며 교육, 보육, 육아에 있어서 또한 불협화음을 내었다. 일본 측에서 일본 내 조선학교 및 재일조선인총합회계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비를 배재하거나 지원 중단을 검토하는 등 북한에 대한 차별적인 모습을 자주 표출하였고, 북한은 그런 일본을 맹렬히 비판하였다.¹¹⁸⁾

북한에서는 소위 ‘신동’으로 불리는 영재들을 대대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김 씨 일가에 찬양에 이용하고 있었으며, ‘신동’들 중 대부분은 ‘신동’이 아닌 북한의 혹독한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은 평범한 어린이들이었음이 밝혀졌다.¹¹⁹⁾

[그림 III-1-21] ‘교육’, ‘보육’, ‘육아’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115) 북한, 탁아소부터 대학까지 무기한 방학 연장... 코로나19 방역 총력전, 서울경제, 2020.03.19
 116) 김정은, 베트남-北 유치원 방문?...공연 준비 분주, 아시아경제, 2019.02.20
 117) “두뇌 개발·창의력에 도움” 北, 유치원부터 바둑 교육, 한국일보, 2014.06.12
 118) 北, 日 총련계 유치원 무상화 제외 비판...“비열한 탄압”, 연합뉴스, 2019.08.19
 119) 北, 각종 신동 뽑내기...알고보니 ‘스파르타식’ 교육, 채널A, 2016.0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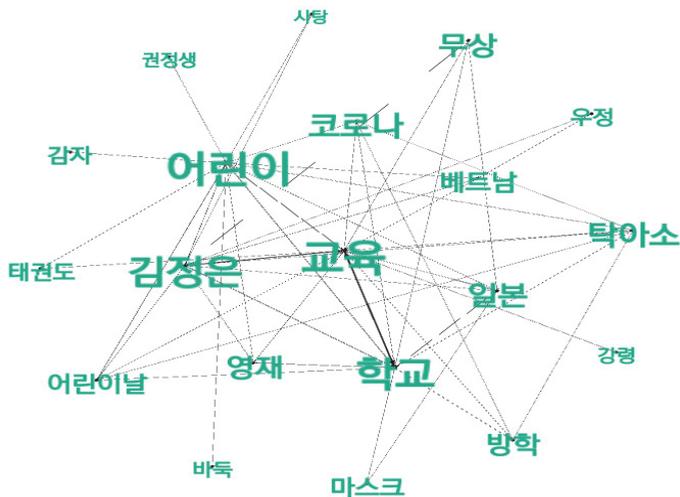
나) 네트워크 관계망&연결고리 분석

‘교육’, ‘보육’, ‘육아’ 키워드의 연관어들에 관련된 이슈를 모두 정성분석 하였고 그 중 연관성이 깊고 중요한 키워드만을 선별하여 네트워크 연결망을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매개중심성의 결과, 네트워크 관계망과 연결고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9〉 ‘교육’, ‘보육’, ‘육아’ 중요 키워드의 매개중심성 결과

키워드	매개중심성	키워드	매개중심성
마스크	0.0005	일본	0.0188
코로나	0.0017	어린이	0.1404
방학	0.0056	권정생	0.0005
탁아소	0.0182	태권도	0.0035
김정은	0.0580	감자	0.0007
우정	0.0005	교육	0.1404
사탕	0.0017	강령	0.0005
바둑	0.0005	어린이날	0.0015
무상	0.0055	베트남	0.0017
학교	0.0580	영재	0.0047

[그림 III-1-22] ‘교육’, ‘보육’, ‘육아’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망



〈표 III-1-10〉 ‘교육’, ‘보육’, ‘육아’ 중요 키워드 연결고리 분석

1차연결	2차연결	연결고리
마스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권유 ¹²⁰⁾
코로나	-	확진자 0명 기록에도 불구하고 유치원·학교 일제히 개학을 연기했으며, 코로나19 방역 물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음 ¹²¹⁾
방학	-	코로나 19에 의한 방학 2차 연장 북한 방학 시즌 성행하는 불법 과외 ¹²²⁾
탁아소	-	• 남한 어린이재단에서 북한에게 밀가루·콩가루 지원함에 따라 탁아소·육아원·학교에 분배될 예정 ¹²³⁾ • 북한의 6월 1일은 국제아동절이며, 전국 탁아소 및 유치원에서 파티가 개최
김정은	우정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북한 우정 유치원에 김정은 방문 유무에 귀추가 주목됨 ¹²⁴⁾
김정은	사탕	김정은은 생일을 맞아 전국 어린이에게 사탕을 선물 ¹²⁵⁾
바둑	-	북한에서도 어린이 조기교육으로 바둑교육 열풍 ¹²⁶⁾
무상	-	북한의 무상교육과 최고 교육 시설은 일부 로열 패밀리 자재에게만 해당 ¹²⁷⁾
학교	일본	일본 지방정부가 관내 북한 日 조선학교 유치부를 마스크 배포 대상에서 제외 ¹²⁸⁾
김정은	교육	김정은의 12년제 의무교육 완전 시행 ¹²⁹⁾
어린이	권정생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시행 ¹³⁰⁾
어린이	태권도	북한내 유치원에서 어린이의 태권도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첫 유단자를 배출 ¹³¹⁾
감자	-	최악의 가뭄으로 감자 수확량이 줄어 어린이의 기아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 예상 ¹³²⁾
교육	강령	세계화 추세에 맞는 교육 강령으로 개선 ¹³³⁾
어린이날	-	북한에서는 어린이날 대신 국제아동절이 있으며, 국제 아동절에 기념행사를 진행 ¹³⁴⁾
김정은	베트남	김정은, 베트남 하노이 방문하여 유치원 방문예상 ¹³⁵⁾
영재	-	영재 교육 열풍으로 최근에는 북한의 영재교육이 소학교(초등학교) 입학 전 학령으로도 확대 중 ¹³⁶⁾

120) 북한도 코로나19로 학교·행사 ‘올 스톱’, 국민일보, 2020.03.02

121) 北, 코로나 확진 0명에도 유치원·학교 개학은 연기, 노컷뉴스, 2020.02.27

122) 마르크스도 말리지 못하는 북한의 뜨거운 사교육 시장, 매일경제, 2018.05.18

12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북한에 밀·콩가루 200t 지원, 국민일보, 2014.03.13

124) 김정은, 하노이 北유치원 방문? 환영준비 나선 ‘김일성반’ 원생들, 이데일리, 2019.02.20

125) 北 김정은, 어린이들에 사탕선물 공세, 세계일보, 2013.01.07

126) “두뇌 개발·창의력에 도움” 北, 유치원부터 바둑 교육, 한국일보, 2014.06.12

127) [클로즈업 북한] ‘유명무실’ 北 12년 무상 의무교육, KBS, 2016.10.15

128) 北 “日, 조선학교만 마스크 배포 제외…졸렬한 행위”, 뉴시스, 2020.03.13

129) 북, 40년 만에 교육개혁… 의무교육 12년으로 늘려, 경향신문, 2012.09.25

130)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 북한 어린이 돕기 나서, 세계일보, 2015.08.25

131) 北, 어린이 태권도 교육 활발…“유치원 부문 첫 유단자 배출”, 연합뉴스, 2020.01.14

132) “北, 최악 가뭄에 식량난…어린이·노인 목숨 위협”, 아시아경제, 2017.07.21

5) ‘아동, 유아, 어린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아동’, ‘유아’, ‘어린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에 경우 ‘교회’, ‘식량’, ‘지원’, ‘영양실조’, ‘영양’, ‘취약’ 등의 연관어들을 통해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실태와 그들을 위한 북한 외에서의 지원을 알 수 있었다.¹³⁷⁾ 또한, 국제 아동절을 맞아 ‘김정은’이 애육원과 탁아소에 ‘콩우유’를 공급하였다는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콩우유’의 공급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북한의 방송매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³⁸⁾ ‘어깨동무’, ‘지원’, ‘어린이재단’, ‘의료’ 등의 연관어를 통해 평양 내 북한 어린이들의 의료적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¹³⁹⁾

가) 연관어 분석

[그림 III-1-23] ‘아동’, ‘유아’, ‘어린이’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133) 전문가 "北 교육강령 '김정은 시대' 구현 의지 보여줘", 뉴시스, 2016.05.27
 134) 북한의 어린이날은 언제?, 스포츠경향, 2014.05.05
 135) 김정은 오나... '베트남-北 우정유치원' 아침부터 분주, 연합뉴스, 2019.03.01
 136) 북한, 영재교육 유아로 확대하나... '문수탁아소' 집중 보도, 연합뉴스, 2020.02.02.
 137) 영락교회, 월드컵전에 북한 아동 식량 지원비 후원, 노컷뉴스, 2018.04.27
 138) 北김정은, 탁아소물자공급관리소에 콩우유 운반차 제공, 연합뉴스, 2016.09.03
 139) 어린이 치료용 엑스레이 장비 北반입 허용을, 매일경제, 2019.0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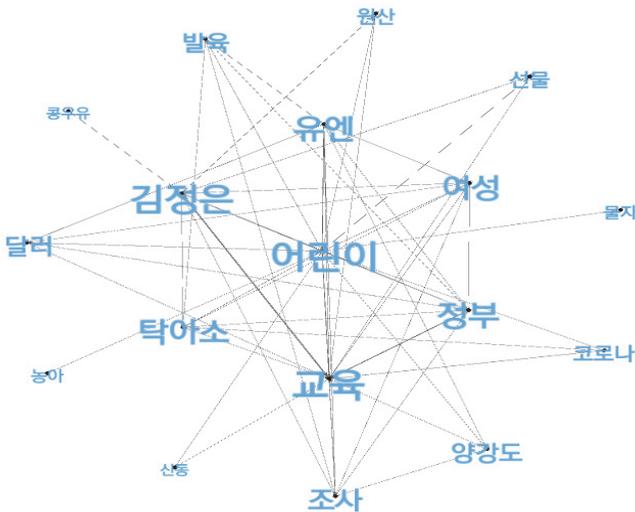
나) 네트워크 관계망&연결고리 분석

‘아동’, ‘유아’, ‘어린이’ 키워드 또한 다른 키워드와 마찬가지로 정성분석 과정을 거쳐 네트워크 연결망을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매개변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11〉 ‘아동’, ‘유아’, ‘어린이’ 중요 키워드의 매개중심성 결과

키워드	매개중심성	키워드	매개중심성
유엔	0.0137	농아	0.0007
물자	0.0014	원산	0.0082
김정은	0.0421	여성	0.0100
공우유	0.0015	탁아소	0.0421
코로나	0.0014	선물	0.0058
조사	0.0108	정부	0.0100
양강도	0.0023	달러	0.0129
어린이	0.0421	교육	0.0421
발육	0.0029	신동	0.0014

〔그림 III-1-24〕 ‘아동’, ‘유아’, ‘어린이’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망



〈표 III-1-12〉 ‘아동’, ‘유아’, ‘어린이’ 중요 키워드 연결고리 분석

1차연결	2차연결	연결고리
유엔	물자	유엔아동기금(UNICEF)은 북한에 구호물자를 지원 ¹⁴⁰⁾
김정은	공우유	국제아동절을 맞아 김정은이 애육원에 공우유를 공급 ¹⁴¹⁾
코로나	-	코로나로 인해 북한의 탁아소부터 대학까지 무기한 방학 연장 ¹⁴²⁾
조사	양강도	양강도에서 아동이 3명 가운데 1명꼴로 영양실조 상태인것으로 조사 ¹⁴³⁾
어린이	발육	북한의 어린이 5명 중 1명이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 장애를 겪음 ¹⁴⁴⁾
농아	-	북한에서 첫 농아유치원이 개원하였으며 3명이었던 어린이가 20여명으로 증가함 ¹⁴⁵⁾
김정은	원산	김정은이 원산 고아 교육시설의 건설현장을 현지지도 ¹⁴⁶⁾
코로나	-	방역 대책 세운 후 코로나로 등교 중지 되었던 일부 학교 개학 ¹⁴⁷⁾
여성	-	코로나19로 인한 탁아소 운영 중단으로 여성 근로자 재택 근무 실시 ¹⁴⁸⁾
김정은	탁아소	김정은은 탁아소물자공급관리소에 공우유 운반차를 보냄 ¹⁴⁹⁾
김정은	선물	김정은의 생일을 앞두고 김정은은 북한 전국 어린이에게 사탕 선물을 지시 ¹⁵⁰⁾
정부	-	대한민국 정부는 WHO에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을 위해 남부협력기금 6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¹⁵¹⁾
교육	-	북한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주산 교육을 통한 지능 개발을 권장 ¹⁵²⁾
신동	-	절대음감으로 찬양 받는 신동을 김씨 일가 찬양에 악용 ¹⁵³⁾
교육	신동	북한 체제 선전 및 김 씨 일가를 찬양하는데 이용되는 신동들이 사실 신동이 아닌 혹독한 교육을 받았음이 밝혀짐 ¹⁵⁴⁾

6) ‘학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가) 연관어 분석

‘학교’의 경우 기본적으로 ‘학생’, ‘교사’ 등의 단어가 빈출 되었으며 ‘교류’, ‘행사’, ‘진행’, ‘사업’등을 통해 남북간 이루어진 교육교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¹⁵⁵⁾

140) 유니세프 北 어린이 20만 명 영양실조...6만 명은 심각, SBS, 2018.01.30

141) 北, 국제아동절 맞아 김정은, 체제 우월성 선전, 노컷뉴스, 2015.06.01

142) 북한, 탁아소부터 대학까지 무기한 방학 연장... 코로나19 방역 총력전, 서울경제, 2020.03.19

143) 北 양강도 아동 3명 중 1명 영양실조, YTN, 2016.06.28

144) 유니세프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 발육저해, SBS, 2018.06.20

145) 북한 첫 농아유치원 개원...독일 NGO 지원, 연합뉴스, 2016.07.01

146) 北 김정은, 원산 육아·애육원 건설현장 현지지도, 연합뉴스, 2016.07.01

147) 北 일부 학교 개학...방역 대책 철저히 세워, YTN, 2020.04.21

148) 北 매체 탁아소 운영 중단으로 여성 근로자 재택 근무, YTN, 2020.03.04

149) 北 김정은, 탁아소물자공급관리소에 공우유 운반차 제공, 연합뉴스, 2016.09.03

150) 北, 김정은 생일 앞두고 전국 어린이에 사탕 선물, 서울신문, 2013.01.08

151) 정부, WHO 북한 영유아 돕기에 630만 달러 지원, 데일리뉴스, 2013.09.27

152) 北 어린이들, 주산교육으로 지능개발, 조선신보, 2019.10.21

153) 절대음감 북한 유치원생 신동 작곡가 김정은 띄우기, MBN, 2016.03.13

154) 北, 각종 신동 뽑내기...알고보니 ‘스파르타식’ 교육, 채널A, 2016.06.18

‘사교육’, ‘과외’, ‘속독’ 등의 연관어는 ‘사교육’, ‘과외’가 금지된 북한 내에서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또는 여럿이 모여 사교육을 받는 형태가 평양 내에 퍼져있다는 사실을 밝혔다.¹⁵⁶⁾ ‘메시’, ‘축구’의 경우 평양국제축구학교에서의 메시 초빙을 원한다는 이슈가 많이 거론되었음을 보여주었다.¹⁵⁷⁾ ‘일본’, ‘보조금’ 같은 연관어의 경우 일본이 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논의하자 북한에서 강하게 비판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 사태에 ‘일본’에서 조선학교만을 마스크 배포에서 제외하자 북한은 대외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하였다.¹⁵⁸⁾ ‘영국’ 연관어의 경우 북한의 영어교육을 위해 북한 교사들의 영어 교육을 담당하고 영어교육 활동에 지원하거나 북한에 장애인 디자인 학교에 설립을 추진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¹⁵⁹⁾

[그림 III-1-25] ‘학교’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나) 네트워크 관계망&연결고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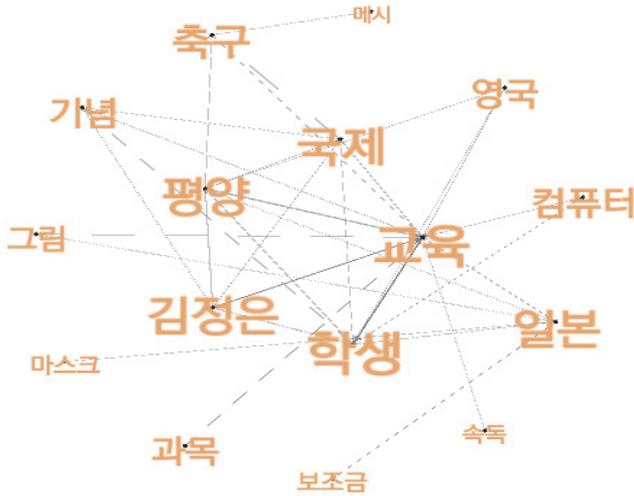
‘학교’ 키워드도 다른 키워드와 같은 과정을 거쳐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을 진행하였다.

155)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서울교육감 선거 ‘통일교육’화두, 연합뉴스, 2018.05.23
 156) 북한에도 ‘사교육 바람’...교육 불평등 심화, KBS, 2012.04.07
 157) 메시 북한 초청 응할까? ‘평양국제축구학교’ 자신감 드러내, SBS, 2014.12.03
 158) 日,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 北과 연계된 교육한다, MBC, 2013.02.20
 159) “영국, 작년 대북 공적원조 7억... 절반은 영어교육”, KBS, 2014.07.09

〈표 III-1-13〉 ‘학교’ 중요 키워드의 매개중심성 결과

키워드	매개중심성	키워드	매개중심성
일본	0.0152	영국	0.0048
보조금	0.0048	속독	0.0007
교육	0.0387	마스크	0.0023
과목	0.0048	김정은	0.0387
컴퓨터	0.0048	국제	0.0387
평양	0.0387	기념	0.0068
축구	0.0179	학생	0.0387
메시	0.0008	그림	0.0007

〈그림 III-1-26〉 ‘학교’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망



〈표 III-1-14〉 ‘학교’ 중요 키워드 연결고리 분석

1차연결	2차연결	연결고리
일본	보조금	일본 내의 조선학교에 대해 보조금 중단 집행 검토 ¹⁶⁰⁾
교육	컴퓨터	김정은이 컴퓨터 교육과 군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¹⁶¹⁾
컴퓨터	-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제한되자 컴퓨터 교육에 열풍이 불 ¹⁶²⁾
평양	축구	북한의 축구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양국제축구학교’에서 축구 영재를 양성 ¹⁶³⁾
축구	메시	‘평양국제축구학교’에 아르헨티나 축구선수 ‘메시’를 초대하고 싶다고 밝힘 ¹⁶⁴⁾

1차연결	2차연결	연결고리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문화원, 북한서 15년 동안 영어교사 4천명 교육¹⁶⁵⁾ • 영국 NGO, 北에 장애인 디자인 학교 설립 추진
교육	속독	북한, 교육 부문에서 속독 교육을 활발히 벌이는 중 ¹⁶⁶⁾
일본	마스크	북한, 일본의 조선학교에서 차별적인 코로나19 예방용 마스크 배포 행위를 비판 ¹⁶⁷⁾
김정은	컴퓨터	김정은이 컴퓨터와 군사교육 강화를 강조 ¹⁶⁸⁾
국제	기념	국제아동절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개최 ¹⁶⁹⁾
학생	기념	일본 측에서 북한을 방문했던 조선학교 학생들의 기념품을 압수 ¹⁷⁰⁾
일본	그림	북한 일본 어린이 그림전시회 평양서 개최 ¹⁷¹⁾

2. ‘로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누리망 분석

가. 데이터 표집

로동신문의 온라인 열람이 가능한 사이트는 모두 ‘안보위해행위’로서 접근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VPN을 통한 수동수집으로 로동신문을 수집할 수 있었다. 로동신문 사이트인 www.rodong.rep.kp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인 www.uriminzokkiri.com 두 사이트의 로동신문을 대상으로 유치원, 탁아소, 교육, 보육, 유아, 아동, 학교, 교양원의 키워드로 신문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2018년 0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수집량은 800건이었으며 제목, 본문, 작성일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수집 키워드별 신문 건수는 다음과 같다.

160) 일본정부, 조선학교 보조금 차단 검토 ...대북제재 일환, 연합뉴스, 2016.02.18

161) 北김정은 컴퓨터·군사교육 강화해야, 매일경제, 2012.10.13

162) 北, 코로나19 에 컴퓨터 교육 인기... 디지털 격차 는 과제, News1, 2020.04.02

163) 축구 일어서야 체육강국 ...北, 道마다 축구영재학교, 연합뉴스, 2017.01.18

164) 메시 북한 평양국제축구학교 초청하고 싶다 밝혀 이뤄질까, SBS, 2014.12.03

165) 영국문화원, 북한서 15년 동안 영어교사 4천명 교육, 노컷뉴스, 2016.02.10

166) 속독 교육 열풍... 속독 능력 갖춘 인재들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 앞당길 것, 세계일보, 2017.08.27

167) 북한, 일본의 조선학교 마스크 차별 맹비난... 조선인 혐오 바이러스에 감염.. kugin뉴스, 2020.03.17

168) 北김정은 컴퓨터·군사교육 강화해야, 매일경제, 2012.10.13

169) 北, 국제아동절 경축 모임, 노컷뉴스, 2014.06.02

170) 조선총련 日, 北수학여행 다녀온 조선학교 학생 기념품도 압수, 연합뉴스, 2018.06.29

171) 북-일 어린이 그림전시회 평양서 개최, 노컷뉴스, 2014.08.27

〈표 III-2-1〉 데이터 개요

데이터 분야	소셜 미디어 데이터
데이터 정보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정형 데이터
수집 키워드	유치원, 탁아소, 교육, 보육, 유아, 아동, 학교, 교양원, 어린이
수집 채널	로동신문(www.rodong.rep.kp),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
수집 방법	VPN ¹⁷²⁾ 을 활용한 수동 수집
수집 기간	2018. 01 .01 ~ 2020. 08. 31 (2년 8개월)

〈표 III-2-2〉 키워드 별 수집 건수

키워드	수집 건수
유치원	14
탁아소	3
교육	466
보육	16
유아	9
아동	25
학교	183
교양원	2
어린이	82

나. 데이터 전처리

수집된 718건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전처리가 이루어졌으며, 본문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사진 또는 영상만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제거하였다. 그 결과, 32건의 신문이 전처리 되어 778건의 신문이 남았으며, 해당 데이터를 대상으로 다시 중복된 데이터 40건을 제거하여 738건의 데이터를 모집단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III-2-1] 영상, 사진 등의 비텍스트 데이터 예시

제목	본문	작성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헌없는 그리움을 안고 증정의사진		2018-02-12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혁신을	영상	2018-02-08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혁신을	영상	2018-02-08
직관교육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고있다.	사진	2018-02-05

172)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의 약어로 회사, 단체 또는 개인이 내용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설 통신망으로서, 온라인 사이트 접근 시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 접속이 가능 (출처: Wikipedia)

〈표 III-2-3〉 로동신문 중요 키워드의 매개중심성 결과

키워드	빈도 수	매개중심성	키워드	빈도 수	매개중심성
어린이	933	0.0382	소년	130	0.0111
김정은	408	0.0243	아동	105	0.0382
정책	309	0.0382	교육사상	42	0.0021
보육	251	0.0245	인권	33	0.0059
유치원	249	0.0382	소년단	28	0.0036
유아교육	173	0.0092	아동권리	24	0.0054

[그림 III-2-3] 로동신문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망



〈표 III-2-4〉 로동신문 중요 키워드 연결고리 분석

1차연결	2차연결	연결고리
어린이	아동권리	일본이 조선학교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자. 아동권리를 무시하는 처세라며 맹렬히 비판 ¹⁷³⁾
어린이	정책	김일성 시대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높은 아동권리를 찬양 ¹⁷⁴⁾
아동권리	인권	자신들이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높은 아동인권 국가인 것을 선전하고, 자본주의 어린이들은 가정과 사회폭력에 대상이라며 비교 ¹⁷⁵⁾
김정은	교육사상	주체교육사상 위에 일찍이부터 과학과 첨단 교육과 같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쌓아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과거 김일성에 교육사상을 찬양하여 그 당위성을 분명히 함 ¹⁷⁶⁾

1차연결	2차연결	연결고리
유아교육	유치원	북한은 일본의 조선학교 차별에 대하여 남한 또한 일본에 강력하게 제재를 요구하며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고 선전 ¹⁷⁷⁾
김정은	소년단	김정은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접 조선소년단 야영장을 찾아가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고 기념사진을 촬영함 ¹⁷⁸⁾
보육	어린이	신형코로나비루스로부터 어린이와 노인을 보호해야 함을 널리 알리고 북한의 좋은 대처를 선전 ¹⁷⁹⁾
김정은	보육	사회주의 건설은 후대들의 몫이라며 김정은이 직접 유치원, 탁아소, 보육원을 방문하여 친부모와 같이 아이를 대했다는 것을 선전 ¹⁸⁰⁾
유치원	소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종합공연인 <꽃대문>을 진행하였지만, 유치원생들의 예술공연 또한 김씨 일가의 찬양이 대부분을 차지 ¹⁸¹⁾
아동	-	세계에 많은 어린이들이 분쟁, 빈궁 등 비참함에 빠져 있다고 알리며 아프가니스탄, 예멘과 같은 나라를 언급하면서 미국과 영국 또한 어린이 빈궁자 수가 증가했음을 강조 ¹⁸²⁾
어린이	김정은	김정은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보배로 여긴다며 김정은의 아이들 사랑을 선전 ¹⁸³⁾

3. 남북한 신문기사 비교 분석: 시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 영유아교육·보육 관련 국내 데이터와 북한 데이터를 시계열 분석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은 연도별 남북한 기사 추이를 통합하여 나타냈다.

173)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당장 견어치우고 국제법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로동신문, 2019.08.23

174)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에서 조선의 래일을 보았다, 로동신문, 2020.06.04

175) 유엔아동권리협약채택 30돐 어린이들의 기념모임 진행, 로동신문, 2019.11.21

176) 길이 빛나라, 주체교육발전의 자랑찬 행로여!, 로동신문, 2018.09.05

177)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차별정책을 규탄, 로동신문, 2019.10.08

178)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해주는 후대교육정책, 로동신문, 2020.02.11

179) 로인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워, 로동신문, 2020.0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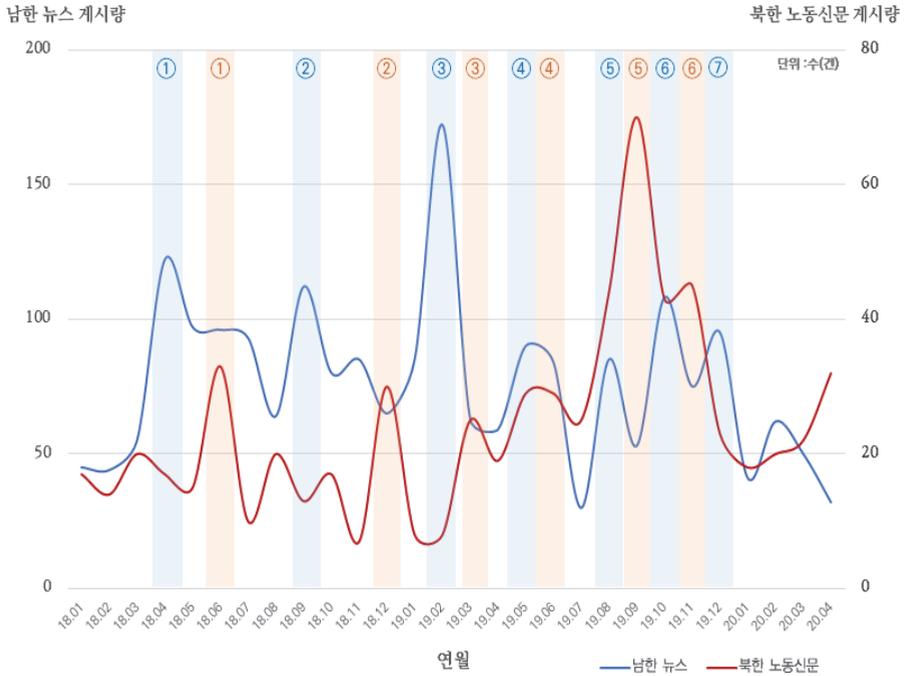
180) 우리 유치원에 찾아오신 수령님, 로동신문, 2018.06.01

181)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종합공연 진행, 로동신문, 2019.08.28

182) 더욱 악화되고있는 어린이들의 처지, 로동신문, 2020.01.20

183) 제일 좋은것은 어린이들에게, 로동신문, 2020.07.25

[그림 III-3-1] 연도별 남북한 신문기사 추이: 남한 국내신문, 북한 노동신문을 중심으로



가. 연도별 남한 신문기사 중심 추이 분석

1) 2018년 4월(122)¹⁸⁴, 5월(97)

제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사가 이슈화되었다. '통일' 관련(106), '평화' 관련(87), '남북정상회담' 관련(74), '협력' 관련(39), '지원' 관련(39)등의 단어가 많이 사용했다. 영유아 관련 기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통일을 대비해 북한 어린이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¹⁸⁵는 기사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 영유아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한 예도 있다.¹⁸⁶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평

184) ()는 기사량

185) "남한 어린이 건강 위해 북한 어린이 건강부터 지켜야", 청년의사, 2018.04.12

186) '북한 영유아 지원 기대로 육아용품株 강세, 에데일리, 2018.04.24

화교육·통일교육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¹⁸⁷⁾ 반면 북한 신문은 4월(17), 5월(15)로 나타났으며, 남한과 반대로 증가되지 않았다. 내용도 '과학'과 '인재' 관련이 주를 이루었다.

2) 2018년 9월(112)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18일)으로 인해 많은 기사들이 나왔다. '남북정상회담' 관련(25), '통일' 관련(22), '협력' 관련(16)등의 단어가 많이 사용했다. 어린이 관련 뉴스는 "119개 교회가 북한 땅이 열렸을 때 1개 이상의 어린이센터를 세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보도 되었으며¹⁸⁸⁾, 남북 퍼스트레이디가 아동 병원 동행했다는 뉴스도 실렸다.¹⁸⁹⁾ 또한 세미나 개최관련 으로서¹⁹⁰⁾ 북한 영유아의 영양 실태 및 식량 상황에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¹⁹¹⁾ 반면 북한 신문(13)은 남북정상회담과는 상관없이 일상적인 교육관련 기사 내용이 전부였다.

3) 2019년 2월(172)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관련 뉴스가 여럿 등장하였다. '지원' 관련(43), '통일' 관련(47), '평화' 관련(34)등의 뉴스가 많이 보도되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새해 첫 대규모 민간 남북 교류사업인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에 남한 교육부문 대표로 참석한다고 알려지며¹⁹²⁾ 그에 관한 뉴스들이 증가하였다. 반면 북한 신문(8)은 일상적인 교육관련 기사내용이었다.

4) 2019년 5월(90), 6월(84)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북한의 아동 인권관련 기사들이 있다. '인권' 관련(19),

187) '시도교육감協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통일교육 앞장설 것', 뉴시스, 2018.05.26

188) "한국교회 119곳, 북한 땅에 어린이센터 세우기를 소망" 한국컴패션 15주년 파트너십 서밋 열려, 국민일보, 2018.09.04

189) 남북 퍼스트레이디 외교...음악대학·아동병원 동행, OBSNEWS, 2018.09.18.

190) 박완주 '북한 영유아 식량난 관련 세미나' 개최, 충청투데이, 2018.09.19

191) 불편한 진실 "北 어린이 뇌 사진을 찍었더니...", 코메디닷컴, 2018.09.19

192) '금강산행' 장휘국 교육감 "남북 6대교육 교류사업 제안하겠다", 뉴시스, 2019.02.11

‘실태’ 관련(17), ‘유엔’ 관련(30), 어린이날 관련(7)등의 뉴스가 다수 등장하였으며, 뉴스 내용으로는 ‘유엔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약 5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실태를 평가하는 국가별 정례검토가 오는 9일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¹⁹³⁾ 등이 있었다. 또한 ‘국제 아동 절은 정확하게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다니는 미취학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남한과 북한의 어린이날 차이를 알려주는 뉴스도 존재했다.¹⁹⁴⁾

5) 2019년 8월(85)

일본의 일방적인 총련계 유치원 무상교육 제외에 대한 기사들이 이슈화되었다. ‘일본’ 관련(11), ‘영양실조’ 관련(7)등의 뉴스가 빈발했으며, ‘일본의 일방적인 추가 대북제재로 인해 총련계 유치원 무상교육 제외’¹⁹⁵⁾에 대한 뉴스가 크게 이슈화 되었다. 또한 ‘유니세프에서 北 아동 14만 명에 대해서 중증 영양실조’¹⁹⁶⁾ 뉴스와 WFP가 자금 부족에 작년 북 어린이 19만 5천여 명 대상 식량 지원 중단 ‘¹⁹⁷⁾한다는 뉴스도 이슈가 되었다.

6) 2019년 10월(108)

북한의 교육체계의 변화¹⁹⁸⁾에 대한 기사와 북한의 교육 결합¹⁹⁹⁾을 지적한 뉴스들이 이슈화 되었다. 여전히 일본의 무상교육 제외에 대한 반응²⁰⁰⁾의 뉴스가 여럿 등장하였다.

7) 2019년 12월(95)

‘기금’ 관련(26), ‘지원’ 관련(23)등 추운 겨울 북한 아동을 돕는다는 뉴스들이

193) ‘5년 만의 유엔 북한 인권 심사…고문·아동노동 쟁점될 듯’, SBS, 2019.05.01

194) ‘北 어린이날은 언제?...유치원생 따로 초등학교 따로’, 아주경제, 2019.05.05

195) ‘北, 일본 정부 조선유치원 무상화 제외에 노골적 적대행위’, 뉴스1, 2019.08.21

196) 유니세프 올해 상반기 北 아동 14만 명 중증 영양실조, 연합뉴스, 2019.08.20

197) WFP 자금부족에 작년 北어린이 19만5천명 대상 식량지원 중단, 연합뉴스, 2019.08.22

198) ‘北도 “주입식 교육 대신 사고력 중심 교육” 강조’, 국민일보, 2019.10.14

199) 北 올해 세 번째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교육 결합 지적, 연합뉴스, 2019.10.20

200) ‘北, 日 총련계 유치원 무상교육 제외에 단호히 응징할 것’, MBC, 2019.10. 21

많이 게시되었다. '남한 정부에서 WHO 북 산모 영유아 보건 지원사업을 지원'201)한다는 뉴스와 '지자체들이 유니세프를 통해 북한 아동돕기 기금'202)을 전달했다는 뉴스들이 있었다.

나. 연도별 북한 로동신문 중심 추이 분석

1) 2018년 6월(33)

'6월1일 국제아동절 기념' 관련(4),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관련 (7), '과학' 관련(7), '인재' 관련(10)이었다. 그 중 상당 수가 '과학'과 '인재' 관련된 신문이었다. 과학과 인재 중심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신문들이 주를 이루었다. 과학관련 제목으로는 '과학과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적기풍확립에서 나서는 요구'이고, 인재 관련 기사 제목으로는 '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 등이 있었다. 반면 남한 뉴스(96)는 북미 정상회담에 관련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²⁰³⁾

2) 2018년 12월(30)

'과학' 관련(13), '환경' 관련(11) '인재' 관련(11). 미래의 중요사업으로 과학, 교육, 보건사업을 중점으로 되면서 관련기사가 증가 하였다. 과학과 인재 관련 기사 제목으로는 '과학, 교육, 보건사업은 제일 중시하여야 할 사업' 등이 있었으며, 환경 관련 기사 제목으로는 '교육조건과 환경 개선' 등이 있었다.

3) 2019년 3월(25)

북미정상회담(2019년 2월 28일)이 합의문 없이 끝났음에도 별다른 신문이 나오지 않았다. 계속 강조하던 '교육사업' 관련(11), '과학' 관련(11) 내용이 많이 등장하였으며, 교육 사업 관련 제목으로는 '학교, 유치원건설 및 개건사업 진행' 등이 있었다.

201) 정부, WHO 北 산모·영유아 보건 지원사업에 500만달러 지원, 뉴시스, 2019.12.06

202) 84개 지자체, 유니세프에 북한아동돕기 기금 10만 달러 전달, 연합뉴스, 2019.12.31

203) 최영태 교육감 후보, "북미정상회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초석되길", 뉴스웨이, 2018.06.12

한편, 남한 뉴스(63)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결렬로 북에 대한 '지원' 관련(23) 뉴스가 많이 등장하였다. 기사 내용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이 18일 북한의 임산부와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²⁰⁴⁾는 등의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뉴스 등이 있었다.

4) 2019년 5월(29), 6월(29)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관련(14), '교육사업' 관련(13)으로 교육사업 관련 신문이 여럿 게시되었다.

5) 2019년 8월(44), 9월(70)

전국교원대회 관련(20), 교육사업 관련(48), 외국과의 교육협력 관련(5), 일본 관련(20) 등 여러 방면에서 신문이 쏟아져 나왔다. 외국과의 교육협력 관련 내용은 '미래교육의 방향과 국제적 추세'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일본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의 새로운 연장' 조치로 인한 일본 관련 신문들이 이슈화 되었다. 추가적으로 일본 관련 내용으로는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라고 선포하며 일본에 대한 분노를 크게 표출하였다. 한편, 남한 뉴스(85)는 북한의 일본의 제재(11)에 대한 반응을 뉴스화 하였다.

6) 2019년 10월(43), 11월(45)

일본 관련(26)으로서 계속되는 일본의 북한 차별적 대응에 관한 신문이 주를 이루었다. 제목으로는 '남조선 시민사회단체들 조선학교를 배제한 일본의 어린이 교육, 보육무상화정책시행을 규탄' 등이 등장하며 일본의 만행을 공개적으로 비난 하였다. 한편, 남한 뉴스(108) 또한 북한의 반응을 그대로 이슈화 하였다.

204) 송영길, "영유아 등 대북 인도적 지원해야", 경기일보, 2019.03.18

다. 남한과 북한의 빈출 단어 비교

〈표 III-3-1〉 남한언론, 북한언론에 나타난 빈출단어 예시²⁰⁵⁾

Word	남한 뉴스/블로그		북한 로동신문	
	Count	Rate ²⁰⁶⁾	Count	Rate
사업	1,800	0.51%	3,024	1.88%
통일	2,043	0.57%	32	0.02%
평화통일	286	0.08%	4	0.002%
김정은	1,420	0.40%	408	0.25%
김일성	336	0.10%	273	0.17%
김정일	183	0.05%	142	0.09%
의무교육	338	0.09%	144	0.09%
컴퓨터/컴퓨터	114	0.03%	99	0.06%
지원	1,920	0.54%	115	0.07%
교류	1,708	0.48%	24	0.01%
미국	621	0.17%	38	0.02%

1) 빈출단어 ‘사업’ 비교 분석

단어 ‘사업’의 경우 남북한 모두 공통적으로 빈출 수와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위치하고 있지만, 남한에서는 1,800(0.51%), 북한에서는 3,024(1.88%)로 북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이라는 단어가 남한에서는 ‘교육사업’²⁰⁷⁾, ‘교류사업’²⁰⁸⁾, ‘지원사업’²⁰⁹⁾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대부분 ‘교육사업’²¹⁰⁾이나 ‘김정은’²¹¹⁾, 교육과 연관된 사업²¹²⁾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육아정책이나 교육이 주로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5) 전체 단어와 비중은 RodongNews_Data.xlsx 파일 ‘빈출단어’ sheet 참조

206) 해당 모집단에서 등장한 모든 단어 중에서 해당 단어의 비율
(ex. 통일(0.57% = 2,043(통일 단어 등장 빈도)/355,817(모든 단어 등장 빈도 총합))

207) 핵 대신 과학·교육 집중 강조한 北, 서울경제, 2018.04.21

208) 조희연 교육감 ‘서울-평양 교육여행’ 등 남북교류사업 제안, KBS, 2019.02.11

209) 정부, 북한 영유아·산모 보건의료에 60억원 지원한다, 아시아경제, 2019.12.06

210) 조선의 주체교육은 끝없이 비약하고 있다, 로동신문, 2018.04.07

211) 가정교육과 애국적분분, 로동신문, 2020.05.02

212)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 큰 힘을, 2018.03.06

2) 빈출단어 ‘통일’ 비교 분석

단어 ‘통일’은 남한에서는 빈출 수와 비중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하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한에서는 2,043(0.57%), 북한에서는 32(0.02%)로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났다. 뉴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이라는 단어가 남한에서는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뉴스에서 사용되었으며, 통일이라는 명칭²¹³⁾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교육내용 등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3) 빈출단어 ‘김정은’ 비교 분석

‘김정은’이란 빈출 단어는 남한과 북한 모두 빈출 수와 비중이 높게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한에서는 1,420(0.40%), 북한에서는 408(0.25%)로 나타났다. 뉴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한에서는 주로 ‘김정은’의 말과 행동 등에 대한 뉴스²¹⁴⁾가 대부분이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빈출 수 273)’, ‘김정일(빈출 수 142)’, ‘김정은’(빈출 수 408) 모두가 큰 차이 없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한의 뉴스가 현재 북한의 실 집권자인 ‘김정은’에 대하여 주로 관심을 두는 반면,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항상 언급 하고 이상화하며 과거의 언행이나 동상²¹⁵⁾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빈출단어 ‘의무교육’ 비교 분석

단어 ‘의무교육’은 남한에서 338(0.09%), 북한에서는 144(0.09%)로 남한과 북한 모두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남한에서는 북한의 교육에 대한 소개²¹⁶⁾, 김정은의 교육 정책²¹⁷⁾ 등에 대해 주로 언급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교육사업’, ‘김정은’, ‘교원대학’ 등과 같은 단어가 의무교육을 언급할 때 많이 표현되었다.

213) 경북대 대구통일교육센터, 열린통일강좌 개최, 한국대학신문, 2018.05.14

214) 北 김정은의 눈물 영상 제작설 당 간부 교육용, 뉴스1, 2018.07.30

2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로동신문, 2018.06.16

216) [요즘 북한은] 3D 교재·체험학습…변모하는 유아교육 외, KBS, 2018.10.27

217) 김정은 “북 교육 세계 추세에 뒤떨어져…선진적인것 받아들여야”, 한겨레, 2019.09.04

이는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며 ‘11년의무교육제도’를 ‘12년의무교육제도’로 바꾼 ‘김정은’의 치적에 대한 홍보와 교육자를 양성하는 교원대학에 대한 내용을 의무교육 부분에서 크게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빈출단어 ‘평화통일’ 비교 분석

단어 ‘평화통일’은 남한에서 286(0.08%), 북한에서는 4(0.00%)로 남한에서는 빈출 수와 비중이 나타난 반면, 북한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큰 차이를 보여 주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남한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뉴스²¹⁸⁾에서 평화통일이 주로 나타났지만 북한에서는 ‘평화통일’이라는 단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으며, 언급된 내용도 일본, 재일동포와 관련된 뉴스²¹⁹⁾에만 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일에 대한 남북한의 상반된 생각을 적나라 하게 보여준다.

6) 빈출단어 ‘컴퓨터/콤퓨터’ 비교 분석

단어 ‘컴퓨터/콤퓨터’는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임에도 남한에서는 ‘컴퓨터’로 북한에서는 ‘콤퓨터’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빈출 수와 비중은 남한에서는 114(0.03%), 북한에서는 99(0.06%)로 나타났다. 뉴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한에서는 주로 ‘교육’과 같이 나타났으나, 게임이나 IT²²⁰⁾와 같은 내용에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모두 함께 나타났고, ‘기술’이나 ‘정보화’²²¹⁾에서도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빈출단어 ‘지원’ 비교 분석

단어 ‘지원’의 경우 남한에서는 빈출 수와 비중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상위에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한에서는 1,920(0.54%), 북한에서는 115(0.07%)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뉴스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이라는 단어가 남한에서는 ‘교육’²²²⁾이나 ‘기금’²²³⁾, ‘사업’²²⁴⁾, ‘영양’²²⁵⁾

218) 김포몽실학교, 남북 평화통일 토론, 경기일보, 2018.05.14

219) 용납될수 없는 일본의 민족교육말살책동, 로동신문, 2020.08.13

220) 北 ‘IT키즈’들...어린이날 갖고 싶은 전자기기는 ‘TV-워크맨’, 헤럴드경제, 2018.05.02

221) 실험실습교육의 정보화실현에서 중시한 문제, 로동신문, 2018.01.10

과 관련하여 나타났고, 북한에서는 ‘교육’²²⁶과 ‘사업’²²⁷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남한에서는 북한에 실질적으로 교육, 기금, 영양을 지원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뉴스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북한의 신문에서는 영양과 식수, 기금 등의 대해 지원 받았다는 내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빈출단어 ‘교류’ 비교 분석

단어 ‘교류’의 경우 남한에서는 빈출 수와 비중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하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한에서는 1,708(0.48%), 북한에서는 24(0.01%)로 나타나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뉴스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류’라는 단어가 남한에서는 ‘교육교류’나 ‘교류협력’²²⁸, ‘교류사업’²²⁹, ‘경제’²³⁰와 함께 나타났고, 북한에서는 ‘교육사업’²³¹, 국제²³², 기술²³³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남한의 뉴스에서 교류는 ‘북한’이나 ‘남북’간의 교류를 보여주었으나, 북한 신문에서 나타난 북한의 교류는 남한과의 교류가 아닌 일본이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의 교류나 북한 내의 정보교류 등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9) 빈출단어 ‘미국’ 비교 분석

단어 ‘미국’의 경우 남한에서는 비교적 빈출 수와 비중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하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한에서는 621(0.17%),

222) 北교과서 수록 태블릿 PC에 비친 교과내용... 충성교육 철저, 연합뉴스, 2018.01.09

223) 경기도교육청, 전국 첫 남북교육기금 조성, 경인일보, 2019.06.09

224) 韓-유니세프, 대북 아동지원사업 협력방안 모색, 뉴시스, 2018.07.23

225) 유니세프 북한 어린이 20만 명 영양실조로 고통, YTN, 2018.01.30

226) 날로 고조된 전사회적인 교육지원열의, 로동신문, 2018.12.20

227) 교육체계가 완비되고있다, 로동신문, 2019.09.03

228)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위 위촉, 전라일보, 2019.03.21

229) 서울-평양 학생들 오갈까...남북 교육교류사업 물꼬 트나, 아주경제, 2019.02.11

230) 北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듯 ... 돈버는 법 교육 인기, 뉴스1, 2018.07.25

231) 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로동신문, 2018.06.25

232) 교육과 인재육성사업에 힘을 넣고있는 중국, 로동신문, 2019.10.10

233) 과학기술과 교육은 자력갱생대진군의 견인기, 로동신문, 2019.06.17

북한에서는 38(0.02%)로 차이를 보였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이라는 단어가 남한에서는 ‘북미’나 ‘회담’²³⁴⁾, ‘협력’²³⁵⁾, ‘지원’과 함께 나타났고, 북한에서는 ‘자본주의’²³⁶⁾, ‘비참’과 ‘빈궁’²³⁷⁾, ‘제재’, ‘우려’ 등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남한의 뉴스에서 미국은 ‘북미’간의 ‘회담’이나 ‘협력’, ‘지원’과 같은 의미를 보여주었으나, 북한에서의 미국은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로 ‘비참’하고 ‘빈궁’하며, ‘제재’를 가하는 나라로 표현되었다.

4. 특별 키워드 비교 분석: ‘통일’, ‘코로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 ‘통일’ 키워드 비교 분석

‘통일’ 키워드에 대해서는 남한의 뉴스와 북한의 로동신문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뉴스/블로그 5,151건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통일’ 키워드에 빈도수는 2,043개로 전체 단어 중 0.57% 달하는 비중²³⁸⁾을 가졌지만, 로동신문에 경우 737건에 대해 32개로 전체 단어 중 0.02%에 그치는 비중이었다.

〈표 III-4-1〉 뉴스/블로그, 로동신문 ‘통일’ 키워드 출연빈도 차이

Word	남한 뉴스/블로그		북한 로동신문	
	Count	Rate	Count	Rate
통일	2,043	0.57%	32	0.02%
평화통일	286	0.08%	4	0.002%
남북통일	27	0.01%	0	0%
한반도	423	0.12%	0	0%

234) 北·日 6월 정상회담?... 노동당 교육자료에 가능성 언급, 한국경제, 2018.03.29

235) 어린이 치료용 엑스레이 장비 北반입 허용을, 매일경제, 2019.04.04

236)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교육실태, 로동신문, 2018.09.05

237) 더욱 악화되고있는 어린이들의 처지, 로동신문, 2020.01.20

238) 전체 단어 中 해당 단어의 비중 ex.) 전체 단어의 355,817건 빈출 중 2,043에 빈출을 갖는 ‘통일’ 키워드

남한 뉴스/블로그의 경우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과 남한의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뉴스 또는 통일을 위한 북한으로의 지원 등에 대한 뉴스 등이 다수 등장하였다. 2013년 9월 경에는 통일대비 교육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며 통일에 대한 교육 간극을 줄이는 것에 집중²³⁹⁾ 하거나 북한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이 통일에 대한 비용과 후폭풍을 줄여 줄 것이라 예견하였다.²⁴⁰⁾ 최근에 까지 남북 관계를 교육 교류로 해결하자는 목표로 포럼을 개최²⁴¹⁾하는 등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에 힘쓰며, 북한 또한 교육을 통해 통일에 다가가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로동신문을 통해 바라본 북한의 교육 실상은 통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내에서 통일 관련 단어의 빈출과 비중은 굉장히 저조한 편이었다. 저조한 몇 건의 통일 키워드는 남한의 전교조들의 대한 내용²⁴²⁾이나 일본에서 북한의 자주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²⁴³⁾에 그쳤다.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남한의 생각과 정책은 실제 북한과 큰 괴리감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에 대하여 여러 교육 정책을 펼치고 남북한이 교육 교류를 통해 통일에 다가서기를 꿈꾸는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통일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적은 언급 또한 자주 통일에 국한되어 있었다.

나. '코로나' 키워드 비교 분석

'20년도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 역시 북한에 대해서 북한과 남한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20년도 초부터 남한에서는 북한의 코로나 대처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어린이, 유아에 코로나 노출에 대해 20.02부터 동년 04월까지 80개에 달하는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북한의 코로나 대처에 관하여 많은 뉴스를 보도했으며, 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 마스크 지급을 제외한 것에 대한 북한의 입장표명도 연일 이슈화하였다.

239) "북, 당에 충성할 수재교육-차별교육 만연", 데일리안, 2013.03.01.

240) "北 영유아 47만명 심각한 발육부진 시달려", 동아일보, 2013.09.26.

241) "남북 관계, 교육 교류로 풀자"...광주서 국제 포럼, 연합뉴스, 2019.10.31

242)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의로운 투쟁, 로동신문, 2018.08.07

243) 용납 될 수 없는 일본의 민족교육말살책동, 로동신문, 2020.08.13

〈표 III-4-2〉 뉴스/블로그, 로동신문 ‘코로나’ 키워드 출연빈도 차이

Word	남한 뉴스/블로그		북한 로동신문	
	Count	Rate	Count	Rate
코로나	192	0.05%	0	0%
코로나바이러스	37	0.01%	0	0%
코로나바이러스 ²⁴⁴⁾	2	0.001%	21	0.01%

[그림 III-4-1] 북한 개학연기에 대한 부산일보사에 뉴스 (출처: 부산일보사, 2020.02.27)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운수수단들에 대한 소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성구역 위생방역소 근로자들의 활동 모습을 사진으로 보도했다.(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남한 뉴스/블로그의 코로나 언급에 비해 북한의 로동신문은 코로나에 대해서 적은 언급을 보여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북한 내에서는 코로나의 정식 명칭을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바이러스로 언급하고 있으며, [그림 III-4-2]에서 볼 수 있듯이 20년도 2월부터 신형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방송을 통해 예방대책과 수칙 등을 알리었다.

또한, [그림 III-4-3]처럼 로동신문을 통해서도 방역대책에 대해 김정은이 직접

244) 바이러스의 라틴어 (출처: 국립국어원)

언급하며 북한의 방역활동을 선전하였다. 그에 일환으로서 어린이 부육시설을 시작으로 학교, 주민주거 공간 등으로 소독사업을 실시하고 어린이들에게 위생 수칙을 가르치는 등 나름의 코로나 대응책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북한 내에서의 사망자나 감염자 등의 언급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다른 국가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하지만, 북한 내에서의 사망자나 감염자 등의 언급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다른 국가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그림 III-4-2] 북한의 신형코로나비루스 예방수칙 방송



- 출처: 1) 조선중앙TV, 2020.02.10. 뉴스 스크랩
- 2)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서 추출

[그림 III-4-3] 북한의 탁아소 소독사업



- 출처: 1) 로동신문, 2020.03.23. 뉴스 스크랩
- 2)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서 추출

[그림 III-4-4] 방역대책을 선전하는 노동신문 중 일부 (출처: 노동신문, 2020.09.16)

주체109(2020)년 9월 16일 수요일 **로 동 신 문** www.rodong.rep.kp

비상방역전을 더욱 공세적으로 벌여 인민의 생명 안전을 철저히 담보하자
앞질러가며 방역대책을 세워나가도록
 각지 당조직들에서

비상방역전을 깊도 깊게 진행하면서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방역대세를 계속 보완유지할데 대한 엄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해나가고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사업은 인민의 안녕, 조국의 안전과 직결된 사활적인 사업이라는 확고한 관점에서 방역사업을 위대리하여 대책을 취하는 식이 아니라 앞질러가며 예견성있게 진행하도록 당적지도를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조직들은 엄의 방침과 결정,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완벽한 방역체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모든 구역안의 당조직들에서 대중에 의한 피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데 맞게 비상방역사업에서 사소한 평항도 나타나지 않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능력있는 일군들을 비상방역지휘령을 보강하고 그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 대동강을 건너 내려오는 오물물 매물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방역학적으로 맞게 진행되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였다.

동대원구역당위원회에서는 태풍 1 호가 지나간 후 즉시 현지에 나가 협의회를 열고 강안에 떠내려온 물체들을 비상방역구경대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만경대구역당위원회에서는 먹는물공급시설들에 대한 소독사업을 구경대로 하여 주민들에게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깨끗한 물을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있을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는 한편 능력있는 일군들을 파견하여 강하게 대책해나가고록 하였다.

자강도당위원회에서는 시, 군경제와 사람들의 생활이 많은 장소마다에 방역초소들이 증강되고 소독약생산량이 늘어난 조건에서 원료보장을 비롯하여 소독약생산과 공급, 보관과 인용에서 사소한 빈틈도 없도록 사전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나가고있다.

강계대학대학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과의 연계밑에 도자재의 힘으로 많은 량의 소독약을 생산하였으며 강계은하피복공장을 비롯한 단위들을 발동하여 수천벌의 방독복을 만들어 시, 군비상방역기관들에 내려보내는 등 방역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조건보장을 따라세웠다. 이와 함께 시, 군위생방역소들을 산간지대의 특성예 맞게 새통기 꾸림 목표를 내세우고 강계시, 화천시, 위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위생방역소를 꾸려놓게 하였다. 그리고 시, 군핵심일군들과 해당 부문의 일군들을 대상으로 보여주기용을 진행하여 도안의 시, 군위생방역소들을 훌륭히 개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책시, 금강군, 은파군, 철원군을 비롯한 피해복구전투가 벌어지는 시, 군당조직들에서는 큰물피해복구지휘부와와 긴밀한 연계밑에 건설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임시가설막, 공공건물들에 대한 소독사업과 검병검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의류일군들을 파견하여 큰물 피해복구에 동원된 근로자들에 대한 검병검진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대중적인 방역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해설선전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다.

화양군당위원회에서는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지시문예 준하여 정치사업자료를 제때에 만들어 아래단위들에 내려보내는 동시에 방송편찬을 특색있게 만들고 방송선전활동을 창신하게 벌려 주민들이 방역학적으로 잘 알고 사업과 생활을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작업현장들에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자료들을 방영한 직관물들을 전개하고 이동식음향중독기재들을 설치하여 대중을 최대로 각성분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고있다. 한편 해당 일군들을 피해복구현장들에 파견하여 비상방역사업에서 있을수 있는 공간과 위험을 빠짐없이 찾고 제때에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해나가고있다.

과일군당위원회에서는 9, 10월위생월간사업에서 기본을 약성비루소독검염증을 막기 위한다 두고 이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군에서는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계획을 자체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세우는것과 함께 군안의 해당 일군들을 발동하여 공장, 기업소, 농장, 인민반들에서 9, 10월위생월간사업을 신형코로나비루소독검염증의 류입을 막기 위한 사업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해설선전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고록 하고있다.

5. 소결

국내외 언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북한 교육보육 관련 이슈 도출을 시도했다. 네이버 뉴스, 네이버 블로그, 구글 뉴스를 통해 국영문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키워드는 유치원, 탁아소, 교육, 보육, 유아, 아동, 학교, 교양원을 대상으로 하며 북한을 반드시 포함했다. 데이터는 세 차례의 데이터정제 과정을 거쳐 총 5,081개의 뉴스데이터, 70개의 블로그 데이터를 모집단으로 선정해 분석했다.

주제별로는 북한 영유아, 어린이 교육 관련, 북한 영유아 식량 실태 및 지원 관련, 북한 애육원 및 고아원 관련, 아동 복지 및 인권 관련, 교육 제도 개선 관련 주제별 이슈 분석을 시도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 별 상위 100개 키워드에 따른 연관어를 통

해 최근 이슈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유치원’ 키워드를 통해서는 북한 유치원이 정치사상교육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인재교육과 과학교육, 스포츠 교육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탁아소’ 키워드를 통해서는 다른 키워드에 비해 ‘지원’에 관한 노드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로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누리망도 분석했다. ‘로동신문’에서는 738건의 데이터를 모집단으로 했으며 이 중 상위 100개를 선정해 분석했다.

이와 같이 국내 뉴스데이터, 네이버 블로그, 북한 누리망에서의 키워드 검색 및 필터링을 통한 상위 키워드 추출을 통해 언론에서 바라보는 연관어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연결고리를 도출해냄으로써 북한 내에서의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 및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이슈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통일을 대비해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을 이해하고 나아가 남북한 교육보육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데 근간이 될 것이다.

IV

통일대비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탐색 1 : 통일 독일 영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변화 분석

- 01 통일 이후 영유아의 돌봄과 양육 및 정책 변화
- 02 독일의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
- 03 소결

IV. 통일대비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탐색 1 : 통일 독일 영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변화 분석

1. 통일 이후 영유아의 돌봄과 양육 및 정책 변화

가. 통일 이후 영유아의 돌봄과 양육 정책

독일 통일 이후 돌봄과 양육제도는 교육적 접근 방식을 추구했다. 어린아이 교육(fruehkindliche Bildung)이 독일 교육제도의 첫 번째 단계로 일반적으로 각 연방주의 책임인 돌봄과 양육 제공을 통해 시행되었다. 전체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영유아 시설(Kindertagesstaetten)’의 돌봄에는 4가지 기능이 있다.²⁴⁵⁾

- 가족-일의 양립성 측면에서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는 보살핌 기능,
- 주로 단체 생활에서 사회적 규범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양육 기능,
- 균등한 기회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초기 단계에서 포용을 촉진해야하는 교육 기능,
- 가족 및 인구 정책 기능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출산율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사실상 통일 직후 출산율이 신연방주(동독)에서 극감했다. 통일 이전부터 구연방주의 출산율은 아주 낮았다(아래 참조). 여기에 다양한 원인이 있다. 여성들 중에서도 학력이 높은 사람은 혼자 살거나 자녀 없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삶의 양식을 택했다.²⁴⁶⁾ 서독에서 아이 없는 부부 가족은 1991년에 전체 가구의 23.3%였고 1996년에는 25.4%로 증가했다.²⁴⁷⁾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동거가족 중에 아

245)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Lange Wege der deutschen Einheit, 18.8.2020(<http://www.bpb.de/geschichte/deutsche-einheit/lange-wege-der-deutschen-einheit/47313/kita-und-kindererziehung>, 검색일: 2020.8.25).

246) 김혜순,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22~23쪽; 이명환·박수연 편역, [독일의 육아정책]. 육아정책연구소, 2010, 5쪽.

247) Lauterbach, Wolfgang, "Familie und private Lebensformen," in: Glatyer und Ostner (Hrsg.), Deutschland im Wandel, sozialstrukturelle Analysen. Oplade: Leske + Budrich, 1999, S. 23

이가 없는 가구는 동거가족의 전체 23.3%이고 1999년에는 77.5%였다.²⁴⁸⁾ 동독에서는 아이가 없는 동거가족 가구는 1991년에 전체 동거가족의 11.6%이며 1999년에는 52.5%로 증가했다.²⁴⁹⁾ 통계에 따르면 통일독일에서 1991년에 830,019명 아이가 그리고 1995년에는 765,221명이 태어났다.²⁵⁰⁾ 신연방주에서 1989년에서 1993년까지 출생률이 60%로 극감하였다.²⁵¹⁾ 여성의 생업활동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돌봄 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이에 대한 요구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많은 젊은 남녀가 아이 가지는 것을 꺼려했다. 이는 출생률 감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과 양육 기관의 확장이 연방 정부 정책으로 촉구되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종일 돌봄 시설을 신설하고자 했고, 특히 3세 이상의 아이들을 위한 돌봄의 자리를 약속했다. 2009년 1월 1일에 발효된 아동진흥법(Kinderförderungsgesetz)에는 공공 청소년복지 기관은 3세 아동부터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필요에 따라 아동에게 종일 시설을 제공해야한다는 조항이 첨가되었다. 이는 양질의 돌봄과 양육 서비스 확대를 가속화하여 부모에게 실질적인 선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법은 다양한 돌봄 공급의 지원과 ‘영유아 보육(Kindertagespflege)’의 윤곽을 제시하고, 보육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은 일반적으로 5명 까지만 돌볼 수 있다. 보육자는 그들에게 부여된 양육 요구 사항에 대한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아울러 보육에 필요한 적성을 구비해야하며, 적절한 보육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이를 위해 보육자는 성과에 적절한 보수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자녀의 교육, 양육 및 보살핌이 더 잘 지원되면서 점점 더 많은 부모가 이 기관을 이용했다. 키타와 유아의 보육이 활성화되었다. 이외도 관리(감독)를 받는 놀이터와 놀이 그룹 등도 늘었다. 갈수록 일-가족-조화의 욕구와 필요성이 높아져 갔고 여성들의 생업활동에의 참여도 증가했다. 서독 여성의 일할 수 있는 연령

9-254, (S. 243).

248) Statistisches Bundesamt, Datenreport 1997, Schriftleihe Band 340. *Zahlen und Fakten uebe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1999, 40쪽.

249) Statistisches Bundesamt, Datenreport 1997, op. cit., 1999, 43쪽.

250) Statista, Anzahl der Geburten in Deutschland von 1991 bis 2019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235/umfrage/anzahl-der-geburten-seit-1993/>, 검색일: 2020.8.30.

251) Statistisches Bundesamt, Datenreport 1997, op. cit., 1999, S. 468.

15~65세의 생업활동 참여는 상승했다. 1970년대에 45.9%, 1980년대에 48.3% 그리고 1990년대에 53.8%의 추이를 보인다.²⁵²⁾ 동독은 통일 전까지 여성 90%가 넘게 생업활동을 했다. 이에 맞춰서 신뢰할 수 있는 낮 동안의 영유아의 돌봄이 요구되었다. 이에 대한 서비스는 종일 또는 하루 중 일부로 제공되었다. 돌봄의 기관 중에 기타 이용이 증가했고, 이 중에 여러 연령대를 포괄하는 혼합형이 크게 증가했다(표-1 참조).

2008년 이후 연방 정부, 연방주 및 지자체 정부는 어린이를 위한 기타 확장을 크게 추진해 왔다. 2007년에 연방 정부는 ‘육아 돌봄 시설 확대’를 위한 투자 보조금으로 특별 기금을 설정했다. 투자 프로그램인 ‘영유아의 돌봄 용자(Kinderbetreuungsfinanzierung)’를 통해 연방 정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그리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2억 8천만(3.28 Milliarden) 유로를 전국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돌봄 시설의 확장을 위해 지원했다. 이로 인해 총 400,000개 이상의 돌봄 자리가 3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해 조성되었다.²⁵³⁾ 2017년 6월 29일에 ‘영유아의 돌봄(Kindertagesbetreuung)’의 양적·질적 확대에 관한 법률’을 발표하면서 2017~2020년에 ‘유아 돌봄 용자’ 지원을 알렸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유아의 돌봄 확장(Kinderbetreuungsausbau)’을 위한 특별기금(Sondervermögen) 총 11억 2600만(1,126 Milliarden) 유로를 증액하여 10만개의 ‘돌봄의 자리(Betreuungsplätze)’를 추가로 조성했다.²⁵⁴⁾ 이외도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추가로 돌봄의 자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투자가 점차 영향을 미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영유아의 돌봄 시설에 수용되었다. 2018년 3월 1일에 독일 전역에서 기타 또는 영유아 보육(Kindertagespflege)에서 3세 미만 어린이 약 789,600명을 돌보았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7,200명의 어린이가 더 많았다.²⁵⁵⁾ 2017년에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45.2%가 돌봄의 자리(Betreuungsplatz)를 원했다. 이는 부모의 생업활동이 늘어가고 있고, 이에 필요

252) Statistisches Bundesamt: Mikrozensus,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10, www.bpb.de(검색일: 2020.8.30).

253)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FSFJ), Mehrgeld fuer Kinderbetreuung, 17.06.2020(<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mehr-geld-fuer-die-kindertagesbetreuung/156678>), 2020(검색일: 2010.8.).

254) BFSFJ, Mehrgeld fuer Kinderbetreuung, op. cit., 17.06.2020.

255) BFSFJ, Mehrgeld fuer Kinderbetreuung, op. cit., 17.06.2020.

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2018년에는 키타의 질 향상 및 참여에 관한 법률로 “좋은 키타 법(Gute-KiTa-Gesetz)”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라 연방 정부는 2022년까지 키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약 55억(5,5 Milliarden)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각 연방주가 자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어린이 돌봄에의 참여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개별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연령의 학령기 아동을 위한 호르트 또는 혼합 연령 그룹을 위해 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용부담이 키타(Tageseinrichtungen)와 영유아 보육에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렸다. ‘좋은 키타법(Gute-KiTa-Gesetz)’에 따라 2019년 8월 1일부터 ‘사회법 제 8권 제90조(§ 90 SGB VIII)’를 변경하여 부모의 비용 부담액의 차등화(Staffelung)를 전국적으로 의무화했다. 차등화의 기준으로는 특히 부모의 소득, 수당 대상인 자녀 수, 일상 돌봄 시간(tägliche Betreuungszeit) 등이다. 사회복지혜택(Sozialleistungen)을 받는 가정 이외도 저소득층 가족은 예를 들어 아동수당(Kinderzuschlag)이나 주택수당(Wohngeld)을 받는 경우와 같이 키타(KiTa)의 비용부담(Kitabeiträgen)에서 면제된다. 비용 부담이 면제되거나 책정될 때, 이에 대한 상담의 의무가 도입되었다. 자녀의 지원을 직접 관리하려는 부모는 자문과 지원을 받아야하고, 이에 대해 지역 청소년복지 사무소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학교 어린이 집, 놀이 그룹 등을 감독하고, 점심 비용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돌봄 공급(Betreuungsangebote)으로 입증해야 했다. 어린이를 위한 개방된 여가·문화 활동을 위한 공급이 많은 곳에서 개발되기 시작했다.

돌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좋은 키타-법 2019(Gute-Kita-Gesetz 2019)”에 따라 “도구조립용세트(Instrumentenbaukasten)”²⁵⁶⁾가 설계되었고, 이는 10가지 행동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 10가지 행동 영역에서 연방주마다 자체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것은 실행해야 한다. 행동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가족의 필요에 따라 돌봄을 보다 잘 조율하기 위한 ‘필요에 맞춘 공급’,
- 아이를 위한 더 많은 시간을 위한 ‘좋은 돌봄의 열쇠’,

256) BMFSFJ, Pressemitteilung vom 23.8.2019. „Gute-KiTa-Vertrag“ für Sachsen-Anhalt: Fachkräfte-Pakt und Eltern-E(<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gute-kita>, 검색일: 2020.8.30).

- 직업 선택, 훈련 및 일상 실습을 위한 기본 틀을 개선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 책임 직원의 일상 업무에서 교육, 직업교육 제공 및 시간 구조를 개선하는 ‘키타 책임 (Kitaleitung)’ 강화,
- 돌봄 공간의 창의력, 운동, 휴식을 장려하는 ‘어린이 친화적인 방’,
- 균형적인 식단, 더 많은 운동 및 건강을 촉진하는 건강한 성장,
- 영유아 보육을 맡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근무조건과 전문 자격을 개선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Kindertagespflege)’ 강화,
- 현장 활동가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품질 강화,
- 개별 아동 관련 조치를 개발, 실행 및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작업 등이다.

위의 10가지 행동 영역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과 좋은 돌봄과 일 및 삶의 균형을 형성하는 것은 연방주의 책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이는 연방 정부의 정책이기도 한다.²⁵⁷⁾ 이러한 통일 이후의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의 정책 실행은 영유아의 돌봄 시설의 큰 변화를 수반했다.

나. 영유아의 돌봄 시설의 변화

통일 이후 동서독 영유아교육보육기관과 호르트의 돌봄은 변화를 경험했다. 통일 이후 동서독 유치원, 유아원, 혼합형, 호르트의 동서독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4-1〉 통일 이후 동서독의 영유아 및 호르트 시설의 변화 (베를린 제외), (%)

유형 연도	유치원		유아원		혼합형(키타)		호르트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2008	10.7	59.9	0.7	2.3	74.3	32.7	14.3	5
2007	11.8	61.9	0.7	1.9	73.7	31.2	13.7	5
2006	12.7	63.1	0.8	1.4	73.2	30.7	13.7	4.8
2002	5.2	74.0	1.1	1.9	79.4	18.6	14.3	5.5
1998	6.6	79.0	1.1	1.6	75.0	14.1	17.3	5.3
1994	20.0	81.9	2.4	1.7	61.4	11.5	16.2	4.9
1991	41.4	82.5	22.7	2.6	20.8	5.3	15.1	9.6

자료: Kindertagesstaettet und Kindererziehung in Ost- und Westdeutschland (file:///C:/Users/XNOTE/Downloads/UDGJ5E.pdf, 검색일: 2020.8.28).

257) BFSFJ, op. cit., Pressemitteilung vom 23.8.2019.

1) 영유아의 돌봄 기관의 변화: 혼합형 기타 증가와 유치원 이용 감소

동서독에서 통일 당시 '유치원'이 가장 선호하는 기관이었다. 표를 살펴보면, 1991년에 동독에서 전체 돌봄 시설 이용에서 유치원이 점하는 비율이 41.4% 그리고 서독은 82.5%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유치원 이용은 점차 감소했고, 유치원 대신 여러 연령대를 포괄하는 혼합형이 증가했다. 동독은 2008년에 혼합형이 74.3%로 대세이고 서독에서도 유치원이 아직도 59.9%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유아원 이용은 동독이 서독보다 더 높다. 서독 유아원 이용률은 1991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변화가 별로 없다. 호르트 이용률은 동독에서 1991년에 15.1% 그리고 2008년에 14.3%이다. 여기서도 별반 차이를 볼 수 없다. 서독의 호르트 이용률이 아주 낮고, 1991년에 9.6%이며, 2008년에 5%이다. 거의 두 배에 가깝게 감소했다.

통일 전에 동독은 종일 그리고 서독에서는 반일, 오전 또는 오후에만 영유아의 돌봄 기관을 이용했다.²⁵⁸⁾ 그 현상은 통일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 크라엔펠트 그 외(Kreyenfeld, Michaela u.a.)에 따르면 서독에서 1994년에 전체 유치원 자리 1918,000개에서 324,000개만 종일제(16.9%)였고, 1998년에는 전체 자리 2152,000개에서 종일제는 179,000개(8.3%)이다. 신연방주에서는 1994년에 전체 552,000개에서 종일제는 535,000개(96.9%)이며, 1998년에는 전체 335,000개자리에서 종일제는 327,000개(97.6%)이다.²⁵⁹⁾ 그러나 서독에서도 점차 종일제가 증가하여 2005년에는 21%의 유치원이 종일제 돌봄 시설이었다. 동년에 동독에서는 유치원 98%가 종일제였다.²⁶⁰⁾ 구연방주(서독)에서는 반일제(Halbtage)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이 대세인 것은 전통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1996년에 발효된 유치원 자리(§ 24a KJHG)에 대한 법과 관계가 있다. 이는 영유아교육보육기

258)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Lange Wege der Deutschen Einheit, Kitas und Kindererziehung in Ost und West. op.cit., 18.8.2020.

259) Kreyenfeld, Michaela und C. Katharina Spieß und Gert G. Wagner, "Kinderbetreuungspolitik in Deutschland Möglichkeiten nach frageorientierter Steuerungs- und Finanzierungsinstrumente," in: Zeitschrift für Erziehungswissenschaft, 5. Jahrg., Heft 2, 2002, S. 201-221, (Tabelle 1, S. 204).

260) Henry-Huthmacher, Christine, Kinderbetreuung in Deutschland - Ein Überblick, Konrad-Adenauer-Stiftung(Herausgeber), Arbeitspapier/Dokumentationherausgeben, Nr.144/2005(https://www.kas.de/c/document_library/get_file?uuid=8d691d49-dd5b-b43c-0852-1f9ba4052aeb&groupId=252038, 검색일: 2020.8.19).

관의 자리에 대한 법적 권한은 반나절 돌봄에만 제한하고 있다.

종일제 돌봄과 관련하여 연방주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부 주에서는 주로 방과 후 호르트의 돌봄 제공을 통해 과외 돌봄을 시행하지만 다른 연방주에서는 종일 학교를 확대했다. 일부 연방주에서는 종일 학교와 호르트가 모두 있다. 점심을 모든 시설에서 제공한 것은 아니다. 2007년에 서독 바덴-뷔르템부르크(Baden-Württemberg) 주에서는 3세 이상의 어린이 중 38%만이 어린이 시설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는 독일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에 비해 동독 메클렌부르크-포포머른(Mecklenburg-Vorpomern) 주에서 점심 제공은 거의 100%에 달했다.²⁶¹⁾ 통일 전 동독에서는 종일 시설이어서 점심은 시설에서 했고, 점심 비용은 아주 저렴했다. 통일 이후는 동서독 모두 아이들의 점심을 위해 부모가 얼마간 지불한다. 지불 금액은 연방주마다 그리고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다.

통일 이후 신연방주(동독)에서는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의 구조 및 양육에 내용 변화가 전면에 있었다. 그럼에도 동서독 영유아의 돌봄과 양육 기관은 공통점도 있다. 2013년부터 1세부터 모든 어린이는 ‘영유아 돌봄 자리(Kinderbetreuungsplatz)’에 대한 법적 자격을 갖추면서 특히 3세 이상의 아동의 유치원 이용률은 증가했다. 서독에서는 1991년에 전체 영아의 3.7%가 유아원에, 유아의 67.9%가 유치원에 그리고 전체 취학 전 아동의 4.0%가 호르트에 다녔다.²⁶²⁾ 2018년 3월 1일에 3세 미만 아동의 34%와 3세 이상 아동의 93%가 돌봄 시설에 다녔다.²⁶³⁾ 2020년의 한 통계에 따르면 유치원의 3-6세 아동이 서독에서 92.1%가 그리고 동독(베를린 포함)에서 94.3%가 다녔다.²⁶⁴⁾ 서독에서도 유치원 연령대 아동 모두가 유치원을 다닌다고 볼 수 있다. 유치원 분야에서는 동서독이 거의 비슷한 발전을 달성한 것이다. 이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신연방주는 전통적 특성을 따르고 구연방주(서독)에서 가족-일-양립의 정책과 어느 정도 구동독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통일 전에 동독에서 영유아의 돌봄 기관 86%는 주에서, 12%는 큰 회사에서

261)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op. cit., Pressemitteilung vom 18.8.2020.

262) Statistisches Bundesamt (Hrsg.), op. cit., Statistisches Jahrbuch 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3.

263)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op. cit., Pressemitteilung vom 18.8.2020.

264) Kindertagesbetreuung Betreuungsquote von Kindern unter 6 Jahren nach Bundesländern([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 Soziales/Kindertagesbe](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Soziales/Kindertagesbe), Stand 30. September 2020, 검색일: 2020.9.3).

그리고 약 3%는 교단에서 운영되었다.²⁶⁵⁾ 통일 후에는 신연방주(동독)에서도 사적 돌봄 시설이 증가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에 신연방주에서는 40%가 개인 소유였고, 이 중에 19%는 디아콘 기관(Diakonisches Werk)에서 그리고 5%는 카리타스에서 운영했다.²⁶⁶⁾ 구연방주(서독)에서 2005년에 기타 64%가 개인 소유였다. 이 중에 38%는 카리타스(Caritas) 및 가톨릭 기관에서, 30%는 개신교 기관에서 운영했다.²⁶⁷⁾ 독일 전체는 1991년에 공공 기관은 47.4% 그리고 사적 기관(freie Traeger)은 52.6%, 2002년에는 각각 40.4% 그리고 59.6%, 2016년에는 33%와 67%였다.²⁶⁸⁾ 사적 영유아의 돌봄 기관은 동서독 모두 계속 확장되었다. 그러나 서독의 사기관의 이용률이 훨씬 높다.

2) 영유아의 돌봄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아동 수 감소

통일 이후 신연방주뿐만 아니라 구연방주에서 영유아의 돌봄 시설과 이를 이용한 아동 수는 점차 감소했다. 유아원 기관 수가 유치원과 호르트보다 훨씬 적다. 유치원과 호르트는 1994년 대비 1998년에 증가했고, 유아원은 감소했다. 호르트만 1994년에서 2002년까지 계속 증가했다. 유아원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1994년에서 1998년까지 계속 감소했다. 호르트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1994년 대비 1998년에는 증가했고, 다시 2002년에는 감소했다. 이를 확인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V-4-2〉 통일 이후 독일의 육아지원기관 및 아동 수 현황(1994~2002)

연도	유형	유아원	유치원	호르트	기타	총계
1994.12	기관수	856	29757	3657	12353	46623
	아동수	190914	2550399	401184		3142497
1998.12	기관수	693	30117	3762	13631	48203
	아동수	166927	2486780	450734		3104441
2002.12	기관수	799	28406	3494	15318	48017
	아동수	150753	2471688	430280		3052721

자료: Statistisches Amt des Bundes und der Laender, 2010(<http://www.destatis.de>, 검색일: 2020.7.30).

265) Datenquelle: BArch, DR 4/37, Band 2 aus: Kindergärten; entnommen: <https://deutsche-einheit-1990.de/ministerien/mfbw/kiga/>(검색일: 2020.8.30).

266) Henry-Huthmacher, Christine, Kinderbetreuung in Deutschland, op. cit., 2005.

267) Kindertagesstätten öffentlicher und freier Träger 2017, 29.4.2018(<https://fowid.de/meldung/kindertagesstaetten-oeffentlicher-und-freier-traeger-2017>, 검색일: 2020.8.25).

268) Kindertagesstätten öffentlicher und freier Träger 2017, op. cit.,(검색일: 2020.8.25).

이렇게 영유아의 돌봄 기관의 변화에는 원인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통일 후 첫 10년은 구조적으로 주로 두 가지 이유가 어린이 시설의 규모를 폐쇄하는데 지배적이었다. 동독 제도의 청산 과정에서 많은 동독 국가 기관인 그룹(Konzern, 여러 기업의 연합)과 대기업의 구조 조정, 매각 및 파산으로 인해 해당 회사의 어린이 시설이 폐쇄되었다.
- 대규모 생산 조합과 많은 농업 공장의 청산 또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체는 해체되었고, 이로써 실업자가 늘었다(아래 참조). 동독의 영유아의 돌봄 시설의 감축은 막대한 일자리 감축을 동반했다. 1991년에 162,000개의 일자리에서 2002년까지 약 92,000개의 일자리가 삭감되었다.²⁶⁹⁾ 이는 통일 이후 영유아의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다. (돌봄 시설 운영에 얼마 정도 부모가 부담했다.) 동독 지역에서도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는 경향이 높아졌다.
- 동독 여성들의 실업이 증가했다. 동독 여성은 사회주의 노동정책으로 통일 당시 실업자가 없었다. 통일 이후 독일연방 통계에 따르면 1991년에 12.3% 남성은 8.5%로 그리고 1996년에는 여성은 19.9% 남성은 13.7%로 집계되었다.²⁷⁰⁾ 실업으로 인해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 상황에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상술했듯, 출산을 꺼려했다.²⁷¹⁾ 따라서 출산율이 대폭으로 떨어졌다. 동독의 출생률은 1989년에 1.57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는 약 0.7²⁷²⁾이었다. 서독은 1989년에 1.40이었고 1990년대 중반에는 1.47이었다. 서독의 출생률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 통일 당시 유치원 자리-유아 비율은 69%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2년까지, 특히 1996년부터 시행된 유치원에 대한 적용 가능한 법적 요구의 결과로 유치원 자리-유아 비율이 19% 증가하여 유치원 수가 88%로 상승되었다. 표-2에서 볼 수 있듯, 유아원 기관의 수가 1994년에 856개가 1998년에 693개로 감소했고, 다시 2002년에 799개로 늘었다. 2002년에 다시 약간 상승했다. 이는 1998년에 당시 유아원 자리(28,000개)에서 2002년까지 22,000개를 추가로 신설되는 데 있다. 따라서 기관수-영아 비율은 1%에서 3%로 향상되었다.²⁷³⁾

유아원은 갈수록 기타의 혼합형 돌봄 시설에 통합되었다. 독일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2020)에 따르면 2018년 3월 1일에 독일 전역에서 기타(Kindertageseinrichtungen)

269) Kindertagesstaetten und Kindererziehung(file:///C:/Users/XNOTE/Downloads/UDGJ5E.pdf, 검색일: 2020.8.29).

270) Statistisches Bundesamt, Datenreport 1997, Schriftleihe Band 340. op. cit.,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1999.

271) 이윤진·정재훈, [독일의 육아지원정책 동향]. 육아정책연구소, 2018, S. 18.

272) 예컨대 동독의 신생아 수는 1989년에 거의 20만 명에서 1990년대 초반과 중반 사이에 10만명 미만으로 단기간에 감소했다.

273) Kindertagesstaetten und Kindererziehung(file:///C:/Users/XNOTE/Downloads/UDGJ5E.pdf, 검색일: 2020.8.29).

또는 영유아 보육(Kindertagespflege)에서 3세 미만 어린이 약 789,600명을 돌보았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7,200명의 영아가 더 많았다.²⁷⁴⁾ 영아를 돌보는 기관이 늘어도, 2019년에 유아원(Kinderkrippe)은 34.3%로 독일 전체 영유아교육보육기관 이용은 전체 동서독 모든 지역에서 유치원보다 덜 이용했다(표-3 참조). 영아의 돌봄을 살펴보면,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유아원 이용은 낮다. 3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유아원 이용이 낮다. 이는 집에서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돌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구연방주(서독)에서 기관의 돌봄을 받는 세 살 이하 아이는 2002년에 전체 587,703명 중에 30.3%가 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 표-3에서 볼 수 있듯, 독일 전체 유아원에서 818,483명의 영아가 돌봄을 받고 있고, 이는 전체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의 돌봄의 34.3%에 해당한다.

〈표 IV-4-3〉 동서독에서 2019년 3월 1일에 유아원(Kindertageseinrichtungen) 및 공적으로 영유아 보육(Kindertagespflege*)을 지원하는 3세 미만의 영아+

구분	3세 미만의 돌봄을 받는 수	돌봄을 받는 영아 비율**			
		전체(%)	연령		
			0-1	1-2	2-3
독일 전체	818,483	34.3	1.9	37.1	63.2
구동독	230,780	52.1	3.0	65.9	84.9
구서독	587,703	30.3	1.7	30.6	58.2

자료: Pressemitteilung Nr. 379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vom 26.09.2019.

+ 저자가 Pressemitteilung Nr. 379에 제시된 전체 표에서 동서독 및 독일의 전체 통계만 뽑아서 정리함.

* Tagespflege에 대한 결과에는 영아 돌봄 기관에 다니지 않는 아동만 포함됨. 이는 이종으로 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

** 이 연령 그룹의 모든 아동 중에 돌봄을 받는 아동의 비율. 할당량 산정에 사용된 인구 수치는 2011년 인구 조사를 기반으로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인구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함.

다. 통합 과정에서 새로운 조건에의 적응: 교사의 훈련과 교육

통일 이후 특히 동독의 교사들에게는 영유아의 돌봄 기관의 구조 조정과 통합 과정에의 적응은 쉽지 않았다. 동독의 전통적인 일원화된 영유아의 돌봄 체제에서 다양한 형태의 돌봄으로의 전환은 많은 동독 교사들에게 낯설었다고 동독에서 근무했던 교사 한 분이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동안 공동체 집단을 지향한 국가 중심의 양육과 교육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새로운 개인적 그리고 탈국가화 방향으로 탈바꿈해야 했다. 이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274) BFSFJ, Mehrgeld fuer Kinderbetreuung, 17.06.2020, op. cit., 2020.

또한 동독 교육은 공동체 또는 집단을 위한 교육체제여서, 개인의 이해를 반영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독일의 교육은 주의 권한이므로, 각 지방과 지역에 알맞게 교육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동독 지역의 주들은 자율적으로 동독에 관한 사회, 정치, 경제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고, 이질감도 적은 편이라고 하였다. 독일이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은 서독 교육체제와 정책의 강점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Ms.S.면담내용)

그리고 동독의 기존의 연령별로 분리한 영유아의 기관 구조와 생활 그리고 이에 맞춘 교육 개념은 새 사회에서 적용되지 않았다.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를 위한, 즉 1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를 함께 돌보는 키타에 적응해야 했다.

수십 년 동안 구연방주(서독)에서 우세한 사회교육학 개념(상황 접근 방식, 몬테소리, 발도르프, 1990년대 이후 레지오-교육학)도 신연방주(동독)에서도 통일 이후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동독의 오래된 교육(개념, 제도 등)을 대체하는 과정은 많은 동독 교사들에게 혼란스러웠다. 영유아의 돌봄 기관 사이에 경쟁도 높았다. 그러나 새로운 개념을 비교적 빨리 습득한 교사도 있었다(5.4 참조). 전문적 기술 측면에서 구동독에서 유아원과 유치원 및 호르트 교사가 각각 갖추어야 했던 전문성을 통일 후에는 한 사람이 다 갖추어야 했다. 이는 다음과 같다.

- 0~12세 아동의 발달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며, 교사는 자신의 교육 개념을 전체 연령 범위로 확장해야 하며,
- 통일 사회에서는 장애 아동을 함께 돌봄을 권장하고 있고, 여기에 치료 교육적(heilpädagogisch) 접근이 교육 개념에 포함되어야 하며,
- 교사가 낮 동안 다른 아동 그룹과 작업을 같이 해야 하며, 그러나 모든 연령 그룹 아동에게 상응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하며,
- 교사 팀들은 자신의 시설에 특별히 맞춤형 개념을 개발해야 하며 어린이 그룹이 구성되면, 이에 맞는 돌봄 개념도 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 동독의 분리된 연령 구조로 구성된 영유아의 돌봄 기관은 사라지고, 통일 후에는 다양한 연령층 아이들이 통합된 구조로 거듭났다. 그룹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대부분의 취학 전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는지, 아니면 3세 아이가 다른 연령에 비해 많은지, 그 여부에 따라 돌봄과 교육의 개념을 정해야 하며,
- 외부 사람이 시설을 방문하면, 교사는 이들을 자신감 있고 자연스럽게 대하며, 자신의 작업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하고,



o 교사는 외부 영유아의 돌봄 그룹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 이후 특히 동독의 교사는 현장에서 교육학적 이해에 새로운 상황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학적 이론을 변경해야 했다. 나아가 변화에 맞게 교육의 행동 능력을 키워야 했고, 다른 영역에서의 교사들의 활동이 요구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확보해야 했다. 슈프겐의 면담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 이후 과도기에서 이러한 신체제를 받아들여서 동독에서 교육을 하기 시작하였고, 서베를린의 영향으로 동베를린의 유아 돌봄과 교육 기관의 변화는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Ms.S.면담내용)

통일 이후 30여년간 교사들도 세대교체가 있었고, 오늘날 동서독의 유아 돌봄과 교육 기관의 차이는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동독의 영유아 기관, 특히 영아 돌봄 기관이 많이 감소한 점이다. (Ms.S.면담내용)

라.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의 서비스 제공업체로의 부상: 교사들의 새로운 지식과 역량강화

통일 이후 영유아 양육 시설은 점점 더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되었다. 이에 맞게 교사들은 경영, 재무 관리, 예산 계획, 회계 및 비즈니스 관리의 지식과 정보를 확보해야 했다. 서독에서 영유아의 돌봄 시설의 운영과 교사들의 작업은 전문적 성격을 보였다. 한 팀원이 모든 영역을 다 맡을 수 없었다. 때로는 전문성에 따라 영역의 서열화가 성립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서독 교사 모두 추가(직업)교육을 받아야 했다. 통일 사회는 특정 책임 영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했다. 전문화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통일사회에서는, 특히 동독 교사는 전통적인 교육 구조와 사고에서 벗어나 틀 밖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했다.

통일된 독일은 특히 유럽연합-교육과정을 외면할 수 없다. 독일은 매우 우수한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의 돌봄과 양육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며, 나아가 다른 유럽 연합국가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아울러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절한 교육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교사들은 외면해서도 안 된다. 어린이 친화적인 교육 개념에 기반하고 세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육학을 공부하며, 전문성에도 토대를 두고 영유아를 돌보고 가르쳐한다는 것을 모든 교사는 잘 알고 있다.

마. 동서독 교사들의 영유아의 돌봄과 양육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와 갈등 발생

동서독 교사들은 통합 과정에서 유치원 현실에 직면하여 상호 간에 비판을 가했다. 동독 유치원 교사들은 서독 유치원 현실에서 만연한 상황을 예컨대 위생 및 안전 예방 조치 불량, 부분적으로 혼란스러운 무질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이의 적합성 문제 등에 대해 비판했다. 반면 서독 관찰자들은 동독 교육자들의 강한(억압적) 질서 지향성, 예컨대 아이들에게 집단 변기를 사용하는 규칙 등을 비판했다. 대체로 상호 간의 키타의 양육과 교육 전통의 약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중 일부 비판은 편견으로 인해 과장되었다. 대다수의 동독 주민의 주관적인 평가에서는 동독에서 공적 자녀 양육과 돌봄이 서독보다 더 좋았고, 이는 통일 이후 악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2007년의 조사에 따르면 동독의 상황을 더 좋게 평가한 사람은 75%(18~24세 사이 81%)였다.²⁷⁵⁾ 영유아의 돌봄에 대한 2009년의 구동독 주의 삭센-안할트(Sachsen-Anhalter)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삭센-안할트 주민들 중에 68%(18~24세 중 55%)는 1990년 이후 영유아의 돌봄이 더 악화되었다고 의식했다.²⁷⁶⁾

그동안 ‘동독의 좋은 면’에 대한 인식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희미해져가고 있지만 널리 퍼져있는 옛 동독에 대한 미화(ostalgische Verklärung)는 여전하다.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그들의 견해는 변화된 현실에도 거의 맞지 않는다. 변화된 구조와 어린이의 필요에 더 강력한 초점을 두는 돌봄과 교육은 통일 직후 많은 동독 교사들에게는 어려웠다. 이는 구동독의 육아 교육에 대한 논리(중앙화, 이데올로기화한 교육, 집단화)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버려야했기 때문에 반감이 높았다고 한다.

오히려 동독 교육의 성과 중 하나는 통일을 이끌어낸 동독의 1989년의 평화 혁명으로 보고 있다. 동독에서 교육을 받고 그 지역에서 통일 후에도 일을 했던

275) Sachsen-Anhalt-Monitor 2007, Politische Einstellungen zwischen Gegenwart und Vergangenheit, S. 58(file:///C:/Users/XNOTE/Downloads/2007%20Politische%20Einstellung%20zwischen%20Gegenwart%20und%20Vergangenheit.pdf(검색일: 2020.9.1)).

276) Sachsen-Anhalt-Monitor 2009, Werte und politisches Bewusstsein. 20 Jahre nach dem Systembruch, S. 80(https://lpb.sachsen-anhalt.de/fileadmin/Bibliothek/Politik_und_Verwaltung/MK/LPB/Sachsen_Anhalt_Monitor_fruhe/Sachsen-Anhalt-Monitor_2009.pdf, 검색일: 2020.9.2).

사람은 동독의 교육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강조했다.

필자와 인터뷰했던 한 분은 베를린 담이 무너지기 직전에 동독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정치운동이 부상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민주적 교육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부상했다고 했다. 그는 통일 직전 1년은 동독에서 유치원 교사교육을 받았고, 통일 후 서독 교육 제도에서 2년간 교육을 받았는데, 동독과 서독 유치원의 교육에서 별 차이를 못 느꼈다고 했다. 자신 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들이 빠르게 서독 교육제도에 적응했다고 했다.(김해순 교수 면담)

그러나 30년이 넘게 서독 키타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이 다녔던 동독 유치원과 비교하면 어린이의 관심과 재능에 주목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의 개별적인 서독 교육이 월등하다고 피력했다.

통일 직후 동독의 과도기는 혼란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베를린시의 교육 지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유치원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춰서 발전시켜나갔다고 한다. (쉐프겐)

동독은 기본적으로 일률적 교육이었다고 한다. 당에 대한 충성, 사회주의 인간 형성에 중점을 둔 동독의 교육은 생활 능력을 키우기보다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교육이었다고 회고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서독을 경험하고 이후에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때로 새로운 교육체제와 형식을 의식에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오늘날 동독 유치원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가 생각하는 서독 교육은 개인의 필요와 능력에 맞게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교육이자, 돌봄 체계였다. 이에 처음에는 동독 유치원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웠음. 현재는 서독 교육이 더 낫고, 아이들에게 더 알맞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Ms.S.면담내용)

많은 시대증언자들은 유치원 자리가 보장된 동독 유치원 제도가 오히려 안정감이 있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시대증언자들은 동독에서 “어린이들은 유치원에 가는 것을 즐겼다”고 회고했다.²⁷⁷⁾ 동독에서 영유아의 돌봄 기관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관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동독 주민이 동독 역사에서 유치원에 대한 모든 이데올로기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와 그 일련에서 시행된 이데올로기적 개념과 정책은 과거에 속한다. 왜냐하면 독일의 두 국가가 통일되면서 ‘실제 현존하는 사회주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영유아의 돌봄 기관과 교사들은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돌봄과 교육에 주목하여 활동하고 교육을 해야 한다.

277) Müller-Rieger, Monika, “Es kann doch nicht alles falsch gewesen sein - oder?,” in: Dies. (Hg.), Wenn Mutti früh zur Arbeitgeht. Berlin: Argon, 1997, S. 11-18, (S. 14).

2. 독일의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

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1980년대에 인간 환경과 천연 자원의 상태가 크게 악화되면서 유엔 총회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들과 공동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브룬트란트 위원회²⁷⁸⁾의 보고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다.”²⁷⁹⁾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행동이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은 예컨대 인간-자연-관계와 정의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교육은 복잡한 상황에 대처하고,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 자신의 관점과 능력을 개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나아가 교육의 역할은 삶, 사회 및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량을 높이는 데 있다. 아울러 인간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불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글로벌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정의로운 미래를 확보하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실천으로 옮겨야 하고, 이는 어린이 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독일은 1980년부터 시작했다.

278) 브룬트란트는 전 노르웨이 여성 총리였으며 '환경과 개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위원장으로 선정되었고, 1983년 12월에 쿠엘라(Javier Pérez de Cuéllar)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되었다. 브룬트란트 위원회는 1987년 10월에 브룬트란트 보고서로 알려진 '우리의 공동 미래(Our Common Future)'를 발표했다. 이후 이 위원회는 1987년 12월에 공식적으로 해산되었고, 1988년 4월에 브룬트란트 위원회를 대신하여 '공동 미래' 센터가 조직되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대중화하기 시작했다(KIEP 오늘의세계경제, RIO+20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012)

279) Grober, Ulrich, *Die Entdeckung der Nachhaltigkeit - Kulturgeschichte eines Begriffs*. München: Verlag Antje Kunstmann, 2013; Alisch, u.a., op. cit., 2015, S. 23.

나.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키타를 위주로

독일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주제를 양육(Erziehung, 학교교육)과 교육에서 다루며, 이를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영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실천해오고 있다. 그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아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자료가 있다. 이 중에 하나를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알리쉬(Alisch)·뷔허(Buehr)·홀츠바우어(Holzbauer)의 저서 “지속가능한 유치원과 ‘정원’(Nachhaltigkeit im Kinder-‘Garten’)”²⁸⁰이다. 이 저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유아교육의 공간 및 경험 지향적 이론’에 주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론을 제시하고, 키타에서 교육과 실행을 위한 교수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저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교수법 이론들과 원칙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 차원(경제, 생태, 사회)을 여러 주제와 연동하여 분석한다. 이를 키타 교육에의 적용과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키타에 맞게 교수법을 적용하면서 이론적 논의를 더 발전시켜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교육이나 적용 방법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키타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제적 이행과 구체적인 교육-행동-프로젝트에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상위 주제들은 생물 다양성(식물과 동물), 기후, 토양, 물, 천연 자원 및 에너지, 순환 및 순환제도이다. 이 상위 주제들에 미래, 문화적 다양성, 평화, 인간의 존엄성, 삶의 질, 영양과 식량, 소비 등과 같은 개별 주제들이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남북한의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 교육은 통일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이 오래 전에 시작되어 키타에서도 일반화되어 가는 맥락을 추후 보다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독일은 통일을 갑자기 맞이하여, 통일 이후의 교육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통일 교육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통일이 되자마자 신연방주(동독)에서도 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학교뿐만 아니라 키타 등에서 실행하기 시작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과 경험이 연구를 통해서 알려지고 이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우리에게 시사한 바 크다고 본다.

280) Alisch, Jeanette Maria und Monika Buehr und Ulrich Holzbauer, *Nachhaltigkeit-, "Garten"*. Aachen: Shaker Verlag GmbH, 2015.

3. 소결

본 장에서는 통일대비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탐색을 위해 독일의 영유아교육·보육 체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영유아 돌봄 및 교육 기관은 통일을 전후하여 많은 변모 과정을 거쳐왔다. 특히 통일 이후 동서독 영유아교육보육기관과 호르트의 돌봄은 큰 변화를 경험했다. 통일 이후 동서독 유치원, 유아원, 혼합형, 호르트의 동서독 간 비율 변화는 다음과 같다. 자료²⁸¹⁾에 따르면 혼합형 키타는 1991년 동독 20.8%, 서독 5.3%에서 2008년에는 동독 74.3%, 서독 32.7%까지 이용률이 증가한 반면, 유치원은 1991년 동독 41.4%, 서독 82.5%에서 2008년 동독 10.7%, 서독 59.9%로 이용률이 감소했다. 즉, 동서독이 통일하던 당시 유치원이 가장 선호하는 기관이었으나, 이후 여러 연령대를 포괄하는 혼합형 유치원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일 이후 독일의 육아지원기관 수를 비교해보면 유치원과 호르트의 수보다 유아원의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²⁸²⁾ 이와 같은 변화는 첫째, 통일 후 어린이 시설의 폐쇄, 둘째, 기업체의 청산 및 해체, 셋째, 동독 여성의 실업률 증가²⁸³⁾, 넷째, 1996년 법제도의 시행에 따른 유치원 비율 증가²⁸⁴⁾에서 기인한다.

통일 이후 30여년이 지난 오늘날 독일에서는 크게 유아원(Kinderkrippe, 0~3세), 유치원(Kindergarten, 4~6세), 호르트(Hort, 6세 또는 7~12세) 또는 학교 호르트(Schulhort, 7~12세)로 기관을 분류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기관(Kindertageseinrichtungen)’인 ‘키타(KiTa)’는 여러 연령대를 포괄하는 혼합형 기관으로 통일 이후 동서독에서 모두 큰 폭으로 시설이 증가했다. 키타, 유아원, 유치원은 종일제로 운영하나 반일제로 돌봄을 받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 밖

281) Kindertagesstaetted und Kindererziehung in Ost- und Westdeutschland (file:///C:/Users/XNOTE/Downloads/UDGJ5E.pdf, 검색일: 2020.8.28).

282) Statistisches Amt des Bundes und der Laender, 2010(<http://www.destatis.de>, 검색일: 2020.7.30).

283) Statistisches Bundesamt, Datenreport 1997, Schriftleihe Band 340. op. cit.,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1999.

284) Kindertagesstaetten und Kindererziehung(file:///C:/Users/XNOTE/Downloads/UDGJ5E.pdf, 검색일: 2020.8.29).

에 ‘종일 어머니 돌봄(Tagesmutterbetreuung)’은 기관 수는 적으나 영아와 유아를 혼합하여 돌본다는 특징이 있으며, 유아원에서는 교사, 양육사(Kinderpfleger) 혹은 간호사(Kinderkrankenpfleger)가 돌봄을 제공한다.

통일 이후 동서독 교사의 통합 과정에서 교사들은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의 적응 과정이 필요했다. 특히 동독의 일원화된 영유아 돌봄 체계에 익숙해 있던 동독 교사들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서독 체계에 적응하기 위하여 훈련을 필요로 했다. 교육 현장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동독 교사들의 교육을 통한 새로운 활동과 지식을 늘려나가는 과정이 이뤄졌다. 또한 교사들이 새로운 지식을 쌓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에도 힘썼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합한 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는 교사들의 노력이 요구되어오고 있으며, 세계화를 반영하는 교육학 습득 및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역량 개발 강화 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해 살펴본 영유아교육보육 기관의 변천 과정 및 교사 통합 과정은 남북한의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교육 및 보육 정책을 구체화 하는데 근거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독일은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의 돌봄 및 양육 업무를 우수하게 추진하고 유럽 연합국가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의의가 있다.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및 보육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통합 체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 독일의 교육·보육 체계 및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통합 체계 구축에의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통일대비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탐색 2 : 평화·통일교육과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01 분석 결과

02 소결

V. 통일대비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탐색 2 : 평화·통일교육과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1. 분석 결과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평화·통일교육 시행 정도 인식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의 시행 정도에 대해 전문가 20명의 평균은 4.4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전문가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1)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가)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방향성에 관한 문제점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제도,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방향성에 관한 문제점' 문항의 델파이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문항은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 통계량 및 LFF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번(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확립, 방향성에 대한 관심과 관련 담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2번(평화·통일교육의 유아교육과정 및 표준보육과정의 반영은 미흡한 편임.), 5번(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남북의 문화 이해 및 소통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이 없어, 개별 교실 상황이나 교사 관심에 따라 평화, 통일 교육 여부가 결정해야 함.), 6번(체계적인 교육보다는 일시적, 단절적 교육에 그치고 있음), 7번(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이 없으므로, 평화통일 교육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11번(유아 평화·통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12번(통일교육은 대부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성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음.), 13번(현행 ‘통일교육지원법’(8조)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만을 언급하고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일교육이 방치되고 있음)의 경우, 1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와 내용타당성이 모두 높았다.

한편, 3번(평화·통일교육을 할 때, 북한을 가난한 나라, 도와주어야 하는 나라로만 접근하여 유아들에게 오히려 편견을 가질 수 있음.), 4번(평화·통일교육을 할 때, 역사성을 소홀히 하는 대신 체제와 발전상을 비교하여 남한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반통일 정서를 오히려 강화시킴.), 9번(북한의 실상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함.), 10번(한반도, 한민족, 서로 돕기 등 추상적, 이론적, 지식적 접근을 하고 있음.) 문항의 경우, 4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내용타당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번(평화·통일교육이라 부르나 군국주의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 국민국가중심의 국가주도 안보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과 14번(한민족으로서의 역사적 정체성과 인종적 동일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다문화 시대의 흐름에 적절하지 않음.) 문항은 3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와 내용타당성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즉,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 평화·통일교육에 대해 군국주의적 안보교육을 한다는 의견과 한민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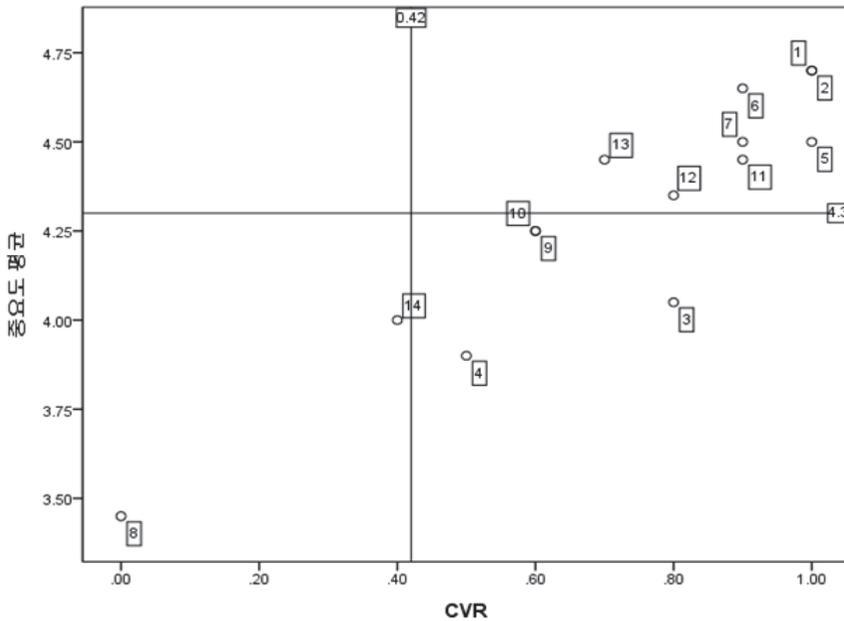
〈표 V-1-1〉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방향성에 관한 문제점

항목	평균	표준 편차	CVR	CV	LFF	
1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확립, 방향성에 대한 관심과 관련 담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4.70	0.47	1.00	0.10	I
2	평화·통일교육의 유아교육과정 및 표준보육과정의 반영은 미흡한 편임.	4.70	0.47	1.00	0.10	I
3	평화·통일교육을 할 때, 북한을 가난한 나라, 도와주어야 하는 나라로만 접근하여 유아들에게 오히려 편견을 가질 수 있음.	4.05	0.69	0.80	0.17	IV
4	평화·통일교육을 할 때, 역사성을 소홀히 하는 대신 체제와 발전상을 비교하여 남한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반통일 정서를 오히려 강화시킴.	3.90	0.91	0.50	0.23	IV
5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남북의 문화 이해 및 소통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이 없어, 개별 교실 상황이나 교사 관심에 따라 평화, 통일 교육 여부가 결정해야 함.	4.50	0.51	1.00	0.11	I
6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일시적, 단절적 교육에 그치고 있음. (목적, 목표, 교육내용의 비구체화)	4.65	0.59	0.90	0.13	I

V. 통일대비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탐색 2 : 평화·통일교육과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항목	평균	표준 편차	CVR	CV	LFF
7	4.50	0.61	0.90	0.13	I
8	3.45	1.23	0.00	0.36	III
9	4.25	0.79	0.60	0.19	IV
10	4.25	0.91	0.60	0.21	IV
11	4.45	0.60	0.90	0.14	I
12	4.35	0.81	0.80	0.19	I
13	4.45	0.76	0.70	0.17	I
14	4.00	0.92	0.40	0.23	III
전체 평균	4.30	0.72	0.73	0.17	

[그림 V-1-1] LFF 분석결과(현황과 방향성에 관한 문제점)



나)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방향성에 관한 정책제언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제도,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방향성에 관한 정책제언’ 문항의 델파이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문항은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 통계량 및 LFF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번(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교육·보육 철학 및 교육의 목적과 목표, 추구하는 인간상 등 교육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5번(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제8조에는 유치원을 포함시키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7번(남북한의 유아교육과 보육 공공성을 확대하고, 남북한의 기관에 따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차이를 최소화해야 함), 8번(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 9번(남북한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연구 활성화가 필요), 10번(북한에 대한 대상화, 적대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디톡스가 우선 필요), 12번(고정되고 단일한 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아닌 유동적이고 다채로운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함), 14번(세계와 연관된 인재상을 설정하고, 질서, 평화유지방식, 갈등극복전략, 영유아 인권, 교육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17번(통일교육의 방향성 또한 전체 플랜 속에서 영유아교육자들의 사회적 합의, 숙의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우선 필요), 20번(교육의 방향은 세계시민교육, 배려와 협력, 공존과 존중, 타인이해 및 평화이해, 포용과 사랑의 방향이어야 함)의 경우, 1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와 내용타당도가 모두 높았다.

한편, 1번(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큰 방향을 정하고, 지자체별로 지역적 특성 및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함.), 4번(평화·통일교육을 고려할 때, 남북한 법제 및 학제 통합, 남북한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의 교육·보육 연한 통합, 교육과정 통합, 교사양성과정 통합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6번(남북한이 사용하는 용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18번(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통합마스터플랜을 구축하고, 분야별 추진과제도출이 필요), 19번(당분간 남·북의 교육체제를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을 모색하되 신념과 철학 부분의 방향성은 하나의 민족과 더불어 흥익인간정신,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 보육의 실재를 실천적 방향성을 구축해야 할 것임) 문항의 경우, 4사분면

에 위치하여,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내용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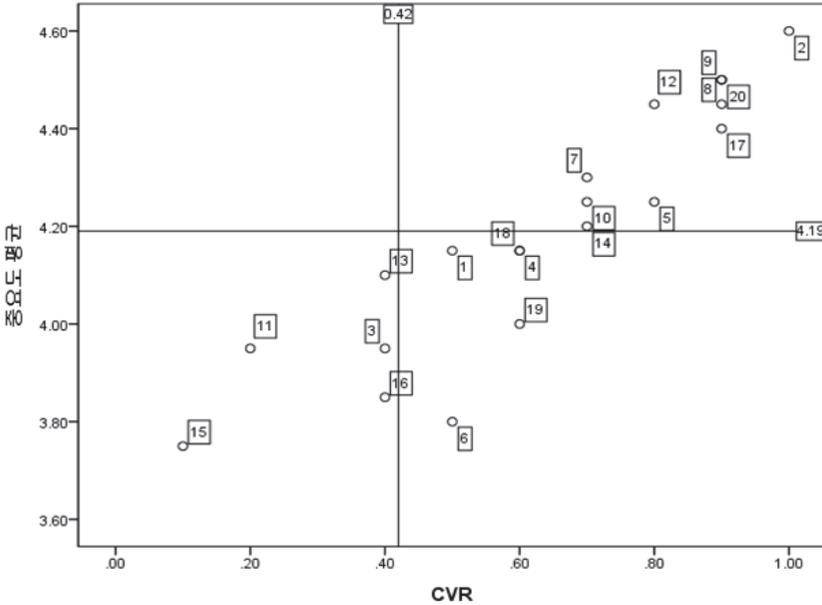
반면, 3번(표준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며 민주시민교육이 핵심이기 때문에 모든 단원과 주제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함)과 11번(국민국가의 틀은 최소한의 구분 정도로 인식하고 지구에 공존하는 지구시민성의 관점에서 정체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유아교육과정부터 담아 내야함.), 13번(총체적 교육, 남북한 교육관, 발달에 적합한 놀이중심교육에 대하여 국가수준에서 합의된 통일교육이 필요함.), 15번(자유와 평화에 대한 양국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 필요), 16번(유아 의무교육, 무상교육 적용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문항은 3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와 내용타당성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즉,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든 단원과 주제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 지구시민성의 관점을 유아교육과정에 담자는 의견, 남북한의 합의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자유와 평화에 대한 양국의 합의점을 찾자는 의견, 남북한 의무교육 무상교육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방향성에 관한 정책제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CVR	CV	LFF
1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큰 방향을 정하고, 지자체별로 지역적 특성 및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함.	4.15	0.93	0.50	0.22	Ⅳ
2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교육·보육 철학 및 교육의 목적과 목표, 추구하는 인간상 등 교육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4.60	0.50	1.00	0.11	Ⅰ
3	표준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민주시민교육으로 모든 단원과 주제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함.	3.95	1.15	0.40	0.29	Ⅲ
4	평화·통일교육을 고려할 때, 남북한 법제 및 학제 통합, 남북한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의 교육·보육 연한 통합, 교육과정 통합, 교사양성과정 통합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4.15	1.27	0.60	0.31	Ⅳ
5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제8조에는 유치원을 포함시키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4.25	0.97	0.80	0.23	Ⅰ
6	남북한이 사용하는 용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3.80	1.36	0.50	0.36	Ⅳ

	항목	평균	표준 편차	CVR	CV	LFF
7	남북한의 유아교육과 보육 공공성을 확대하고, 남북한의 기관에 따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차이를 최소화해야 함.	4.30	0.86	0.70	0.20	I
8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함,	4.45	0.76	0.90	0.17	I
9	남북한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연구 활성화가 필요함.	4.50	0.61	0.90	0.13	I
10	북한에 대한 대상화, 적대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디톡스(detox)가 우선 필요함.	4.25	0.72	0.70	0.17	I
11	국민국가의 틀은 최소한의 구분 정도로 인식하고 지구에 공존하는 지구시민성의 관점에서 정체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유아교육과정부터 담아 내야 함.	3.95	1.15	0.20	0.29	III
12	고정되고 단일한 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아닌 유동적이고 다채로운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함.	4.45	0.69	0.80	0.15	I
13	총체적 교육, 남북한 교육관, 발달에 적합한 놀이중심교육에 대하여 국가수준에서 합의된 통일교육이 필요함.	4.10	0.97	0.40	0.24	III
14	세계와 연관된 인재상을 설정하고, 질서, 평화유지방식, 갈등극복전략, 영유아인권, 교육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함,	4.20	0.83	0.70	0.20	I
15	자유와 평화에 대한 양국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 필요함.	3.75	1.16	0.10	0.31	III
16	유아 의무교육, 무상교육 적용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북한은 만5세 의무교육, 남한은 부분 무상교육)	3.85	1.09	0.40	0.28	III
17	통일교육의 방향성 또한 전체 플랜 속에서 영유아교육자들의 사회적 합의, 숙의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우선 필요함.	4.40	0.75	0.90	0.17	I
18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통합마스터플랜을 구축하고, 분야별 추진과제도출이 필요함.	4.15	0.99	0.60	0.24	IV
19	당분간 남·북의 교육체제를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을 모색하되 신념과 철학 부분의 방향성은 하나의 민족과 더불어 흥익인간정신,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 보육의 실재를 실천적 방향성을 구축해야 할 것임.	4.00	0.92	0.60	0.23	IV
20	교육의 방향은 세계시민교육, 배려와 협력, 공존과 존중, 타인 이해 및 평화이해, 포용과 사랑의 방향이어야 함.	4.50	0.61	0.90	0.13	I
전체 평균		4.19	0.91	0.63	0.22	

[그림 V-1-2] LFF 분석결과(현황과 방향성에 관한 정책제언)



2)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

가)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점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점’ 문항의 델파이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문항은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 통계량 및 LFF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번(2019 개정 누리과정에 북한 및 평화통일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관련 교육내용이 부재함.), 2번(평화·통일교육은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중 ‘더불어 사는 사람’, 5개 영역 중 ‘사회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나 생활주제 및 교육적 접근에 대한 오해로 평화, 통일 관련 교육은 실제 교육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함.), 4번(초등교육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강화 필요하며 북한의 사회,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7번(2019 개정 누리과정에 사회관계에서 통일교육을 담아내고자 하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단일한 정체성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국가주의적 한계가 명료함. 북한에 대한 이질성과 동질성에 대한 감각을 고루 형성하겠다는 목표와 교육과정

구성이 괴리되어 있음.), 8번(세계시민이라는 지향과 국민국가 지향 사이에서 유아 교육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음.), 9번(현재 통일교육과 관련한 활동자료는 많지 않음.), 11번(북한의 정치사상교육, 교과목식으로 편성된 교육과정과 대한민국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상반된 철학과 내용이 상충될 것으로 예상됨)의 경우, 1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와 내용타당도가 모두 높았다.

한편, 6번(누리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거의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성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10번(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유아교육내용이 상당히 피상적이고 이해가 어려움.)의 경우, 4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내용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번(북한을 세계여러나라 중 하나로 가볍게 다루고 있음.)과 5번(현재 평화·통일교육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해외아동 구호를 위한 지구촌 나눔교육 등 단순한 이벤트식 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12번(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인식도는 높으나 실천도는 낮다고 할 수 있음.) 문항은 3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와 내용타당성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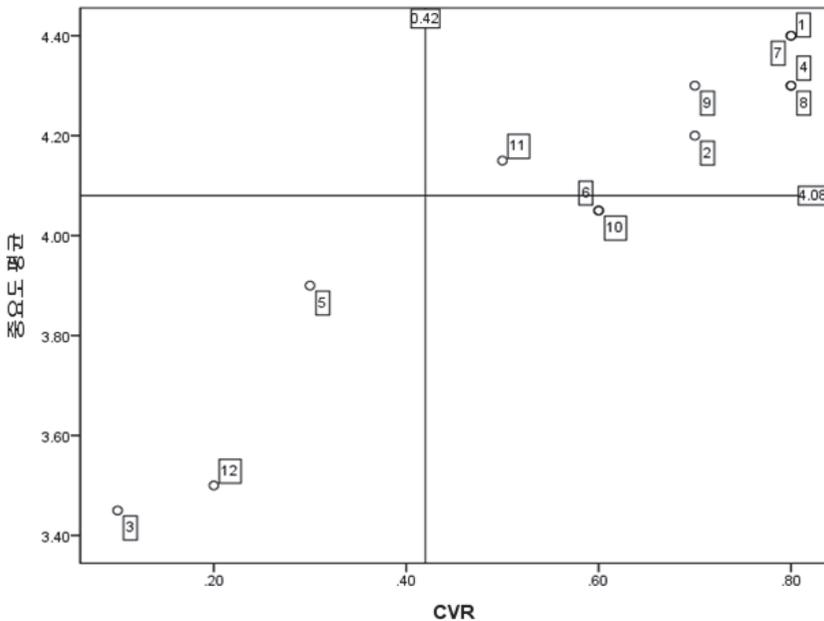
〈표 V-1-3〉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점

	항목	평균	표준 편차	CVR	CV	LFF
1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북한 및 평화통일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관련 교육내용이 부재함.	4.40	0.68	0.80	0.15	I
2	평화·통일교육은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중 '더불어 사는 사람', 5개 영역 중 '사회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나 생활주제 및 교육적 접근에 대한 오해로 평화, 통일 관련 교육은 실제 교육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함.	4.20	1.01	0.70	0.24	I
3	북한을 세계여러나라 중 하나로 가볍게 다루고 있음.	3.45	1.19	0.10	0.35	III
4	초등교육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강화 필요하며 북한의 사회,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4.30	0.80	0.80	0.19	I
5	현재 평화·통일교육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해외아동 구호를 위한 지구촌 나눔교육 등 단순한 이벤트식 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3.90	1.02	0.30	0.26	III
6	누리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거의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성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4.05	1.05	0.60	0.26	IV

V. 통일대비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탐색 2 : 평화·통일교육과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항목	평균	표준 편차	CVR	CV	LFF
7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사회관계에서 통일교육을 담아내고자 하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단일한 정체성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국가주의적 한계가 명료함. 북한에 대한 이질성과 동질성에 대한 감각을 고루 형성하겠다는 목표와 교육과정 구성이 괴리되어 있음.	4.40	0.82	0.80	0.19	I
8 세계시민이라는 지향과 국민국가 지향 사이에서 유아교육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음.	4.30	0.98	0.80	0.23	I
9 현재 통일교육과 관련한 활동자료는 많지 않음.	4.30	0.73	0.70	0.17	I
10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유아교육내용이 상당히 피상적이고 이해가 어려움.	4.05	0.83	0.60	0.20	IV
11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교과목식으로 편성된 교육과정과 대한민국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상반된 철학과 내용이 상충될 것으로 예상됨.	4.15	0.93	0.50	0.22	I
12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인식도는 높으나 실천도는 낮다고 할 수 있음.	3.50	0.83	0.20	0.24	III
전체 평균	4.08	0.91	0.58	0.23	

[그림 V-1-3] LFF 분석결과(교육과정에 관한 문제점)



나)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제언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제도, 평화·통일교육의 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제언’ 문항의 델파이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문항은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 통계량 및 LFF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번(평화감수성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평화공동체의 내용이 누리과정 전반에 포함되어야 함), 4번(누리과정의 사회관계 영역과 연계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공통점과 차이점),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상호존중, 소통, 배려 등)을 주요교육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7번(누리과정의 사회생활 영역을 확대 개편하여, 세계시민교육, 민주정치교육, 공동체 의식 등을 보충할 필요가 있음), 10번(분단과 통일에 대한 개념 보다는 보편적인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과정이 중요함. 유치원 과정부터 체계적인 평화교육 프로그램과 평화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내용 마련이 필요함), 11번(평화와 통일이 라는 개념의 ‘교육적 함의’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함), 12번(누리과정에 평화 감수성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 관련 핵심역량 포함), 14번(유치원·어린이집에서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관련 지침 및 정책 문서 보완 필요), 16번(북한 유치원의 문서화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실행되는 교육과정의 다양성에 대한 자료분석이 요구됨)의 경우, 1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와 내용타당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13번(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 체계의 확대를 통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유아교육·보육학계 및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 학부모 집단의 참여 유도 필요) 문항은 2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는 높지만, 내용타당도는 낮게 나타났다.

반면, 2번(사회관계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분단과정에 관한 교육과 현재 상황에서의 한반도의 통일 지향적인 교육에 대한 내용을 누리과정에 삽입해야 함.), 3번(북한에 대한 친근감과 풍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북한의 어린이들이 현재 즐기는 동요, 동시, 놀이, 문학작품 그리고 현재 북한 어린이들의 관심사나 유치원 생활 등 실제 생활 경험을 접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5번(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활동 제공을 고려해볼 수 있음.), 6번(최근 북한 영유아교육과정도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내용으로 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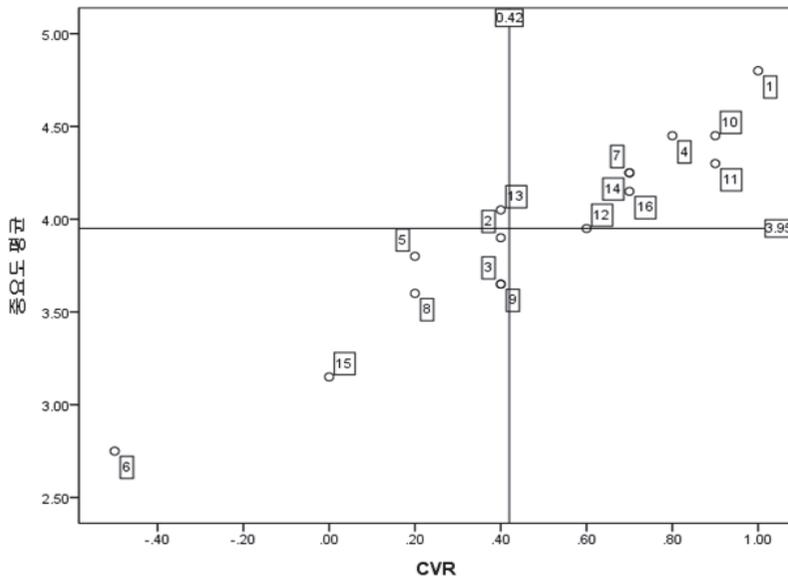
자 노력하기 때문에 남한의 교육과정과 통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8번(유아 및 보육기관의 특성에 맞는 평화·통일 교육 연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함.), 9번(민족의 동질성 고취를 위한 노력 경주, 이를 위한 언어, 풍습, 문화유산 등 교육자료 연구와 보급 필요), 15번(북한알기'라는 독립된 생활주제를 개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과 발전상을 제시하여 통일의 필요성과 꿈을 확산 시킴. 인터넷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북한의 유적, 명승지 관람 및 여행하기 등을 실현 필요) 문항의 경우, 3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와 내용타당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표 V-1-4〉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제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CVR	CV	LFF	
1	평화감수성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평화 공동체의 내용이 누리과정 전반에 포함되어야 함.	4.80	0.41	1.00	0.09	I
2	사회관계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분단과정에 관한 교육과 현재 상황에서의 한반도의 통일 지향적인 교육에 대한 내용을 누리과정에 삽입해야 함.	3.90	0.97	0.40	0.25	III
3	북한에 대한 친근감과 풍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북한의 어린이들이 현재 즐기는 동요, 동시, 놀이, 문학작품 그리고 현재 북한 어린이들의 관심사나 유치원 생활 등 실제 생활 경험을 접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3.65	1.27	0.40	0.35	III
4	누리과정의 사회관계 영역과 연계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공통 점과 차이점),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상호존중, 소통, 배려 등)을 주요교육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4.45	0.69	0.80	0.15	I
5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활동 제고를 고려해볼 수 있음.	3.80	1.15	0.20	0.30	III
6	최근 북한 영유아교육과정도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내용으로 가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남한의 교육과정과 통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75	1.12	0.50	0.41	III
7	누리과정의 사회생활 영역을 확대 개편하여, 세계시민교육, 민주정치교육, 공동체 의식 등을 보충할 필요가 있음.	4.25	0.85	0.70	0.20	I
8	유아 및 보육기관의 특성에 맞는 평화·통일 교육 연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함.	3.60	0.99	0.20	0.28	III
9	민족의 동질성 고취를 위한 노력 경주, 이를 위한 언어, 풍습, 문화유산 등 교육자료 연구와 보급이 필요함.	3.65	0.99	0.40	0.27	III

항목	평균	표준 편차	CVR	CV	LFF
10	4.45	0.94	0.90	0.21	I
11	4.30	0.73	0.90	0.17	I
12	3.95	0.94	0.60	0.24	I
13	4.05	1.19	0.40	0.29	II
14	4.25	0.72	0.70	0.17	I
15	3.15	1.14	0.00	0.36	III
16	4.15	1.09	0.70	0.26	I
전체 평균	3.95	0.95	0.55	0.25	

[그림 V-1-4] LFF 분석결과(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제언)



3)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교육과정 관련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교육과정 관련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문항의 델파이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문항은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 통계량 및 LFF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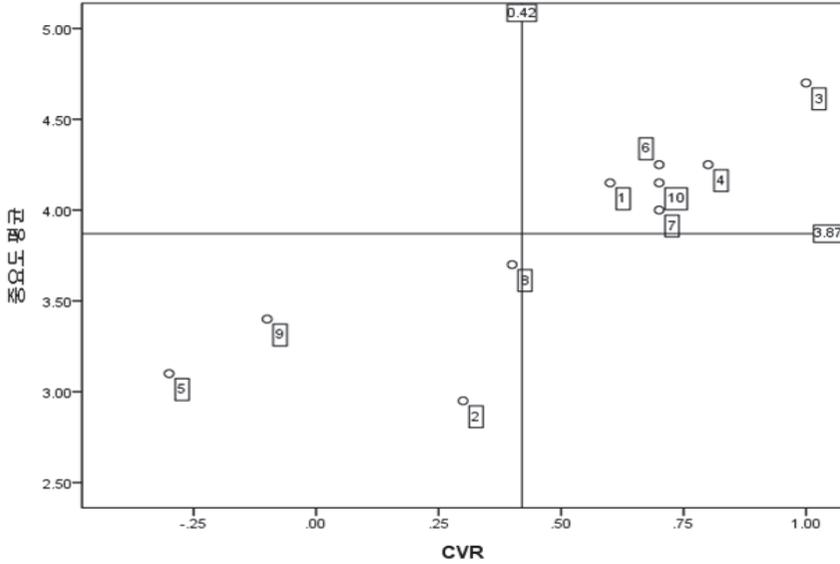
1번(교육과정의 구성요소/영역은 유사하나, 교육신념과 가치 및 교육목적의 차이로 인한 통합의 어려움이 예상됨), 3번(통일이 된다고 해도 체제상 통합은 어려울 것이므로, 교육과정은 미래대비교육,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평화교육을 유아기부터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4번(통일 직후에는 남북한 각각의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통일 전부터 논의되어왔던 공통내용들을 교육과정 운영에 부분적으로 포함하게 됨), 6번(남북한의 유아교육·보육 전문가가 모여 통일 이후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 있음. 한 번에 교육과정을 통합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점차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임.), 7번(북한에서의 놀이 중심의 통합교육 이론 도입은 남북한 공통의 유아교육과정 정립을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 가능), 10번(남북한 교육과정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유아교육과정 통합의 예를 다양화 할 필요 있음). 통일 이후, 북한 거주 영유아 대상으로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음)의 경우, 1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와 내용타당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반면, 2번(통일이 되면, 북한의 교육과정은 실제적으로 남한화 되고, 남한의 교육과정에는 북에 대한 형식적 소개(언어, 음식 등) 중심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5번(북한 유아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정치사상교육 측면만 거둬내면 통합에 별문제가 없으나 교수방법 등에서 기본적인 개념정의, 용어정의 등을 조율해야함.), 8번(한과 남한 각각 국가수준교육과정을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통일 3년 이후 정도부터 점차 공통교육과정을 위한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음.), 9번(남북한이 반드시 동일한 교육과정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봄.) 항목의 경우, 3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와 내용타당도 모두 낮게 나타났다.

〈표 V-1-5〉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교육과정 관련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항목	평균	표준 편차	CVR	CV	LFF
1	교육과정의 구성요소/영역은 유사하나, 교육신념과 가치 및 교육목적의 차이로 인한 통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4.15	0.88	0.60	0.21	I
2	통일이 되면, 북한의 교육과정은 실제적으로 남한화 되고, 남한의 교육과정에는 북에 대한 형식적 소개(언어, 음식 등) 중심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2.95	0.94	0.30	0.32	III
3	통일이 된다고 해도 체제상 통합은 어려울 것이므로, 교육과정은 미래대비교육,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평화교육을 유아기부터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4.70	0.47	1.00	0.10	I
4	통일 직후에는 남북한 각각의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통일 전부터 논의되어왔던 공통내용들을 교육과정 운영에 부분적으로 포함하게 됨.	4.25	0.64	0.80	0.15	I
5	북한 유아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정치사상교육 측면만 거둬내면 통합에 별문제가 없으나 교수방법 등에서 기본적인 개념정의, 용어정의 등을 조율해야 함.	3.10	1.07	(0.30)	0.35	III
6	남북한의 유아교육·보육 전문가가 모여 통일 이후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 있음. 한 번에 교육과정을 통합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점차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임.	4.25	1.02	0.70	0.24	I
7	북한에서의 놀이 중심의 통합교육 이론 도입은 남북한 공통의 유아교육과정 정립을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 가능함.	4.00	0.92	0.70	0.23	I
8	북한과 남한 각각 국가수준교육과정을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통일 3년 이후 정도부터 점차 공통교육과정을 위한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음,	3.70	0.80	0.40	0.22	III
9	남북한이 반드시 동일한 교육과정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봄.	3.40	1.05	(0.10)	0.31	III
10	남북한 교육과정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유아교육과정 통합의 예를 다양화 할 필요 있음(예. 놀이중심 통합-남한형, 주생활동중심 통합형-북한형). 통일 이후, 북한 거주 영유아 대상으로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음.	4.15	0.81	0.70	0.20	I
전체 평균		3.87	0.86	0.48	0.23	

[그림 V-1-5] LFF 분석결과(교육과정 관련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4)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사교육

가)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사교육의 문제점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사교육에 관한 문제점’ 문항의 델파이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문항은 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 통계량 및 LFF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번(교사양성기관에서의 통일교육은 형식적이며, 단위 특강으로 대부분 시행됨), 4번(임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회의 돌봄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과 현장의 과중한 노동으로 통일, 평화 등의 주제를 교사교육 과정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현실임.), 6번(유아교사 양성과정에 북한 유아교육이나 평화통일 교육 관련 교과서가 부재함.), 7번(유아교사를 포함하여 교직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통일교육을 수강하고 있음. 이런 경우 통일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강좌가 구성되므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현장실천과 관련된 내용이 부족함.), 8번(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에서 풀어나갈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9번(교사이해자료, 교사 연수,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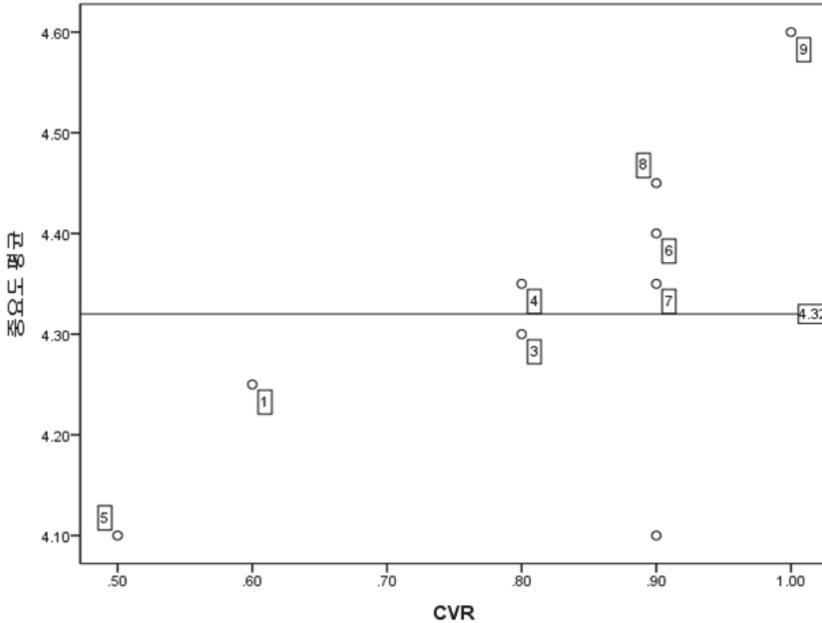
족)경우, 1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와 내용타당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1번(유치원 자격증 승급교육, 원장 자격 교육 등에서 통일교육을 다루고 있지만, 유아교육을 모르는 강사에 의해 교육되고 있어 강의를 들은 후에도 유치원 현장에 적용점을 찾기는 힘들, 어린이집 승급, 직무교육에서는 '다문화 교육'에서 다룰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교수요목은 제시되고 있지 않음), 3번(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는 '유아사회교육' 등의 과목에서 중점적 주제로 다루어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평화, 통일에 대한 주제 누락됨.), 5번(교사들 역시 국가중심의 안보교육의 틀을 벗어나 본 경험 없이 새로운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음.),

〈표 V-1-6〉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사교육의 문제점

	항목	평균	표준 편차	CVR	CV	LFF
1	유치원 자격증 승급교육, 원장 자격 교육 등에서 통일교육을 다루고 있지만 유아교육을 모르는 강사에 의해 교육되고 있어 강의를 들은 후에도 유치원 현장에 적용점을 찾기는 힘들, 어린이집 승급, 직무교육에서는 '다문화 교육'에서 다룰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교수요목은 제시되고 있지 않음.	4.25	0.79	0.60	0.19	IV
2	교사양성기관에서의 통일교육은 형식적이며, 단위 특강으로 대부분 시행됨.	4.10	0.85	0.90	0.21	I
3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는 '유아사회교육' 등의 과목에서 중점적 주제로 다루어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평화, 통일에 대한 주제 누락됨.	4.30	0.66	0.80	0.15	IV
4	임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회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과 현장의 과중한 노동으로 통일, 평화 등의 주제를 교사교육과정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현실임.	4.35	0.67	0.80	0.15	I
5	교사들 역시 국가중심의 안보교육의 틀을 벗어나 본 경험 없이 새로운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음.	4.10	0.79	0.50	0.19	IV
6	유아교사 양성과정에 북한 유아교육이나 평화통일 교육 관련 교과서가 부재함.	4.40	0.60	0.90	0.14	I
7	유아교사를 포함하여 교직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통일교육을 수강하고 있음. 이런 경우 통일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강좌가 구성되므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현장실천과 관련된 내용이 부족함.	4.35	0.59	0.90	0.13	I
8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에서 풀어나갈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4.45	0.60	0.90	0.14	I
9	교사이해자료, 교사 연수,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함.	4.60	0.50	1.00	0.11	I
전체 평균		4.32	0.67	0.81	0.16	

[그림 V-1-6] LFF 분석결과(교사교육의 문제점)



나)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사교육에 관한 정책제언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사교육에 관한 정책제언’ 문항의 델파이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문항은 2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 통계량 및 LFF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번(양성과정에서 사이버를 통한 교육보다는 활발한 토의 및 남북 교육자료의 직접 경험, 유아교육기관 참관, 현장전문가 특강 및 질의응답 등의 대면교육을 진행할 필요 있음.), 3번(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편적 평화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위해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교사교육이 지속되어야 함), 5번(교사들이 일상에서 평화감수성을 키우는 교육내용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 예술을 접목시킨 평화교육 연수와 평화·통일교육의 대한 교사교육이 필요함.), 6번(교구와 교재 보급,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교사들이 먼저 평화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함.), 7번(어린이집, 유치중고의 교사양성과정 및 재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이 필수과정으로 다루어져야 함), 8번(통일부 통일교육원 원내교육 과정 학교통일교

육 및 통일교육전문강사 교육대상에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도 포함시킬 필요 있음), 9번(민주시민교육, 다문화 교육, 반편견 교육, 평화교육 등 다양한 내용도 고려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학습 모형을 개발 해야 함), 10번(평화·통일교육 역량의 개념 설정이 필요함.), 20번(철학, 인문학 등 남한의 교사양성과정에서 약화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 강화를 통해 탈북자, 북한 등 타자에 대한 교사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선제될 필요), 21번(주무부서의 통합과 재원확보에 대한 모색이 요구됨), 22번(남북한 교사양성 제도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교사양성 통합 모델 마련, 남북한 영유아 교사 간 교류 및 소통 채널 확보), 23번(남북한 유아교육·보육의 이질성과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북한 교원간 왕래를 활성화 필요), 24번(재교육시스템은 무엇보다도 통일 후의 역사의 재인식과 통일한국의 가치관과 신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재교육 내용이 요구됨)의 경우, 1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와 내용타당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13번(교사들이 북한에 관한 자료나 통일교육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 또는 앱 개발 필요), 19번(통일 대비한 교사양성 및 재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책 매뉴얼 제작 필요(북한 교사양성과정의 교과와 한국 교사양성과정의 공통 교과 및 추가 이수 교과 선정 등) 항목의 경우, 4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내용타당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4번(교사교육에 분단이 되기 과정과 이에 따른 역사교육도 필요함) 항목은 2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는 높으나, 내용타당도는 낮게 나타났다.

반면, 11번(교사교육은 북한에대한이해, 평화통일에대한이해, 평화·통일교육수행능력(교육과정구성,교수학습방법등)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12번(토론 및 사례나눔의 교사교육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 14번(양성교육과 재교육을 통해 북한유아교육의 실상과 통일대비교육에 대한 교사교육 강화하되, 과목 개설 보다 10시간 정도 이수제 도입), 15번(교사가 속해 있는 문화(교사-기관,교사-교사,교사-부모 등)안에서 ‘사회적 위치, 힘의 위계 등’, ‘민주적 협의과정 및 협의체’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필요함.), 16번(3세 미만 영아전담교사양성과 3-5세 유치원 교사 양성을 이원화함으로써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보육수요 제공), 17번(통일에 대비하여 남한에서의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양성체제,선발체제,재교육체제 및 보수체제의 일원화 필요), 18번(공사립 구분없이 국가고사를 통한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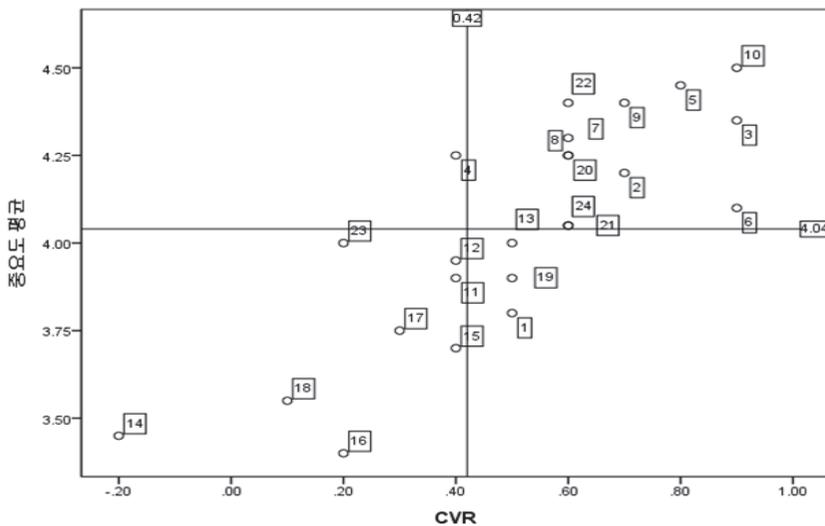
발, 정부가 급여 제공해야 함.) 항목의 경우, 3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와 내용 타당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표 V-1-7〉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사교육에 관한 정책제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CVR	CV	LFF
1	유아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에 북한 유아교육·보육 이해 및 평화통일 교육 관련 교과목의 편성이 필요함.	3.80	1.44	0.50	0.38	Ⅳ
2	양성과정에서 사이버를 통한 교육보다는 활발한 토의 및 남북 교육자료의 직접 경험, 유아교육기관 참관, 현장전문가 특강 및 질의응답 등의 대면교육을 진행할 필요 있음.	4.20	0.70	0.70	0.17	Ⅰ
3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편적 평화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위해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교사교육이 지속되어야 함.	4.35	0.75	0.90	0.17	Ⅰ
4	교사교육에 분단이 되기 과정과 이에 따른 역사교육도 필요함.	4.25	0.91	0.40	0.21	Ⅱ
5	교사들이 일상에서 평화감수성을 키우는 교육내용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 예술을 접목시킨 평화교육 연수와 평화·통일 교육의 대한 교사교육이 필요함.	4.45	0.83	0.80	0.19	Ⅰ
6	교구와 교재 보급,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교사들이 먼저 평화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함.	4.10	0.64	0.90	0.16	Ⅰ
7	어린이집, 유치중고의 교사양성과정 및 재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이 필수과정으로 다루어져야 함.	4.30	0.73	0.60	0.17	Ⅰ
8	통일부 통일교육원 원내교육 과정 학교통일교육 및 통일교육 전문강사 교육대상에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4.25	0.91	0.60	0.21	Ⅰ
9	민주시민교육, 다문화 교육, 반편견 교육, 평화교육 등 다양한 내용도 고려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학습 모형을 개발해야 함	4.40	0.75	0.70	0.17	Ⅰ
10	평화·통일교육 역량의 개념 설정이 필요함.	4.50	0.61	0.90	0.13	Ⅰ
11	교사교육은 북한에대한이해, 평화통일에대한이해, 평화·통일교육수행능력(교육과정구성,교수학습방법등)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3.90	0.85	0.40	0.22	Ⅲ
12	토론 및 사례나눔의 교사교육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	3.95	0.89	0.40	0.22	Ⅲ
13	교사들이 북한에 관한 자료나 통일교육자료를 쉽게 접할수 있는 플랫폼 또는 앱개발이 필요함,	4.00	0.86	0.50	0.21	Ⅳ
14	양성교육과 재교육을 통해 북한유아교육의 실상과 통일대비교육에 대한 교사교육 강화하되, 과목 개설 보다 10시간 정도 이수제 도입이 필요함.	3.45	0.89	(0.20)	0.26	Ⅲ
15	교사가속해있는문화(교사-기관,교사-교사,교사-부모등)안에서 '사회적위치, 힘의 위계 등', '민주적 협의과정 및 협의체'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필요함.	3.70	1.08	0.40	0.29	Ⅲ

	항목	평균	표준 편차	CVR	CV	LFF
16	3세 미만 영아전담교사양성과 3-5세 유치원 교사 양성을 이원화함으로써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보육수요 제공해야 함.	3.40	1.31	0.20	0.39	III
17	통일에 대비하여 남한에서의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양성체제, 선발체제, 재교육체제 및 보수체제의 일원화 필요함,	3.75	1.16	0.30	0.31	III
18	공사립 구분없이 국가고사를 통한 선발, 정부가 급여 제공해야 함.	3.55	1.39	0.10	0.39	III
19	통일 대비한 교사양성 및 재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책 매뉴얼 제작이 필요함(북한 교사양성과정의 교과와 한국 교사양성과정의 공통 교과 및 추가 이수 교과 선정 등).	3.90	1.17	0.50	0.30	IV
20	철학, 인문학 등 남한의 교사양성과정에서 약화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 강화를 통해 탈북자, 북한 등 타자에 대한 교사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선제될 필요함.	4.25	1.02	0.60	0.24	I
21	주무부서의 통합과 재원확보에 대한 모색이 요구됨.	4.05	0.94	0.60	0.23	I
22	남북한 교사양성 제도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교사양성 통합 모델 마련, 남북한 영유아 교사 간 교류 및 소통 채널 확보	4.40	0.82	0.60	0.19	I
23	남북한 유아교육·보육의 이질성과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북한 교원간 양래를 활성화 필요함.	4.00	0.92	0.20	0.23	I
24	재교육시스템은 무엇보다도 통일 후의 역사의 재인식과 통일한 국의 가치관과 신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재교육 내용이 요구됨.	4.05	0.94	0.60	0.23	I
전체 평균		4.04	0.94	0.53	0.24	

[그림 V-1-7] LFF 분석결과(교사교육에 관한 정책제언)



5)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교사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교사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문항의 델파이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문항은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 통계량 및 LFF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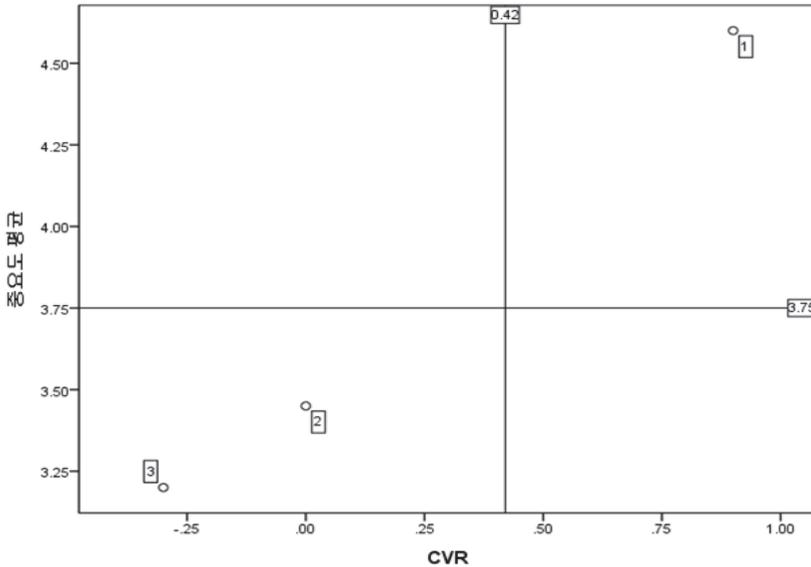
1번(북한 유치원 교양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은 남한 유아교육과로, 북한 보육원을 양성하는 ‘보육원양성소’은 남한 보육과로 통합되어야 하는데 양성기간 및 자격에서 남북의 제도가 상이함. 또한 남한의 경우에는 교사양성과정이 유아교육과, 보육과, 보육교사교육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으로 혼재되어 있고, 양성 기간도 달라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요구됨.) 문항의 경우만, 1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와 내용타당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반면, 2번(통일이 되면, 남북 모두에서 남한 출신 교사 선호하며, 남한에서는 언어 등의 문제로 북한 출신 교사 배제, 혹은 특별활동 교사 등 한시적 채용할 가능성이 높음.), 3번(통일 후, 보육교사의 경우 북한 6개월, 남한 1년 이상인 점을 볼 때 불일치 부분은 원격교육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어 조정 및 보충교육이 필요. 유치원 교사는 남북한 모두 3년제 이상이므로 큰 문제 없음.) 문항은 3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와 내용타당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표 V-1-8〉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교사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항목	평균	표준 편차	CVR	CV	LFF
1	북한 유치원 교양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은 남한 유아교육과로, 북한 보육원을 양성하는 ‘보육원양성소’은 남한 보육과로 통합되어야 하는데 양성기간 및 자격에서 남북의 제도가 상이함. 또한 남한의 경우에는 교사양성과정이 유아교육과, 보육과, 보육교사교육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으로 혼재되어 있고, 양성 기간도 달라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요구됨.	4.60	0.60	0.90	0.13	I
2	통일이 되면, 남북 모두에서 남한 출신 교사 선호하며, 남한에서는 언어 등의 문제로 북한 출신 교사 배제, 혹은 특별활동 교사 등 한시적 채용할 가능성이 높음.	3.45	1.28	0.00	0.37	III
3	통일 후, 보육교사의 경우 북한 6개월, 남한 1년 이상인 점을 볼 때 불일치 부분은 원격교육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어 조정 및 보충교육이 필요. 유치원 교사는 남북한 모두 3년제 이상이므로 큰 문제 없음.	3.20	1.06	-0.30	0.33	III
전체 평균		3.75	0.98	0.2	0.28	

[그림 V-1-8] LFF 분석결과(남북한 교사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6)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연계 등

가)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연계 등의 문제점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연계 등의 문제점’ 문항의 델파이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문항은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 통계량 및 LFF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4번(한국은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평화, 통일은 당연한 국가적 주제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 지역적 관심이 협소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평화, 통일 문제를 교육과정으로 다루고자 하는 시도가 빈약함), 5번(최근 지역사회에서의 평화통일 주제는 문재인 정권 100대 과제 중 하나인 통일국민협약의 구성 및 모색 과정에서 다양한 평화 통일교육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중성이 떨어짐), 6번(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이나 축제가 소규모로 진행되어 행사성, 일회성 참여로 그치고 있음), 7번(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과 달리 유아교육영역은 시민사회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시민사회단체 역시 유아교육에 대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함)경우, 1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와 내용타당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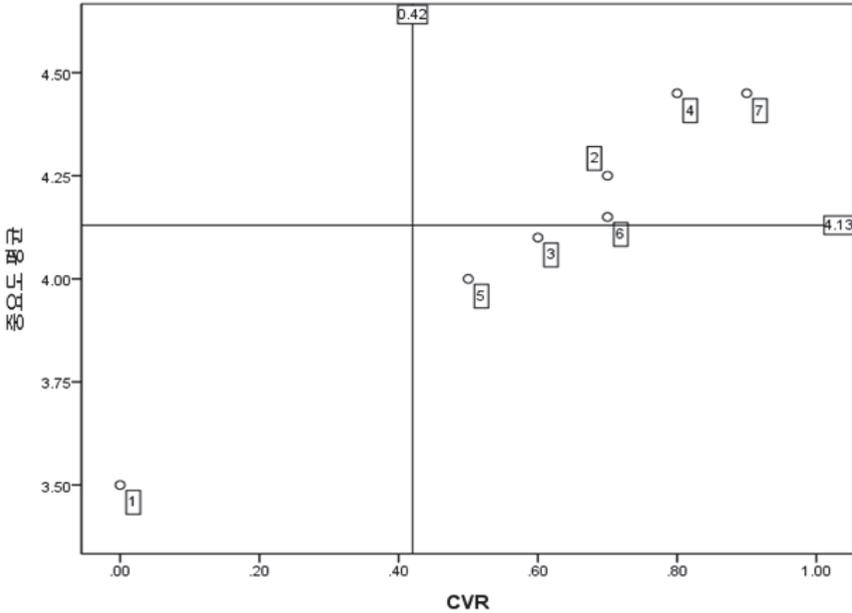
2번(평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또는 문화활동을 접목시킨 유아 대상의 평화교육 전문 기관이 부재함.), 3번(유아를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유아를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인식도 존재함.)경우, 4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내용타당도는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반면, 1번(통일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와 연계 교육활동들이 지역 군부대 현장방문이나 무기체험, 또는 지역 퇴역군인과의 만남, 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으로 반공시대 군사안보 중심의 활동으로 진행되는 사례들이 빈번함.) 문항의 경우, 3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와 내용타당도는 모두 낮게 나타났다.

〈표 V-1-9〉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연계 등의 문제점

항목	평균	표준 편차	CVR	CV	LFF	
1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와 연계 교육활동들이 지역 군부대 현장방문이나 무기체험, 또는 지역 퇴역군인과의 만남, 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으로 반공시대 군사안보 중심의 활동으로 진행되는 사례들이 빈번함.	3.50	1.10	0.00	0.31	Ⅲ
2	평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또는 문화활동을 접목시킨 유아 대상의 평화교육 전문 기관이 부재함.	4.25	0.72	0.70	0.17	Ⅳ
3	유아를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유아를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인식도 존재함.	4.10	0.97	0.60	0.24	Ⅳ
4	한국은 유일한 분단 국가로써 평화, 통일은 당연한 국가적 주제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 지역적 관심이 협소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평화, 통일 문제를 교육과정으로 다루고자 하는 시도가 빈약함.	4.45	0.69	0.80	0.15	Ⅰ
5	최근 지역사회에서의 평화 통일 주제는 문재인 정권 100대 과제 중 하나인 통일국민협약의 구성 및 모색 과정에서 다양한 평화 통일교육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중성이 떨어짐.	4.00	0.86	0.50	0.21	Ⅰ
6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이나 축제가 소규모로 진행되어 행사성, 일회성 참여로 그치고 있음.	4.15	0.67	0.70	0.16	Ⅰ
7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과 달리 유아교육영역은 시민사회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시민사회단체 역시 유아교육에 대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함.	4.45	0.94	0.90	0.21	Ⅰ
전체 평균		4.13	0.85	0.6	0.21	

[그림 V-1-9] LFF 분석결과(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연계 등의 문제점)



나)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 과제연계 등에 관한 정책제언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연계 등에 관한 정책제언’ 문항의 델파이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문항은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 통계량 및 LFF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번(국가적 과제로서의 평화·통일교육에 부합되도록, 유아교육에서 하나의 주제로 연구 활성화가 요구됨. 또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념을 초월한 교육내용으로서 연구되고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함), 3번(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가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설득력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경우, 1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와 내용타당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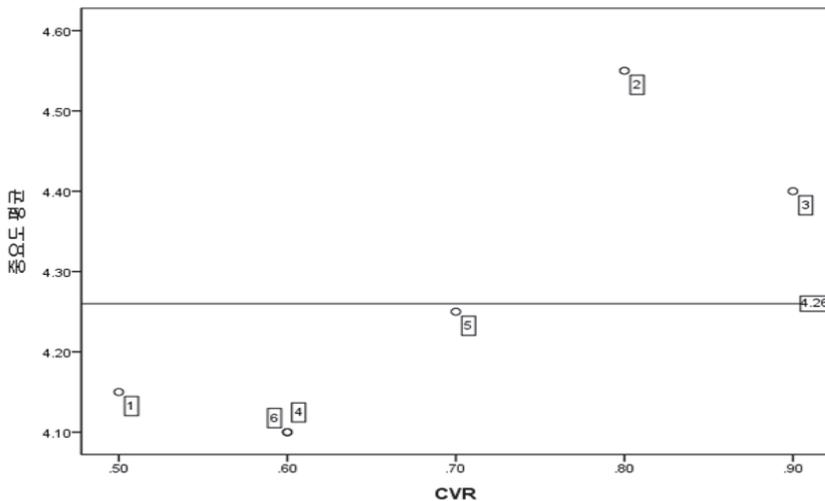
한편, 1번(시민사회의 다양한 시민학교들과 유아평화통일 교육이 연계되어야 함.), 4번(남북한의 교육 및 사회문화 현황의 DB 구축 및 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필요함.), 5번(통일비용 중 유아교육/보육 관련 재정보확보가 필수적임.), 6번

(통일을 대비하여 영유아교육·보육 분야의 인적 교류, 교재교구나 시설 설비 등의 물적 지원 등을 통한 화해협력단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경우, 4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내용타당도는 높게 나타났다.

〈표 V-1-10〉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연계 등에 관한 정책제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CVR	CV	LFF
1	시민사회의 다양한 시민학교들과 유아평화통일 교육이 연계되어야 함.	4.15	0.81	0.50	0.20	Ⅳ
2	국가적 과제로서의 평화·통일교육에 부합되도록, 유아교육에서 하나의 주제로 연구 활성화가 요구됨. 또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념을 초월한 교육내용으로서 연구되고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함.	4.55	0.69	0.80	0.15	Ⅰ
3	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가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설득력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4.40	0.75	0.90	0.17	Ⅰ
4	남북한의 교육 및 사회문화 현황의 DB 구축 및 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필요함.	4.10	0.72	0.60	0.18	Ⅳ
5	통일비용 중 유아교육/보육 관련 재정확보가 필수적임.	4.25	0.85	0.70	0.20	Ⅳ
6	통일을 대비하여 영유아교육·보육 분야의 인적 교류, 교재교구나 시설 설비 등의 물적 지원 등을 통한 화해협력단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4.10	1.12	0.60	0.27	Ⅳ
전체 평균		4.26	0.82	0.68	0.20	

〔그림 V-1-10〕 LFF 분석결과(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연계 등에 관한 정책제언)



7)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의 통합 및 학제에 관한 중요도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의 통합 및 학제에 관한 중요도’ 문항의 델파이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문항은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 통계량 및 LFF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3번(통일 초기에는 남북의 교육·보육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제도를 그대로 존중해주면서 통합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8번(남북한의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영유아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남북한 유아교육·보육 행정체계의 통합·정비), 10번(통일 전 남북한 유아교육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비교연구와 함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좋을 방법임), 11번(영유아교육기관 해당 연령, 의무교육 여부 등에 대한 단계적 계획 수립을 해야함), 12번(남북한 기관운영 체계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기관운영의 통합 모델 마련이 필요함), 13번(학제와 용어의 통일 및 조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경우, 1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와 내용타당도가 모두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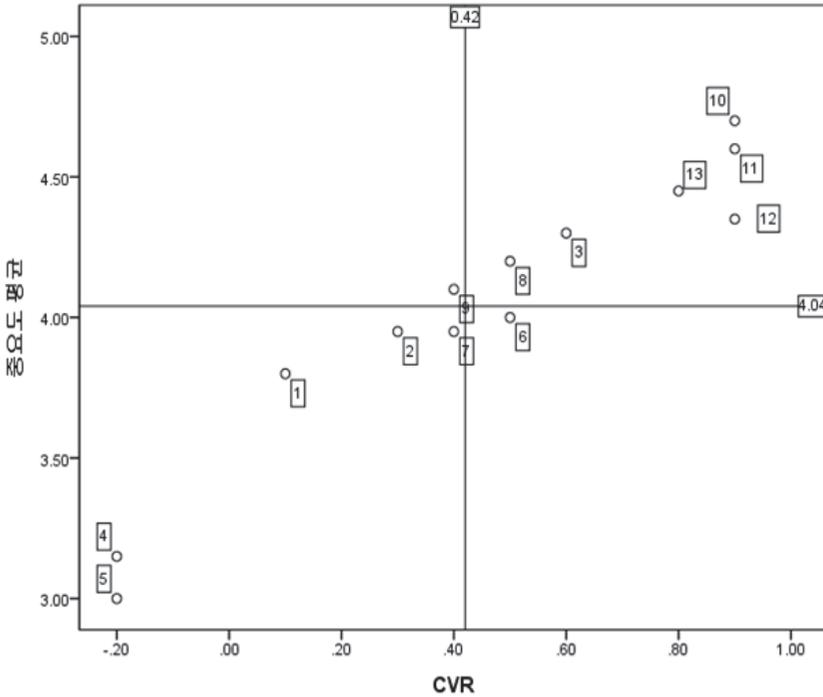
6번(주무부서의 통합이 우선 필요) 항목의 경우에는 4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내용타당도는 높게 나타났다.

한편, 1번(교육부로 일원화하여 0-2세까지는 영아교육부서가 관장하고, 3-5세까지는 유아교육부서가 관장하며, 이원화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만2세까지는 어린이집, 3세부터는 유치원에서 관할함), 2번(통일한국 학제는 보편적 국제적인 의무교육 기간으로 볼 수 있는 12년으로 설정한다. 어린이집 3년(0-2), 유치원 3년(3-5, 현재 북한 5세는 의무교육), 의무교육-초등학교 6년(북한 소학교 5년), 의무교육-중학교 3년, 의무교육-고등학교 3년, 유치원 3년 기간은 현재의 경우처럼 의무교육에 준하는 공교육으로 한함), 4번(남한에서 유보통합이 만 4, 5세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면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5(남북한 모두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공사립을 운영하여 소비자가 선택을 하도록 선택자유화 해야 함), 7번(남북한의 상이한 기관 운영 관련 지침 및 법규를 통일해야 할 것임), 9번(남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북한의 유치원과 탁아소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경우, 3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와 내용타당도 모두 낮게 나타났다.

〈표 V-1-11〉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의 통합 및 학제에 관한 중요도

	항목	평균	표준 편차	CVR	CV	LFF
1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0-2세까지는 영아교육부서가 관장하고, 3-5세까지는 유아교육부서가 관장하며, 이원화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만2세까지는 어린이집에, 3세부터는 유치원에서 관할함.	3.80	1.20	0.10	0.31	III
2	통일한국 학제는 보편적 국제적인 의무교육 기간으로 볼 수 있는 12년으로 설정한다. 어린이집 3년(0-2), 유치원 3년(3-5, 현재 북한 5세는 의무교육), 의무교육-초등학교 6년(북한 소학교 5년), 의무교육-중학교 3년, 의무교육-고등학교 3년, 유치원 3년 기간은 현재의 경우처럼 의무교육에 준하는 공교육으로 한함	3.95	1.05	0.30	0.27	III
3	통일 초기에는 남북의 교육·보육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제도를 그대로 존중해주면서 통합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4.30	1.13	0.60	0.26	I
4	남한에서 유보통합이 만 4, 5세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면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3.15	1.14	-0.20	0.36	III
5	남북한 모두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공사립을 운영하여 소비자가 선택을 하도록 선택자유화 해야 함.	3.00	1.34	-0.20	0.45	III
6	주무부서의 통합이 우선 필요함.	4.00	1.21	0.50	0.30	IV
7	남북한의 상이한 기관 운영 관련 지침 및 법규를 통일해야 할 것임.	3.95	1.15	0.40	0.29	III
8	남북한의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영유아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남북한 유아교육·보육 행정체계의 통합·정비	4.20	0.95	0.50	0.23	I
9	남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북한의 유치원과 탁아소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10	0.97	0.40	0.24	II
10	통일 전 남북한 유아교육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비교연구와 함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임.	4.70	0.57	0.90	0.12	I
11	영유아교육기관 해당 연령, 의무교육 여부 등에 대한 단계적 계획 수립을 해야함.	4.60	0.60	0.90	0.13	I
12	남북한 기관운영 체계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기관운영의 통합 모델 마련이 필요함.	4.35	0.59	0.90	0.13	I
13	학제와 용어의 통일 및 조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4.45	0.69	0.80	0.15	I
	전체 평균	4.04	0.97	0.45	0.25	

[그림 V-1-11] LFF 분석결과(통합 및 학제에 관한 중요도)



2. 소결

이상의 전문가 의견 분석에서는 통일대비 영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성, 교육과정, 교사교육 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통일 후 예상되는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변화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우선 전문가 델파이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이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통일대비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방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책제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V-2-1〉 조사결과 요약표(통일대비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방향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확립, 방향성에 대한 관심과 관련 담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평화·통일교육의 유아교육과정 및 표준보육과정의 반영은 미흡한 편임. •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남북의 문화 이해 및 소통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이 없어, 개별 교실 상황이나 교사 관심에 따라 평화, 통일 교육 여부가 결정해야 함. •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일시적, 단절적 교육에 그치고 있음. •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이 없으므로, 평화통일 교육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유아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 통일교육은 대부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성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음. • 현행 '통일교육지원법'(8조)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만을 언급하고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일교육이 방치되고 있음.
↓
개선방안(정책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교육·보육 철학 및 교육의 목적과 목표, 추구하는 인간상 등 교육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제8조에는 유치원을 포함시키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의 유아교육과 보육 공공성을 확대하고, 남북한의 기관에 따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차이를 최소화해야 함. •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 • 남북한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연구 활성화가 필요 • 북한에 대한 대상화, 적대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디톡스가 우선 필요 • 고정되고 단일한 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아닌 유동적이고 다채로운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함. • 세계와 연관된 인재상을 설정하고, 질서, 평화유지방식, 갈등극복전략, 영유아인권, 교육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통일교육의 방향성 또한 전체 플랜 속에서 영유아교육자들의 사회적 합의, 숙의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우선 필요 • 교육의 방향은 세계시민교육, 배려와 협력, 공존과 존중, 타인이해 및 평화이해, 포용과 사랑의 방향이어야 함.

이상을 종합하면, 평화·통일교육은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교육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거의 없어 현재 대체로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연구, 교육의 철학과 목표, 방향성들을 확립하고 활발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과 인권교육 등을 포함하여 포용과 사랑의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문가 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정책제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V-2-2〉 조사결과 요약표(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교육은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중 ‘더불어 사는 사람’, 5개 영역 중 ‘사회 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나 생활주제 및 교육적 접근에 대한 오해로 평화, 통일 관련 교육은 실제 교육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함. • 초등교육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필요하며 북한의 사회,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사회관계에서 통일교육을 담아내고자 하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단일한 정체성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국가주의적 한계가 명료함. 북한에 대한 이질성과 동질성에 대한 감각을 고루 형성하겠다는 목표와 교육과정 구성이 괴리되어 있음. • 세계시민이라는 지향과 국민국가 지향 사이에서 유아교육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음. • 현재 통일교육과 관련한 활동자료는 많지 않음. •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교과목식으로 편성된 교육과정과 대한민국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상반된 철학과 내용이 상충될 것으로 예상됨.
↓
개선방안(정책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감수성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평화 공동체의 내용이 누리과정 전반에 포함되어야 함. • 누리과정의 사회관계 영역과 연계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공통점차이점),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상호존중, 소통, 배려등)을 주요교육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누리과정의 사회생활 영역을 확대 개편하여, 세계시민교육, 민주정치교육, 공동체 의식 등을 보충할 필요가 있음. • 분단과 통일에 대한 개념 보다는 보편적인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과정이 중요함. 유치원 과정부터 체계적인 평화교육 프로그램과 평화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내용 마련이 필요함. • 평화와 통일이라는 개념의 ‘교육적 함의’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함. • 누리과정에 평화 감수성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 관련 핵심역량 포함.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관련 지침 및 정책 문서 보완 필요 • 북한유치원의 문서화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실행되는 교육과정의 다양성에 대한 자료분석이 요구됨.

이를 종합하면, 누리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관련 활동 자료들도 부족할 실정으로 실제 교육과정 실행시 누락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감수성을 가진 민주시민교육, 평화공동체 내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누리과정을 개정하여 세계시민교육, 민주정치교육, 공동체 교육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교육을 할 수도 있도록 정확한 정부 지침과 정책 문서가 필요하며, 현장에서는 평화 감수성 내면화를 위한 핵심역량 강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교육과정 관련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의 항목들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V-2-3〉 조사결과 요약표(예상되는 남북한 교육과정 관련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동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의 구성요소/영역은 유사하나, 교육신념과 가치 및 교육목적의 차이로 인한 통합의 어려움이 예상됨. • 통일이 된다고 해도 체제상 통합은 어려울 것이므로, 교육과정은 미래대비교육,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평화교육을 유아기부터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통일 직후에는 남북한 각각의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통일 전부터 논의되어왔던 공통내용들을 교육과정 운영에 부분적으로 포함하게 됨. • 남북한의 유아교육·보육 전문가가 모여 통일 이후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 있음. 한 번에 교육과정을 통합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점차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임. • 북한에서의 놀이 중심의 통합교육 이룬 도입은 남북한 공통의 유아교육과정 정립을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 가능 • 남북한 교육과정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유아교육과정 통합의 예를 다양화할 필요 있음). 통일 이후, 북한 거주 영유아 대상으로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음.

넷째,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사교육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책제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교사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이 형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교수학습방법 및 교육자료 등이 부족하며, 평화와 통일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에 현장 교사들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교육과정을 대면으로 실시하고, 평화·통일교육 역량 모델 개발과 민주시민교육 학습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필수교과로 평화·통일교육을 다루어야 하며, 주무부처 통합과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남북한 교사양성 제도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교사양성 통합 모델 마련, 남북한 영유아 교사 간 교류 및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남북한 유아교육·보육의 이질성과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북한 교원 간 왕래를 활성화가 필요하



다고 보았다. 또한 현직교사들을 위해 통일 후의 역사의 재인식과 통일 한국의 가치관과 신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2-4〉 조사결과 요약표(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사교육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양성기관에서의 통일교육은 형식적이며, 단위 특강으로 대부분 시행됨. • 임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회의 돌봄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과 현장의 과중한 노동으로 통일, 평화 등의 주제를 교사교육과정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현실임. • 유아교사 양성과정에 북한 유아교육이나 평화통일 교육 관련 교과서가 부재함. • 유아교사를 포함하여 교직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통일교육을 수강하고 있음. 이런 경우 통일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강제가 구성되므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현장실천과 관련된 내용이 부족함. •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에서 풀어 나갈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 교사이하자료, 교사 연수,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부족
↓
개선방안(정책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과정에서 사이버를 통한 교육보다는 활발한 토의 및 남북 교육자료의 직접 경험, 유아교육기관 참관, 현장전문가 특강 및 질의응답 등의 대면교육을 진행할 필요 있음. •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편적 평화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위해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교사교육이 지속되어야 함. • 교사들이 일상에서 평화감수성을 키우는 교육내용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 예술을 접목시킨 평화교육 연수와 평화·통일교육의 대한 교사교육이 필요함. • 교구와 교재 보급,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교사들이 먼저 평화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함. • 어린이집, 유초중고의 교사양성과정 및 재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이 필수과정으로 다루어져야 함. • 통일부 통일교육원 원내교육 과정 학교통일교육 및 통일교육전문강사 교육대상에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도 포함시킬 필요 있음. • 민주시민교육, 다문화 교육, 반편견 교육, 평화교육 등 다양한 내용도 고려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학습모형을 개발해야 함. • 평화·통일교육 역량의 개념 설정이 필요함. • 철학, 인문학 등 남한의 교사양성과정에서 약화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 강화를 통해 탈북자, 북한 등 타자에 대한 교사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선제될 필요 • 주무부서의 통합과 재원확보에 대한 모색이 요구됨. • 남북한 교사양성 제도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교사양성 통합 모델 마련, 남북한 영유아 교사 간 교류 및 소통 채널 확보 • 남북한 유아교육·보육의 이질성과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북한 교원간 왕래를 활성화 필요 • 통일 후의 역사의 재인식과 통일한국의 가치관과 신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재교육이 요구됨.

다섯째,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교사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영유아교사의 자격과 양성제도, 양성기간이 달라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5〉 조사결과 요약표(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교사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동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유치원 교양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은 남한 유아교육과로, 북한 보육원을 양성하는 '보육원양성소'는 남한 보육과로 통합되어야 하는데 양성기간 및 자격에서 남북의 제도가 상이함. 또한 남한의 경우에는 교사양성과정이 유아교육과, 보육과, 보육교사교육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으로 혼재되어 있고, 양성 기간도 달라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요구됨.

여섯째,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연계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책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의 항목들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V-2-6〉 조사결과 요약표(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연계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평화, 통일은 당연한 국가적 주제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 지역적 관심이 협소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평화, 통일 문제를 교육과정으로 다루고자 하는 시도가 빈약함. 최근 지역사회에서의 평화 통일 주제는 문재인 정권 100대 과제 중 하나인 통일국민협약의 구성 및 모색 과정에서 다양한 평화 통일교육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중성이 떨어짐.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이나 축제가 소규모로 진행되어 행사성, 일회성 참여로 그치고 있음.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과 달리 유아교육영역은 시민사회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시민사회단체 역시 유아교육에 대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함.
↓
개선방안(정책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적 과제로서의 평화·통일교육에 부합되도록, 유아교육에서 하나의 주제로 연구 활성화가 요구됨. 또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념을 초월한 교육내용으로서 연구되고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함. 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가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설득력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이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관련 제도와 교육의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국정과제와의 연계의 측면에서 관심 자체가 협소하고 특정 지역 중심의 일회성 행사 형

태로 연계되고 있으며,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평화·통일교육은 시민사회나 국정과제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국정과제로 관련 주제의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고, 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곱째,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의 통합 및 학제에 관한 중요도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통일 초기에는 남북한의 유아교육·보육제도의 일원화보다 남북한의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합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북한 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연령을 기준으로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계 통합 정비를 위한 기초 연구들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남북한 기관운영 및 학제 비교 연구, 통합 모델 연구, 용어의 통일을 위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V-2-7〉 조사결과 요약표(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의 통합 및 학제에 관한 중요도)

중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초기에는 남북의 교육·보육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제도를 그대로 존중해주면서 통합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 남북한의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영유아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남북한 유아교육·보육 행정체계의 통합·정비 • 통일 전 남북한 유아교육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비교연구와 함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좋을 방법임. • 영유아교육기관 해당 연령, 의무교육 여부 등에 대한 단계적 계획 수립을 해야 함. • 남북한 기관운영 체계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기관운영의 통합 모델 마련이 필요함. • 학제와 용어의 통일 및 조율을 위한 연구가 필요.

VI

통일대비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정책 제언

- 01 정책 방향과 과제
- 02 정책 방안 및 전략
- 03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3단계 통일방안'

VI. 통일대비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을 파악하고, 수집된 현황 자료들을 기반으로 통일대비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일대비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정책 제언은 다음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첫째, 정책 방향과 과제는 북한 영유아교육·보육 관련 선행연구,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이슈, 통일 독일의 교육보육 제도 변화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 분석 순으로 각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정책 방안 및 전략에서는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기초로 남북한 영유아교육·보육 정책 관련 3단계 통일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1. 정책 방향과 과제

가. 북한 영유아 관련 선행 연구 관련

본 연구에서 지난 10년간의 북한 영유아 관련 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물이 다수였다. 둘째, 통일교육, 통일, 남북한 비교 연구물, 북한 어린이, 유아통일교육에 대한 연구물들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셋째, 유아 통일교육도 타 연구들과 많은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였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에 연구의 주제도 문제행동, 영양 결핍, 집단상담, 분리경험 등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는 과정에 중점이 있었다. 다섯째, 해외 연구들은 주로 북한 아동과 여성의 건강과 교육, 영양과 위생, 인권의 문제에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원조의 관점에서 주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연구 주제의 폭이 좁고, 연구의 관점과 방법이 다소 다양성을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해정도와 시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회문화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어린이, 여성의 부적응성에 집중한 연구들이 다수여서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정책제안들도 필요하나, 심리치료와 분리경험, 영양결핍 등의 관점에서의 접근은 결핍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영유아분야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 남북한 제도 분석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2013년 김정은 시대에는 유아교육과보육 분야에서는 누리과정과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던 시기이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하던 시기로 유보통합추진단이 만들어지고, 누리과정이라는 3-5세 유보 공통교육과정이 드러났다. 그런데 아쉬운점은 유보통합의 관점에서 고민하다보니,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담겨 있었던 통일교육담론이 빠지게 되었고, 보수정부 10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이 어려워지고,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 통일연구에 대한 담론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 접어들면서도 이러한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고 있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평화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이에 추후 정책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다 심층적인 삶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고, 유아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다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새롭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연구자들이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 제도 비교 분석 등은 국책기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 접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북한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북한 어린이의 놀이, 삶, 학습, 학제 등의 정보를 충분히 얻고 남한과 비교할 수 있도록 이해자료들이 보다 필요하고, 연구자들에게 북한 영유아 정보에의 접근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관련

1) 통계 및 법제도 관련

본 장에서는 북한 관련 통계 현황과 법 제도를 정리하였는데, 우선 통계수치를

보았을 때, 주목할 점들은 북한 영유아(0~4세) 인구의 수와 탁아소와 유치원의 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며, 36~59개월 미만 영유아의 기관 취원율이 72.7% 된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도 국가 경제의 문제와 여성 일자리 부족 등의 여러 이유로 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기관과 유아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국공립 취원율 70% 이상은 지역 간 편차는 존재하겠으나, 유치원 접근성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은 약 30%의 아이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면담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겠으나, 지방으로 갈수록 취원율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북한은 1975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 4월 1일부터는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치원 2년 과정 중 1년이 보편적 의무교육에 속한다. 어린이보육교양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소학교를 준비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 존재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치원 높은반은 교과서도 존재한다. 물론 교과교육이 아닌 통합교육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만 5세 유치원 교육이 초등준비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도 한다. 이런 측면은 통일을 고려할 때 논쟁점이 될 가능성이 내포한다. 유치원이 초등을 준비하는 교육이 될 때, 유치원이 학교화(schoolification)될 가능성이 높아 유아교육의 본질과 대치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교육제도는 의미가 있다. 현재 만 4,5세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도 학제개편 및 유보통합 논의와 함께 제안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논의는 북한의 제도와도 함께 고민하며 고려해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아울러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발달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수치는 북한의 유치원과 탁아소의 교육과 보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과 경제적 계급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주체사상과 이념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보육체계를 강조하고 있고, 법적으로 어린이를 중심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은 국가와 사회가 키우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줄 수 있는 시사점은 교육과 보육의 평등성과 국가책임, 사회적 육아와 공공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법제도 통합에 대한 이슈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의 범위 설정 문제, 유보통합 이슈, 북한 법 조항의 추상적 명문화였다. 통일을 고려할 때, 남한의 유아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사전에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의무와 무상교육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법제도의 통합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심도있는 연구들이 사전에 충분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북한 유치원과 탁아소 제도 관련

우선 유치원 제도에 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유치원 교육의 기본 방향과 특성은 ‘혁명사업을 이어갈 후비대를 양성’하는 것으로, 공산주의 혁명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어, 김일성 3부자의 어린시절이야기를 교육시키고 있다.

둘째,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어 북한 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높은반 통합교과서 5권이 등장하고, 통합교육이 강화되었다. 기존의 9개 교과목에서 생활주제로 볼 수 있는 5개 교과서로 통합되었고, 1권 “우리유치원” (4-5월), 2권 “무지개동산”(6-8월), 3권 “참말 좋은 우리나라” (9-10월), 4권 “흰눈이 내려요”(11-12월), 5권 “소학생이 된대요”(2-3월)와 같은 그림책 교과서가 발행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추세는 평양과 도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으로 갈수록 전달과 보급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통합교육이란 우리말, 셈세기, 관찰, 정서교육, 노래와 춤, 만들기 등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데, 교과서의 변화와 함께 김정은 시대 접어들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놀이중심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유치원 낮은반에 대한 교육과정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높은반 교과서를 이용해서 가르치기도 한다. 통합교육을 하더라도, 이전의 교과들이 통합의 요소로 작용하여 주제별 접근을 하더라도 교수방법과 내용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전 교과 방식을 많이 차용하고 있다.

북한의 유치원 교육내용은 변화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통제된 국가 거버넌스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말 교육, 셈세기 교육, 노래와 춤, 몸단련 등은

여전히 놀이형태로 포함되고 있으나, 정치사상교양이 강해 통합교육의 범위와 통합의 수준과 폭이 다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북한은 국가사회주의 인재양성과 혁명과업 달성을 위해 수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과학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교육을 강조하여 원격수업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하기도 한다.

북한의 통합교육의 목적은 자기의 개성 발전의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 이는 단체와 국가사회주의 철학에서 하나를 유지하라는 국가 통치체제와 갈등의 요소가 있다. 그러나 상당히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유치원 교육의 양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남한의 유치원 교육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추세라면 통일 이후 교육과정의 내용 통합은 어려워도 정치사상교육을 제외한다면, 남한의 통합교육 방식을 접하는 북한의 유치원 교사가 아주 낯설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철학의 이념적 괴리와 교육내용과 주제선정의 자율성의 폭으로 인해 북한 유아교사들은 한동안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남한의 교육계획안에 해당하는 북한 유아교육 교수안은 철저히 관리 감독되고 있었으며, 통합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짜여진 획일적인 구조로 시행되고 있었다. 이에 국가의 커리큘럼이 전국에 똑같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획일적인 틀 내에서 교육과정의 실행 양상의 차이도 교사별, 기관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평양이나 함흥지역, 시,도, 군 수준의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유사하나, 리 수준으로 내려갈수록 교육과정의 실행 양상은 상당히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지점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지도안을 벗어나 자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통일을 할 경우, 이러한 교육과정의 실행 양상은 북한 유치원 교사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북한 유치원의 놀이 양상을 보면, 오전에는 주로 단체활동, 삼부자 어린 시절 이야기 등의 교육, 체조 등을 하고, 오후 오후에 높은반은 교과서를 복습하거나 그림책을 읽기도 한다. 방과 후에 아이들은 모나무 쌓기, 종합놀이, 조선키도 맞추기 등 지능 놀이감을 가지고 놀기도 한다. 가정의 환경에 따라 어린이

들이 노는 놀이가 다르며, 상·중위층 집 유아들은 귀가 후 노트북을 켜놓고 아동 영화를 보며 부모의 지도하에 숙제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숙제가 끝나면 어린이들은 인라인(로라 스케이트)를 타러 광장 아니면 로라 스케이트장에 나가 놀이를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가정에서의 놀이는 격차가 크고, 경쟁교육이 강해 상류층 집안의 유아들은 소학교 준비 공부로 공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하루일과 운영은 우리나라에 비해 다소 느슨하게 운영되어 유치원과 탁아소에서 아이들이 쫓기는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유치원의 하루 일과는 8시경부터 시작하여 4시 반 또는 5시에 끝난다. 방과후 과정의 개념은 없는 종일반 시스템이다. 20분 수업을 하면 10분 쉬는 교과의 개념도 강하다. 급식실은 있으나 대부분 유아들이 도시락을 싸 와야 하고, 이것이 유치원을 못 보내는 주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간식은 형편이 좋은 곳과 아닌 곳의 편차가 크다고 한다. 그리고 유치원 운영은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 부모의 부담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여섯째, 의무교육 12년제가 되면서 유치원 높은반은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앞서 선행연구 등에서도 언급하였으나, 남한에서도 통일 후 체제 연계 및 통합을 위해서도 4-5세 의무교육과 학제개편, 유보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남북 통합에 앞서 남남 통합인 유보통합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추후 남한의 학제를 개편한다면, 북한의 유치원 체제를 꼭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북한의 유치원 제도는 100% 국립이긴 하나, 교육과정, 시설 및 건물 등 지역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통일 후 이러한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학생기록관리 등은 전자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일을 고려할 때 함께 제고해야할 지점이다. 북한은 서류 작성을 대부분 수기로 하기 때문에 학생관리와 교사 관리 등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제도의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아홉째, 교양원 양성은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근거하여 전국 22개 교원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3년제 교양원학과, 도·시·군에 설치된 1년제 교양원양성소, 통신교육체계에 의해서 양성한다. 유치원의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는 교

육지도기관, 지방행정기관, 해당 감독통제 기관이 관장하고 있다. 3년제 시스템은 한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교양원은 남성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에 통일 이후에는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적 함의가 필요해 보인다.

열 번째, 교양원은 월급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고, 교양원의 노동조건과 처우는 거의 보장되고 있지 않다. 통일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공립교사와의 질적 격차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탁아소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탁아의 목적은 탁아소는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의 기간에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탁아소에서 가르치는 내용 및 보육 내용은 국가지침대로 하고 있어 국가가 표준을 관리하고 있다. 탁아를 여성의 노동력 제고라는 목적에서 국가적, 사회적 육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을 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에듀케어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표준을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어린이집에 3-5세 유아가 다니고 있고, 누리과정은 운영하고 있는데, 북한의 탁아소는 연령별로 이원화되어 있고,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체제별 정렬을 위해서 체제통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어보인다.

둘째, 보육원들도 마지막 일과가 끝나면 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가 수준의 보육 과정을 북한에서는 '교수안'을 작성한다. 보육원들은 양성소에서 양성되며, 학과제가 아니다. 양성체제와 자격제도의 통합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탁아소 및 유치원 시스템은 시,군,구,동,리마다 국가책임으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사회주의 헌법에도 구체적으로 체계화가 되어 있으나, 국가경제가 어려워 운영이 어렵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100인 이상에는 의사가 상주하기도 하는데, 일종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넷째, 북한 탁아소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제도적으로 변화된 큰 이슈는 없다. 그러나 탁아소는 점차 줄어들거나,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 영유아 수가 많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북한 공통의 문제로 통합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다섯째, 북한의 탁아소는 보건성이 관리하며, 운영에 필요한 지침 및 요령은 보건소에서 내려온다. 탁아소 및 유치원 담당 지도원들은 주로 여성이며,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 북한은 유치원과 탁아소 시스템이 주무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으나, 당과 행정체계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보급과 법체계 등의 전달체계는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유치원과 탁아소 간 정책의 중복과 혼잡함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별로 이원화 체계가 정확하게 되다 보니,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오히려 높다. 이에 유보통합을 고려할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정책을 추진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북한 탁아소의 직원인 보육원은 대학 졸업장이 없더라도 교수 강습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양성반에서 학습하면 보육원이 될 수 있으며, 북한의 탁아소에 근무하는 보육원의 양성은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근거하여 중앙의 보육전문학교, 지방의 고등전문학교, 공장 및 기업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학교, 통신교육체제에 의해서 양성되고 있다. 보육원은 2년에 한 번씩 급수시험에 응시하고, 결과에 따라 월급이 올라가기도 한다. 또한 탁아소에서는 아동학대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통일 이후의 체제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 교육, 승급과 자격체제 개편의 문제점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이슈

국내 언론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유치원 키워드는 '강령', '사상', '정책', '김정은', '인재', '과학', '컴퓨터', '영어', '축구' 등이 나타났다. 수재교육과 과학교육, 영어교육과 스포츠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전형적인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으로 보이며, 세계적 수준으로의 교육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지로 판단된다.

탁아소의 경우, '대북', '식량', '병원', '기금', '영양실조', '의료', '유니세프' 등의 노드가 상대적으로 컸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대북사업의 관심이 반영된 키워드라고 판단된다. 남북교류협력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키워드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용어이며, 국제기구의 시선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탁아소는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복지와 보건, 의료의 관점으로 이해되고 있고, 대북지원사업의 일환인

병원, 탁아소 재보수 등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과 김정은에 대한 키워드는 남한에서는 많이 쓰이나 북한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쓰였다. 다만 의무교육 용어는 남북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언급되었는데, 이는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이는 면담자료의 내용과 일치한다. 김정은, 교원 대학, 교육사업과 맞물리면서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 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 키워드는 로동신문에서 가장 적게 나왔는데 이는 언급 자체를 꺼리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코로나 19 방역에 대한 남북간 공동 협력이 필요할 수 있으며, 통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보다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세대에서는 다소 공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통일보다 협력과 교류 등의 용어의 사용이 보다 이질감을 줄이고, 체제를 인정하면서 부담이 되지 않는 용어로 활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 통일 독일의 교육·보육 제도 변화 분석

독일의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의 돌봄과 양육 및 정책의 변천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동서독처럼 사회주의, 민주주의에 의거하여 발달한 상이한 영유아의 돌봄과 양육 체제가 통합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독일의 통합과정에서 부상한 갈등과 문제는 어떻게 해소되었고 또는 아직 극복하지 못했는가를 살펴보고 아울러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한 통일 후의 갈등과 문제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사한 바 크다고 본다.

둘째, 동서독의 돌봄과 교육의 효과와 한계를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서독의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 형태 및 내용의 다양성,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 이론과 커리큘럼의 다양성 및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유치원 생활은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동독의 구조적 장점은 여성들의 전일제 생업활동과 종일제 유치원 제도이다. 이러한 장점은 통일 이후의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을 위한 정책적 대책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다.

셋째, 통합의 격변 과정에서 전 동독 교육자들이 새로운 '서구적' 작업 방식과 교육 철학을 어느 정도 어떻게 습득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학습 및 재검토 프로세스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 경험은 북한 교육자들에게

통일 이후의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하는 데 유익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넷째, 서독의 탈국가화는 국가적 독점을 피하고 교육의 개방적 민주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동독의 다양성이 부재하고, 일률적이고 일원화된 체제와 국가 통제 아래 통합되었다면, 영유아의 교육도 큰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내다본다. 추후 서독의 다양성의 기능이 무엇이며,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의 돌봄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면, 남북한 영유아교육보육 제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섯째, 그동안 독일에서 실행해오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은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의 교육에 깊게 반영되어 거의 일반화되었다. 독일은 통일을 갑자기 맞이하여, 통일 이후의 교육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통일이 되자마자 신연방주(동독)에서도 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학교뿐만 아니라 기타 등에서 실행하기 시작했다.

여섯째, 통일 후 나타난 저출산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독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업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나서게 되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혼합형이면서도 유연한 키타는 이들을 위한 대안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통일 후, 일자리를 잃은 동독의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의 교사들이 서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베를린 시는 정책적인 배려를 한 점은 우수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베를린 시는 동쪽의 교사들이 서독의 교사자격증을 따기 전까지 키타와 호르트에서 방과후 과정 교사를 하면서 아동의 흥미와 발달, 자신의 역량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서독의 교육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였다. 통일 한국을 예상해보는다면, 북한의 유치원 교양원, 탁아소 보육원들이 남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당장 근무하기 어렵고, 교사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재교육을 받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방과후 돌봄 교사, 특성화 교사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전 동독 출신 교사들은 수학이나 체육, 수영 등과 같이 수과학과 체육에 강점을 보였는데, 북한의 경우에도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 보다 예능이나 체육 등에 강점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이 학교에서 아코디언이나, 체육활동,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가르치기도 하고, 영유아를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남한에 돌봄사나 강사로서 활동할 기회를 충분히 주면서, 남한의 체제를 학습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마.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1) 통일대비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첫째, 평화·통일교육은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교육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거의 없어 현재 대체로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연구, 교육의 철학과 목표, 방향성들을 확립하고 활발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계시민교육과 인권교육 등을 포함하여 포용과 사랑의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

첫째, 누리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관련 활동 자료들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부처 및 교육청의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실제 누리과정 실행시 누락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셋째, 누리과정에 평화감수성을 가진 민주시민교육, 평화공동체 내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누리과정을 개정하여 세계시민교육, 민주정치교육, 공동체 교육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교육을 할 수도 있도록 정확한 정부 지침과 정책 문서가 필요하다.

다섯째, 현장에서는 평화감수성 내면화를 위한 핵심역량 강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교육과정 관련 변화

첫째, 통일이 된다 해도 체제상 직접적인 통합은 바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교육과정은 미래대비교육,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평화교육을 유아기부터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 직후에는 남북한 각각의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통일 전부터 논의 되어왔던 공통내용들을 교육과정 운영에 부분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한의 유아교육·보육 전문가가 모여 통일 이후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 있다. 교육과정의 구성요소/영역은 유사하나, 교육신념과 가치 및 교육목적의 차이로 인한 통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한 번에 교육과정을 통합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점차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넷째, 북한에서의 놀이 중심의 통합교육 이론 도입은 남북한 공통의 유아교육과정 정립을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가능하다.

다섯째, 남북한 교육과정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유아교육과정 통합의 예를 다양화할 필요 있다.

여섯째, 통일 이후, 북한 거주 영유아 대상으로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4)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 교사교육

첫째, 교사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 교사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이 형식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도록 평화·통일교육 역량 모델 개발과 민주시민교육 학습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교사교육과정을 대면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필수교과로 평화·통일교육을 다루어야 하며, 주무부처 통합과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교수학습방법 및 교육자료의 개발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평화와 통일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에 현장 교사들의 업무가 과다하다.

넷째, 남북한 교사양성 제도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교사양성 통합 모델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한 영유아 교사 간 교류 및 소통 채널 확보하고, 남북한 유아교육·

보육의 이질성과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북한 교원 간 왕래를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았다.

여섯째, 현직 교사들을 위해 통일 후의 역사의 재인식과 통일 한국의 가치관과 신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5)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교사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의 영유아교사의 자격과 양성제도, 양성 기간이 달라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6)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연계

첫째, 관련 제도와 교육의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국정과제와의 연계의 측면에서 관심 자체가 협소하고 특정 지역 중심의 일회성 행사 형태로 연계되고 있으며,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평화·통일교육은 시민사회나 국정과제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주제의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고, 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의 통합 및 학제에 관한 중요도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통일 초기에는 남북한의 유아교육·보육제도의 일원화보다 남북한의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합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북한 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령을 기준으로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계 통합 정비를 위한 기초 연구들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남북한 기관운영 및 학제 비교 연구, 통합 모델 연구, 용어의 통일을 위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정책 방안 및 전략

이상의 정책 방향과 과제에 근거한 정책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남한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학제개편, 유보통합 논의 필요

통일을 대비하여, 남한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범위, 유보통합, 학제개편, 무상교육의 범위 논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새 정부의 국가의제로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은 북한을 염두에 두며 장기 플랜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평화·통일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한 누리과정 개정 필요

누리과정에서 평화·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사회관계영역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보다 강화하여 누리과정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필요가 있다.

다.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을 통한 유아 단계 포함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에 유아 단계가 빠져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법 개정이므로, 유치원에만 해당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라. 유아교육·보육에서 평생교육까지 인권, 민주시민교육, 양성평등교육, 포용 정책과 연계한 평화통일 정치교육 필요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은 모두 정치교육과 관련이 있는데, 학문적 개념과 범위가 확립되지 않은 이유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서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도 통일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통합하고, 다양성과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유아 평화·통일교육 등도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관해, 태도와 이해수준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민주시민교육과 평화·통일교육을 함께 고민하며, 유아교사의 정치교육을 어떻게 해나갈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치교육’이라는 담론으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장이 필요하다.

마. 영유아 평화·통일교육 관련 시민 대상 북한 이해교육의 재구조화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고, 영유아단계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북한 이해교육 내용과 방법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주적을 보지 않고, 인본주의적 접근을 통해 북한 영유아의 삶과 놀이, 유치원과 탁아소에서의 일과와 경험 등의 연계 등에 중점을 둔 북한 이해 홍보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바. 영유아 평화통일 관련 교사교육 제도 개편

유아교사의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감수성과 기본소양 교육이 필요하다. 유아교사의 민주시민 역량은 유아교사 양성체제 내의 교과를 운영하는 모든 원리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역량 강화 모델이 필요하다. 교사 양성체제 내의 각과 과목에서 역량모델을 접목하여 어떻게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삶에서 실천적인 교육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사.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을 위한 남북한 협의체 구성(유아, 교사, 시민단체, 연구자 포함)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을 위한 남북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철학과 목표, 교육과정 운영, 교사자격양성체제, 학제, 통합 모델, 용어 통일, 교재교구 교류 등과 같은 협력체계 필요, 남북한 어린이 교류, 유치원과 탁아소 방문 및 교류 등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유아, 교사, 시민단체, 연구자들이 포함된 협의체의 실질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한 부처와 정책입안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아.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필요

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이 특정 단체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통일을 고려한 가치교육을 통한 지속가능성 교육이 자리잡혀나가도록 해

야 한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듯이 교육과정 내에 관계교육, 참여교육을 포함하고,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과정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녹아드는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이 필요하다. 기후와 생태, 배려 교육 등이 가치교육으로 현장에 내면화될 필요가 있다.

자. 통일 관련 미래연구 필요

1) 통일대비 예상 시나리오에 기반 남북한 영유아교육제도 연구

영유아 통합교육과정,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 법제도, 통일 직후 예상되는 제도의 변화 및 저출산 현상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 용어의 통일 등, 관련 연구를 기획하고, 실행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2) 독일 사례 심층연구 지속

독일의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이 통일 전후 변화과정에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철학의 상호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갈등을 해소해나갔는지,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독일 사례를 통해 한반도 통일 직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시행착오와 혼란을 줄이고 성공적인 남북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3) 연구의 다양화 필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각의 다양화와, 평화·통일교육 연구 범위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의 주제와 방향을 보다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북한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북한 어린이의 놀이, 삶, 학습, 북한 유아교사들의 생활에 대한 연구들 등 대안적인 연구들이 보다 도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차. 북한 영유아교육보육 관련 연구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 개방성 개선 필요

북한 영유아교육보육 연구자들이 북한 유치원 높은반 교과서나 관련 자료들을

접근하기에 제약이 크다. 연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북한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는 정보 접근성을 보다 높이고, 정보에 대한 개방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가. 육아정책연구소에 북한영유아교육연구센터(가칭) 마련: 정보, 학술 연구, 인적교류 플랫폼 구축

육아정책연구소에 북한영유아교육연구센터(가칭)를 마련하여, 정보와 학술, 인적교류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이 재개되면, 육아지원분야의 학술교류를 자주 하고 더 나아가 '남북육아정책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하여 학술행사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정권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포럼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영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학술교류와 정보교류가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다. 통일을 대비하고자 한다면 가장 선제적으로 북한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정보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 학술교류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보교류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정보교류와 구축이 선행되지 않은 채 제시되는 다양한 구상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으며 통일 직후 현장에서 결국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성과를 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정보 교류를 위하여 통일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여 영유아교육·보육의 민간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위원회 혹은 센터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내 남북한 영유아교육·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일원화된 정보 창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데이터가 축적되어야지만 통일 이후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재정 투입 구조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영유아교육·보육 시스템의 통합에 어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교류를 바탕으로 인도적인 원칙에 기초하여 정치적 역학관계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영유아교육보육에서의 공통된 지향점 및 핵심 성취 목표를 마련하고 달성해 나갈 로드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우 정치사상교육이 주요 교육 내용인 바, 교육프로그램 및 내용

의 차이 해소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용어 정리 및 표준화 작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하여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증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3단계 통일방안'

이상의 정책방향과 정책과제에 기반하여 '평화 및 교류 협력 단계(1단계)', '남북 연합 단계(2단계)', '통일국가 단계(3단계)'의 순으로 남북한 영유아교육보육 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 및 교류협력 단계(1단계)'에서는 남북한의 유아교육과 보육관련 정보, 학술,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와 추진체를 구축한다. 민관학 통합 추진체를 일원화하고 관련 통계자료 DB를 구성한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북한영유아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고, 남북한 협력과 이질감을 줄이기 위한 남북한 영유아교육보육 용어 정리 및 표준화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에 기반한 정치교육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갈등해결, 평화교육 등을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학교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남한의 남남갈등을 줄이기 위해 학제개편과 유보통합, 의무교육 체제 구축을 통일을 대비하여 구상하고, 실천한다.

둘째, '남북연합 단계(2단계)'에서는 남북 간 공통된 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협의체를 통한 평화적 교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통의 정책 모델을 구성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남북한 제도 통합시 장애 요소 및 공동의 목표를 개발하여 함께 단계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배제되도록 하는 것에 선제적 합의를 전제로 남북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제, 법제도, 교사제도 등의 협력과 통합 방안을 제시한다.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도적인 원칙에 기초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치적 관계 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교류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간 영유아 교육보육관련 본격적인 인적교류와 정보, 연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록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이다.

셋째, '통일국가 단계(3단계)'에서는 구성원의 이해 증진 및 심리적 이질성의 완화를 위한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통일 전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혼란을 줄이고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성이 높고 평등하며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통일 영유아교육보육 제도를 구축한다.



참고문헌

- 강재희(2019). 북한 탁아소의 운영관리와 일과운영. *육아지원연구*, 14(2), 105-125.
- 교육과학기술부(2011).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홍보 리플렛).
- 김성욱(2009).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관한 연구. *남북법제연구보고서(II)*, 81-115.
- 김정원·김지수·김은주·한승대·강구섭(2014).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정보 구축.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김지수·양희준·강구섭·나귀수·신동훈·김선·박수현(2015).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김지수·최유림·이슬기(2014). 남북한 교사 역할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지수·김지혜·김희정·김병연·한승대·강호제·김선(2019). 김정은 시대 북한 유초중등 교육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해순(2002).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통일부 통일교육원, 22-23.
- 정지원·박수경(2012). Rio+20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12(13).
- 로동신문(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자.
- 박창현(2020). 정치교육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할과 쟁점(2020년 연합학술대회, 정치교육의 방향과 과제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육행정학회 자료집, 327-343.
- 안수현·김상립(2018). 유아교사의 유아통일교육에 대한 지식체계 고찰: 개념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8(3), 91-104.
- 양옥승(2005). 통일대비 한국의 유아교육, 보육 발전방안 연구. *유아교육연구*, 25(5), 303-317.

- 양옥승(2012).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제도: 역사적 관점. *유아교육연구*, 32(2), 293-307.
- 양옥승(2014).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 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13(4), 259-280.
- 양진희(2020).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유아세계시민 관련 연구동향 및 교육담론 분석. *유아교육연구*, 40(1), 251-240.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6). 제12조 제1항 관련.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보건복지부령 제399호, 2012. 8. 17. 일부개정]. 법제처 홈페이지(검색일 2016. 4. 18). <http://www.moleg.go.kr/>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6). 제12조 제2항 관련.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 [보건복지부령 제399호, 2012. 8. 17. 일부개정]. 법제처 홈페이지(검색일 2016. 4. 18). <http://www.moleg.go.kr/>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6). 제21조 관련.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대통령령 제26525호, 2015. 9. 15. 일부개정]. 법제처 홈페이지(검색일 2016. 4. 18). <http://www.moleg.go.kr/>
- 유아교육법(2016).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2] 교사자격기준. [법률 제13226호, 2015. 3. 27. 일부개정]. 법제처 홈페이지(검색일 2016. 4. 18). <http://www.moleg.go.kr/>
- 이경진·김선아·강병직·최진영(2013).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준거 개발. *영재교육연구*, 23(2), 193-213.
- 이명환·박수연(2010). 독일의 유아정책. 육아정책연구소.
- 이소희·곽영숙·정유숙·이소영·김봉석·손석한·정운선·양재원·방수영·황준원·홍민하·이연정·반건호(2014). 북한의 보육 정책 및 현황.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5(1), 1-5.
- 이윤진·구자연(2013). 통일에 대비한 육아지원분야 통합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김아름·이민경·박영자·김화순(2016). 남북한 여성가족 통계 비교 연구. 여성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서문희·김선화·박영자(2011).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영유아 양육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이정림·김경미(201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육

아정책연구소.

이윤진·정재훈(2018). 독일의 육아지원정책 동향. 육아정책연구소.

임순희·조정아·이규창(201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통일정세분석, 2012-02, 1-38.

장명봉(편)(2018). 최신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장원주·이화도(2018). 남북한 유아교육과정 비교. 비교교육연구, 28, 217-242.

조성은(2018). 북한 영유아 및 아동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조와 발전방안. 보건사회연구원.

조성은·고혜진·송철중·유민상·이윤진·이준우·조영주·정지웅·김예슬·조보배(2019).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정아·김엘리·문아영·윤보영(2019).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최민수(1996). 북한 유아교육론. 서울: 문음사.

통계청(2019). 2019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한만길(2014).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일교육. 남북한 통일실현을 위한 교육의 방향과 과제. 제4회 창의인재 교육포럼 및 제62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홍승아·김소영·김혜영·최진희·임희정(2016). 통일 대비 여성·가족 정책 추진 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연구(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lisch, Jeanette Maria und Monika Buehr und Ulrich Holzbauer, Nachhaltigkeits-, "Garten". Aachen: Shaker Verlag GmbH, 2015.

BFSFJ, Mehrgeld fuer Kinderbetreuung, 17.06.2020, op. cit., 2020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mehr-geld-fuer-die-kindertagesbetreuung/156678>, 검색일: 7월 23일)

BMFSFJ, Pressemitteilung vom 23.8.2019. „Gute-KiTa-Vertrag“ für Sachsen-Anhalt: Fachkräfte-Pakt und Eltern-E(<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gute-kita>, 검색일: 2020.8.30).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Lange Wege der Deutschen Ein

heit, Kitas und Kindererziehung in Ost und West. 18.8.2020(<http://www.bpb.de/geschichte/deutsche-einheit/lange-wege-der>, 검색일: 2020.8.25.).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FSFJ), Mehrgeld fuer Kinderbetreuung, 17.06.2020(<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mehr-geld-fuer-die-kindertagesbetreuung/156678>), 2020(검색일: 2010.8.25.).

C. H. Lawshe(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Choi MS.(1996). A study on curriculum contents of kindergarten of North Korea. *J Korea Open Assoc Early Child Edu*, 1, 203-228.

Datenquelle: BArch, DR 4/37, Band 2 aus: Kindergärten; entnommen: <https://deutsche-einheit-1990.de/ministerien/mfbw/kiga/>(검색일: 2020.8.30.).

e-나라지표, http://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011 (2020. 6. 02. 인출). 원출처: 인구동향조사

Grober, Ulrich, Die Entdeckung der Nachhaltigkeit - Kulturgeschichte eines Begriffs. Muechen: Verlag Antje Kunstmann, 2013; Alisch, u.a., op. cit., 2015.

Henry-Huthmacher, Christine, "Kinderbetreuung in Deutschland - Ein Überblick," in: Konrad-Adenauer-Stiftung(Herausgeber), Arbeitspapier/ Dokumentaionherausgeben, Nr. 144/2005(https://www.kas.de/c/document_library/get_file?uuid=8d691d49-dd5b-b43c-0852-1f9ba4052aeb&groupId=252038, 검색일: 2020.8.19.).

Humanitarian Country Team(2019). 2019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Kindertagesbetreuung Betreuungsquote von Kindern unter 6 Jahren nach Bundesländern(<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Soziales/Kindertagesbe>, Stand 30. September 2020, 검색일: 2020.9.3).

Kindertagesstaetten und Kindererziehung(<file:///C:/Users/XNOTE/Down>

- loads/ UDGJ5E.pdf, 검색일: 2020.8.28., 2020. 8.29).
- Kindertagesstätten öffentlicher und freier Träger 2017,29.4.2018 (<https://fowid.de/meldung/kindertagesstaetten-oeffentlicher-und-freier-traeger-2017>, 검색일: 2020.8.25.).
- Lauterbach, Wolfgang, "Familie und private Lebensformen," in: Glatyer und Ostner (Hrsg.), Deutschland im Wandel, sozialstrukturelle Analysen. Oplade: Leske + Budrich, 1999, S. 239-254.
- Lee YJ.(2006). Research on child care system of North Korea and issue on women. *J Early Child Educ Educare Welf*,10,53-77.
- Library of Congress (2007). Federal Research Division Country Profile: North Korea
- Müller-Rieger, Monika, "Es kann doch nicht alles falsch gewesen sein – oder?," in: Dies. (Hg.), Wenn Mutti früh zur Arbeitgeht ... Berlin: Argon, 1997, S. 11-18.
- Pressemitteilung Nr. 379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vom 26.09.2019.(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19/09/PD19_379_225.html, 검색일: 2020.9.1.)
- Sachsen-Anhalt-Monitor 2007, Politische Einstellungen zwischen Gegenwart und Vergangenheit, S. 58(file:///C:/Users/XNOTE/Downloads/2007%20Politische%20Einstellung%20zwischen%20Gegenwart%20und%20Vergangenheit.pdf(검색일: 2020.9.1).
- Sachsen-Anhalt-Monitor 2009, Werte und politisches Bewusstsein. 20 Jahre nach dem Systembruch, S. 80(https://lpb.sachsen-anhalt.de/fileadmin/Bibliothek/Politik_und_Verwaltung/MK/LPB/Sachsen-Anhalt_Monitor_fruehe/Sachsen-Anhalt-Monitor_2009.pdf, 검색일: 2020.9.2).
- Statistisches Amt des Bundes und der Laender, 2010(<http://www.destatis.de>, 검색일: 2020.7.30).
- Statistisches Bundesamt, Datenreport 1997, Schriftleihe Band 340. Zahlen und Fakten uebe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1999.

Statistisches Bundesamt (Hrsg.), Statistisches Jahrbuch 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atistisches Jahrbuch 1993,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Hardcover, 1 Jan. 1993.

Statistisches Bundesamt: Mikrozensus,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0, www.bpb.de(검색일: 2020.8.30).

Statista, Anzahl der Geburten in Deutschland von 1991 bis 2019(<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235/umfrage/anzahl-der-geburten-seit-1993/>, 검색일: 2020.3.30.).

UNESCO(2003).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ational Plan of Action on Education for All

UNESCO(2008). Country Report on Education For All(EFA)

UNICEF DPR Korea Country Office(2018). Annual Report for 2018.

UNICEF(201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UNICEF(2019). The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DPRK.

〈북한유치원 높은반 교과서〉

1권 “우리유치원” (4-5월)

2권 “무지개동산”(6-8월)

3권 “참말 좋은 우리나라” (9-10월)

4권 “흰눈이 내려요”(11-12월)

5권 “소학생이 된대요”(2-3월)

〈북한 유치원 관련 자료〉

강성현, “유치원에서 놀이진행과정에 지켜야 할 요구”, 『교양원』주체98(2009) 제1호, p.53.

강정숙, “유치원 낮은반 룰동수업의 특성과 그 지도에서 나서는 요구”, 『교원선전수첩』 주체98(2009) 제4호, pp.157-158.

- 계정해, “셈세기수업에서 직관물이 차지하는 위치와 직관물리용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교양원』 주체98(2009) 제2호, pp.45-46.
- 김국화, “놀이는 어린이들 속에서 마음과 육체발달의 추동력”, 『교양원』 주체100(2011) 제3호, p.32.
- 김국화, “어린이들속에서 민속놀이를 잘 조직하기 위한 방도 몇가지”, 『교양원』 주체98(2009) 제3호, p.34.
- 김송영, “그리기, 만들기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지능을 높여주었다”, 『교양원』 주체99(2010) 제2호, pp.44-45.
- 김영애, “노래와 춤과목수업에서 교양원의 본보기동작보여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양원』 주체98(2009) 제3호, pp.42-43.
- 김영애, “산가지놀이방법 몇가지”, 『교양원』 주체99(2010) 제3호, pp.31-32.
- 김옥, “어린이들의 시창능력을 키워주려면”, 『교양원』 주체99(2010) 제4호, p.37.
- 김옥희, “노래교수시 어린이들의 호흡지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교양원』 주체99(2010) 제3호, p.30.
- 김옥희, “춤동작은 결부하여 노래가사를 빨리 인식시키기 위한 교수방법”, 『교양원』 주체98(2009)년 제1호, p.51.
- 김향미, “새로운 교수교양방법들을 부단히 탐구하자”, 『교양원』 주체98(2009) 제1호, pp.31-33.
- 로경화, “셈세기교과서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수학적 지능을 키워주려면”, 『교양원』 주체99(2010) 제1호, p.31.
- 로순녀, “바둑놀이를 지적능력을 부쩍 높여주었다”, 『교양원』 주체98(2009)년 제2호, p.54.
- 리명철, “교원대학 《어린이위생학》과목의 과외학습지도방법”, 『교원선전수첩』 주체100(2011)년 제4호, pp.87-88.
- 리명철, “교원대학《어린이위생학》과목교수에서 비교수법을 적용하자면”, 『교원선전수첩』 주체98(2009)년 제1호, pp.70-71.
- 리장욱, “학생들의 교수실천능력을 높여줄수 있는 방교수체계”, 『교원선전수첩』 주체100(2011)년 제4호, pp.139-140.
- 리혜숙, “새로운 교수교양방법들을 부단히 탐구하자”, 『교양원』 주체98(2009) 제1호, pp.27-28.

- 박성진,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이끌어줄 수 있는 교수용다매체의 설계방법”, 『교원선진수첩』 주체98(2009)년 제3호, pp.110-111.
- 박혜영, “유치원 낮은반 어린이들의 야외관찰지도에서 놀이방법을 적용하여 지능을 계발시키는 방법”, 『교양원』 주체98(2009) 제4호, p.39.
- 백운도, “교수사업에서 정성적고찰과 정량적 고찰의 통일문제”, 『교원선진수첩』 주체98(2009)년 제3호, pp.155-156.
- 본사기자, “주선으로 틀어진 고리-웅진군유치원 원장 주명숙 동무의 사업에서-”, 『교양원』 주체98(2009)년 제1호, p.37.
- 본사기자, “해보기수업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줄 때”, 『교양원』 주체98(2009)년 제2호, p.55.
- 사설, “창조적방법만이 은을 나타낸다”, 『교양원』 주체98(2009) 제1호, p.36.
- 사설,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올리며 올해 학교전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요구”, 『교양원』 주체98(2009) 제1호, p.3.
- 사설,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올리며 올해 학교전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 『교양원』 주체98(2009)년 제1호, p.4.
- 안일룡, “낮은반어린이들에 대한 청음지도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교양원』 주체99(2010) 제2호, p.48.
- 안일룡, “유치원 높은반 어린이들에 대한 노래지도에서 나서는 문제”, 『교양원』 주체99(2010) 제3호, pp.28-29.
- 장명숙, “우리식의 독특한 교육교양형식인 유치원 일과활동에 대하여”, 『교양원』 주체99(2010) 제2호, pp.50-51.
- 전병두, “우리말 공부놀이”, 『교양원』 주체100(2011) 제4호, pp.28-29.
- 전병두, “유치원 어린이들의 말소리지도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교양원』 주체98(2009) 제1호, p.50.
- 전향숙, “어린이들에게 대렬운동기초 지식을 잘주자면”, 『교양원』 주체99(2010) 제1호, p.48.
- 정은실, “새로운 교수교양방법들을 부단히 탐구하자”, 『교양원』 주체98(2009) 제1호, pp.29-30.
- 조금순, “그리기수업과 주의집중문제”, 『교양원』 주체99(2010) 제2호, pp.39-40.

- 조금순, “컴퓨터편집물을 리용하여 쉼세계 수업의 효과를 높였다”, 『교양원』 주체100(2011) 제3호, pp.25-26.
- 조순옥, “교원대학 《자연관찰》실습에서 학생들의 관찰능력을 높여주자면”, 『교원선전수첩』 주체98(2009)
- 조은순, “돌다리 건너기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평형조절능력을 키워주는 방법”, 『교양원』 주체99(2010) 제3호, p.48.
- 편영숙, “문답방법을 잘 적용하여 이야기내용을 속속들이 깨우쳐 주었다”, 『교양원』 주체98(2009) 제2호, p.39.
- 한성희, “어린이들에게 수효표상을 잘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교양원』 주체98(2009) 제4호, p.31.
- 한영해, “쉼세계교수에서 교과서그림을 통한 관찰조직을 잘하여 교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양원』 주체98(2009) 제2호, p.44.
- 허인희, “컴퓨터편집물로 쉼세계과목교수의 효과성을 높이었다”, 『교양원』 주체100(2011) 제2호, pp.48-49.

〈북한 관련 인터넷〉

북한 00 유치원 전자교과서 홍보 예시

<https://www.instagram.com/p/BwMFXo8lVMM/>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CL400>, 2020. 4월 인출

〈KOSIS, 북한통계〉

KOSIS,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_T_1ZGA21&conn_path=I3 (2020. 4. 28. 인출). 원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http://kosis.kr>〈북한인구추계〉

KOSIS,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_T_1ZGA27&conn_path=I3 (2020. 4. 28. 인출).

KOSIS,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_T_1ZGA284&conn_path=I3 (2020. 4. 28. 인출). 원출처: UN「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KOSIS,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E03&conn_path=I3 (2020. 4. 28. 인출). 원출처: UNICEF「<http://data.unicef.org>」.

KOSIS,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AQ201&vw_cd=MT_RTITLE&list_id=OTIT_WDITIT_Y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A7 (2020. 6. 2. 인출). 원출처: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World Bank:인구 동향」

KOSIS,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BWB0093&conn_path=I3 (2020. 4. 28. 인출). 원출처: UN「<http://unstats.un.org/sdgs>」

KOSIS,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IZGA01_006 (2020. 6. 02. 인출). 원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A Study on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o Cope with Unification

Changhyun Park · Nayoung Kim · Jisoo Kim

This study collected and multilaterally analyzed varieties of data to grasp North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hose data collection is difficult due to the interception of information. This study identified North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or the past 10 years and aimed to grasp the North Korean situation through North Korea-related studies indirectly. This study also tried to examine how North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discussions were formed and carried out from domestic and foreign press data from the Kim Jong-un era until the present.

This study grasped the situation by grouping the domestic and foreign previous studies collected from 2011 to 2020 into the groups of studies of state research institutes, academia's studies, overseas studies, and studies related to early childhood peaceful unification to analyze North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ituation. When looking at keyword networks on domestic literature data, the frequency of such keywords as North Korean refugees,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unification, education on unification, and South and North Korea was high. Due to the limitations of study on North Korea, it is challenging to grasp North Korean early childhood, and there seem to be many studies on North Korean refugees.

This study presented implications in comparing the North Korean

Child Care Act and South Korean laws concerning the legal system. The tasks related to South and North Korean early childhood legal systems to cope with unification are about the problems, including the scope of fre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is study also carried out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kindergarten teachers and daycare center teachers. The interviewees were limited to those who were in charge of North Korean early childhood work among North Korean refugees. The interviewees were 11, and 28 sessions of the interviews were performed, including contact, contactless, and written opinion presentation.

Domestic and foreign press data related to North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ere analyzed. The related keywords were collected to analyze extensive domestic and foreign social data, a data mart was constructed, and news and blogs were analyzed. The relevant keywords were examined beforehand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googling, and primary data were visualized by enhancing filtering sophistication and arranging domestic and foreign data. This study aimed to find what keywords exist with the keywords concerned and search for connecting link with the linked keywords through a network analysis on the kindergarten, daycare center, child, early child, kid, education, care, childcare, and school, which are the keywords of this study. Through the word cloud drawn, focusing on kindergarten's keyword, that Kim Jong-un and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are mutually linked could be identified. For the keyword of the daycare center, the node related to support took up quite a proportion, compared to North Korea, hospital, world, food, fund, malnutrition, UNICEF, and medical treatment. It was known that a slogan concept approach was made through projects and events via the associated words such as event, international, milk powder, and pregnant woman.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to grasp the change proc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stitutions in East and West Germany after Germany's unification. After Germany's division into East

and West Germany,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developed differently by mutually different policies. Nonetheless, commonplace things in East and West Germany were partially found out. After unification, the East German teachers needed an adaptation process to the new environment and conditions in the East and West German teachers' integration process. The East German teachers accustomed to the East German unified early childhood care system required training to adapt to the West German system pursuing diversity.

This study also conducted expert Delphi research. The first and second Delphi researches were carried out by selecting 20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xperts. Interview detail compositions, extensive social data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nd 21 sessions of expert advisory meetings consisting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experts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xperts were held to identify the research direction setting.

Through diversely performed research methods, the draw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tasks of South and Nor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discussions on the scope of South Korean compulsory education and free education and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re necessary. Second, there is a need to include peaceful unification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Nuri Curriculum. Third, because the early childhood stage is excluded in the current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its revision is needed. Fourth, peaceful unification political education linked with human rights,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engagement policy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o life-long education is needed. Fifth, understanding education on North Korea targeting citizens concerning early childhood peaceful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performed. Sixth, a system to educate teachers related to peaceful unification needs to be revised. Seventh, a South and North Korean early childhood council should be organized. Eighth, sustainable education should place itself in the front line of education through value education, taking into account unification

beyond sustainable education's execution of specific organizations' programs. Ninth, unification-related future research is necessary, including a study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based on estimated scenarios to cope with unification, the continuous in-depth study of German case, and the need for diversification of research direction.

This study presents the three-step unification measures for South and North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s follows: First, information, academic, and human exchanges related to South and North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hould be consolidated, and a council to promote this needs to be organized in the peace and exchange cooperation step (first step). Second, a standard policy model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eeds to be developed, and the means to construct the said model based on peaceful exchanges through the council should be sought in the South and North Korean alliance step (second step). Third, understanding among members must be enhanced, and a plan to ease psychological heterogeneity aimed at the unified country should be established (third step). An egalitarian and future-orien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ystem with high publicness should be constructed by establishing a plan that can raise reliability after adequately considering predicted problems before and after the unification.

Keyword: North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Peaceful Unification

[부록 1]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위한 연구 참여자 명단

연번	이름	소속	연번	이름	소속
1	강00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1	신00	충북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2	김00	중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12	양00	교통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3	김00	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13	양00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4	김00	안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14	염00	건국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5	김00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5	왕00	전교조 유치원위원장
6	김00	어린이어깨동무 사무국장	16	이00	경인교대 유아교육과 교수
7	김00	동남보건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17	이00	부경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8	문00	피스모모 대표	18	임00	아이미소 연구소 소장
9	박00	전)전교조 유치원위원장	19	정00	대림대학교 겸임교수, 명성유치원 원장
10	박00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명예교수	20	지00	전)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부록 2]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분석 연구 : 1차 델파이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분석 연구’를 위한 델파이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영유아교육·보육 현황을 파악하고, 기초자료들을 토대로 통일대비 육아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 영유아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 2) 통일 후 예상되는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과 3) 바람직한 대비 방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이며, 1차 의견을 수합하여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새로운 시대 육아정책의 아젠다를 설정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바쁘시겠지만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적 사항이나 설문내용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일정은 9월 30일(수) ~ 10월 6일(화)까지입니다.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서 1차 조사지는 10월 6일(화)까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본 조사의 응답 결과가 연구 보고서에 활용될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인)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 조사담당 :
- 연구책임 :

I.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서의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과 개선 방안에 대해 기술해주시시오.

1.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평화·통일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V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구성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해주세요.(현황 및 방향성, 프로그램, 교사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 칸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구분	문제점	정책 방안
현황 및 방향성		
교육과정 프로그램 누리과정연계		
교사교육		
지역사회연계		

- II. 통일이 된다면 예상되는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변화에 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주시고, 예측되는 문제점과 바람직한 대비 방안(정책, 법제도 등)에 대해 기술해주시시오. (칸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구분	예상되는 변화	대비방안
방향성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사양성 및 재교육 시스템		
기관 통합 및 유보통합		
학제		

Ⅲ. 기타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추가의견

〈 귀하의 개인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소속기관:

- ① 대학 ② 연구기관 ③ 행정기관 ④ 기타()

2. 귀하의 연령대는?

-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3.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4. 귀하의 학력은?

- ① 학사 ② 석사 ③ 박사

5.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은? (대학, 연구기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근무 기간 포함)

- ① 5년 이하 ② 6~10년 이하 ③ 10~15년 이하 ④ 16년 이상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3]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분석 연구 : 2차 델파이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분석 연구’를 위한 델파이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영유아교육·보육 현황을 파악하고, 기초자료들을 토대로 통일대비 육아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 영유아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 2) 통일 후 예상되는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과 3) 바람직한 대비 방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2차 델파이 조사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새로운 시대 육아 정책의 아젠다를 설정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바쁘시겠지만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적 사항이나 설문내용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일정은 10월 15일(목) ~ 10월 21일(수)까지입니다.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서 1차 조사지는 10월 21일(수)까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본 조사의 응답 결과가 연구 보고서에 활용될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인)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 조사담당 :

□ 연구책임 :

* 응답자 인적사항
 현재근무기관: () (예시: 유아정책연구소)
 직책: ()
 최종학력: 박사(), 석사(), 학사()
 최종학위취득전공명: () (예시: 유아교육)
 성별: 여자(), 남자()
 연령: 만 세

I. 다음은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문제점, 정책 제언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해당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및 중요도의 측면에서 평가하여 해당하는 칸에 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도는 기술되어 있는 항목이 필요하거나 실현되어야 하는 수준 또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1.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방향성에 관한 문제점

	항목	동의 정도				
		동의정도 낮음 ←		→ 동의정도 높음		
		1	2	3	4	5
1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확립, 방향성에 대한 관심과 관련 담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2	평화·통일교육의 유아교육과정 및 표준보육과정의 반영은 미흡한 편임.					
3	평화·통일교육을 할 때, 북한을 가난한 나라, 도와주어야 하는 나라로만 접근하여 유아들에게 오히려 편견을 가질 수 있음.					
4	평화·통일교육을 할 때, 역사성을 소홀히 하는 대신 체제와 발전상을 비교하여 남한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반통일 정서를 오히려 강화시킴.					
5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남북의 문화 이해 및 소통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이 없어, 개별 교실 상황이나 교사 관심에 따라 평화, 통일 교육 여부가 결정해야 함.					
6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일시적, 단절적 교육에 그치고 있음. (목적, 목표, 교육내용의 비구체화)					
7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이 없으므로, 평화통일 교육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8	평화·통일교육이라 부르나 군국주의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 국민국가 중심의 국가주도 안보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9	북한의 실상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함					
10	한반도, 한민족, 서로 돕기 등 추상적, 이론적, 지식적 접근을 하고 있음.					
11	유아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12	통일교육은 대부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성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음.					
13	현행 '통일교육지원법'(8조)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만을 언급하고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일교육이 방치되고 있음.					
14	한민족으로서의 역사적 정체성과 인종적 동일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다문화 시대의 흐름에 적절하지 않음					

1-1.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평화·통일교육 및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의 방향성에 관한 정책제언

	항목	중요도				
		중요도 낮음		←	→	중요도 높음
		1	2	3	4	5
1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큰 방향을 정하고, 지자체별로 지역적 특성 및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함.					
2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교육·보육 철학 및 교육의 목적과 목표, 추구하는 인간상 등 교육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3	표준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며 민주시민교육이 핵심이기 때문에 모든 단원과 주제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함.					
4	평화·통일교육을 고려할 때, 남북한 법제 및 학제 통합, 남북한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의 교육·보육 연한 통합, 교육과정 통합, 교사양성과정 통합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5	‘통일교육지침법’ 제6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제8조에는 유치원을 포함시키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6	남북한이 사용하는 용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7	남북한의 유아교육과 보육 공공성을 확대하고, 남북한의 기관에 따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차이를 최소화해야 함.					
8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					
9	남북한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연구 활성화가 필요					
10	북한에 대한 대상화, 적대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디톡스(detox)가 우선 필요					
11	국민국가의 틀은 최소한의 구분 정도로 인식하고 지구에 공존하는 지구시민성의 관점에서 정체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유아교육과정부터 담아 내야함.					
12	고정되고 단일한 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아닌 유동적이고 다채로운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함.					
13	총체적 교육, 남북한 교육관, 발달에 적합한 놀이중심교육에 대하여 국가수준에서 합의된 통일교육이 필요함.					
14	세계와 연관된 인재상을 설정하고, 질서, 평화유지방식, 갈등극복전략, 영유아 인권, 교육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15	자유와 평화에 대한 양국의 합의를 찾기 위한 노력					
16	유아 의무교육, 무상교육 적용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북한은 만5세 의무교육, 남한은 부분 무상교육)					
17	통일교육의 방향성 또한 전체 플랜 속에서 영유아교육자들의 사회적 합의, 숙의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우선 필요					
18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통합마스터플랜을 구축하고, 분야별 추진과제도출이 필요					
19	당분간 남·북의 교육체제를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을 모색하되 신념과 철학 부분의 방향성은 하나의 민족과 더불어 흥익인간정신,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 보육의 실재를 실천적 방향성을 구축해야 할 것임					
20	교육의 방향은 세계시민교육, 배려와 협력, 공존과 존중, 타인이해 및 평화이해, 포용과 사랑의 방향이어야 함.					

2.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화·통일교육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점

	항목	동의 정도				
		동의정도 낮음		동의정도 높음		
		1	2	3	4	5
1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북한 및 평화통일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관련 교육내용이 부재함.					
2	평화·통일교육은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중 '더불어 사는 사람', 5개 영역 중 '사회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나 생활주제 및 교육적 접근에 대한 오해로 평화, 통일 관련 교육은 실제 교육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함					
3	북한을 세계여러나라 중 하나로 가볍게 다루고 있음					
4	초등교육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강화 필요하며 북한의 사회,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5	현재 평화·통일교육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해외아동 구호를 위한 지구촌 나눔교육 등 단순한 이벤트식 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6	누리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거의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성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7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사회관계에서 통일교육을 담아내고자 하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단일한 정체성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국가주의적 한계가 명료함. 북한에 대한 이질성과 동질성에 대한 감각을 고루 형성하겠다는 목표와 교육과정 구성이 괴리되어 있음.					
8	세계시민이라는 지향과 국민국가 지향 사이에서 유아교육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음.					
9	현재 통일교육과 관련한 활동자료는 많지 않음.					
10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유아교육내용이 상당히 피상적이고 이해가 어려움					
11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교과목식으로 편성된 교육과정과 대한민국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상반된 철학과 내용이 상충될 것으로 예상됨					
12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인식도는 높으나 실천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2-1.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평화·통일교육 및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관한 정책제언

	항목	중요도				
		중요도 낮음		중요도 높음		
		1	2	3	4	5
1	평화감수성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평화 공동체의 내용이 누리과정 전반에 포함되어야 함.					
2	사회관계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분단과정에 관한 교육과 현재 상황에서의 한반도의 통일 지향적인 교육에 대한 내용을 누리과정에 삽입해야 함					
3	북한에 대한 친근감과 풍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북한의 어린이들이 현재 즐기는 동요, 동시, 놀이, 문학작품 그리고 현재 북한 어린이들의 관심사나 유치원 생활 등 실제 생활 경험을 접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4	누리과정의 사회관계 영역과 연계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공통점과차이점),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상호존중,소통,배려등)을 주요교육내용으로접근하는것이필요함					
5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활동 제공을 고려해볼 수 있음					
6	최근 북한 영유아교육과정도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내용으로 가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남한의 교육과정과 통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7	누리과정의 사회생활 영역을 확대 개편하여, 세계시민교육, 민주정치교육, 공동체 의식 등을 보충할 필요가 있음					
8	유아 및 보육기관의 특성에 맞는 평화·통일 교육 연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함.					
9	민족의 동질성 고취를 위한 노력 경주, 이를 위한 언어, 풍습, 문화유산 등 교육자료 연구와 보급 필요					
10	분단과 통일에 대한 개념 보다는 보편적인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과정이 중요함. 유치원 과정부터 체계적인 평화교육 프로그램과 평화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내용 마련이 필요함					
11	평화와 통일이라는 개념의 '교육적 함의'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함					
12	누리과정에 평화 감수성을 내면화 할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 관련 핵심역량 포함					
13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 체계의 확대를 통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유아교육·보육학계및전문가집단,시민사회,학부모집단의참여유도필요					
14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관련 지침 및 정책 문서 보완 필요					
15	북한알기라는 독립된 생활주제를 개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과 발전상을 제시하여 통일의 필요성과 꿈을 확산 시킴. 인터넷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북한의 유적, 명승지 관람 및 여행하기 등을 실현					
16	북한유치원의 문서화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실행되는 교육과정의 다양성에 대한 자료분석이 요구됨					

2-2.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교육과정 관련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항목	동의 정도				
		동의정도 낮음		← 동의정도 높음		
		1	2	3	4	5
1	교육과정의 구성요소/영역은 유사하나, 교육신념과 가치 및 교육목적의 차이로 인한 통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2	통일이 되면, 북한의 교육과정은 실제적으로 남한화 되고, 남한의 교육과정에는 북에 대한 형식적 소개(언어, 음식 등) 중심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3	통일이 된다해도 체제상 통합은 어려울 것이므로, 교육과정은 미래대비교육,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평화교육을 유아기부터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4	통일 직후에는 남북한 각각의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통일 전부터 논의되어왔던 공통내용들을 교육과정 운영에 부분적으로 포함하게 됨					
5	북한 유아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정치사상교육 측면만 거둬내면 통합에 별 문제가 없으나 교수방법 등에서 기본적인 개념정의, 용어정의 등을 조율해야함.					
6	남북한의 유아교육·보육 전문가가 모여 통일 이후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 있음. 한 번에 교육과정을 통합하기보다는 우선 순위를 정해 점차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임.					
7	북한에서의 놀이 중심의 통합교육 이론 도입은 남북한 공통의 유아교육과정 정립을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 가능					
8	북한과 남한 각각 국가수준교육과정을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통일 3년 이후 정도부터 점차 공통교육과정을 위한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음.					
9	남북한이 반드시 동일한 교육과정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봄.					
10	남북한 교육과정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유아교육과정 통합의 예를 다양화 할 필요 있음(예. 놀이중심 통합-남한형, 주제활동중심 통합형-북한형). 통일 이후, 북한 거주 영유아 대상으로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음					

3.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화·통일교육의 교사교육에 관한 문제점

	항목	동의 정도				
		동의정도 낮음		동의정도 높음		
		1	2	3	4	5
1	유치원 자격증 승급교육, 원장 자격 교육 등에서 통일교육을 다루고 있지만 유아교육을 모르는 강사에 의해 교육되고 있어 강의를 들은 후에도 유치원 현장에 적용점을 찾기는 힘들, 어린이집 승급, 직무교육에서는 '다문화 교육'에서 다를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교수요목은 제시되고 있지 않음					
2	교사양성기관에서의 통일교육은 형식적이며, 단위 특강으로 대부분 시행됨					
3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는 '유아사회교육' 등의 과목에서 중점적 주제로 다루어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평화, 통일에 대한 주제 누락됨.					
4	임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회의 돌봄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과 현장의 과중한 노동으로 통일, 평화 등의 주제를 교사교육 과정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현실임.					
5	교사들 역시 국가중심의 안보교육의 틀을 벗어나 본 경험 없이 새로운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음					
6	유아교사 양성과정에 북한 유아교육이나 평화통일 교육 관련 교과서가 부재함.					
7	유아교사를 포함하여 교직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통일교육을 수강하고 있음. 이런 경우 통일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강좌가 구성되므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현장실천과 관련된 내용이 부족함.					
8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에서 풀어나갈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9	교사이해자료, 교사 연수,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부족					

3-1.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평화·통일교육 및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의 교사교육에 관한 정책제언

	항목	중요도				
		중요도 낮음		중요도 높음		
		1	2	3	4	5
1	유아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에 북한 유아교육·보육 이해 및 평화통일 교육 관련 교과목의 편성이 필요					
2	양성과정에서 사이버를 통한 교육보다는 활발한 토의 및 남북 교육자료의 직접 경험, 유아교육기관 참관, 현장전문가 특강 및 질의응답 등의 대면교육을 진행할 필요 있음.					
3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편적 평화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위해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교사교육이 지속되어야 함					
4	교사교육에 분단이 되기 과정과 이에 따른 역사교육도 필요함.					
5	교사들이 일상에서 평화감수성을 키우는 교육내용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 예술을 접목시킨 평화교육 연수와 평화·통일교육의 대한 교사교육이 필요함.					
6	교구와 교재 보급,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교사들이 먼저 평화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함.					
7	어린이집, 유초중고의 교사양성과정 및 재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이 필수과정으로 다루어져야 함					
8	통일부 통일교육원 원내교육 과정 학교통일교육 및 통일교육전문강사 교육대상에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도 포함시킬 필요 있음					
9	민주시민교육, 다문화 교육, 반편견 교육, 평화교육 등 다양한 내용도 고려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학습 모형을 개발 해야 함					
10	평화·통일교육 역량의 개념 설정이 필요함.					
11	교사교육은 북한에대하여해, 평화통일에대하여해, 평화·통일교육수행능력(교육과정구성,교수학습방법등)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12	토론 및 사례나눔의 교사교육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					
13	교사들이 북한에 관한 자료나 통일교육자료를 쉽게 접할수 있는 플랫폼 또는 앱개발 필요					
14	양성교육과 재교육을 통해 북한유아교육의 실상과 통일대비교육에 대한 교사 교육 강화하되, 과목 개설 보다 10시간 정도 이수제 도입					
15	교사가속해있는문화(교사-기관,교사-교사,교사-부모등)안에서 '사회적위치, 힘의 위계 등', '민주적 협의과정 및 협의체'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필요함.					
16	3세 미만 영아전담교사양성과 3-5세 유치원 교사 양성을 이원화함으로써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보육수요 제공					
17	통일에 대비하여 남한에서의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양성체제, 선발체제,재교육체제 및 보수체계의 일원화 필요					
18	공사립 구분없이 국가교사를 통한 선발, 정부가 급여 제공해야 함					
19	통일 대비한 교사양성 및 재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책 매뉴얼 제작 필요(북한 교사양성과정의 교과와 한국 교사양성과정의 공통 교과 및 추가 이수 교과 선정 등).					

	항목	중요도				
		중요도 낮음		중요도 높음		
		1	2	3	4	5
20	철학, 인문학 등 남한의 교사양성과정에서 약화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 강화를 통해 탈북자, 북한 등 타자에 대한 교사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선제될 필요.					
21	주무부서의 통합과 재원확보에 대한 모색이 요구됨					
22	남북한 교사양성 제도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교사양성 통합 모델 마련, 남북한 영유아 교사 간 교류 및 소통 채널 확보					
23	남북한 유아교육·보육의 이질성과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북한 교원간 왕래를 활성화하기					
24	재교육시스템은 무엇보다도 통일 후의 역사의 재인식과 통일한국의 가치관과 신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재교육 내용이 요구됨					

3-2.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영유아 교사 제도의 변화에 관한 동의 정도

	항목	동의 정도				
		동의정도 낮음		동의정도 높음		
		1	2	3	4	5
1	북한 유치원 교양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은 남한 유아교육과로, 북한 보육원을 양성하는 '보육원양성소'은 남한 보육과로 통합되어야 하는데 양성기간 및 자격에서 남북의 제도가 상이함. 또한 남한의 경우에는 교사양성과정이 유아교육과, 보육과, 보육교사교육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으로 혼재되어 있고, 양성 기간도 달라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요구됨					
2	통일이 되면, 남북 모두에서 남한 출신 교사 선호하며, 남한에서는 언어 등의 문제로 북한 출신 교사 배제, 혹은 특별활동 교사 등 한시적 채용할 가능성이 높음					
3	통일 후, 보육교사의 경우 북한 6개월, 남한 1년 이상인 점을 볼 때 불일치 부분은 원격교육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어 조정 및 보충교육이 필요. 유치원 교사는 남북한 모두 3년제 이상이므로 큰 문제 없음					

4.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화·통일교육의 지역사회, 시민 사회, 국정과제와의 연계 및 기타에 관한 문제점

	항목	동의 정도				
		동의정도 낮음		← 동의정도 높음		
		1	2	3	4	5
1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와 연계 교육활동들이 지역 군부대 현장방문이나 무기체험, 또는 지역 퇴역군인과의 만남, 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으로 반공시대 군사안보 중심의 활동으로 진행되는 사례들이 빈번함.					
2	평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또는 문화활동을 접목시킨 유아 대상의 평화교육 전문 기관이 부재함.					
3	유아를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유아를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인식도 존재함.					
4	한국은 유일한 분단 국가로써 평화, 통일은 당연한 국가적 주제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 지역적 관심이 협소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평화, 통일 문제를 교육과정으로 다루고자 하는 시도가 빈약함					
5	최근 지역사회에서의 평화 통일 주제는 문재인 정권 100대 과제 중 하나인 통일국민협약의 구성 및 모색 과정에서 다양한 평화 통일교육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중성이 떨어짐					
6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이나 축제가 소규모로 진행되어 행사성, 일회성 참여로 그치고 있음					
7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과 달리 유아교육영역은 시민사회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시민사회단체 역시 유아교육에 대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함					

4-1.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평화·통일교육 및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의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 및 기타에 관한 정책제언

	항목	중요도				
		중요도 낮음		← 중요도 높음		
		1	2	3	4	5
1	시민사회의 다양한 시민학교들과 유아평화통일 교육이 연계되어야 함.					
2	국가적 과제로서의 평화·통일교육에 부합되도록, 유아교육에서 하나의 주제로 연구 활성화가 요구됨. 또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념을 초월한 교육내용으로서 연구되고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함					
3	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가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설득력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4	남북한의 교육 및 사회문화 현황의 DB 구축 및 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필요함.					
5	통일비용 중 유아교육/보육 관련 재정확보가 필수적임.					
6	통일을 대비하여 영유아교육보육 분야의 인적 교류, 교재교구나 시설 설비 등의 물적 지원 등을 통한 화해협력단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의 통합 및 학제에 관한 중요도 체크

	항목	중요도				
		중요도 낮음	← →			중요도 높음
		1	2	3	4	5
1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0-2세까지는 영아교육부서가 관장하고, 3-5세까지는 유아교육부서가 관장하며, 이원화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만2세까지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3세부터는 유치원에 보냄					
2	통일한국 학제는 보편적 국제적인 의무교육 기간으로 볼 수 있는 12년으로 설정한다. 어린이집 3년(0-2), 유치원 3년(3-5, 현재 북한 5세는 의무교육), 의무교육-초등학교 6년(북한 소학교 5년), 의무교육-중학교 3년, 의무교육-고등학교 3년, 유치원 3년 기간은 현재의 경우처럼 의무교육에 준하는 공교육으로 한함					
3	통일 초기에는 남북의 교육·보육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제도를 그대로 존중해주면서 통합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4	남한에서 유보통합이 만 4, 5세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면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5	남북한 모두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공사립을 운영하여 소비자가 선택을 하도록 선택자유화 해야 함					
6	주무부서의 통합이 우선 필요					
7	남북한의 상이한 기관 운영 관련 지침 및 법규를 통일해야 할 것임					
8	남북한의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영유아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남북한 유아교육·보육 행정체계의 통합·정비					
9	남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북한의 유치원과 탁아소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10	통일 전 남북한 유아교육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비교연구와 함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좋을 방법임					
11	영유아교육기관 해당 연령, 의무교육 여부 등에 대한 단계적 계획 수립을 해야함.					
12	남북한 기관운영 체계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기관운영의 통합 모델 마련이 필요함.					
13	학제와 용어의 통일 및 조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4] 북한 영유아교육·보육 관련 심층면담 질문지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심층면담 질문지(예시)

1. [연구참여자 개인특성배경]

- 귀하는 북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 교양원, 보육원 등 근무연한, 담당학급, 역할, 소속 유치원, 탁아소 현황 등

2. [북한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목적과 학습 표준(프로그램 등)]

- 북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본 방향과 목적,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은 어떠합니까?
- 북한의 유치원 높은반 교과서의 내용과 실행양상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가르치나?
- 통합교육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 교육계획안 작성, 관리, 평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 북한에서는 영유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3. 북한 유아교육 보육 시스템의 전달체계, 재정지원현황, 담당부처는 어떠한가요?

- 북한의 유치원과 탁아소는 어떻게 운영되나?
(하루일과, 급간식, 놀이와 놀잇감, 낮잠시간, 등원하원시간, 행사 등)
- 북한의 학제와 재정지원현황, 전달체계는 어떠합니까?

4. 북한 유아교육 보육 시스템의 교직원 관리 체계,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 수준, 아동발달의 성과 등은 어떠한가요?

교양원, 보육원 양성체계, 재교육 관리체계

교사월급, 근무시간 등

가족, 지역사회와 유보 시스템의 관계성

아동발달 관리, 성과 등

5.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변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또는 제도가 있다면, 또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6. 통일이 된다면, 영유아교육보육 체계는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7. 기타

[부록 5] 북한 연구 네트워크 분석표

	키워드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1	북한이탈주민	0.16197	0.15658
2	북한어린이	0.14789	0.14188
3	북한이탈어린이	0.17606	0.09682
4	유아통일교육	0.06338	0.04021
5	통일교육	0.11268	0.08356
6	northkorea	0.14085	0.01400
7	남북한	0.11972	0.08338
8	북한이탈어머니	0.08451	0.02662
9	법제	0.15493	0.13054
10	통일	0.13380	0.14692
11	영유아	0.11972	0.07684
12	자녀	0.09859	0.05715
13	유아교사	0.03521	0.01299
14	북한교육	0.06338	0.05299
15	북한이탈청소년	0.04930	0.02145
16	연구동향	0.04930	0.01402
17	프로그램	0.09155	0.04064
18	북한아동권리보장법	0.02817	0.00116
19	북한여성	0.04225	0.00023
20	children	0.07746	0.00191
21	인식	0.05634	0.01528
22	예비유아교사	0.04225	0.00456
23	비교연구	0.04930	0.00956
24	통합	0.06338	0.01518
25	youngdefectors	0.02817	0.00010
26	정치사회화	0.03521	0.00060
27	북한이탈여성	0.04930	0.01934
28	아동인권	0.04225	0.00304
29	자아존중감	0.04930	0.00374
30	southkorea	0.04225	0.00033
31	북한보육	0.02817	0.00386
32	북한지원사업	0.02817	0.03391
33	보육	0.04225	0.00575
34	자녀양육	0.02817	0.00061

	키워드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35	북한유아교육	0.02817	0.02277
36	누리과정	0.02113	0.00133
37	애착	0.03521	0.00127
38	유아교육과정	0.02113	0.00005
39	아동권리협약	0.02817	0.00323
40	인권	0.04225	0.00214
41	통일외식	0.02817	0.00052
42	북한탁아소	0.01408	0.01149
43	남한어린이	0.03521	0.00398
44	정서조절	0.04930	0.00398
45	북한영유아교육보육제도	0.00704	0.00000
46	김정은	0.03521	0.02284
47	문화적응	0.02817	0.00330
48	사회적지지	0.02113	0.00005
49	적응	0.02817	0.00024
50	북한사회복지법	0.02113	0.01149
51	통일한국	0.02113	0.00256
52	무상보육	0.01408	0.00073
53	교육체제	0.02113	0.01149
54	분리경험	0.02113	0.00000
55	인도적지원	0.01408	0.02277
56	성장과발달	0.02817	0.00034
57	아동복지	0.02113	0.00005
58	양육지원	0.02113	0.00000
59	영양상태	0.02113	0.00000
60	동향	0.02817	0.00020
61	북한모자보건	0.01408	0.01149
62	unification	0.02817	0.00010
63	유아평화교육	0.01408	0.00027
64	학교적응	0.04225	0.00228
65	집단놀이치료	0.00704	0.00000
66	입법	0.03521	0.00002
67	초등학생	0.03521	0.00436
68	유치원교육과정	0.00704	0.00000
69	유아교육제도	0.02817	0.00025
70	교사용지도서	0.02113	0.00008

	키워드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71	제3국출생	0.01408	0.00083
72	북한이해교육	0.00704	0.00000
73	의료보장	0.01408	0.00000
74	육아지원	0.02817	0.00200
75	북한교육제도	0.02113	0.01149
76	건강	0.02817	0.00347
77	양육	0.03521	0.00687
78	북한	0.02817	0.00010
79	mentalhealth	0.02113	0.00000
80	중국	0.02113	0.00000
81	미술치료	0.03521	0.00739
82	교사	0.03521	0.00313
83	개선방안	0.01408	0.00000
84	학교통일교육	0.01408	0.00000
85	북한교육정책	0.00704	0.00000
86	문제행동	0.03521	0.00284
87	정책	0.01408	0.00164
88	집단상담	0.04225	0.00012
89	새터민	0.03521	0.00065
90	영양	0.01408	0.00000
91	동질감	0.02817	0.00050
92	nutrition	0.02817	0.00003
93	북한유치원교육과정	0.01408	0.01149
94	양육행동	0.02817	0.00158
95	북한주민	0.02113	0.00158
96	nutritionalstatus	0.02113	0.00000
97	국제보호	0.00704	0.00000
98	기독교	0.00704	0.00000
99	유아영어교육	0.00704	0.00000
100	교육연구	0.00704	0.00000
101	교육통계	0.00704	0.00000
102	보건교육	0.00704	0.00000
103	유아교육기관경험	0.01408	0.00000
104	가정내놀이	0.01408	0.00000
105	보건의료	0.00704	0.00000
106	북한어버이	0.00000	0.00000

	키워드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107	지원방안	0.00704	0.00000
108	북한아동권리보장	0.00000	0.00000
109	북한유아교육제도	0.00000	0.00000
110	bibliotherapy	0.01408	0.00000
111	여성가족통계	0.01408	0.00000
112	네트워크분석	0.01408	0.00000
113	영유아지원	0.01408	0.00000
114	childrearing	0.01408	0.00000
115	교육보육제도	0.01408	0.00000
116	북한의료제도	0.01408	0.00000
117	아동교육정책	0.00000	0.00000
118	북한유치원	0.01408	0.00000
119	심리적양육환경	0.01408	0.00000
120	아동학대	0.01408	0.00000
121	친사회적행동	0.01408	0.00000
122	도래유능성	0.02113	0.00000
123	humanitarianaid	0.01408	0.00000
124	poorchildren	0.01408	0.00000
125	통일교육시범학교	0.01408	0.00000
126	통일의식조사	0.01408	0.00000
127	유아반응	0.00704	0.00000
128	서지정보구축	0.00704	0.00000
129	모래놀이치료	0.00704	0.00000
130	value	0.02113	0.00000
131	제7차로동당대회	0.00704	0.00000
132	일과운영	0.00704	0.00000
133	12년제 의무교육	0.00704	0.00000
134	youngchildren	0.02113	0.00000
135	digitaldivide	0.02113	0.00000
136	북한가정생활문화	0.01408	0.00000
137	adolescent	0.02113	0.00000
138	earlylife	0.02113	0.00000
139	growthretardation	0.02113	0.00000
140	refugee	0.02113	0.00000
141	status	0.02113	0.00000
142	women	0.02113	0.00000
143	ipa	0.00000	0.00000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